

文學博士 學位論文

『人子須知』 龍·穴·砂·水の  
適用에 관한 研究

慶州大學校 一般大學院

文化財學科

김 석 희

2023年 02月

『人子須知』 龍·穴·砂·水の  
適用에 관한 研究

指導教授 도진영, 박상구

이 論文을 博士學位 論文으로 提出함

2023年 02月

경주대학교 대학원

문화재학과

김 석 희

# 김석희의 博士學位論文을 認准함

審査委員長 印

審査委員 印

審査委員 印

審査委員 印

審査委員 印

慶州大學校 大學院

2023年 02月

# 목 차

I. 서론 .....	1
1. 연구 배경 및 목적 .....	1
1). 연구의 배경 .....	1
2). 연구의 목적 .....	4
2. 연구 범위와 방법 .....	5
1). 연구의 범위 .....	5
2). 연구의 방법 .....	6
3. 선행연구 검토 .....	7
II. 『人子須知』의 龍·穴·砂·水 .....	11
1. 『인자수지(人子須知)』 개요 .....	11
1). 저자 및 저작시기 .....	11
2). 구성과 내용 .....	12
3). 조선시대 『인자수지(人子須知)』의 유입 .....	13
2. 용(龍)에 대한 내용 .....	14
3. 혈(穴)에 대한 내용 .....	27
4. 사(砂)에 대한 내용 .....	36
5. 수(水)에 대한 내용 .....	40
III. 朝鮮時代 科試科目과 『人子須知』의 龍·穴·砂·水 비교 .....	45
1. 조선시대 음양과(陰陽科) 지리학(地理學) 과시과목 .....	45
1) 과시과목의 개요 .....	45
2) 과시과목의 구성과 특징 .....	45
2. 科試科目과 『人子須知』의 龍·穴·砂·水 비교 .....	57
1) 용(龍)에서의 비교 .....	57
2) 혈(穴)에서의 비교 .....	58
3) 사(砂)에서의 비교 .....	62
4) 수(水)에서의 비교 .....	64
3. 부합지표(符合指標) 도출 .....	66

1) 부합지표 표기방식과 부합률 .....	66
2) 부합지표 세부항목 .....	67
3) 부합지표 배점방법 .....	69
<b>IV. 朝鮮朝 『人子須知』 刊行承認 이전 사례지 분석 .....</b>	<b>73</b>
1. 사례지 개요 .....	73
2. 신성용(申成用) 묘에 대한 분석 .....	74
3. 박친(朴葢) 묘에 대한 분석 .....	95
4. 박인로(朴仁老) 묘에 대한 분석 .....	115
5. 서학(徐鶴) 묘에 대한 분석 .....	134
6. 신유(申瀏) 묘에 대한 분석 .....	155
7. 소결 .....	174
<b>V. 朝鮮朝 『人子須知』 刊行承認 이후 사례지 분석 .....</b>	<b>175</b>
1. 사례지 개요 .....	175
2. 서락순(徐洛淳) 묘에 대한 분석 .....	176
3. 이희발(李羲發) 묘에 대한 분석 .....	194
4. 유후조(柳厚祚) 묘에 대한 분석 .....	212
5. 유주목(柳疇睦) 묘에 대한 분석 .....	230
6. 노영수(盧永洙) 묘에 대한 분석 .....	247
7. 소결 .....	266
<b>VI. 결론 .....</b>	<b>268</b>
참고문헌 .....	271
국문초록 .....	274
Abstract .....	276

## 【표 목 록】

<표 1> 인자수지와 감룡경의 혈형 비교 .....	59
<표 2> 의룡경의 변성 .....	60
<표 3> 혈성(穴星) 비교 .....	61
<표 4> 부합도 표시 항목 .....	67
<표 5> 용의 부합지표 .....	67
<표 6> 혈의 부합지표 .....	67
<표 7> 사의 부합지표 .....	68
<표 8> 수의 부합지표 .....	69
<표 9> 인자수지 도입 전 묘소 조성시기 .....	73
<표 10> 신성용 묘 용의 부합도 .....	81
<표 11> 신성용 묘 혈의 부합도 .....	88
<표 12> 신성용 묘 사의 부합도 .....	92
<표 13> 신성용 묘 수의 부합도 .....	94
<표 14> 신성용 묘의 종합 부합도 .....	95
<표 15> 박천 묘 용의 부합도 .....	103
<표 16> 박천 묘 혈의 부합도 .....	108
<표 17> 박천 묘 사의 부합도 .....	112
<표 18> 박천 묘 수의 부합도 .....	114
<표 19> 박천 묘의 종합 부합도 .....	115
<표 20> 박인로 묘 용의 부합도 .....	122
<표 21> 박인로 묘 혈의 부합도 .....	127
<표 22> 박인로 묘 사의 부합도 .....	131
<표 23> 박인로 묘 수의 부합도 .....	133
<표 24> 박인로 묘의 종합 부합도 .....	134
<표 25> 서학 묘 용의 부합도 .....	141
<표 26> 서학 묘 혈의 부합도 .....	148
<표 27> 서학 묘 사의 부합도 .....	151
<표 28> 서학 묘 수의 부합도 .....	154

<표 29> 서학 묘의 종합 부합도 .....	154
<표 30> 신유 묘 용의 부합도 .....	162
<표 31> 신유 묘 혈의 부합도 .....	167
<표 32> 신유 묘 사의 부합도 .....	171
<표 33> 신유 묘 수의 부합도 .....	173
<표 34> 신유 묘의 종합 부합도 .....	173
<표 35> 인자수지 간행승인 이전 부합률(%) .....	174
<표 36> 인자수지 도입 후 묘소 조성시기 .....	175
<표 37> 서락순 묘 용의 부합도 .....	182
<표 38> 서락순 묘 혈의 부합도 .....	187
<표 39> 서락순 묘 사의 부합도 .....	191
<표 40> 서락순 묘 수의 부합도 .....	193
<표 41> 서락순 묘의 종합 부합도 .....	194
<표 42> 이희발 묘 용의 부합도 .....	200
<표 43> 이희발 묘 혈의 부합도 .....	205
<표 44> 이희발 묘 사의 부합도 .....	209
<표 45> 이희발 묘 수의 부합도 .....	211
<표 46> 이희발 묘의 종합 부합도 .....	212
<표 47> 유후조 묘 용의 부합도 .....	219
<표 48> 유후조 묘 혈의 부합도 .....	224
<표 49> 유후조 묘 사의 부합도 .....	227
<표 50> 유후조 묘 수의 부합도 .....	229
<표 51> 유후조 묘의 종합 부합도 .....	230
<표 52> 유주목 묘 용의 부합도 .....	236
<표 53> 유주목 묘 혈의 부합도 .....	241
<표 54> 유주목 묘 사의 부합도 .....	244
<표 55> 유주목 묘 수의 부합도 .....	246
<표 56> 유주목 묘의 종합 부합도 .....	247
<표 57> 노영수 묘 용의 부합도 .....	254
<표 58> 노영수 묘 혈의 부합도 .....	259
<표 59> 노영수 묘 사의 부합도 .....	262

<표 60> 노영수 묘 수의 부합도 .....	265
<표 61> 노영수 묘의 종합 부합도 .....	266
<표 62> 인자수지 간행승인 이후 부합률(%) .....	266

## 【그림 목록】

<그림 1> 태조소조산도(그림출처: 김동규 역, 인자수지 前, p. 312.) ...	16
<그림 2> 부모태식잉육도(그림출처: 김동규 역, 인자수지 前, p. 324.) ..	17
<그림 3> 입수길도(그림출처: 김동규 역, 인자수지 前, p. 331.) .....	17
<그림 4> 입수흥도(그림출처: 김동규 역, 인자수지 前, p. 332.) .....	17
<그림 5> 개장천심도(그림출처: 김동규 역, 인자수지 前, p. 350.) .....	18
<그림 6> 과협의 종류(그림출처: 김동규 역, 인자수지 前, pp. 365-368.) .....	20
<그림 7, 8> 지각요도길흥도(그림출처: 김동규 역, 인자수지 前, pp. 409-411.) .....	21
<그림 9> 용세 12격(그림출처: 김동규 역, 인자수지 前, pp. 553-577.)	26
<그림 10> 오성의 종류(그림출처: 김동규 역, 인자수지 前, pp. 628-630.) .....	26
<그림 11> 와형(窩形)의 종류(그림출처: 김동규 역, 인자수지 前, pp. 685-689.) .....	28
<그림 12> 곁형(鉗形)의 종류(그림출처: 김동규 역, 인자수지 前, pp. 715-718.) .....	28
<그림 13> 유형(乳形)의 종류(그림출처: 김동규 역, 인자수지 前, pp. 737-745.) .....	29
<그림 14> 돌형(突形)의 종류(그림출처: 김동규 역, 인자수지 前, pp. 767-770.) .....	29
<그림 15> 정체혈성(그림출처: 김동규 역, 인자수지 前, pp. 846-875.) ..	30
<그림 16> 조산증혈 예시(그림출처: 김동규 역, 인자수지 前, p. 902.) ..	31
<그림 17> 명당증혈(그림출처: 김동규 역, 인자수지 前, p. 906.) .....	32
<그림 18> 수세증혈(그림출처: 김동규 역, 인자수지 前, p. 909.) .....	32
<그림 19> 전호증혈(그림출처: 김동규 역, 인자수지 前, p. 922.) .....	34

<그림 20> 순전증혈(그림출처: 김동규 역, 인자수지 前, p. 924.)	34
<그림 21> 천심십도증혈 (그림출처: 김동규 역, 인자수지 前, p. 931.)	35
<그림 22> 분합증혈(그림출처: 김동규 역, 인자수지 前, p. 937.)	35
<그림 23> 용호의 종류(그림출처: 김동규 역, 인자수지 後, pp. 24-26.)	37
<그림 24> 조안산(그림출처:김동규 역, 인자수지 後, p. 521.)	37
<그림 25> 하수사의 형태(그림출처: 김동규 역, 인자수지 後, pp. 142-146.)	39
<그림 26> 관귀금요(그림출처: 김동규 역, 인자수지 後, p. 195.)	39
<그림 27> 도국과 출구(그림출처: 김동규 역, 인자수지 後, p. 476.)	41
<그림 28> 명당의 종류(그림출처: 김동규 역, 인자수지 後, pp. 596-602.)	42
<그림 29> 수성의 종류(그림출처: 김동규 역, 인자수지 後, pp. 625-635.)	42
<그림 30> 신성용 묘 전경(논자촬영)	74
<그림 31> 내룡맥(지도출처:新山徑表)	75
<그림 32> 태조산의 개장과 천심(지도출처:브이월드)	75
<그림 33> 소조산의 개장과 천심(지도출처:브이월드)	76
<그림 34> 지각요도 및 호송사(지도출처:브이월드)	78
<그림 35> 용의 방정 및 노눈(지도출처:브이월드)	78
<그림 36> 용의 분벽 및 면배(지도출처:브이월드)	79
<그림 37> 복룡도(그림출처:김동규 역, 인자수지, 前, p. 569.)	80
<그림 38> 불유희와 유희혈(그림출처:김동규역 인자수지 前, p. 737.)	82
<그림 39> 대유도(그림출처:김동규역 인자수지 前, p. 741.)	82
<그림 40> 장유도(그림출처:김동규역 인자수지 前, p. 741.)	82
<그림 41> 신성용 묘 혈형도(지도출처:브이월드)	83
<그림 42> 신성용 묘의 안대(논자 촬영)	84
<그림 43> 명당(지도출처:브이월드)	84
<그림 44> 수세도(지도출처:브이월드)	85
<그림 45> 용호도(지도출처:브이월드)	86
<그림 46> 신성용 묘 전순의 전(논자 촬영)	86
<그림 47> 대팔자 분합(지도출처:브이월드)	87

<그림 48> 청룡과 백호 .....	88
<그림 49> 신성용 묘 조안산(논자 촬영) .....	89
<그림 50> 하수사(지도출처:브이월드) .....	90
<그림 51> 관성과 금성(논자촬영) .....	91
<그림 52> 소조산의 발원수(지도출처:브이월드) .....	92
<그림 53> 수의 도국과 출구(지도출처:브이월드) .....	93
<그림 54> 수성(지도출처:브이월드) .....	94
<그림 55> 박천 묘 전경(논자 촬영) .....	95
<그림 56> 내룡맥(지도출처:신산경표) .....	96
<그림 57> 태조산(지도출처:브이월드) .....	97
<그림 58> 소조산(지도출처:브이월드) .....	98
<그림 59> 소조산에서 잉까지의 입수(지도출처:브이월드) .....	98
<그림 60> 지각요도(지도출처:브이월드) .....	100
<그림 61> 정룡과 방룡(지도출처:브이월드) .....	100
<그림 62> 생룡도(그림출처:김동규역 인자수지 前, p. 553.) .....	102
<그림 63> 불유회혈 및 유회혈(그림출처:김동규역 인자수지 前, p. 737.) · .....	104
<그림 64> 대유(그림출처:김동규역 인자수지 前, p. 741.) .....	104
<그림 65> 장유(그림출처:김동규역 인자수지 前, p. 741.) .....	104
<그림 66> 안산(논자 촬영) .....	105
<그림 67> 명당(지도출처:브이월드) .....	105
<그림 68> 수세도(지도출처:브이월드) .....	106
<그림 69> 용호도(지도출처:브이월드) .....	107
<그림 70> 순전의 전(논자 촬영) .....	107
<그림 71> 청룡과 백호(논자 촬영) .....	109
<그림 72> 조안산(논자 촬영) .....	110
<그림 73> 하수사(지도출처:브이월드) .....	111
<그림 74> 발원수(지도출처:브이월드) .....	113
<그림 75> 수의 도국과 출구(지도출처:브이월드) .....	113
<그림 76> 박인로 묘소 전경(논자 촬영) .....	116
<그림 77> 내룡맥(지도출처:신산경표) .....	117

<그림 78> 태조산(지도출처:브이월드) .....	117
<그림 79> 소조산(지도출처:브이월드) .....	118
<그림 80> 지각요도(지도출처:브이월드) .....	119
<그림 81> 정룡과 방룡(지도출처:브이월드) .....	120
<그림 82> 배면(지도출처:브이월드) .....	120
<그림 83> 부모산의 혈성(논자 촬영) .....	123
<그림 84> 안산(논자 촬영) .....	124
<그림 85> 명당(지도출처:브이월드) .....	124
<그림 86> 수세도(지도출처:브이월드) .....	125
<그림 87> 용호도(지도출처:브이월드) .....	126
<그림 88> 순전의 전(논자 촬영) .....	127
<그림 89> 청룡과 백호(논자 촬영) .....	128
<그림 90> 조안(논자 촬영) .....	129
<그림 91> 하수사(지도출처:브이월드) .....	130
<그림 92> 부모산의 발원수(지도출처:브이월드) .....	131
<그림 93> 수의 도국과 출구(지도출처:브이월드) .....	132
<그림 94> 서학 묘소 전경(논자 촬영) .....	134
<그림 95> 내룡맥(지도출처:신산경표) .....	135
<그림 96> 태조산의 개장, 천심, 과협(지도출처:브이월드) .....	136
<그림 97> 소조산의 개장과 천심(지도출처:브이월드) .....	136
<그림 98> 소조산에서 잉까지의 입수(지도출처:브이월드) .....	137
<그림 99> 지각요도 및 호송(지도출처:브이월드) .....	138
<그림 100> 정룡과 방룡(지도출처:브이월드) .....	139
<그림 101> 불유회와 유회혈(그림출처:김동규역 인자수지 前, p. 737.)	142
<그림 102> 단유도(그림출처:김동규역 인자수지 前, p. 741.) .....	142
<그림 103> 소유도(그림출처:김동규역 인자수지 前, p. 743.) .....	142
<그림 104> 부모와 태(논자 촬영) .....	143
<그림 105> 안산(논자 촬영) .....	144
<그림 106> 명당(지도출처:브이월드) .....	144
<그림 107> 수세도(지도출처:브이월드) .....	145
<그림 108> 용호도(지도출처:브이월드) .....	146

<그림 109> 전순의 순(논자 촬영) .....	147
<그림 110> 청룡과 백호(논자 촬영) .....	149
<그림 111> 안산(논자 촬영) .....	149
<그림 112> 하수사(지도출처:브이월드) .....	150
<그림 113> 소조산의 발원수(지도출처:브이월드) .....	152
<그림 114> 수의 도국과 출구(지도출처:브이월드) .....	152
<그림 115> 신유묘소 전경(논자 촬영) .....	155
<그림 116> 내룡맥(지도출처:신산경표) .....	156
<그림 117> 태조산(지도출처:브이월드) .....	157
<그림 118> 소조산(지도출처:브이월드) .....	157
<그림 119> 지각요도(지도출처:브이월드) .....	159
<그림 120> 정룡과 방룡(지도출처:브이월드) .....	159
<그림 121> 분벽 및 배면(지도출처:브이월드) .....	160
<그림 122> 순룡(그림출처:김동규역 인자수지 前, p. 561.) .....	161
<그림 123> 순룡(지도출처:브이월드) .....	161
<그림 124> 부모산의 혈성(논자 촬영) .....	163
<그림 125> 안산(논자 촬영) .....	164
<그림 126> 명당(지도출처:브이월드) .....	164
<그림 127> 수세도(지도출처:브이월드) .....	165
<그림 128> 용호도(지도출처:브이월드) .....	166
<그림 129> 순진의 순(논자 촬영) .....	166
<그림 130> 분합도(지도출처:브이월드) .....	167
<그림 131> 청룡과 백호(논자 촬영) .....	168
<그림 132> 조안(논자 촬영) .....	169
<그림 133> 하수사(지도출처:브이월드) .....	170
<그림 134> 발원수(지도출처:브이월드) .....	171
<그림 135> 묘소 전경(논자 촬영) .....	176
<그림 136> 내룡맥(지도출처:신산경표) .....	177
<그림 137> 태조산(지도출처:브이월드) .....	177
<그림 138> 소조산(지도출처:브이월드) .....	178
<그림 139> 지각요도(지도출처:브이월드) .....	179

<그림 140> 정릉과 방릉(지도출처:브이월드) .....	180
<그림 141> 분벽 및 배면(지도출처:브이월드) .....	181
<그림 142> 부모산의 혈성(논자 촬영) .....	183
<그림 143> 조안(논자 촬영) .....	184
<그림 144> 명당(지도출처:브이월드) .....	185
<그림 145> 수세도(지도출처:브이월드) .....	185
<그림 146> 용호도(지도출처:브이월드) .....	186
<그림 147> 순전의 순(논자 촬영) .....	187
<그림 148> 청릉과 백호(논자 촬영) .....	188
<그림 149> 조안산(논자 촬영) .....	189
<그림 150> 관성(논자 촬영) .....	190
<그림 151> 발원수(지도출처:브이월드) .....	191
<그림 152> 수의 도국과 출구(지도출처:브이월드) .....	192
<그림 153> 묘소전경(논자 촬영) .....	194
<그림 154> 내룡맥(지도출처 : 신산경표) .....	195
<그림 155> 태조산(지도출처:브이월드) .....	196
<그림 156> 소조산(지도출처:브이월드) .....	196
<그림 157> 지각요도 및 송사(지도출처:브이월드) .....	198
<그림 158> 정릉과 방릉(지도출처:브이월드) .....	198
<그림 159> 분벽 및 배면(지도출처:브이월드) .....	199
<그림 160> 부모산의 혈성(논자 촬영) .....	202
<그림 161> 안산(논자 촬영) .....	202
<그림 162> 명당(지도출처:브이월드) .....	203
<그림 163> 수세도(지도출처:브이월드) .....	203
<그림 164> 용호도(지도출처:브이월드) .....	204
<그림 165> 순전의 전(논자 촬영) .....	204
<그림 166> 청릉과 백호(논자 촬영) .....	206
<그림 167> 조안산(논자 촬영) .....	207
<그림 168> 나성원국(지도출처:브이월드) .....	207
<그림 169> 관성(논자 촬영) .....	208
<그림 170> 발원수(지도출처:브이월드) .....	209

<그림 171> 도국과 출구(지도출처:브이월드) .....	210
<그림 172> 유후조 묘소 전경(논자 촬영) .....	212
<그림 173> 내룡맥(지도출처:신산경표) .....	213
<그림 174> 태조산(지도출처:브이월드) .....	214
<그림 175> 소조산(지도출처:브이월드) .....	214
<그림 176> 지각요도 및 호송(지도출처:브이월드) .....	216
<그림 177> 분벽 및 면배(지도출처:브이월드) .....	217
<그림 178> 순룡(지도출처:브이월드, 그림출처:김동규역, 인자수지 前, p. 561.) .....	218
<그림 179> 부모산(논자 촬영) .....	220
<그림 180> 조안산(논자 촬영) .....	220
<그림 181> 명당(지도출처:브이월드) .....	221
<그림 182> 수세도(지도출처:브이월드) .....	222
<그림 183> 용호도(지도출처:브이월드) .....	222
<그림 184> 순전의 순(논자 촬영) .....	223
<그림 185> 청룡과 백호(논자 촬영) .....	224
<그림 186> 조안산(논자 촬영) .....	225
<그림 187> 관성(논자 촬영) .....	226
<그림 188> 발원수(지도출처:브이월드) .....	228
<그림 189> 평탄명당(지도출처:브이월드) .....	228
<그림 190> 유주목 묘소 전경(논자 촬영) .....	230
<그림 191> 태조산(지도출처:브이월드) .....	232
<그림 192> 소조산(지도출처:브이월드) .....	232
<그림 193> 지각요도 및 호송(지도출처:브이월드) .....	233
<그림 194> 분벽 및 배면(지도출처:브이월드) .....	234
<그림 195> 강룡(지도출처:브이월드, 그림출처:김동규역 인자수지, 前, p. 557.) .....	235
<그림 196> 부모산의 혈성(논자 촬영) .....	237
<그림 197> 조안산(지도출처:브이월드) .....	238
<그림 198> 명당(지도출처:브이월드) .....	238
<그림 199> 수세도(지도출처:브이월드) .....	239
<그림 200> 용호도(지도출처:브이월드) .....	239

<그림 201> 순전의 순(논자 촬영) .....	240
<그림 202> 청룡과 백호(논자 촬영) .....	241
<그림 203> 조안산(지도출처:브이월드) .....	242
<그림 204> 금성(논자 촬영) .....	243
<그림 205> 발원수(지도출처:브이월드) .....	245
<그림 206> 평탄명당(지도출처:브이월드) .....	245
<그림 207> 노영수·소산옥 묘 전경(논자 촬영) .....	248
<그림 208> 내룡맥(지도출처:신산경표) .....	248
<그림 209> 태조산(지도출처:브이월드) .....	249
<그림 210> 소조산(지도출처:브이월드) .....	249
<그림 211> 지각요도 및 송사(지도출처:브이월드) .....	251
<그림 212> 정룡과 방룡(지도출처:브이월드) .....	251
<그림 213> 분벽 및 배면(지도출처:브이월드) .....	252
<그림 214> 강룡(지도출처:브이월드, 그림출처:김동규역 인자수지, 前, p. 557.) .....	254
<그림 215> 부모산의 혈성(논자 촬영) .....	255
<그림 216> 조안산(논자 촬영) .....	256
<그림 217> 명당(지도출처:브이월드) .....	257
<그림 218> 수세도(지도출처:브이월드) .....	257
<그림 219> 용호도(지도출처:브이월드) .....	258
<그림 220> 순전의 전(논자 촬영) .....	258
<그림 221> 청룡과 백호(논자 촬영) .....	260
<그림 222> 조안(논자 촬영) .....	261
<그림 223> 관성(논자촬영) .....	262
<그림 224> 발원수(지도출처:브이월드) .....	263
<그림 225> 도국과 출구(지도출처:브이월드) .....	264
<그림 226> 주밀명당(지도출처:브이월드, 그림출처:김동규역 인자수지, 後, p. 588.) .....	264

# I. 서 론

## 1. 연구 배경 및 목적

### 1) 연구의 배경

‘풍수지리(風水地理)’는 한국에서 학술명(學術名)으로 쓰고 있다. 그 분류는 사회과학-지리학-인문지리학-풍수지리이다. 범사회적으로 쓰이는 용어는 대체로 ‘풍수’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풍수지리의 행술(行術)을 하는 이들을 지칭하는 용어는 지관(地官), 지사(地師), 풍수사(風水師) 등이 쓰이고 있다. 풍수라는 용어가 최초로 등장한 문헌은 풍수지리 중국 한대(漢代)의 『청오경(靑鳥經)』이다. 중국 진대(晉代)의 『금낭경(錦囊經)』에도 풍수와 관련된 구절이 있다. 『靑鳥經』에는 ‘풍수자성(風水自成)’이 있고, 『錦囊經』에는 ‘고위지풍수(故謂之風水), 득수위상(得水爲上), 장풍차지(藏風次之)’가 있는데, 이 『錦囊經』의 구절을 후대에 장풍득수(藏風得水)라 줄여서 사용했다. 『인자수지(人子須知)』에서는 풍수의 명의(名義)에 대해 “바람과 물은 생기의 오고, 멈추고, 모임을 살피는 잣대”<sup>1)</sup>가 되므로 ‘풍수’라고 한다고 하였다. 무라야마지준(村山智順)의 『조선의 풍수』<sup>2)</sup>에서는 ‘풍수’라는 명칭에 대해 곽박(郭璞)이나 『靑鳥經』 이전 시대부터 민중들의 상지관(相地觀)에서 비롯되었다고 보았다. 진한(晉漢)시대 이전부터 물과 바람에 의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 땅을 구하는 것이 중요해 일반 민중들이 상지(相地)하는 것을 일반적으로 풍수라고 생각했을 것으로 추정했다. 그러므로 『靑鳥經』이나 『錦囊經』에서의 풍수는 그 시대에 일반적으로 사용되었던 용어를 지칭한 것이라는 것이다. ‘풍수지리’는 ‘풍수(風水)’와 ‘지리(地理)’가 합해진 용어로 중국을 비롯해 동남아

1) 『重刊人子須知資孝地理心學統宗』, “所以察生氣之來與止聚云爾.”

2) 村山智順, 『조선의 풍수』, 민음사, 1990.

시아권에서는 ‘풍수’로 쓰고 있고, 서구권에도 대체로 ‘풍수’로 이해되고 있다. 풍수지리를 그대로 해석하자면 물·바람·땅의 이치를 밝히는 학술이라고 볼 수 있다.

‘풍수지리’라는 용어에서 ‘풍수’와 ‘지리’는 별개의 명칭이었다. 근대에 두계 이병도 선생이 그의 저서<sup>3)</sup>에서 ‘풍수지리’라는 용어를 처음 사용했고, 이후 한국에서의 풍수를 지칭하는 용어인 풍수와 지리가 결합된 풍수지리로 일반화되었다. 풍수지리에서 바람을 의미하는 풍(風)자가 가장 먼저이고, 다음이 물(水), 마지막에 용혈토석(龍穴土石)에 해당하는 지(地)를 배치해 풍수와 땅이 만나 이루어지는 상관성(相關性)을 분석하는 이치란 뜻에서 이(理)를 포함해 바람·물·땅의 삼자 간의 배합을 중요하게 보아 풍수지리가 되었다고 추정된다. 그러므로 풍수지리에서는 바람을 잘 다스리고 물을 얻어 땅의 역할을 극대화하고, 환경을 보존하여 이로운 방향으로 개선하고, 자연과 만물 그리고 인간에게 이롭게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본다.

풍수지리에서는 음양이론(陰陽理論)이 중요한 논리의 토대가 된다. 산자(生者)의 집을 양(陽)으로 보아 양택(陽宅)이라고 하며, 죽은 자(死者)의 집이 음(陰)이 되므로 음택(陰宅)이라 칭한다. 초기에는 양택 위주의 풍수지리가 성행되다가 점진적으로 죽은 자의 매장에 대한 의식이나 장례문화가 발전되어 감에 따라 음택에서도 풍수지리의 논리가 적용되기 시작한다. 고대에서 현대에 이르기까지 인간의 음양택(陰陽宅)에 대한 입지선정(立地選定)에 필요한 여러 가지 요소들이 변화 발전되는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생겨난 이론이 풍수지리(風水地理)인 것이다.

한국에서의 풍수지리는 삼국시대에 중국에서 전파되었다는 설이 일반적이다. 고려에서는 불교와 접목되면서 국가의 존망에도 영향을 미칠 만큼 성행하였다. 조선 시대에는 명당(明堂)을 차지하기 위한 산송(山訟)이 소송사<sup>4)</sup>의 많은 부분을 차지할 만큼 자리매김하였으며, 도성의 입지선정과

3) 이병도, 『고려시대의 연구』, 을유문화사, 1948.

4) 전경목, 「조선후기 산송 연구(18, 19세기 고문서를 중심으로)」, 전북대학교 박사논문, 1996.

공간구성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 현재 한국에서의 풍수지리 이론은 중국에서 유입된 문헌에서 대부분 비롯되었다고 알려져 있다. 한대(漢代)에 『청오경(靑鳥經)』과 동진(東晉)의 『금낭경(錦囊經)』을 토대로 하여 다수의 전적(前績)들이 저작되었고, 명대(明代)에 서선술(徐善述), 서선계(徐善繼)에 의해 『인자수지(人子須知)』에서 이론적인 집대성이 이루어졌다.

고려 시대에도 풍수 관련 과시제도가 있었으며 관련 서적들은 모두 실전(失傳)되어 어떠한 내용인지 알 수 없다. 조선 시대에는 음양과(陰陽科) 지리학(地理學) 과시과목으로 총 9권의 문헌이 사용되었다. 그 중 현재는 8권이 전해지고 있다. 9권 중 『地理門庭』을 제외한 『靑鳥經』·『錦囊經』·『胡舜申』·『明山論』·『洞林照膽』·『撼龍經』·『疑龍經』·『捉脈賦』는 현대에 와서도 연구와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청오경(靑鳥經)』은 청오자(靑鳥子)<sup>5)</sup>의 저술로 풍수지리의 시원(始原)에 해당하는 문헌이며 곽박(郭璞)의 『금낭경(錦囊經)』은 풍수지리 고전문헌의 진수로 인정받고 있다. 이 2권의 문헌은 조선 시대 과시과목에서도 조선 초기에서 말까지 한번도 빠지지 않고 배강(背講)과목<sup>6)</sup>으로 가장 중시하였다.

『인자수지(人子須知)』는 중국 명나라 시기인 1564년에 목판본으로 최초 발간되었고 1583년에 중간(重刊)되었다. 명대(明代)에 저술된 풍수문헌 중 유일하게 『古今圖書集成』과 『四庫全書』에 수록된 책이기도 하다. 조선에의 전파는 중국에서 발간된 지 100여 년 후, 영조 시기에 관상감의 주청에 의해 발간되었다. 이후 조선 시대 풍수지리학자들의 필독서가 되었다.

현대의 풍수지리 연구는 현장 위주의 건물이나 공간구조 그리고 입지에 관한 내용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학문의 근간에 해당하는 문헌(文獻)연구와 이론 정립 등의 토대가 부실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

5) 『靑鳥經』의 저자에 대한 고증이 이루어지지 않아 靑鳥子の 저술임은 추정이다.

6) 뒤돌아 앉아 과시서의 내용을 외우는 시험.

문헌과 연구이론들을 종합적으로 수용하여 비판과 현실적인 검증까지 거쳐 방대한 분량의 논리를 집대성한 『인자수지(人子須知)』의 용(龍)·혈(穴)·사(砂)·수(水)를 중심으로 하여 부합지표를 만들고, 이 부합지표를 이용하여 사례지를 분석하여 풍수관련 현장에서 적용이 가능한지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이 있어 시도한 것이다.

## 2) 연구의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중국 명대(明代)의 『인자수지(人子須知)』 용혈사수(龍穴砂水)의 사과(四科)의 이론을 풍수지리 관련 현장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이론 정립을 하여 부합지표를 만들고 사례지를 분석하는 것이다.

풍수지리에서 구분법은 이기풍수(理氣風水)와 형기풍수(形氣風水)가 있고, 대상에 따른 분류는 양택풍수(陽宅風水)와 음택풍수(陰宅風水)가 있다. 이기풍수는 방위(方位)와 음양오행(陰陽五行) 등 이론적인 부분에 중점을 두고, 형기풍수는 형태(形態)를 중시하고 택지(宅地)와 주변의 조화에 초점이 맞춰진다. 양택풍수는 작게는 주택에 적용되고 크게는 도읍지와 대소도시의 입지(立地)에 적용이 된다. 음택풍수는 인간 사후에 매장지, 납골당, 납골묘, 수목장 등의 선정에 활용된다. 양택의 입지선정은 주거의 편안함과 주거인의 재부(財富)·관귀(官鬼)·수복(壽福) 등의 현실적인 성취에 맞춰 자리를 잡는 것이 목적이다. 음택은 망인(亡人)의 편안함과 후손의 음덕(蔭德)에 영향을 미치므로 신중하게 선정하여야 한다. 이러한 입지 선정에 중요한 이론이 용법(龍法)과 혈법(穴法) 그리고 사법(砂法)과 수법(水法)이다. 여기에 활용되는 이론적인 바탕이 『인자수지(人子須知)』의 용혈사수론이다. 『인자수지(人子須知)』는 이전의 풍수문헌을 집대성하여 용혈사수(龍穴砂水)의 4과로 정리하였으며, 다수의 유명한 묘소를 검증하고, 그림을 첨부하여 풍수지리의 개론서에서 전문서까지의 내용도 아우르고 있다. 풍수 관련 문헌들의 중요한 이론들이 망라되어 있으므로 이론적인 토대를 세우는데 충분한 역량을 갖췄다고 판단되었다.

따라서 연구목적은 다음의 네가지이다.

첫째, 『인자수지(人子須知)』의 용혈사수(龍穴砂水)의 이론을 정립하고, 둘째, 정립된 이론을 바탕으로 부합지표(符合指標)를 개발하여, 셋째, 부합지표를 활용하여 사례지의 부합도(符合度)를 판단하는 것이다. 넷째, 최종적으로 택지(宅地)의 선정(選定)과 감정(鑑定)에 기여 하는 것이다.

## 2. 연구 범위와 방법

### 1) 연구의 범위

본 연구에서는 『인자수지(人子須知)』의 풍수지리 이론을 정립하고, 그 이론을 활용하여 사례지를 분석하며, 향 후 풍수지리에서 입지선정과 감정평가를 하는데 이론적인 토대를 제공하는 것이다. 이러한 연구에 필요한 범위를 다음과 같이 한정(限定)하였다.

첫째, 연구대상의 범위는 양택(陽宅)과 음택(陰宅) 중 음택(陰宅)으로 한정하였다. 음택(陰宅)으로 한정된 이유는 『인자수지』가 음택(陰宅)을 위주로 저술된 문헌이기 때문이다.

둘째, 이론적인 범위는 『인자수지(人子須知)』에 기재된 용혈사수(龍穴砂水)의 내용을 바탕으로 이론 정립을 하였으며, 조선 시대 풍수지리 과시서에 나타난 용혈사수(龍穴砂水)를 참고하였다.

셋째, 공간적인 범위는 경북지역에 소재하는 음택(陰宅)으로 한정하였다. 경북지역을 선정한 이유는 백두(白頭)대간과 낙동(洛東)정맥의 안쪽이며 보현(普賢)지맥, 팔공(八公)지맥, 비슬(毘瑟)지맥, 수도(修道)지맥 등 다수의 지맥이 존재하여 타 지역보다는 다양한 용맥들이 있어 연구에 다양성을 주기 때문이다.

넷째, 시간적인 범위는 『인자수지(人子須知)』의 조선 시대 간행승인 시기인 1742년을 기점으로 하여 승인 이전에 조성된 묘소 5개소와 승인 이후에 조성된 묘소 5개소를 선정하였다. 고려중기와 말기에 조성된 묘소 2개소와 조선 시대에 조성된 묘소 7개소 그리고 근대에 조성된 묘소 1개

소를 선정하였다.

## 2) 연구의 방법

본 연구를 위해 다음의 다섯 단계로 구성하였다.

첫째, 서론에서는 연구의 배경과 목적 그리고 범위와 방법을 제시하였고, 선행연구 검토를 통해 기존의 연구를 분석하고 본 연구와의 관련성과 차별점에 대해 논하였다.

둘째, II장에서는 『인자수지(人子須知)』의 내용을 바탕으로 이론을 정리하였고, 주요항목을 부합지표(符合指標)로 제시하여 음양택(陰陽宅)의 진가고저(眞假高低)를 판단할 수 있게 하였다. II장에서 사용된 그림은 김동규 번역의 『인자수지』 7)를 활용하였다. 이론정리를 위해 원문(原文)과 번역본을 참고하였다. 원문의 판본은 『重刊人子須知資孝地理心學統宗』 8)이다. 번역본으로는 『명당전서』 9)와 『인자수지』 10) 전후권을 참고하였다. 이 원문과 번역본을 활용하여 용혈사수(龍穴砂水)의 각 항목별로 고찰하여 내용을 정리하였다. 인용 구절에는 각주를 달아 표시했으며, 그 외는 논자의 설명과 주장이다.

셋째, III장에서는 조선 시대 풍수지리 과시서의 구성과 내용을 살펴보고, 『인자수지(人子須知)』의 용혈사수(龍穴砂水)와 관련된 내용을 검토하였다. 그리고 II, III장의 내용을 바탕으로 부합지표(符合指標)를 도출하였다.

넷째, IV장에서는 III장에서 도출된 주요항목 부합지표를 적용하여 『인자수지(人子須知)』가 간행승인 되기 이전에 조성된 사례지 다섯 곳을 선정하여 부합 정도를 분석하였다. IV장과 V장에서 사용된 그림은 김동규 번역 『인자수지(人子須知)』 11)에서 가져왔으며, 사진은 논자가 직접 촬

---

7) 서선술, 서선계 著, 김동규 譯, 『인자수지』, 명문당, 2008.

8) 고궁박물관, 남해, 2000.

9) 서선술, 서선계 著, 한송계 譯, 『명당전서』, 명문당, 1975.

10) 서선술, 서선계 著, 김동규 譯, 『인자수지』, 명문당, 2008.

11) 서선술, 서선계 著, 김동규 譯, 『인자수지』, 명문당, 2008.

영한 것을 사용하였다.

다섯째, V 장에서는 『인자수지(人子須知)』 간행승인 이후에 조성된 사례지 5개소를 선정하여 부합도를 분석하였다.

여섯째, VI 장 결론에서는 연구의 요약과 미비점 및 향후의 과제를 제시하였다.

기타 연구에 필요한 지도는 『신산경표(新山徑表)』<sup>12)</sup>, 카카오맵<sup>13)</sup>, 브이월드<sup>14)</sup> 등을 활용하였다.

### 3. 선행연구 검토

본 논문의 주제와 연관된 『인자수지(人子須知)』의 선행연구는 2개가 있다. 이형윤·성동환의 「풍수서 지리인자수지 산도의 지형표현 연구」<sup>15)</sup>와 김혜정의 「인자수지의 문헌적 연구」<sup>16)</sup>다. 기타 논문류에서는 간단하게 언급하는 정도에 불과하여 제외하였다. 『인자수지(人子須知)』의 이론적인 내용과 관련한 연구 논문은 발표되지 않아 성과가 없다.

이형윤·성동환의 논문에서는 『인자수지(人子須知)』에 삽입된 산도(山圖)에 대한 연구이다. 내용이나 이론 등의 연구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산도의 지형표현(地形表現)의 특징에 대해 다루었으며, 산도의 시점(視點)에 대해 밝히고, 축척(縮尺)과 혈처(穴處)를 중심으로 제작자의 의도에 따른 과장(誇張)과 생략(省略)에 의해 제작되었다고 보았다. 본 논문과는 관련성이 없는 내용이므로 비교가 불필요하다.

본격적인 『인자수지(人子須知)』에 대한 문헌 연구는 2019년에 발표된 김혜정의 논문에서 다루졌다. 그의 논문에서는 『인자수지(人子須知)』의 저자와 저술 동기, 판본과 단행본, 조선 시대의 『인자수지(人子須知)』

---

12) 박성태 著, 『신산경표』, 조선일보사, 2006.

13) <https://map.kakao.com>.

14) <https://map.vworld.kr/map>.

15) 이형윤, 성동환, 「풍수서 지리인자수지 산도의 지형표현 연구」, 한국지역지리학회, 2010.

16) 김혜정, 「인자수지의 문헌적 연구」, 동방문화와 사상, 2019.

간행, 내용과 특징, 삼대간룡구도(三大幹龍九圖)에 대해 구체적이고 실증적으로 분석하여 『인자수지(人子須知)』 문헌 연구에 지대한 성과를 거두었다고 본다. 김혜정은 그의 논문에서 『인자수지(人子須知)』가 중간된 이후 18여 종의 판본(板本)<sup>17)</sup>을 소개하였고, 한국의 여러 도서관과 개인이 소장하고 있는 목판본(木版本)과 석판본(石板本) 그리고 필사본(筆寫本)의 34개의 소장처(所藏處)<sup>18)</sup>를 밝히고 있다. 또한 중국의 판본과 조선시대의 판본을 비교하여 연구하였다. 이 연구의 내용 중 일부를 본 논문에 참조 인용하였다. 그러나 이론적인 부분이나 내용과 관련한 연구가 아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 처음으로 『인자수지(人子須知)』의 이론 고찰을 시도한 것이다.

『인자수지(人子須知)』는 풍수지리에서 중요한 문헌으로 인식되고 있으나 한국에서는 저평가 되고 있는 실정이다. 풍수지리 최초의 문헌으로 『청오경(靑鳥經)』을 꼽고 있으며 경전(經典)으로 중요시된다. 그러나 내용적인 측면으로 보면 논리가 단편적이고 모호한 설명이 주를 이루고 있어 풍수지리의 저본(底本)으로 삼기에는 무리가 있으며, 『청오경(靑鳥經)』을 계승한 『금낭경(錦囊經)』에서 어느 정도 체계를 정립했다고 보지만 풍수지리 형식논리(形式論理)에서 부족한 부분이 많으며 후대에서 첨삭(添削)이 이루어져 논리 전개가 매끄럽지 못하다. 반면에 『인자수지(人子須知)』는 비교적 근대인 명나라 시기에 저술되어 누락 없이 현재까지 전해지고 있다. 또한 기존의 풍수지리 문헌에서 전해지는 논리들을 용혈사수(龍穴砂水)의 사과(四科)로 체계를 정립하고 집대성하여 방대한 이론을 한 권으로 편집하고 정리하였다는 점에서 타 문헌과는 차별화 된다.

사례지를 분석하기 위한 부합지표의 개발과 관련된 연구는 4개이다. 박재락<sup>19)</sup>, 권창근<sup>20)</sup>, 송대선<sup>21)</sup>, 최기훈<sup>22)</sup>의 연구이다.

17) 김혜정, 위의 논문, p.55.

18) 김혜정, 위의 논문, pp.56~57.

19) 박재락, 「풍수지표를 적용한 정량화 도출에 관한 연구」, 동북아 문화연구 제42집, 2015, pp. 121-146.

20) 권창근, 「풍수지리에 기반한 영남 명문 생가입지의 분석 및 평가에 관한 연구」, 영남대학교 대학원 지역 및 복지행정학과, 박사논문, 2015.

박재락의 연구에서는 입지공간(立地空間)의 풍수지표(風水指標)를 제시한다. 분석항목을 산세(山勢), 지세(地勢), 혈장(穴場), 수세(水勢), 좌향(坐向), 비보(裨補)의 6개의 지표를 만들고, 각각의 항목에 계량화를 시도하였다. 산세의 지표에서는 내룡(來龍)맥의 역량을 판단하였고, 지세에서는 사신사(四神砂)의 형태와 서로의 유기적관계를 보았으며, 혈장은 입수맥과 지형 그리고 경제공간을 보았고, 수세에서는 득수(得水)와 지세(地勢)의 관계를 판단하였으며, 좌향에서는 중심공간과 지세의 관계를 밝혔고, 비보에서는 필요시설물을 대상으로 판단하였다. 이러한 풍수지표를 항목별로 표로 정리하여 계량화된 수치를 적용하여 판단하여 그 결과를 흉격, 하격, 중격, 상격의 4가지로 구분하여 정량화를 도출하였다. 논문의 결론에서 연구의 의의를 “경험과학적인 측면에서 벗어나 학문적으로 객관화 될 수 있는 기준을 제시”<sup>23)</sup>하였다고 자평하였다. 이 논문은 풍수지리적으로 대상지를 분석하는 풍수지표를 최초로 정량화시켰다는 점에서 성과를 보였다고 본다. 박재락의 논문에서 풍수지리 이론을 『금낭경(錦囊經)』·『탁옥부(琢玉斧)』·『산림경제(山林經濟)』 등 필요 부분에서 참조하여 지표개발을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인자수지(人子須知)』의 용혈사수(龍穴砂水)를 중심으로 부합지표를 개발하였기에 일관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권창근은 그의 논문<sup>24)</sup>에서 유명인의 생가터와 종택에 대해 분석지표를 개발하고 그 입지평가표를 적용해 입지를 풍수지리적으로 분석하였다. 지표개발에 쓰인 이론서가 고문헌부터 현대의 풍수서까지 13개의 문헌에서 이론을 도출하였으며, 도출한 지표를 전문가와 일반인을 대상으로 설문과 면담을 통해 객관화시키고자 하였다. 그러나 여러 이론서를 취합하는 과정에서 논리의 일관성이 부족하다고 생각된다. 또한 항목을 용, 혈, 사, 수, 향의 5가지로 분류하여 판단하였다. 세부항목에서는 주산(主山), 내룡

21) 송대선, 「풍수비보이론을 적용한 현대주거환경 계획지표 개발에 관한 연구」, 영남대학교 대학원, 박사논문, 2014.

22) 최기훈, 「풍수지리에서 혈의 결지에 관한 연구」(영남지역의 고려시대 시조묘를 중심으로), 영남대학교 환경설계학과 석사논문, 2019.

23) 박재락, 앞의 논문, 결론 부분에서 발췌.

24) 권창근, 앞의 논문.

맥(來龍脈), 좌우선법(左右旋法), 혈증(穴證), 사신사(四神砂), 수세(水勢) 등을 고려하여 평가 분석하였다. 이 논문은 양택을 대상으로 하여 평가지표를 만들었다.

송대선은 그의 논문<sup>25)</sup>에서 일반인 주택을 대상으로 비보이론(裨補理論)을 적용하여 주거환경 계획지표를 개발하는 것을 목적으로 연구하였다. 타 논문에 비해 주택을 대상으로 하였다는 점이 차별성이 있다. 그러나 양택삼요(陽宅三要)인 문주조(門主灶)와 본명궁(本命宮)을 활용하여 분석하는 것은 범위가 한정적인 곳에서만 활용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미비점이 있으며, 향후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는 계획지표가 필요하다고 본다. 이 논문 또한 양택을 대상으로 하였으므로 본 연구와는 대상이 다르고, 지표 개발에 있어서도 주택내부에 치중된 내용이 대부분으로 거시적인 관점에서 미비점이 나타난다. 본 연구의 용에서 출발하여 혈처에서 마무리되는 전반적인 분석법과는 차이점이 많이 나타나고 있다.

최기훈의 연구에서 평가 기준을 제시한다. 용맥의 평가 기준 10개 항목, 현무의 평가 기준 8개 항목, 청룡과 백호의 평가 기준 각 9개 항목, 조안산의 평가 기준 11개 항목, 물의 평가 기준 12개 항목, 혈장(穴場)의 평가 기준 22개 항목, 좌향(坐向)의 평가 기준 7개 항목으로 나누고 총 88개 항목의 기준을 제시하였다. 기준에 부합하는지 부합하지 않은지에 대한 평가를 하였다. 조선 시대 음양과 지리학 4대 과시과목인 『청오경(靑烏經)』·『금낭경(錦囊經)』·『호순신(胡舜申)』·『명산론(明山論)』의 내용을 평가 기준으로 삼아 작성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박재락의 지표 항목<sup>26)</sup>을 일부 참고하였으며, 최기훈의 평가 기준<sup>27)</sup>과 김석희의 평가지표<sup>28)</sup>를 보완 발전시켜 중요항목 부합지표를 만들었다.

---

25) 송대선, 앞의 논문.

26) 박재락, 앞의 논문 참조.

27) 최기훈, 앞의 논문 참조.

28) 김석희, 「광평군 이능묘의 풍수지리적 고찰」, 대한풍수 연구학회, 8집, 2022.

## II. 『人子須知』의 龍·穴·砂·水

### 1. 『인자수지(人子須知)』 개요

#### 1) 저자 및 저작시기

『인자수지(人子須知)』는 서선계(徐善繼)·서선술(徐善述)이 1564년(嘉靖甲子)에 중국에서 『인자수지자효지리심학통종(人子須知資孝地理心學統宗)』이란 책명으로 저술(著述)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1569년(隆慶己巳)에 재간(再刊)하였으며, 초판을 보강하여 1583년(萬曆癸未)에 『중간인자수지자효지리심학통종(重刊人子須知資孝地理心學統宗)』 간행되었다.<sup>29)</sup>이 내용은 서문(序文)에 년도 표기가 되어있으므로 저작 시기를 알 수 있다. 서선술(徐善述)의 자서(自序)에서 미비하므로 교정하여 1583년에 중간하였다고 밝히고 있다.

저자는 서선계(徐善繼)·서선술(徐善述)로 쌍둥이 형제이다. 이들이 어려서 부모를 여의고 장묘(葬墓)를 잘못된 것을 반성하며 스스로 공부하여 부모의 유해(遺骸)를 잘 모시는 것이 효도라고 생각하여 20세 이전부터 풍수지리를 시작하여 60세가 넘어서야 『인자수지(人子須知)』를 완성하여 출간하였다.

명나라 이전의 풍수 관련 전적(典籍)을 탐독하여 첨삭(添削)하고 요점만을 남겨 풍수지리의 4대 과목인 용혈사수(龍穴砂水)로 집대성하였다. 또한 중요 인용서적에 대해 책명과 저자 그리고 간단한 소개를 한 서적이 85권이다. 저자 미상의 책은 18권으로 중요 인용 서적만 103권에 이른다. 조선시대 풍수 과시서 중 『인자수지(人子須知)』에 인용된 문헌은 『靑鳥經』·『錦囊經』·『捉脈賦』·『撼龍經』·『疑龍經』·『洞林照膽』으로 9권 중 6권이 인용되었다. 책의 이름을 『인자수지(人子須知)』라 한 이유를 효를 받들어 지키는 이들은 부모를 모시는데 이 책의 내용을 따라 알아서 행하라는 뜻이다.

29) 故宮博物院編, 『重刊人子須知資孝地理心學統宗』, 南海, 2000.

## 2) 구성과 내용

『인자수지(人子須知)』의 구성은 팔괘(八卦)의 괘명(卦名)을 차용하여 8집에 39권으로 이루어졌다. 조선에는 중국에서 출간된지 100여년 후 전파되었고, 조선의 풍수지리학에서 중요한 서적으로 취급되었으며, 세분하여 49과 53권으로 재편하여 간행하였다.

『인자수지(人子須知)』의 내용을 살펴보면 기존의 풍수서의 내용을 근간으로 하여 용혈사수(龍穴砂水)의 4개 항목으로 분류하여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였으며, 항목별로 그림을 삽입하여 이해를 돕고 있다. 또한 유명인의 묘택(墓宅)을 실증하여 이론적으로 검증하였고 산도(山圖)를 소개하여 연구자들이 직접 가보지는 못할지라도 현장을 간접적으로 체험해보도록 해서 이해하기 쉽게 편집되었다.

용혈사수(龍穴砂水)의 4과목 중에서 용법(龍法)에서의 내용은 간룡(幹龍)과 지룡(枝龍)을 구분하였고, 대소에 따라 대간룡(大幹龍), 소간룡(小幹龍), 대지룡(大枝龍), 소지룡(小枝龍)으로 나누었다. 소지룡 이하는 분지룡(分枝龍)으로 구분하였다. 대소(大小)를 구분하는 방법으로 수원(水源)의 대소(大小)와 장단(長短)을 사용하였다. 또한 고저(高低)에 의한 분류로 고산지의 용은 룡룡(壟龍)으로 평지의 용은 지룡(支龍)으로 구분하였다. 그리고 태조산(太祖山)과 소조산(小祖山)의 역량과 역할에 대해 논하였으며, 용의 입수(入首)에서 용의 결국삼취(結局三聚)까지 거시에서 미시에 이르는 모든 용에 대해 정의(定義)와 귀천(貴賤) 그리고 길흉(吉凶) 관련 제반사항을 설명하였다. 더하여 오성(五星)의 형(形)과 명(名) 그리고 오성의 귀원(歸元)까지 세세하게 분석하였다.

혈법(穴法)에서는 혈의 사상(四象)과 변격(變格) 그리고 혈성(穴星)에 대해 논하였으며, 10가지의 증혈법(證穴法)을 설명하였다. 또한 혈의 변격에 해당하는 괴혈편(怪穴篇)을 두어 이해하기 쉽게 구성하였다.

사법(砂法)에서는 청룡(靑龍)과 백호(白虎) 그리고 안산(案山)과 조산(朝山)에 대해 다루었으며, 좌보우필(左輔右弼)과 하수사(下手砂), 수구사(水口砂)와 관귀금요(官鬼禽曜)에 대해 분석하고 설명하였다.

수법(水法)에서는 수의 발원(發源)과 도국(到局)에서 천론(泉論)에 이르

기까지 다양한 도식을 첨부하여 설명하였으며, 명당(明堂)의 길흉과 오성수(五星水)에 대해 다루었다.

### 3) 조선시대 『인자수지(人子須知)』의 유입

『인자수지(人子須知)』가 조선시대 어느 시기에 유입되었는지는 명확한 기록이 없다. 『인자수지(人子須知)』에 관련된 조선시대 왕실기록은 2개이다. 첫째는 숙종 13년 1687년 왕실의 능(陵)에 관한 기록인 『각릉수개등록(各陵修改騰錄)』 9월 기사<sup>30)</sup>에서 관상감의 천장(遷葬) 반대의 이유로 『인자수지(人子須知)』의 내용을 근거로 들었다. 두 번째는 『승정원일기(承政院日記)』 952책 영조 18년인 1742년 12월 18일 계묘 기사<sup>31)</sup>에 관상감(觀象監)의 주청(奏請)에 대한 내용이 있다. 주청의 내용은 지리학(地理學)은 국가의 일에 크게 연관되지만 관상감의 소장 문헌이 『靑鳥經』과 『葬書』 등만 있고 그 뜻이 간단하고 미묘해서 초학자가 이해하기 어려운데, 지리학 서적 중에 이해가 쉬운 것이 『人子須知』와 『琢玉斧』<sup>32)</sup>다. 이 책들은 산을 그림으로 나타내고 그 이치를 설명하여 누가 보더라도 혈(穴)을 찾을 수 있어 학자들이 반드시 읽어야 한다는 주청으로 영조가 간행을 허락하였다. 이 기록으로 보아 명나라에서 1583년 중단된 이후 조선에서는 1687년에 최초의 기록이 있는 것으로 볼 때, 1687년 이전에 이미 조선에 유입되어 학인들이 학습하였다고 추정된다. 조선시대 지리학 과시과목에서 『인자수지(人子須知)』가 사용되지 않은 점은 전과 시기가 다른 과시서에 비해 동시대에 해당하여 검증하기가 쉽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인자수지(人子須知)』는 명나라의 풍수저작 중 유일하게 『흙정고금도서집성(欽定古今圖書集成)』에 수록되었으며, 『琢玉斧』와 『地理五

30) 『각릉수개등록(各陵修改騰錄)』, 人子須知, 回祿水篇曰, 午丙水變朝者, 主火災, 單朝者, 不忌.

31) 『承政院日記』, 又以觀象監官員, 以領事·提調意啓曰, 地理之學, 最關於國家大事, 而本監所存方書, 只有靑鳥·錦囊等經, 各數十丈冊, 其言簡高, 其義微妙, 有非末學淺見所可曉解, 而地理方書之該備而易解者, 莫如人子須知·琢玉斧. 其爲書, 既圖其山形, 又論其山理, 雖使生眼見之, 亦可以按圖尋穴, 此學者之所不可不讀者也.

32) 명대(明代) 장구의 편저로 『인자수지』보다는 후대의 저술, 『인자수지』와 비슷한 구성으로 형기를 위주로 한 서적, 조선시대 취재지리서로 영조대에 사용되었다.

訣』의 저술 토대가 되었다. 원본 내용의 누락이나 가탁(假託)없이 다수의 판본 50여 종이 보존되어 있어 연구자료의 가치가 높다. 또한 다양한 삽도(插圖)와 산도(山圖)를 첨부하고 해설과 판단근거를 제시하였다. 기존의 풍수 용어의 정의와 개념을 설명하여 현대의 풍수지리 이론체계의 바탕이 되었으며, 구성론(九星論)을 비판하고 오성론(五星論)을 채택하였다. 오류가 있는 풍수 이론을 바로잡아 명확하게 정립하였다. 이론적인 부분에서도 형세론(形勢論)을 위주로 하여 방위론(方位論)과 이기론(理氣論)도 첨부하였고, 향법론(向法論)을 제시하여 후대의 용·혈·사·수·향의 5대 항목으로 정립되는 바탕이 되었다. 또한 풍수문헌 중 유일하게 괴혈편(怪穴篇)을 두어 이형(異形)과 변형(變形)의 근거를 제시하고 상세하게 설명하여 이형괴혈(異形怪穴)에 대한 이론적인 토대를 제시하였다.

## 2. 용(龍)에 대한 내용

### 1) 용(龍)의 개요

용(龍)은 풍수지리 형식논리(形式論理)인 용혈사수(龍穴砂水) 중 근본인 뿌리에 해당하여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용에 의지해서 혈이 형성되므로 용의 길격(吉格)이나 흉격(凶格)에 의하여 혈의 대소(大小)와 귀천(貴賤)이 결정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인자수지(人子須知)』 용법의 구성은 2집으로 건집과 감집이다. 건집은 6권, 감집은 5권으로 총 11권이다. 4권에서 11권까지가 용에 대한 구체적인 이론정리와 해석에 해당하여 본 연구에서 이론연구와 중요항목 부합지표 작성에 필요한 부분이다. 4권에서 11권까지 총 44항목이다. 이 중 중요하게 살펴야 할 항목은 18항목이다. 이 18항목에 대한 부합지표의 내용을 도출하여 정리하였다.

### 2) 용(龍)의 구분(區分)

용(龍)은 간룡(幹龍)과 지룡(枝龍)으로 나뉜다. 다시 간룡(幹龍)은 대간(大幹)룡과 소간(小幹)룡으로 구분하고, 지룡(枝龍)은 대지(大枝)룡과 소지

(小枝)룡으로 구분한다. 대간룡, 소간룡, 대지룡, 소지룡의 구분 외에 룡룡(龍龍)과 지룡(支龍)의 구분이 있다. 간룡과 지룡은 규모와 세력 그리고 형상에 의한 구분이고, 룡룡과 지룡은 산지와 평지의 구분을 나타낸다.

대간룡이 혈을 만드는 정황으로는 양택(陽宅)에서는 대도시를 형성하고, 음택(陰宅)에서는 군왕지(君王地)와 같은 대혈(大穴)을 만든다고 밝히고 있다. 소간룡은 양택은 군읍을 만들고, 음택에서는 왕후지(王侯地)를 만든다고 하였다.

소간룡(小幹龍)은 양택에서는 군읍을 만들고, 음택에서는 주로 왕후장상지를 결작한다고 하였다. 대간룡은 수천리에서 수백리를 뻗어나가고 소간룡은 이삼백리나 7~80리 정도의 길이이다.

대지룡(大枝龍)은 지중에서 줄기에 해당한다. 간룡은 대조대종(太祖大宗)이고, 지룡은 소조소종(小祖小宗)이라 하였다. 그래서 대지룡의 조산은 멀고 높은 산이 아닌 소간룡의 주필(駐蹕)에 해당하는 정도의 산이 조종이 된다. 대간룡이나 소간룡에서 맺는 혈보다는 작지만 중하지(中下地) 이상의 음택지가 된다는 것이다.

소지룡(小枝龍)은 지중의 지가 되므로 대룡이 행룡하다 한쪽 변으로 나누어 떨어져 성신(星身)을 일으키고 행룡함이 3~5리에서 십수절(十數節)이 된다.

대간룡, 소간룡, 대지룡, 소지룡 외에도 방지(傍枝)가 있다. 소지중에서도 더욱 작은 것을 방지라 한다. 5~6절이나 3~4절에서 결작하는 것으로 작은 혈형(穴形)을 이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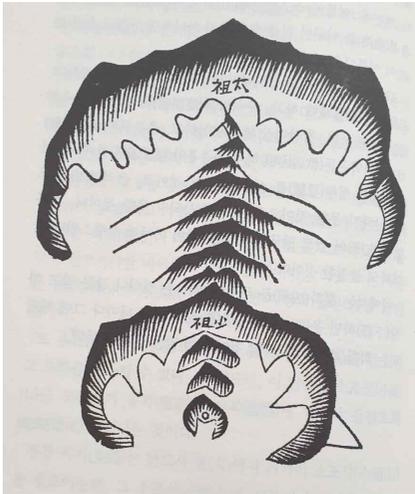
• 부합지표 내용: 대간룡·소간룡·대지룡·소지룡·방지룡 중에서 결혈하였다.

### 3) 태조산(太祖山)과 소조산(小祖山)

『인자수지(人子須知)』에서는 “용을 찾는 법을 조(祖)와 종(宗)을 먼저 연구한 후 용의 원근(遠近), 장단(長短)과 기(氣)의 경중(輕重), 후박(厚薄) 그리고 역량의 대소(大小), 복택(福澤)의 길흉(吉凶)을 알 수 있다.”<sup>33)</sup> 라

33) 『重刊人子須知資孝地理心學統宗』, “是故尋龍之法, 必先究祖宗. 知其祖宗, 則龍之遠近長短, 氣之輕重厚薄, 力量大小, 福澤久暫.”

고 하여 조(祖)와 종(宗)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그리고 태조산의 개념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태조산은 필히 높고 멀고 특이하여 주(州)를 넘어 군(郡)에 연결되고 수백리를 나가 크게는 명산오악(名山五岳)이 되고 작게는 크고 높아 주군에서 제일가는 산이 되며 작아도 그 지역에서 으뜸이 되는 산을 태조산이라 한다.”<sup>34)</sup> <그림 1>은 태조산에서 출발한 용이 소조산을 일으키고 수절(數節)내에서 결혈한 모습을 나타낸 것으로 길격(吉格)의 결혈도(結穴圖)가 되었다.



<그림 1> 태조소조산도(그림 출처: 김동규 역, 인자수지 前, p. 312.)

소조산은 태조에서 멀지 않은 그 다음 조종이 되는 산이다. 다음은 소조산의 개념이다. “주산의 용의 가는 길이 길고 조산을 나온지가 멀어 나누어진 지파(枝派)가 수없이 많고 그 지맥에서 결혈(結穴) 할 곳에 이르면 크고 높은 산봉우리를 만들고 수절안에서 혈장을 열고 결혈이 되면, 그 높고 큰 산을 소조산이라 한다.”<sup>35)</sup> 소조산이 되기 위해서는 주성봉(主星峯)을 만들고 그 후 수절 내에서 혈을 결지해야 된다. 또한 좋은 곳은 반드시 혈에서 가까이 소조산이 있어야 하고, 그 소조산은 기이특달수려광채(奇異特達秀麗光彩)하고, 개장(開帳)하고 화개(華蓋)나 보개(寶蓋)를 만들기도 하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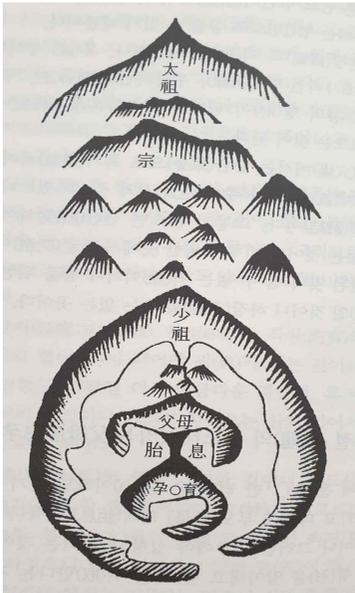
오성(五星)의 성신(星辰)에 부합하면 반드시 좋은 자리를 만드는 것이다.

• 부합지표 내용: 태조산-높고 크고 멀고 특이하며, 주변에서 으뜸가는 산이다. 소조산-혈에서 가까우며 제반 귀격과 용격에 합당하다.

#### 4) 부모태식잉육(父母胎息孕育)

34) 『重刊人子須知資孝地理心學統宗』, “然此太祖山, 必須高大迥異, 或跨州連郡, 延袤數百里, 大者如名山五岳, 小者亦必高大冠於一州一郡, 又小者, 亦須冠於一邑一方, 乃可謂之太祖山.”

35) 『重刊人子須知資孝地理心學統宗』, “龍行既長, 離祖已遠, 各分枝派. 將結穴處, 忽起高大山巒, 不過數節, 卽結穴場. 其高大山巒, 謂之少祖山也.”



<그림 2> 부모태식잉육도  
(그림출처: 김동규 역, 인자수지 前, p. 324.)

혈(穴)의 형성과정은 태조산에서 중조산을 거쳐 소조산을 일으키고 그 후에 수절 내에서 부모산을 만든 다음 태(胎)를 내고 식(息)을 지나 잉(孕)을 만들고 육(育)의 과정으로 마무리된다. 여기에서 혈은 육이 된다. 혈의 형성과정 중 중조산은 종산(宗山)이나 조종산(祖宗山)으로도 표현된다. 그리고 부모산은 현무산(玄武山)으로 표현하기도 한다. 용이 없으면 혈도 있을 수 없어서 용은 혈의 근본이 되므로 인간의 부모와 조상으로 표현한 것이다. 부모태식잉육(父母胎息孕育)은 부모가 자식을 잉태하여 태식(胎息)으로 뱃속에서 키워서 출산 후 기르게 되는 상황을 나타낸 것으로 육(育)의 과정으로 마무리를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부모산이 유정해야 하며 혈처로 연결되는 태식잉(胎息孕)의 과정이 순조로워야 한다. 태(胎)의 과정은 부모산에서

중출(中出)로 떨어져 식(食)의 과정에서 결인숙기(結咽束氣)가 좋아야 하며 그 후 잉(孕)이 바르게 형성되어야 좋은 혈을 만들게 된다.

• 부합지표: 모든 길격에 맞으며 속기가 잘되고 호위가 주밀하다.

## 5) 용의 입수(入首)

『인자수지』에서는 용의 입수를 혈(穴) 뒤로 일절(一節)을 말한다. 이 입수에 대해서는 연구자들에 따라 여러 가지 설이 있으나 본 논문에서는 『인자수지』의 논리를 따르므로 혈 뒤의 일절을 입수라고 본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천리의 내용을 논하지 말고 도두용결(到頭融結)된 곳을 중요시해야 한다. 용의 미악(美惡)과 모든 용의 격을 보는 것은 단지 입수(入首)에서 혈 후의 2~3절을 지나서 4~5절 이내의 소조산까지가 가장 중요하다.”<sup>36)</sup>라고 한다. 이는 용을 살피는 데는 소조산에서 입수까지를 중요



<그림 3> 입수길도(그림출처: 김동규 역, 인자수지前, p. 331.)



<그림 4> 입수흉도(그림출처: 김동규 역, 인자수지前, p. 33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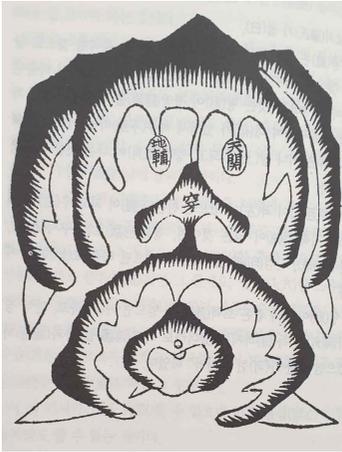
하게 보므로 세심하게 관찰하여 혈의 대소귀천(大小貴賤)을 판단하라는 내용인 것이다.

• 부합지표: 혈 뒤의 1~5절 이내가 길격에 해당한다.

## 6) 용의 개장(開帳)

개장(開帳)이란 풍수지리에서 매우 중요한 요소로 용의 행도는 대계 음(陰)으로 진행하여 양(陽)으로 넓어짐으로서 자리를 만드는 것이다. 행룡의 방법은 조종산을 떠난 용이 소조산을 일으키는데 이 소조산이 혈자리의 근본적인 뿌리가 되므로 소조산에서 개장하고 정천심(正穿心)하여 그 정신을 혈에 전달하는 것이다. 개장은 천심과 한 몸과 같이 보아야 한다. 개장하고 천심이 좋지 않으면 부귀혈을 만들지 못한다. 그러므로 개장과 천심을 동시에 보아야 실수가 없는 것이다. 용이 봉우리를 일으키고 날개를 펼치듯 개장하여 그 중심위치에서 떨어져 부모산으로 진행하는 것을 개장천심(開帳穿心)이라 하며 이를 천심중에서도 정천심이라 하여 가장 길하게 보는 것이다. 개장한 이후에 중심이 아닌 좌측이나 우측에서 천심하는 것을 편출맥(偏出脈)으로 좌천심과 우천심으로 본다.

36) 『重刊人子須知資孝地理心學統宗』, “末論千里來龍, 且看到頭融結. 故凡觀龍之美惡, 及諸般龍格, 只於入首穴後二三節, 四五節內以至少祖山爲緊切.”



<그림 5> 개장천심도(그림 출처: 김동규 역, 인자수지前, p. 350.)

<그림 5>는 개장천심도식이다. 용이 진행하다가 개장하는 것은 음이 변해서 양이 되는 것이고, 다시 천심하는 것은 음이 되며 여러 가지 방법으로 현무정(玄武頂)에 이르러 면(面)을 열고 혈을 결지하는 것이다. 이 개면(開面)하는 것이 다시 양으로 변하는 것이다. 풍수지리의大本(大本)은 이 음양(陰陽)의 호환(互換)에 있다고 볼 수 있다. 음양의 변화를 잘 알아볼 수 있다면 길지의 판별은 간단하게 판별할 수 있게 된다. 다음은 부합지표 내용이다.

- 부합지표: 태조산·소조산·부모산이 개장천심하고 중출맥이다.

## 7) 용의 박환(剝換)

용의 박환(剝換)은 결국 미지(美地)의 혈을 결지하기 위한 방법으로 살기(殺氣)를 털어버리고 상질(上質)의 생기(生氣)를 혈처(穴處)에 공급하는 것이 목적이 된다. 『인자수지』에서는 박환을 “노(老)에서嫩(嫩)으로 변하고, 조(粗)에서 세(細)로 변하며, 흉(凶)에서 길(吉)로 변하는 것이라고 했으며 이것이 조화(調和)의 묘(妙)라고 했다.”<sup>37)</sup> 또한 “고조(古祖)의 봉우리가 흉성(凶星)일지라도 과맥(過脈)하는 동안에 흉한 껍질을 벗고 환골(換骨)하여 길한 성(星)으로 변한 후에 소조산이 되어 결혈한 것은 미지(美地)가 된다고 하였다.”<sup>38)</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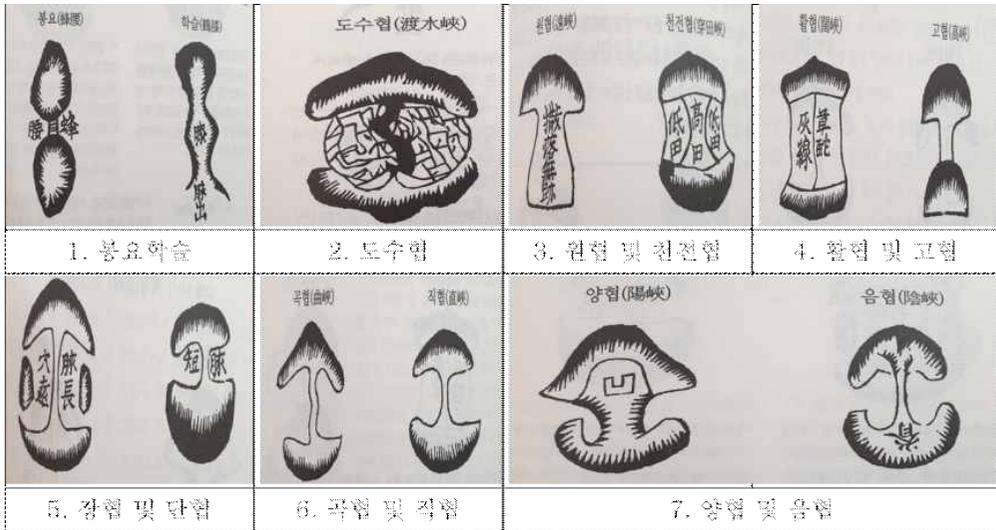
용의 박환이란 것은 거칠고 살기가 있는 용이 부드러워지고 살기를 털어버리고 생기 있는 용으로 변화하는 것으로 늙은 것이 젊은 것으로, 암석이 토질로, 추악하고 험악한 것이 깨끗하고 아름다운 것으로 변해서 귀한 혈을 만들기 위한 행동중에 변화과정이 되는 것을 이르는 용어이다.

37) 『重刊人子須知資孝地理心學統宗』, “龍之形體, 自老變嫩, 自粗變細, 自凶變吉, 皆造化之妙.”

38) 『重刊人子須知資孝地理心學統宗』, “凡遠祖高峰是凶星發龍, 卻跌斷過脈, 退皮換骨, 變出吉星作少祖山而結穴者, 亦爲美地.”

• 부합지표: 소조산에서 혈처까지 박환이 잘되었다.

## 8) 용의 과협(過峽)



<그림 6> 과협의 종류(그림출처: 김동규 역, 인자수지 前, pp. 365-36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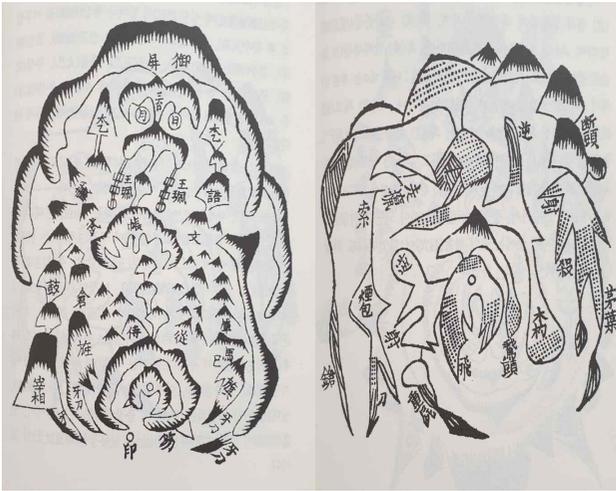
『인자수지』에서는 용의 행도 과정 중에 과협(過峽)을 가장 중요한 요소로 꼽았다. 과협이란 용이 행룡 중에 기(氣)를 묶어서 보호하여 다음 산으로 연결하는 지점을 지칭한다. 혈 후의 결인속기처도 크게 보아서 과협이라 할 수 있다. 과협외 종류도 수십종에 이른다. 산과 산 사이의 고개도 과협이며, 논밭을 지나거나 들판의 평지를 지나는 것도 과협이다. 그리고 물을 건너는 과협도 존재한다. 이 과협처에서 용의 진정(眞情)이 나타나 과협외 형상이나 미추 그리고 보호사 등에 의하여 그 형태가 혈에서도 그대로 나타나게 된다. 다음은 『인자수지』에서의 과협에 대한 설명이다. “용은 진짜인데 협(峽)이 좋지 않은 것이 없고, 협이 좋으면 길지를 만들지 않음이 없다. 협의 미악(美惡)을 보면 용맥의 길흉과 용결의 진짜와 가짜를 미리 알 수 있어서 지리가는 반드시 알아야 할 비결이 된다. 대개 용의 행도가 길면 필히 절단과협(跌斷過峽)이 많다. 그리하면 기맥이 참되고 탈사방정(脫卸方淨)하고 역량방전(力量方全)할 것이다.”<sup>39)</sup> 이 내용은

39) 『重刊人子須知資孝地理心學統宗』, “未有龍眞而無美峽, 未有峽美而不結吉地. 審峽之

용의 바른 행동법과 거기에 따른 길지를 만들게 됨을 설명한 것이다. 용이 바르면 험도 바르고, 험이 바르면 용도 또한 좋다. 그리고 험의 상황을 보아 진룡을 알 수 있고 또한 진혈을 알 수 있다는 것이다.

- 부합지표: 소조산에서 혈처까지 과협이 길격이다.

### 9) 지각요도(枝脚橈棹)



<그림 7, 8> 지각요도길 (그림출처: 김동규 역, 흥도 인자수지 前, pp. 409-411.)

전문의 모든 풍수문헌에서는 지각요도를 지각과 요도로 분리하지 않았으며 지각요도에 대해서 용의 장단에 따라 장원(長遠)한 용은 지각요도도 길고, 짧은 용은 지각요도도 짧다고 하였다. 또한 용의 몸에서 분지한 지각요도가 용을 보호하고 결혈처에 이르러서도 좌우에서 혈처를 보호한다고 하였다. <그림 7, 8>의 지각요도 좌측 그림은 길도로 용신과 지각에서 만나는 모든 귀격의 모양을 나타낸 것이다. 우측의 지각요도 흥도는 살기가 강하고 배반하는 모양이라 나아가 혈형이 되더라도 혈을 만들지 못한다.

- 부합지표: 지각요도가 적합하며 귀상이다.

美惡，則龍脈之吉凶，融結眞僞，皆可預知也，眞地理家不刊之秘訣也。蓋龍行延長，必須多有跌斷過峽，則氣脈方眞，脫卸方淨，力量方全。”

## 10) 용의 호송(護送)

용의 호송산(護送山)은 용을 보호하여 보내주는 송산(送山)과 용을 맞이하는 영산(迎山)을 모두 아울러 이르는 것이다. 진룡(眞龍)의 호송산은 겹겹이 많을수록 좋으며, 본신(本身)에서 점점 높아지며 호송하는 것을 길하게 본다. 그러므로 호송산의 다소(多少)와 고저원근(高低遠近)이 적절하여야 한다.

호송산이 여러 겹으로 둘러주면 진룡이 되며 혈도 대지를 만든다. 그리고 본신에 비해 너무 낮으면 바람의 해를 입을 수 있고, 너무 높으면 시종이 주인을 능멸하는 형상으로 불길하다. 그리고 호송산은 본신에서 가까워야 한다. 이는 시종이 주인을 가까이서 보필하는 형상이 되어 대길하며 너무 멀리 떨어져 있으면 주인이 필요할 때 빠른 대처에 불리하기 때문이다.

- 부합지표: 호송산이 많고, 대소·원근·고저가 적당하다.

## 11) 용의 방정(傍正)

용의 방정(傍正)은 정룡(正龍)과 방룡(傍龍)을 분별하는 방법을 기술하고 있다. 용이 가지를 여러 개 보낼 때 어느 용이 정룡인지를 가려서 그 정룡이 맺은 혈에 하관(下棺)하여야 바른 인물이 나오게 되며, 방룡은 치우치고 편벽하여 혹여 혈을 맺어 하관하게 되면 부귀는 할지라도 바른 인물은 나오지 않는다는 것이다. 『인자수지』는 오공란의 설을 취하고 있으며 『葬經』의 설과 일행선사의 설을 참고하고 있다. 『葬經』에서는 다수의 용 중에서 다수가 크면 그 중에서 작은 것을 취하고, 다수가 작으면 그 중에서 큰 것을 취한다는 내용으로 대소에 의한 분별을 하고 있다. 일행선사의 설은 고저장단에 의한 분별법으로 여러 산이 짧은 곳에서는 긴 것을 취하고, 여러 산이 길면 짧은 것을 취하며, 여러 산이 높으면 낮은 산을 찾고, 여러 산이 낮으면 높은 산을 찾는다. 그리고 바위산에서는 토질의 땅을 찾고, 조산이 유정한 곳을 찾는다.

- 부합지표: 정룡에서 자리를 만들었다.

## 12) 용의 노늠(老嫩)

용의 노(老)와 늠(嫩)에서 노룡(老龍)은 추하고 큰 것을 이르고, 늠룡(嫩龍)은 작고 아름다운 것을 이른다. 『인자수지』는 용의 노늠에 대해서 “노룡은 산의 능선이 거칠고 높으며 성체(星體)가 혼탁하고 지각이 짧고 탈사(脫卸)하지 못하며 박환(剝換)이 이뤄지지 않았고 조포(粗飽)하여 양(陽)이 발하지 않았고 줄기가 누추하여 아름답지 않고 늙은 여인과 같이 모양이 생기가 없으며 안색이 초췌하여 생육의 뜻이 없어 혈을 찾을 수 없는 곳이다. 늠룡은 기복이 있고 대소고하(大小高下)가 바르며 살아 움직임이 있고 좌우동서(左右東西)로 활발하게 움직이며 변화가 많고 기교가 여러 형상으로 일어났다 끊어짐이 반복되어 두터운 것이 가늘게 변하며 흥이 길로 변해 탈사함이 청교(淸巧)하며 나무의 새로운 가지와 같이 여러 가지로 뻗어 나가고 꽃과 열매를 맺는 생의가 계속 있으므로 이같은 노룡에서 혈을 찾는 것이다.”<sup>40)</sup>라고 하여 노룡과 늠룡을 구분하여 혈을 찾을 수 있는 곳을 늠룡이라고 하였다. 노룡은 기복과 박환이 잘되어 생기가 있으므로 혈을 맺을 수 있다고 한 것이다.

• 부합지표: 노룡으로 혈처를 만들었다.

## 13) 용의 분벽(分擘)

용의 분벽(分擘)은 방룡과 정룡과는 다른 개념이다. 정룡은 특출한 용과 중출로 나온 용이고 방룡은 정룡의 호위룡으로 보는데 반해, 분벽은 정룡이 혈처에 이르기 전에 너무 많은 가지로 갈라져 용의 정기를 누설하여 혈의 역량이 감소하게 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만약 분벽이 되어도 그 분벽 된 용이 다시 돌아와 본신의 사용이 된다면 흥이 변해 길이 되는 것이다. 간룡이나 대룡에서는 분벽을 꺼리지 않으나 작은 지룡에서는 용의

40) 『重刊人子須知資孝地理心學統宗』, “老龍山巒巒蠢, 星體渾濁, 枝脚縮短, 無有脫卸剝換, 徑直而不活變, 粗飽而不發揚, 峻嶒醜陋而無嫵媚之態. 如老婦形容枯槁, 顏色憔悴, 無有生育之理者, 故不可以求穴也. 嫩龍則有起有伏, 有大有小, 一高一下, 一頓一跌, 左棲右閃, 之東走西, 活變百端, 奇巧萬狀, 斷而複起, 起而又斷. 自粗變細, 自凶換吉, 脫卸淸巧, 如樹木新發枝柯, 自然條暢, 開花結實, 生意不息. 故此龍可以索穴也.”

기운이 약하기 때문에 분벽은 바람직하지 않다. 분벽룡에서도 혈을 맺을 수 있으나 그곳은 사당이나 종교시설 등이 되는 것이다. 『인자수지』에서는 간룡은 분지분벽이 가하나 지룡에서는 분벽이 되면 안된다고 하였다. 이는 소조산에서 혈처까지 분벽이 되지 않아야 함을 말한다. 또한 분벽이 되었다 할지라도 혈처의 용호(龍虎)가 되거나 조안(朝案)이 되면 흉이 변해 길이 된다고 하였다.

• 부합지표: 소조산에서 혈처까지 분벽이 되지 않았다.

#### 14) 용의 배면(背面)

용의 배면(背面)과 사(砂)의 배면은 같은 이치로 판단한다.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친밀한 관계는 마주 보며 온기가 있으며 얼굴을 바라보며 정의를 다지는 것으로 이런 모습을 면배에서 면이라 하며, 관계가 좋지 않은 관계이거나 적대하거나 보기 싫은 사람과는 등을 돌리고 정의가 없는 데 이런 모습이 면배에서 배에 해당한다. 용에서도 마찬가지로 면은 정의가 있고 완만하고 깨끗하며 본신을 바라보며 유정한 모습이고, 반대로 배는 정의가 없고 등을 돌리고 있는 모습으로 가파르고 척박한 형태를 하게 된다. 용의 행룡중에 호송산들이 면의 모습으로 유정하게 보호하며 따라야 하고, 과협지나 용진처(龍盡處)에서도 영송사(迎送砂)가 공읍(拱揖)하며 본신을 바라보고 각별한 형상을 하는 것이 면에 해당하며, 혈처에 이르러서도 혈장 주변의 모든 사격(砂格)들이 면의 모습으로 유정해야 진룡진혈(眞龍眞穴)이라 할 수 있다. 용의 행도나 과협처나 속기처 그리고 혈처에서 전호사나 영송사 그리고 주변 사격들이 등을 돌리거나 충(衝)을 하거나 무정한 모습이라면 가룡가혈(假龍假穴)이 되는 것이다. 이와 같이 용의 면배에서는 유정과 무정의 모습을 보고 진가를 판별하는 것이다. 혈을 결지하는 장소도 마찬가지로 용이 면을 열어 완만하고 평평하며 반듯한 곳으로 면배에서 면에 해당하는 곳이다. 배가 되는 곳은 절벽과 같고 거칠고 험악하여 혈을 만들지 못하는 것이다.

• 부합지표: 용의 면에 혈처가 있다.

#### 15) 용의 빈주(賓主)

용의 빈주(賓主)는 주인과 손님 관계나 군신(君臣)의 관계의 형상을 빌려, 주인이 되는 산과 손님이 되는 산의 형상이 서로 비슷하고 유정해야 하고 손님산이 주인산을 능멸하거나 무정하게 등을 돌리는 모습은 좋지 않다. 그리고 주산(主山)과 객산(客山)의 구분이 확연하게 드러나야 하고 주객이 명확하지 않으면 서로 다투는 형상이므로 혈처를 구하지 못하는 것이다. 주인산은 혈을 결지하는 산이 되므로 주변의 모든 사격이 주인에게 공읍하는 모습으로 유정하게 보이는 것이다. 객산은 주인산을 보호하고 따르는 모습으로 유정하게 바라보는 형상이어야 한다. 또한 물로서 주객을 분별하면 물이 환포하여 감싸고 돌아 흐르는 곳이 주산이 되고, 반궁수가 되는 곳은 객산이 되는 것이다. 주객의 구분에서 먼저 혈처와 조안산의 관계를 중요시 보아야 하며 다음으로 좌우 용호산을 보고 그 다음으로 수구사(水口砂)를 비롯해 모든 사(砂)를 보아야 한다.

• 부합지표: 빈주의 형세가 비슷하고 유정하다.

## 16) 용의 여기(餘氣)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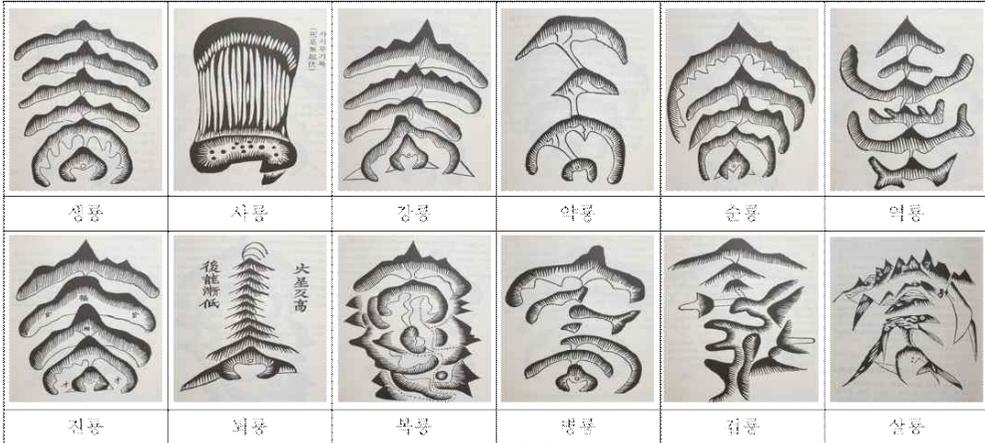
간룡에서는 대지대혈을 맺는데 혈을 이룬 후에도 역량이 강해 여기를 내보내게 된다. 그 여기가 혈처를 보호하고 하수사(下手砂)가 되기도 하며, 더 나아가 또 다른 혈을 맺기도 한다. 여기에서 결혈이 되면 그 역량은 주혈(主穴)에 미치지 못한다. 대룡은 허리에서 낙맥하여 조건을 갖추고 대지를 맺으므로 용진처에서만 결혈지를 찾는다면 주혈은 놓치고 부혈(副穴)만을 찾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소룡에서는 용진처에 결혈하므로 대룡과는 차이가 있다. 이에 대해 『인자수지』의 장자경의 설은 “반드시 산궁수진(山窮水盡)처가 아니라도 작혈은 있다. 대진처(大盡處)는 휴수사절(休囚死絕)이 많고 풍취수할(風吹水割)이 되므로 오히려 혈을 맺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진룡정혈(眞龍正穴)은 용이 머물고 분아포과(分牙布爪)하여 결혈하고 그 이후로도 수십리까지 뻗어나간 것은 모두 여기가 된다.”<sup>41)</sup>라고 하여 용진처가 아닌 곳에 혈을 맺을 수 있고 그 이후의 용은 여

41) 『重刊人子須知資孝地理心學統宗』, “不必山窮水盡方可作穴, 大盡處多應休囚死絕, 或風吹水割, 反不受穴. 眞龍正穴盤泊之處, 分牙布爪, 結穴外有三五里或十數里山勢未盡, 皆是餘氣.”

기라고 밝힌 것이다.

- 부합지표: 혈을 맺은 후 여기가 있다.

### 17) 용세 12격(龍勢 12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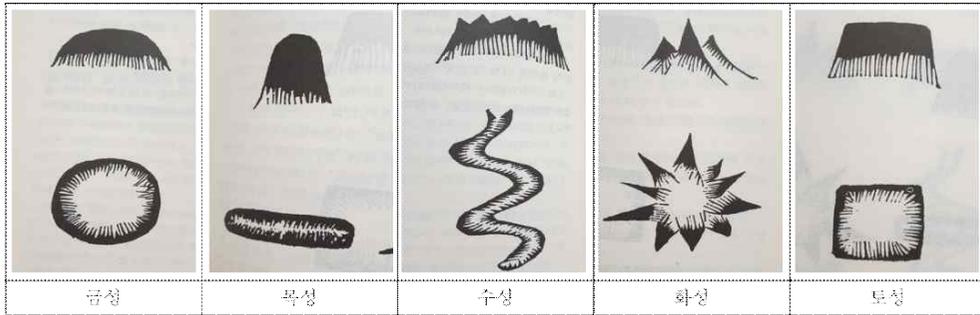
<그림 9> 용세 12격(그림출처: 김동규 역, 인자수지 前, pp. 553-577.)

『인자수지』 용의 12격은 생(生), 사(死), 강(強), 약(弱), 순(順), 역(逆), 진(進), 퇴(退), 복(福), 병(病), 겁(劫), 살(殺)룡이다. 용의 12격 중에 생, 강, 순, 진, 복룡의 5개의 용격은 부귀혈과 대지를 맺을 수 있으며, 사, 약, 역, 퇴, 병, 겁, 살룡의 7개의 용격은 혈을 맺을 수 없고, 만약 혈이 될 지라도 발복이 매우 짧고 결과가 좋지 않다.

- 부합지표: 용형세 12격에서 생·강·순·진·복룡 중 하나에 해당한다.

### 18) 오성(五星)

오성은 오행(五行)의 성정을 취하여 산과 물에 대입한 것이다. 오행은 목화토금수(木火土金水)이며 <그림 10>에서 보는 것처럼 목성은 곧게 뻗는 성질이 있으므로 산은 하늘을 향해 곧게 솟아 있고, 물은 일직선으로 흐르는 모양이다. 화성은 날카롭고 뾰족하게 솟은 모양으로 산은 첨예(尖銳)하고, 물은 충사(衝射)하는 모양이다. 토성은 방형으로 중후한 모양이다. 금성은 원형으로 둥그런 모양으로 산은 종을 얹어놓은 형상이고, 물은 궁수(弓水)형이다. 수성은 물결치는 형상으로 산의 모양은 금성체를 여러



<그림 10> 오성의 종류(그림출처: 김동규 역, 인자수지 前, pp. 628-630.)

개 연결해 놓은 형상이고, 물은 갈지(之)자나 현(玄)자 모양이다.

• 부합지표: 소조산과 부모산이 오성의 금, 목, 토성에 해당한다.

### 3. 혈(穴)에 대한 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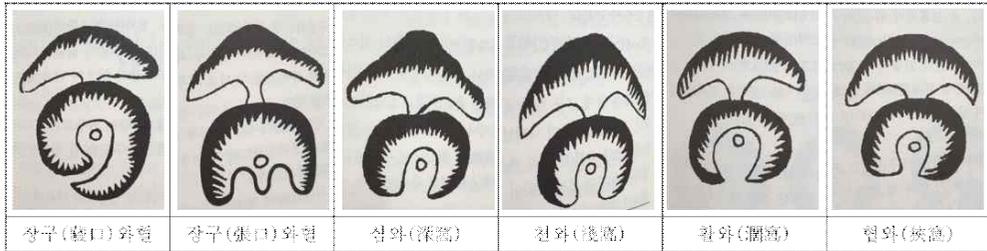
#### 1) 혈(穴)의 개요

『인자수지(人子須知)』의 혈법(穴法)은 천조지설(天造之說)을 따르고 있다. 용혈(龍穴)을 보는 데 있어서 한치의 꾸밈이 있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인자수지』는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복씨가 이르기 를, 생성된 용이 있으면 반드시 혈이 생성되고, 용혈(龍穴)이 생성되었다면 사수(砂水)도 반드시 이를 따를 것이고, 용호(龍虎), 명당(明堂), 안대(案對), 나성(羅星), 수구(水口) 등이 모두 합법됨이니 이것이 법이다.”<sup>42)</sup> 이것은 용(龍)이 있으면 혈(穴)이 있고, 혈(穴)이 있으면 당연히 용(龍)이 있다는 것으로 용(龍)에서 혈(穴)이 만들어지면 자연히 청룡(靑龍)과 백호(白虎) 그리고 명당(明堂)과 조안(朝案)산, 나성(羅星)과 수구(水口) 등이 적합하게 만들어진다는 것이다. 진룡(眞龍)이면 진혈(眞穴)이 있고, 진룡(眞龍)이 아니라면 혈형(穴形)이 있을지라도 그것은 가혈(假穴)이다.

#### 2) 혈의 사상(四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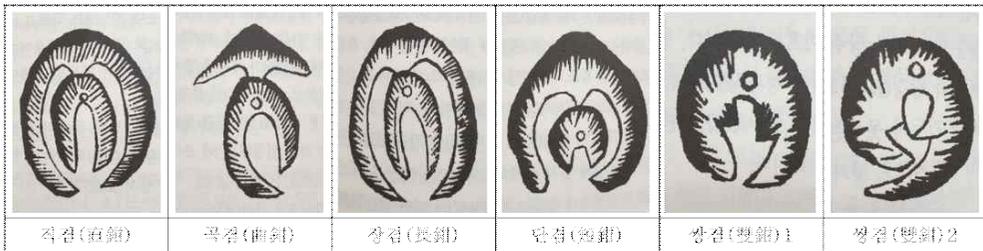
42) 『重刊人子須知資孝地理心學統宗』, “卜氏云：既有生成之龍，必有生成之穴。故凡龍穴 既皆生成，則砂水莫不應副，而龍虎，明堂，對案，羅城，水口，自然件件合法。”

혈의 사상은 와(窩), 꺾(鉗), 유(乳), 돌(突)을 말하는데 사상(四象)의 근거가 태극(太極)에서 음양(陰陽)을 생하고 음양(陰陽)이 사상(四象)으로 분화됨을 뜻한다. 와(窩)는 양(陽)중의 양(陽)이 되어 태양(太陽)이 되고, 꺾(鉗)은 양(陽)중의 음(陰)으로 소양(少陽)이며, 돌(突)은 음(陰)중의 음(陰)으로 태음(太陰)이고, 유(乳)는 음(陰)중의 양(陽)으로 소양(少陽)이 된다.



<그림 11> 와형(窩形)의 종류(그림출처: 김동규 역, 인자수지 前, pp. 685-68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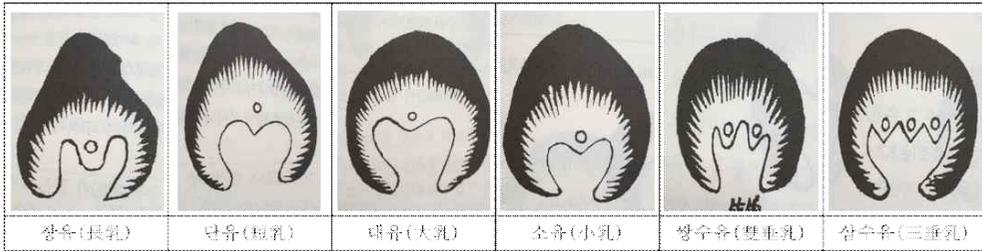
와형(窩形)의 혈에는 크게 두가지로 구분한다. 장구(藏口)와혈과 장구(張口)와혈이다. 장구(藏口)와혈은 용호(龍虎)가 교회(交會)하여 감싸는 것이고, 장구(張口)와혈은 용호가 교회(交會)하지 않고 벌어진 것을 말한다. 와혈(窩穴)은 고산지(高山地)에 형성된 것을 더욱 좋게 보며, 유돌혈(乳突穴)은 평양지(平壤地)에 형성되면 더욱 좋다.



<그림 12> 꺾형(鉗形)의 종류(그림출처: 김동규 역, 인자수지 前, pp. 715-7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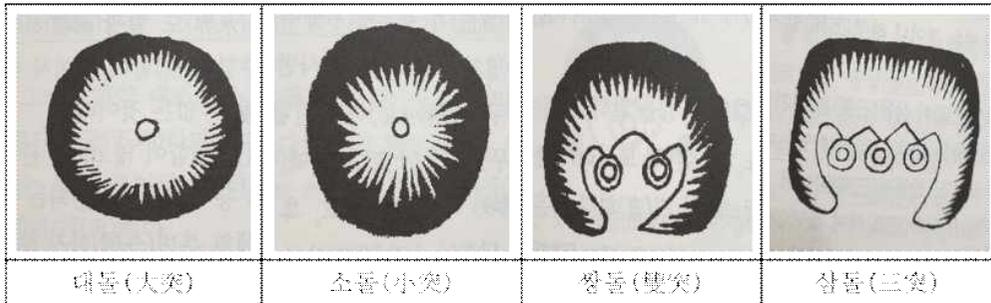
꺾형(鉗形)의 혈은 다리를 벌린 형태의 개각혈(開脚穴)이다. 꺾혈(鉗穴)은 8격이 있고, 그 8격에 다시 2체(體)가 있다. 8격은 직(直), 곡(曲), 장(長), 단(短), 쌍꺾(雙鉗)은 정격의 꺾형이고, 선궁, 단제, 첩지형의 3개는 변격이다. 선궁형은 두 다리 중 한쪽은 직(直)하고 다른 쪽은 곡(曲)한 것이고, 단제형은 한 쪽은 길고 다른 쪽은 짧은 것이며, 첩지형은 한 쪽은

다리가 하나이고 다른 쪽은 두 개인 것이다.



<그림 13> 유형(乳形)의 종류(그림출처: 김동규 역, 인자수지 前, pp. 737-745.)

유형(乳形)의 혈은 현유혈(懸乳穴)로 수유혈(垂乳穴)이나 유두혈(乳頭穴)이라고도 한다. 유형은 6격이 있다. 정격은 장유(長乳), 단유(短乳), 대유(大乳), 소유(小乳)이고 변격은 쌍수유(雙垂乳)와 삼수유(三垂乳)가 있다. 유혈은 양 어깨가 튼튼하게 잡아주어야 하고, 공결(空缺)되고 요절(凹絶)된 것을 꺼린다.



<그림 14> 돌형(突形)의 종류(그림출처: 김동규 역, 인자수지 前, pp. 767-770.)

돌형의 혈은 복중형으로 평(坪)중에서 솟은 것으로 평지와 고산에 모두 있으나 평야지의 돌(突)을 더욱 길하게 본다. 고산의 돌혈은 환포가 잘되고 주변의 사격이 유정해야 하며, 평야지의 돌혈은 수계(水界)가 명백하고 좌우가 평탄해야 한다. 돌혈은 4격이 있는데 대돌, 소돌, 쌍돌, 삼돌이다.

대돌(大突)과 소돌(小突)이 정격(正格)이고 쌍돌(雙突)과 삼돌(三突)은 변격(變格)이다.

- 부합지표: 와검유돌 중 하나의 혈상을 이루었다.
- 부합지표: 와검유돌의 혈형조건에 부합한다.

### 3) 혈성(穴星)



<그림 15> 정체혈성(그림출처: 김동규 역, 인자수지 前, pp. 846-875.)

혈성(穴星)은 입수(入首)한 산의 형체를 오성(五星)에 따라 구분하고 거기에 따라 바른 혈을 잡기 위한 중요한 요소가 된다. 『인자수지』에서 성체(星體)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성체(星體)가 명백하면 진기 융취(眞氣融結)되나 성체를 이루지 못하면 진기가 융결 되지 못한다.”<sup>43)</sup> 라고 하여 오성의 성체가 명백하게 드러나야 결작이 가능하다고 보았다. 여기에서는 구성(九星)의 변격(變格)은 논하지 않으며 『인자수지(人子須知)』가 주장하는 오행(五行)에 따른 성체(星體)를 구별하는 법을 따른다.

- 부합지표: 입수의 산이 성체를 이루고 정체이다.

### 4) 혈증(穴證)

혈증(穴證)편은 혈의 증거를 살펴 진가(眞假)를 구별하고 귀천(貴賤)을 판단하는 방법이다. 이 혈증을 보는 항목은 조산(朝山)증혈, 명당(明堂)증혈, 수세(水勢)증혈, 낙산(樂山)증혈, 귀성(鬼星)증혈, 용호(龍虎)증혈, 전호(纏護)증혈, 순전(唇氈)증혈, 천심십도(天心十道)증혈, 분합(分合)증혈 등 10가지 항목을 논한다. 이 증좌(證左)에 대해 『인자수지』에서는 “증좌라는 것은 전면에서 구하면 조안(朝案)이 아름다우며 명당은 바르고 수세는 모여야 하고, 후면에서 구하면 낙산(樂山)이 좋고 귀성(鬼星)이 있어야 하

43) 『重刊人子須知資孝地理心學統宗』, “星體明白, 方是眞氣融結. 若入首之山不成星體, 卽是眞氣不融.”

고, 좌우에서 구하면 용호가 유정하고 전호(纏護)가 구비되어야 하며, 혈하에서 구하면 순전(唇氈)이 바르고, 사방에서 구하면 십도(十道)가 완전하며, 계수(界水)에서 구하면 분합(分合)이 확실해야 하는 것이다. 이러한 것들이 혈이 참되는 증좌이다.”<sup>44)</sup> 이 내용은 혈증의 증좌에 대한 바른 설법(說法)이라고 본다. 혈을 중심으로 전후(前後)좌우(左右)와 혈하(穴下) 그리고 계수(界水)를 살펴 온전하게 나타나면 적법한 혈이 된다는 것이다.

### (1) 조산증혈(朝山證穴)



<그림 16> 조산증혈 예시  
(그림출처: 김동규 역, 인자수지 前, p. 90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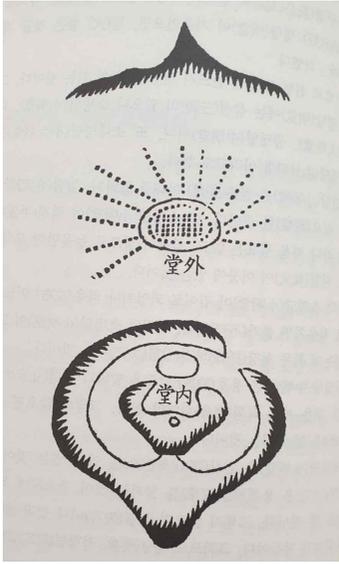
조산증혈은 혈을 찾을 때 전면(前面)의 안대를 보고 판단하는 방법이다. 이것은 고저원근(高低遠近)과 조응(照應)을 살펴야 하고 먼 곳의 수려한 산을 탐내어 가까이 있는 진실한 안대(案對)를 버리는 우를 범하여선 안된다. 고저(高低)로 판단하면 안대가 높으면 압박을 받으므로 혈은 위로 올라가 안대와 적절한 높이에 자리하고, 안대가 낮으면 기혈이 흩어질 우려가 있으므로 혈의 위치도 낮은 곳에 자리한다. 원근(遠近)으로 보면 너무 가까우면 압살(壓殺)이 두려우므로 혈의 위치가 위로 올라가 자리하고, 멀면 조응이 약해지므로 혈의 위치도 낮은 곳에 자리한다. 좌우(左右)의 조응으로 판단하면 응하는 사(砂)가 좌측에 있으면 혈의 위치도 좌측에 있으며, 우측에 있으면 혈도 우측에 자리한다. 안대의 바른 높

이를 혈자리에서 보아서 심장부근에서 눈썹까지의 사이에 들면 길하다.

- 부합지표: 가까운 안산이 유정하고 고저원근이 적합하다.

### (2) 명당증혈(明堂證穴)

44) 『重刊人子須知資孝地理心學統宗』, “所謂証佐者, 求之於前則朝案美, 明堂正, 水勢聚; 求之於後則樂山峙, 鬼星撐; 求之於左右, 則龍虎有情, 纏護俱夾; 求之穴下, 則唇氈正; 求之四方, 則十道全; 求之界水, 則分合明白. 此數者, 穴之証佐也.”



<그림 17> 명당증혈(그림 출처: 김동규 역, 인자수지前, p. 90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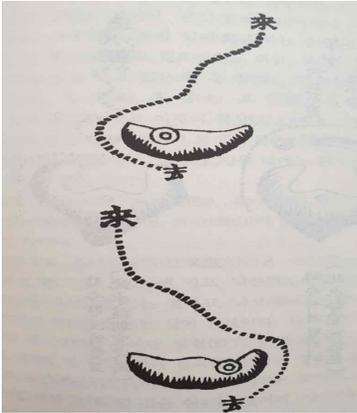
명당증혈법은 명당(明堂)의 상태를 보고 혈을 판단하는 방법이다. 명당에는 소명당, 중명당, 대명당이 있다. 소명당은 진혈이 되면 원훈(圓暈)아래 작게 형성되는 것으로 첫 번째 명당이 된다. 중명당은 용호의 사이로 형성되는 두 번째 명당이 된다. 대명당은 안산 앞으로 형성되는 명당으로 본신안산(本身案山)이 되면 안산 뒤로 수계(水界)가 감싸는 안쪽이 된다. 명당은 진기가 모이는 곳으로 평탄하여야 하며 기울면 좋지 않다. 또한 명당은 물이 감싸는 모양이 되어야 기(氣)를 모을 수 있으므로 물길을 보고도 판단한다. 소명당은 원훈 아래로 대부분은 크지 않고 단정하고 평탄해야 한다. 이곳이 명당중에서 진혈의 판단여부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중명당은 용호의 사이로 순전 아래가 되고 혈을 결지한 이후로

여기(餘氣)가 길 경우 소명당과의 거리가 멀리 떨어지기도 한다. 대명당은 용호의 밖으로 안산 안쪽으로 형성이 되며 평탄하고 넓어야 한다. 3개의 명당 모두 합수(合水)가 필요하고 평탄해야 하며 역수(逆水)가 되어야 진결이 된다.

- 부합지표: 명당이 바르고 평평하며 소, 중, 대명당이 합법이다.

### (3) 수세증혈(水勢證穴)

수세증혈은 수세(水勢)를 보고 혈의 진가를 판단하는 방법이다. 『인자수지』의 내용 중에 료씨(蓼氏)의 “진룡의 낙맥처는 여러 물이 모이고 물이 모이는 곳은 혈이 되어 묘를 쓸 수 있는 곳이다. 만약 혈이 바를 시에는 물도 모이고 바르지 않으면 물도 가버린다. 혈이 은밀하고 괴이한 곳에 있으면 천(扞)하기 어려우므로 물이 오는 것을 세세히 분별해야 한다.”<sup>45)</sup> 라고 해서 혈이 되는 곳은 물도 모이는 곳이므로 수세의 모이고 흘



<그림 18> 수세증혈(그림출처: 김동규 역, 인자수지 前, p. 909.)

어짐을 보아서 물이 모이면 진혈이 있고, 물이 흩어지면 혈도 없다는 것이다. 또한 물이 혈의 좌측에 모이거나 좌변을 안고 흐르면 혈도 좌측에 있고, 물이 혈의 우측에 있거나 물이 우변을 감싸고 흐르면 혈도 우측에 있는 것이다. 그리고 물이 중앙으로 들어오고 유정하게 중앙을 감싸면 혈도 중앙에 있게 된다. 명당이 넓어 물길이 멀리 있으면 혈은 높은 곳에 있고, 원신수(元辰水)가 길고 순수(順水)형이면 혈은 낮은 곳에 있게 된다.

• 부합지표: 혈이 수세의 모임에 적법하고 혈처의 좌우고저가 바르다.

## (6) 용호증혈(龍虎證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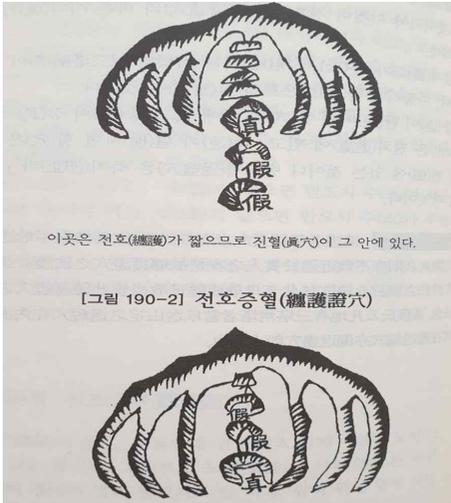
용호증혈법은 용호(龍虎)의 형태에 따라 혈의 유무(有無)와 혈의 위치를 판단하는 방법이다. 『인자수지』의 내용을 간추리면 다음과 같다. “청룡이 역수이면 혈은 용산에 의지해서 결혈하고, 백호가 역수이면 백호산에 의지하여 결혈하며, 좌측이 단제(單提)면 혈도 좌에 있고, 우측이 단제이면 혈도 우측에 있으며, 용호가 높으면 혈도 높아야 하고, 용호산이 낮으면 혈도 낮아야 하며, 청룡이 유정하면 혈은 청룡쪽에 있고, 백호산이 유정하면 혈은 백호쪽에 있으며, 용호가 같이 유정하면 혈은 중간에 있으니, 이것이 용호증혈의 요결이다. 청룡산이 나쁘면 백호쪽에 결혈하고, 백호산이 나쁘면 청룡쪽에 입혈하며, 청룡이 없으면 물이 좌측을 감싸고 돌아야 하고, 백호가 없으면 물이 우변을 감싸고 흘러야 한다.”<sup>45)</sup> 이렇게 설명하고 있다. 이것은 용호의 강약(強弱), 유무정(有無情), 고저(高低), 유무(有無)에 따라 입혈하는 방법이며, 이것을 용호증혈이라 한다.

45) 『重刊人子須知資孝地理心學統宗』, “廖氏云, 眞龍落處衆水聚. 又云, 穴若正時水便聚, 不正迢迢去. 又云, 穴居隱怪卻難扞, 細把水來辨.”

46) 『重刊人子須知資孝地理心學統宗』, “是故龍山逆水則穴依龍, 虎山逆水則穴依虎. 左單提則穴挨左, 右單提則穴挨右. 龍虎山高則穴亦高, 龍虎山低則穴亦低. 龍山有情穴在左, 虎有情穴在右. 龍虎山皆有情, 不高不低, 則穴居中. 此皆龍虎証穴之要訣也. 複有龍山欺穴, 宜避其龍而依虎, 虎山壓塚, 須避其虎而依龍.”

- 부합지표: 용호에 따른 혈의 위치가 적합하다.

### (7) 전호증혈(纏護證穴)



<그림 19> 전호증혈(그림출처: 김동규 역, 인자수지 前, p. 922.)

전호증혈은 전호사(纏護砂)에 따른 결지 위치를 판단하는 방법이다. 주로 송산(送山)에 의해 결정된다. 이것은 용이 입혈시에 좌우에서 보호하는 사를 이룬 것이다. 전호산은 본신에서 너무 멀어도 안되며 너무 가까워도 안된다. 적절한 거리에 위치 하여야 한다. 송산이 길면 혈은 그 끝나는 지점에 있고, 송산이 짧으면 혈도 그 안쪽에 위치하게 된다. 전호증혈의 부합지표 내용을 정리한다.

- 부합지표: 송산의 형태에 맞춰 혈처가 바르다.

### (8) 순전증혈(脣靨證穴)

순전증혈은 용이 혈을 뱉고 난 후 여기가 남아서 혈 밑으로 평평한 곳을 말한다. 전(靨)은 이불이나 방석 같은 모양으로 순보다는 크게 형성되고, 순(脣)은 새의 주둥이나 사람의 입술같은 모양으로 전보다는 작게 형성된다. 혈 밑으로 모이는 기가 크면 전을 만들고, 작으면 순을 만든다. 묘 앞으로 상석자리와 절을 올리는 제절공간이 전순이 된다. 전순의 끝 부분으로 향(向)을 잡기도 하며, 자손의 많고 적음 그리고 말자(末子)의 흥폐(興敗)를 보기도 한다. 이와 같이 전순의 유무와 단정



<그림 20> 순전증혈(그림출처: 김동규 역, 인자수지 前, p. 924.)

평탄함으로 혈의 진결을 판단하는 것이 순전증혈법이다.

- 부합지표: 전순이 적합하게 갖춰졌다.

### (9) 천심십도증혈(天心十道證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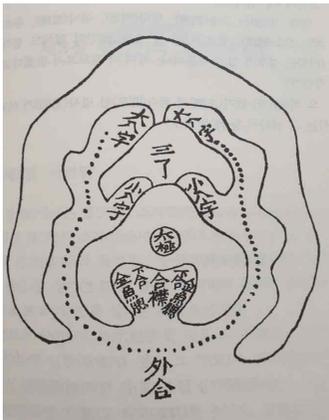


<그림 21> 천심십도증혈  
(그림출처: 김동규 역, 인자수지 前, p. 931.)

천심십도증혈은 혈을 중심으로 전후좌우의 사방에 산이 조응하는 것을 말한다. 혈 뒤에 있는 것을 개산(蓋山)이라 하고, 혈 전면에 있는 것을 조산(照山)이라 하며, 혈 좌우에 있는 것을 협산(夾山)이라 한다. 사방의 산 중 하나라도 없으면 실격이 되고, 바른 십자형이 되지 않아도 실격이 된다. 이것이 갖춰지면 진결이라 판단하며, 이를 천심십도증혈이라 한다. 천심십도의 부합지표는 다음과 같다.

- 부합지표: 혈을 중심으로 전후좌우에 십자봉이 정위치에 있다.

### (10) 분합증혈(分合證穴)



<그림 22> 분합증혈(그림출처: 김동규 역, 인자수지 前, p. 937.)

분합증혈은 물의 나뉘어진 뒤 다시 그 갈라졌던 물이 합해지는 것을 말한다. 이 분합(分合)은 삼분삼합으로 구분한다. 삼분삼합은 첫 번째는 혈관에서 위쪽 머리 부분에서 갈라져서 혈관 아래쪽 모이는 부분에서 합해지는 것이고, 두 번째는 혈 후에서 물길이 갈라져 원신수와 같이 합해지는 것으로 소팔자(小八字) 분합이라 하며, 세 번째는 용호수가 갈라져 혈 전면에서 합해지는 것으로 대팔자(大八字) 분합이라 한다. 혈 후에서 갈라진 물이 혈 전면에서 합수되지 않으면 생기가 모이지 않고 빠져나가게 되므로 혈을 맺을 수 없는 것이다.

- 부합지표: 삼분삼합이 잘 갖춰져 있다.

## 4. 사(砂)에 대한 내용

### 1) 사(砂)의 개요

사법(砂法)의 사(砂)는 모래 사(砂)자를 쓰는 것은 풍수지리를 연구하던 고인들이 여러 용(龍)이나 산(山) 등을 모래를 이용하여 모형(模型)을 만들어 후인(後人)들에게 전하는 것에서 연유한 것이다. 『인자수지(人子須知)』의 사법편에서는 혈을 기준하여 앞으로는 조안산(朝案山)을 보고, 혈 후(後)로는 낙산(樂山)이나 현무산(玄武山)을 보며, 좌우의 청룡과 백호를 살피고, 나성(羅星)과 수구(水口)를 보며, 시위(侍衛)와 관귀금요(官鬼禽曜)를 포함하여 이 모든 것을 합쳐서 사(砂)라고 한다.

사(砂)는 용(龍)과 혈(穴)의 보조에 해당하여 진룡(眞龍), 진혈(眞穴)에 응(應)하는 모든 사(砂)도 또한 공읍(拱揖)하며 아름다운 형태를 하고 있으나, 진룡진혈이 아니면 아무리 좋은 사(砂)라도 소용이 없는 것이다. 용(龍)이 주가 되어 용(龍)의 귀천(貴賤)에 의해 사(砂)의 길흉(吉凶)이 정해진다는 뜻으로 사(砂)가 아무리 귀(貴)해도 용(龍)이 천(賤)하면 소용이 없다는 것이고, 사(砂)가 만약 천(賤)하더라도 귀룡(貴龍)이면 사(砂)도 도리어 귀(貴)로 변한다는 것이다.

### 2) 청룡백호(靑龍白虎)

청룡(靑龍)과 백호(白虎)는 풍수지리에서 혈처를 기준으로 좌측의 산을 청룡이라고 하며, 우측의 산을 백호라 한다. 청룡과 백호는 혈장의 좌우에서 바람을 막아주고 생기를 보호하여 혈의 기운을 장구(長久)하게 유지하는 역할을 한다.

<그림 23>의 본신룡(本身龍)에서 좌우로 갈라져 청룡과 백호가 되는 것을 가장 길하게 보며, 한쪽은 본신룡 반대편은 외산룡(外山龍)으로 된 것을 그 다음으로 본다. 또한 청룡과 백호가 없이 진룡으로 결혈된 곳도 있으나 반드시 물로써 용호(龍虎)를 대신 하여야 하고, 용호중에 한 곳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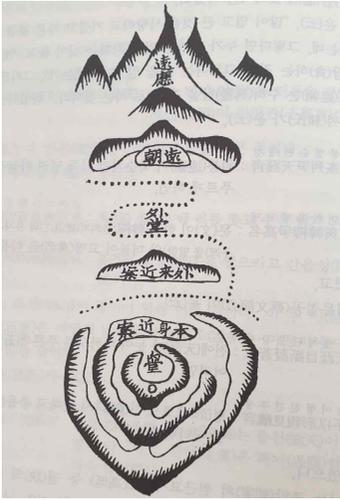
<그림 23> 용호의 종류(그림출처: 김동규 역, 인자수지 後, pp. 24-26.)

없는 곳도 있는데 이때에도 그 빈 곳을 물로 감아주어야 성격이 된다. 청룡과 백호가 서로 겸양(謙讓)하고 비슷한 형태라야 길하고, 역수(逆水)가 중요한데 물이 좌측에서 오면 백호산이 길어서 거두어 주어야 하고, 우측에서 오면 청룡산이 길어서 거두어 주어야 성격이 된다. 청룡과 백호에서의 부합지표는 5개의 항목이다.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부합지표: 본신에서 나온 용호이다.
- 부합지표: 용호의 고저원근이 비슷하고 유정하다.
- 부합지표: 용호가 장풍을 잘하고 생기보호에 투철하다.
- 부합지표: 용호중 하나가 수구의 물을 잘 막아주고 있다.
- 부합지표: 청룡은 완연하고 백호는 순부한다.

### 3) 조안(朝案)

조안(朝案)은 조산(朝山)과 안산(案山)을 합해서 부르는 명칭이다. 안산은 혈 앞으로 가까이 있는 산이고, 조산은 안산 밖으로 멀리 있는 산을 지칭한다. 청룡과 백호가 혈을 기준으로 좌우에 있다면, 조안은 혈 전면에 있는 산을 말하며, 현무는 혈 후의 산이다. 안산은 가까운 곳에 작은 산이고, 조산은 안산 밖으로 멀고 높은 산이 된다. 혈 앞으로 가까운 곳에 안산이 있으면 혈처의 생기가 빠져나가는 것을 막아주고, 원신수가 곧게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하며, 명당(明堂)이 넓게 형성되어 기(氣)가 모이게 되므로 진혈의 증거가 된다. 그리고 멀리 조산이 높이 솟아 혈처를 향해 공읍하는 모양이면 손님을 대하는 것처럼 상대가 있게 되어 조용하게 된다. 그러나 조산이 없어도 진결(眞結)에는 구애됨이 없다. 조산이 진결에



<그림 24> 조안산(그림출처:김동규 역, 인자수지 後, p. 521.)

꼭 필요한 것이 아니고, 다만 용혈의 바름만이 필수요소이다.

조안에서의 부합지표는 6개의 항목이다. 다음은 세부항목이다.

- 부합지표: 안산이 가깝고 수려하며 유정하다.
- 부합지표: 본산에서 안산을 만들고 유정하다.
- 부합지표: 안산이 역수의 형태를 갖추었다.
- 부합지표: 조산이 침원방평, 단정수려하고 혈에 유정하다.

#### 4) 나성원국(羅城垣局)

나성원국은 혈처를 중심으로 겹겹이 전후좌우로 울타리처럼 감싸는 산을 말한다. 이것은 혈을 감싸는 현무산과 용호산 그리고 조안산을 포함하여 360도로 환포하여 보호하는 모든 사를 지칭하여 사신사(四神砂)와는 구별하여 논한다. 뒤에 나오는 나성(羅星)과는 다르다.

- 부합지표: 혈을 중심으로 전후좌우의 사들이 유정하게 환포하였다.

#### 5) 하수사(下手砂)



<그림 25> 하수사의 형태(그림출처: 김동규 역, 인자수지 後, pp. 142-146.)

하수사(下手砂)는 『인자수지(人子須知)』에서 매우 중요하게 다룬다. 하수사란 혈 아래에서 물을 거두어 주어 순수(順水)가 되지 않도록 막아 주는 역할을 하는 사이다. 하수사의 이명으로는 하비(下臂)나 하관(下關)이라고도 한다. 하수는 역수(逆水)를 해주는 것으로 혈을 맺을 때 이 하수의 유무가 중요하며, 이 하수가 있어 역수를 해주면 혈을 맺게 되고, 하수의 경중으로 혈의 역량도 알 수가 있다. 『인자수지(人子須知)』에서 하수에 대해 “후룡이 오는지 안오는지 보지 말고, 하관(下關)이 도는지 안도는지를 보며, 혈을 맺는 것이 드러나는지 안 드러나는지를 보지 말고, 하관이 긴밀한지 아닌지를 보라.”<sup>47)</sup> 라고 하여 이 하관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 부합지표: 하수사가 좌우선에 따라 역관하였다.

## 6) 수구사(水口砂)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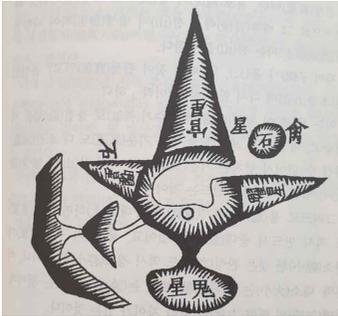
수구사는 물이 빠져나가는 곳에 양쪽의 산을 말한다. 수구사의 역할은 물이 흘러나가는 것을 주밀(周密)하게 막아서 생기(生氣)의 누설(漏泄)을 막고, 혈처의 기운을 보호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수구의 양변의 산이 교쇄나 관쇄가 되어 물이 직출(直出)되는 것을 막는 것이다. 수구사의 종류는 천태만상으로 짐승형에서부터 인물형, 조류형, 어류형 등등 수없이 많으며, 특히 한문, 화표, 나성, 북신, 유어 등이 있으면 더욱 길하여 대지를 맺게 된다. 수구를 주밀하게 막아 주면 그곳에 큰 혈이 맺어진다.

• 부합지표: 수구에서 수구사가 주밀하게 교결관쇄하였다.

## 7) 관귀금요(官鬼禽曜)

관귀와 금요는 다시 이명으로 관성, 귀성, 금성, 요성이라 한다. 이것은 혈을 이루고 남은 여기가 발로하여 혈을 기준하여 전후좌우에 나타나는 사를 지칭한다. 관성은 혈 전면의 용호 뒤쪽으로 다시 산을 일으킨 것을

47) 『重刊人子須知資孝地理心學統宗』, “未看後龍來不來, 且看下關回不回, 未看結穴穩不穩, 且看下關緊不緊.”



<그림 26> 관귀금요(그림 출처: 김동규 역, 인자수지 後, p. 195.)

말하고, 귀성은 혈 후면으로 혈을 받쳐주는 산을 이르며, 금성은 수구 내에 짐승 모양의 사를 일으킨 것을 말하고, 요성은 용호의 팔꿈치 뒤에 뾰족한 바위를 지칭한다. 관성은 용호가 혈 전면을 가로지른 후에 용의 역량이 남아 다시 산을 일으키는 것으로, 용의 역량에 따라 관성의 경중도 결정이 된다. 귀성은 횡룡으로 결혈시에 혈 후에서 지탱해주는 사를 말한다.

• 부합지표: 혈의 주위에 관귀금요가 있다.

## 5. 수(水)에 대한 내용

### 1) 수(水)의 개요

수법(水法)에서는 풍수지리에서 나타나는 모든 물에 대해서 논한다. 풍수라는 명칭에서 바람과 물을 합쳐 풍수라고 하였으니, 풍수지리는 바람과 물의 상태에 따라 땅의 이치가 결정된다는 것이다. 이것은 풍수지리에서 물이 차지하는 비중이 지대함을 나타내고 있다. 또한 산수(山水)라고 하여 산과 물의 배합에 의해 지리의 길흉성패가 나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물은 양에 해당하여 득수(得水)하는 것이 음과 배합되는 것인데, 득수라는 것은 혈에서는 원훈수(圓暈水)의 형태로 나오고, 혈 앞에서는 용호사에서 나오는 물길이 합수(合水)하여 혈처의 생기를 저장하는 것으로 드러난다.

### 2) 수의 발원(發源)

발원수(發源水)는 혈처의 명당으로 혈 후에서 들어오는 물을 말한 것이다. 이 발원수는 깊고 길게 오는 것을 길로 보며, 길고 유장한 것은 용기(龍氣)도 강하여 발복도 크고 길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발원수가 짧다면 그 용의 역량도 작고 발복도 작으며 길게 가지 못한다. 이 발원수의 범위

는 소조산에서 오는 물이 명당수와 합수하는 거리를 본다. 그리고 부모산에서 발원하여 명당앞에서 모이는 합수처의 거리로 한정하여 판단한다.

- 부합지표: 발원수의 거리가 멀고 길다.

### 3) 수의 도국(到局)과 출구(出口)



<그림 27> 도국과 출구(그림출처: 김동규 역, 인자수지 後, p. 47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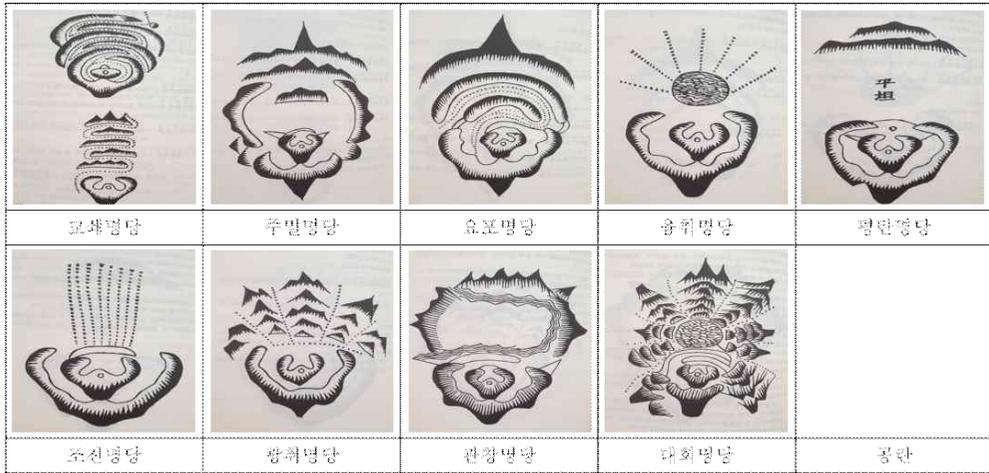
물의 도국은 오는 물이 명당에 이르는 것이다. 이 도국은 내명당이나 외명당 모두에 해당하고, 명당으로 들어온 후 모여서 빠져나가는 곳이 긴밀하여 역수형태가 되면 득수가 되는 것이다. 내명당 밖으로 하사(下砂)에 의해 보이지 않는 물이 모이는 것도 이에 해당하며, 물의 많고 적은 것에 관계 없이 빠른 발복이 가능하게 된다. 특히 이런 곳은 재부(財富)를 주관하여 큰 부자에 응하게 된다. 물의 출구는 물이 명당에 이른 후 빠져나가는 곳으로, 혈처를 완만하게 감싸고 느리게 빠져나가는 것을 길로 본다. 이것을 『인자수지』는

“장서에서는 가는데 흐름이 보이지 않고, 나를 돌아보며 머물고자 하는 것이 묘이다.”라고 하여 빠져나가는 물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긴밀하게 막아 주고 수구사나 굴곡에 의해 매우 느리게 흘러가는 것을 말한 것이다. 도국과 출구의 부합지표는 2가지이다.

- 부합지표: 오는 물이 명당에 든다.
- 부합지표: 물이 나가는 곳이 굴곡하고 수구사가 있다.

### 4) 명당(明堂)

수법에서의 명당은 혈법의 명당에 있는 소명당은 거론하지 않고 내명당과 외명당에 대해 논한다. 결혈지의 명당은 반드시 내명당과 외명당을 만드는데, 내명당은 용이 와서 결혈하고 청룡과 백호가 감싸주며 가까운 안산의 안쪽으로 형성된 공간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용호를 따라 내려온 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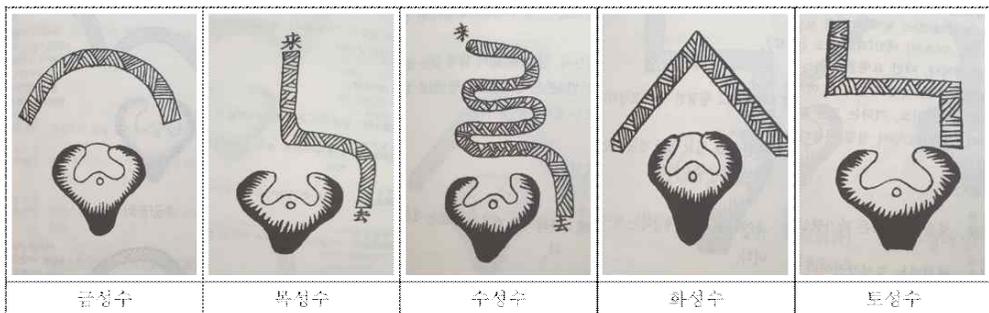


<그림 28> 명당의 종류(그림출처: 김동규 역, 인자수지 後, pp. 596-602.)

쪽의 물이 흡수한 안쪽을 말하며, 이 내명당은 너무 좁거나 너무 넓은 것은 마땅치 않고, 넓이가 국세에 맞게 적당하여야 하며, 기울지 않고 평탄하여야 한다. 외명당은 안산 밖으로 형성되는데, 내명당과 달리 넓은 것을 길로 본다. 『인자수지』에서는 명당의 종류는 길흉명당의 각각 9가지로 구분한다. 길격명당은 교쇄명당, 주밀명당, 요포명당, 응취명당, 평탄명당, 조진명당, 광취명당, 관창명당, 대회명당으로 9개이다.

- 부합지표: 명당수의 9길격 중 하나에 해당한다.

## 5) 수성(水星)



<그림 29> 수성의 종류(그림출처: 김동규 역, 인자수지 後, pp. 625-635.)

수성은 물의 형상은 오행의 형에 대비하여 분류한 것이다. 오성은 오행의 금목수화토의 성으로, 모든 물의 형상을 구분한 것이다. 이 오성은 혈을 감싸고 만곡하며 유정한 것을 길로 본다.

<그림 29>에서 금성수는 만곡포신(彎曲包身)한 것으로, 극길하게 보았다. 목성수는 직준무정(直竣無情)한 것으로 대흉으로 보았다. 수성수는 현(玄)자 모양으로 굴곡하는 것으로 최길격으로 본다. 화성수는 첨사파쇄(尖射破碎)한 것으로 극흉으로 본다. 토성수는 횡으로 평평하나 각진 것이니 반길로 본다. 그러므로 금성수, 수성수는 길하고, 목성수, 화성수는 흉하며, 토성수는 반길이 된다. 이상의 길성수라도 혈에 대해 반배(反背)하는 형태라면 흉이 된다.

- 부합지표: 수성성이 금이나 수에 해당한다.

## 6) 좌향(坐向)

『인자수지(人子須知)』에서는 좌향(坐向)에 대해 논하지 않는다. 이 좌향법은 청대(清代) 조정동(趙廷東)이 저술한 『地理五訣』에서 정리가 되었다. 조정동은 그 전 문헌들의 이기론과 향법을 접목하여 향법을 만들었는데, 양균송의 『靑囊經』 이론을 모태로 하여 작성하였다고 밝히고 있다. 그 연원을 당나라 양균송의 14진신과 10퇴신법에 두고 있고, 『靑囊序』와 『玉尺經』의 논리도 참고한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좌향에 대한 이론이 명확치 않고 판단의 기준점이 모호하므로 아직까지도 확실하게 정립되지는 않았다. 여기에서는 여러 가지 좌향법 중에서 그 연원이 확실하고 정확도에서도 타 좌향론 보다는 우위에 있는 팔팔향법의 이론을 기준으로 사례지의 좌향을 분석한다. 수법편에 좌향을 둔 것은 물이 빠져나가는 파구(破口)를 기준하여 향을 정하므로 수법의 하위 항목으로 두는 것이 합당하다고 보았다.

팔팔향법의 논리는 파구를 중심으로 사국(四局)을 결정하고, 그 사국은 목국(木局)이면 정미(丁未), 곤신(坤申), 경유(庚酉)방으로 물이 빠지고 화국(火局)은 신술(辛戌), 건해(乾亥), 임자(壬子)방으로 물이 빠지며 금국(金局)이면 계축(癸丑), 간인(艮寅), 갑묘(甲卯)방으로 물이 빠지고 수국(水局)은 을진(乙辰), 손사(巽巳), 병오(丙午)방으로 물이 빠진다. 용과 물의 음양

교배(交配)에서 좌선(左旋)룡이면 우수도좌(右水到左)로 감아주어야 하고, 우선(右旋)룡이면 좌수도우(左水到右)로 감아 주어야 한다. 혈에서 제일 가까운 파구를 우선하며, 멀리 있는 것은 차선으로 살핀다. 좌향의 부합지표는 다음과 같다.

- 부합지표: 팔괘향법의 길좌향에 속한다.

### Ⅲ. 朝鮮時代 科試科目과 『人子須知』의 龍·穴·砂·水 비교

#### 1. 조선시대 음양과(陰陽科) 지리학(地理學) 과시과목

##### 1) 과시과목의 개요

조선시대의 과거시험 중 풍수지리는 잡과의 음양과(陰陽科)에 해당한다. 음양과의 지리학(地理學)이 풍수관련 관리를 선발하였다. 지리학의 과시과목 중 조선초에서 조선말까지 유지되어 시행되었던 4대 과시과목은 『청오경(靑烏經)』 · 『금낭경(錦囊經)』 · 『호순신(胡舜臣)』 · 『명산론(明山論)』이다. 과시서 중 『청오경(靑烏經)』 · 『금낭경(錦囊經)』은 서적을 보지 않고 뜻을 새기는 배강(背講)으로 시험을 하여, 서적을 보면서 시험을 치르는 임문(臨文) 과목에 비해 중시하였다.

『호순신(胡舜申)』은 형기풍수(形氣風水)와 이기풍수(理氣風水) 중 이기풍수에 중점을 두었으며, 『명산론(明山論)』은 형기풍수를 중심으로 편찬된 문헌으로 조선시대의 풍수논리가 이기론(理氣論)과 형기론(形氣論)을 동시에 수용하였음을 나타낸다. 그러나 『호순신(胡舜申)』과 『동림조담(洞林照膽)』을 제외한 모든 시험과목이 형세를 살펴 판단하는 형기론 풍수임을 보면 이기론보다는 형기론을 더욱 중요시하였음을 알 수 있다. 특이점은 『탁옥부(琢玉斧)』가 『속대전』에 시험과목에 편성되었다가 빠졌다는 것이다. 이 『탁옥부(琢玉斧)』가 『인자수지(人子須知)』의 영향을 받아 저술되었다는 것으로 볼 때 『인자수지』가 조선 중기에 도입된 후 풍수지리에 중요하게 자리매김한 것으로 유추가 가능하다.

##### 2) 과시과목의 구성과 특징

조선시대 음양과 지리학 4대 과시과목은 조선조 동안 한번도 빠짐없이 출제가 되었던 과목으로 『청오경(靑烏經)』 · 『금낭경(錦囊經)』 · 『호순신(胡舜臣)』 · 『명산론(明山論)』이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중요도에 따

른 9대 과시과목으로는 『청오경(靑鳥經)』 · 『금낭경(錦囊經)』 · 『호순신(胡舜臣)』 · 『명산론(明山論)』 · 『지리문정(地理門庭)』 · 『감룡경(撼龍經)』 · 『착맥부(捉脈賦)』 · 『의룡경(疑龍經)』 · 『동림조담(洞林照膽)』이다. 이 과목들의 저작시기가 『청오경』은 한 대(漢代), 『금낭경』과 『착맥부』는 동진대(東晉代), 『감룡경(撼龍經)』 · 『의룡경(疑龍經)』은 당대(唐代), 『동림조담(洞林照膽)』은 오대(五代), 『호순신(胡舜臣)』 · 『명산론(明山論)』 · 『지리문정(地理門庭)』은 송(宋)대의 저작이다.<sup>48)</sup> 이는 각 시대를 대표하는 풍수전적을 선별하여 과시과목으로 선정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명대의 저작인 『탁옥부(琢玉斧)』가 영조대에 취재(取才)과시서로 선정되었는데 이 『탁옥부』는 『인자수지(人子須知)』의 영향을 받아 저작되었다.

### (1) 『청오경(靑鳥經)』의 구성과 내용

『청오경(靑鳥經)』은 한나라 시기 청오자(靑鳥子)가 지었다고 알려져 있으나 명확한 내력이 없고 신비화되어 구전되고 있다. 이는 『청오경(靑鳥經)』이 풍수지리의 최초의 서적으로 인식되면서 경전으로 취급되었으며 후 대에 다수의 가탁(假托)이 이루어졌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청오경』의 구성은 단락의 구분이 없이 연결되어 서술하였다.

『청오경(靑鳥經)』의 내용을 살펴보면, 첫 구절로 “盤古渾淪，氣萌大朴. 分陰分陽，爲清爲濁.”이 쓰였다. 이는 동양고전의 의식체계인 태극이 음양으로 분화하고 음양이 맑고 탁함이 되었다는 것으로 대부분의 풍수지리 초기문헌에 비슷하게 나타난다. 반고혼륜(盤古渾淪)과 기맹대박(氣萌大朴)은 혼돈(混沌)상태에서 기(氣)가 나와 큰 바탕이 되었다는 내용으로 세상의 시초에 대한 표현이다. 인간의 생로병사(生老病死)와 길흉(吉凶)이 음양(陰陽)과 청탁(淸濁)에 의해 이루어진다고 본 것으로 『청오경』의 근본 논리에 해당한다. 또한 장사(葬事)는 인간의 길흉<sup>49)</sup>에 관계된다고 보았다. 이 내용으로 보아 『청오경』에서는 기(氣)와 음양(陰陽)은 인간의 생로병사(生老病死)에 관계되고, 장사(葬事)는 길흉화복(吉凶禍福)에 관계

48) 홍성서, 「조선시대 음양과 지리학 과시과목의 문헌 연구」, 영남대학교 박사논문, 2013, p. 148, 참조.

49) 『靑鳥經』, “藏於杳冥，實關休咎.”

된다고 보았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본격적인 풍수지리 내용이 그 다음 구절에 나온다. 그 내용은 “산천이 융결하니 산이 일어나고 물의 흐름이 안 끊기고, 북과 덕이 있는 자리는 형태가 온화하고 궁색하지 않고 사방의 산이 두루 감싸주니 그 주인과 손님의 법이 합당하다.”<sup>50)</sup>라고 하여 산과 물이 어우러지고 사세(四勢)가 감싸 국세(局勢)가 안정되고 평안함을 말한다. 이는 명당(明堂)의 기본 형태가 된다.

다음으로 『청오경(靑鳥經)』의 생기(生氣)에 대해 살펴보면, “생기가 쌓이지 못한 자리는 뼈가 썩고, 생기가 미치지 못한 자리는 살아있는 사람이 죽을 것이고, 생기가 흩어지고 누설되는 자리는 관이 뒤집히고 깨질 것이며, 생기가 배신하고 간헐한 자리는 냉수가 솟아나 적실 것이다.”<sup>51)</sup> 이는 생기가 혈(穴)을 이루는 기운이라는 뜻으로 『청오경(靑鳥經)』이 생기에 대해 매우 중요시하였음을 알 수 있다. 또한 “氣乘風散, 脈遇水止”라고 하여 기(氣)는 바람을 타면 흩어지고 맥(脈)은 물을 만나면 멈춘다는 내용으로 이것이 후대의 『금낭경(錦囊經)』에 영향을 주어 비슷한 구절이 나타난다.

그리고 『청오경(靑鳥經)』은 동기감응(同氣感應)에 대해 다음과 같이 표현하였다. “길한 기운이 감응하면 많은 복을 인간에게 이르게 하고, 동쪽 산이 불을 토하면 서쪽 산에서 구름이 일어나고, 혈이 온길(溫吉)하면, 부귀가 끊이지 않는다. 그러하지 못한다면 자손이 외롭고 가난할 것이다.”<sup>52)</sup> 이는 풍수지리에서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내용으로 풍수지리 논리의 성립배경에 해당하며 조상의 유해가 온화하고 생기가 충만한 자리에 들면 그 후손에게도 길한 기운을 주어 부귀한다는 것이다.

## (2) 금낭경(錦囊經)의 구성과 내용

『금낭경(錦囊經)』은 동진(東晉)시기의 광박(郭璞)(276~324)이 저술한 것으로 보고 있다. 광박은 『주역(周易)』·『산해경(山海經)』 등의 주석을

50) 『靑鳥經』, “山川融結, 峙流不絕, 雙眸若無, 鳥乎其別. 福厚之地, 雍容不迫, 四合周顧, 卞其主客.”

51) 『靑鳥經』, “不蓄之穴 是爲腐骨, 不及之穴, 生人絕滅, 騰漏之穴 翻棺敗槨, 背囚之穴, 寒泉滴瀝.”

52) 『靑鳥經』, “吉氣感應, 累福及人. 東山吐焰, 西山起雲, 穴吉而溫, 富貴延綿. 其或反是, 子孫孤貧.”

달았고, 학술(學術), 역학(易學), 방술(方術) 등에 두루 능하다고 하였다. 『진서(晉書)·곽박전(郭璞傳)』에서는 “곽박(郭璞)의 자는 경순(景純)이고 하동(河東)사람으로 두루 박식했고 출세의 도가 있었다. 천문(天文)과 지리(地理), 하도(河圖)와 낙서(洛書), 효상(爻象)과 참위설(讖緯說)을 했다. 묘(墓)를 보는 것에 능했고 사람과 귀(鬼)의 상황을 예측하였다.”<sup>53)</sup> 는 내용으로 보아 곽박은 여러 방면에서 능통함을 보였고, 풍수지리에도 능했음을 알 수 있다.

『금낭경(錦囊經)』의 구성은 2권 8편으로 되어있으며, 기감(氣感), 인세(因勢), 평지(平支), 산세(山勢), 사세(四勢), 귀혈(貴穴), 형세(形勢), 취류(取類)로 분류하였다.

『금낭경(錦囊經)』 「기감(氣感)」편의 내용에서는 『청오경(靑烏經)』의 논리를 이어받아 생기에 대해 구체적으로 논하고, 동기감응에도 구체적인 예를 들어 설명한다. 그리고 생기가 만들어지는 이유를 밝히고 득수(得水)와 장풍(藏風)에 대해서도 차서(次序)를 나누고, 천심(淺深)을 알고 기(氣)를 받으면 풍수가 스스로 이루어진다고 하였다.

「인세(因勢)」편의 내용은 장사시에 기(氣)의 근원(根源)과 매장지에 대해서 설명하였고, 지세(地勢)와 산세(山勢) 그리고 전기지지를 논하였다. 그리고 땅의 상태와 산의 모양을 설명하였다.

「사세(四勢)」의 내용적 특징은 사세에 대해 “자리에서 좌측은 청룡으로 보고, 우측은 백호, 앞은朱雀, 뒤는 현무로 지정하고, 그 사세의 형태를 현무는 머리를 자리에 대해 수그리는 듯하고,朱雀은 춤추는 모양으로 맑고 밝으며, 청룡은 굽어 감싸안고 완연하고, 백호는 순하게 머리를 숙여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sup>54)</sup>

「귀혈(貴穴)」편의 특징은 혈의 조건에 대한 내용으로 첫째, “외기는 내기를 모이게 하고 물이 가로지르면 내룡을 멈추게 한다고 했고, 내룡이 와서 멈추더라도 외기가 모이지 않으면 내기는 땅속에서 흩어진다.”<sup>55)</sup> 고 말한다. 이는 외기(外氣)의 중요성을 말하는 것으로 외기란 사세의 혈장에

53) 『晉書, 郭璞傳』, 郭璞字景純, 河東人也. 周識博聞, 有出世之道. 鑒, 天文地理龜書龍圖爻象, 讖緯, 安墓卜, 莫不窮微. 善測人鬼之情狀.

54) 『錦囊經』 「四勢」, “夫葬 以左爲青龍, 右爲白虎, 前爲朱雀, 後爲玄武. 玄武垂頭, 朱雀翔舞, 青龍蜿蜒, 白虎馴類.”

55) 『錦囊經』 「貴穴」, “夫外氣所以聚內氣, 過水所以止來龍. 千尺之勢, 宛委頓息, 外無以聚, 內氣散於地中.”

대한 보호를 적절하게 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바람의 해(害)에 대해서 “바람은 생기를 흩어 버리므로 사세가 자리를 감싸서 보호해야 한다.”<sup>56)</sup>고 한다. 이는 용호와 현무와 주작의 혈처에 대한 상황을 생기를 보호하는 형태가 되어야 함을 뜻한다.

「형세(形勢)」편의 내용은 용의 어느 위치에 자리를 잡으면 되는지와 모양에 따른 길흉 그리고 용이 내려와서 어디에 쓰면 길하고 어디에 쓰면 흉한지를 설명한다.

### (3) 『호순신(胡舜申)』의 구성과 내용

호순신(胡舜申)은 책 이름을 저자의 이름을 그대로 사용하여 『호순신(胡舜申)』이라 하였다. 『호순신(胡舜申)』은 송나라 고종시기(1143~)에 저술한 것이다. 『호순신(胡舜申)』은 조선시대 4대 과시서로서 『조선왕조실록』에 가장 많이 등장한 지리서이다. 『호순신(胡舜申)』의 책명은 『조선왕조실록』에서는 『호씨서(胡氏書)』, 『호순신(胡舜申)』, 『호순신(胡舜臣)』, 호순신(胡舜申)의 『지리신서(地理新書)』로 표기되어 있다.<sup>57)</sup> 조선시대 지리학 과목으로는 『호순신(胡舜申)』이며, 호순신(胡舜申)의 서문에는 『지리신서(地理新書)』<sup>58)</sup>로 되어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지리신법(地理新法)』으로 통용되고 있다. 본 고에서는 조선시대의 지리학 과시서의 명칭을 따라 『호순신(胡舜申)』으로 통일한다.

『호순신』의 구성은 상하 2권에 23편으로 되어 있다. 상권은 13편이고, 하권은 10편이다.

상권에 형세론편이 있으나 주로 이기론에 대해 논했으며, 하권에서는 『금낭경』을 근간으로 하여 형세론을 논했으나 형세론 서적인 『금낭경』을 이기론으로 변경한 내용이 주를 이룬다.

「오산도식(五山圖式)」편에서의 내용은 포태법(胞胎法)과 구성(九星)론에 대해 설명한다. 포태법은 명리학(命理學) 이론에서 차용한 것으로, 명

56) 『錦囊經』 「貴穴」, “夫噫氣爲風, 能散生氣, 龍虎所以衛區穴. 疊疊中阜, 左空右缺, 前曠後折, 生氣散於飄風.”

57) 장성규, 「조선왕조실록의 풍수지리문헌 연구」, 공주대학교 박사논문, 2009, p.156 참조.

58) 『胡舜申』 「序文」, “其大要, 經之以五行生旺死絕, 而緯之而九星. 此皆選集 聞, 廣以新意. 著論二十有三篇, 因以名之曰, 地理新書, 卽舉舊而新之也.”

리학에서의 포태법은 양(하늘)기준으로 화토(火土)가 동궁(同宮)이 되고, 풍수지리는 음(땅)기준이므로 수토(水土)가 동궁이 되어 수(水)와 토(土)국이 동일하게 사(巳)에서 포가 되는 것이다.

「오행(五行)론」편에서의 내용은 일반적인 정오행(正五行)이 아니라 대오행(大五行)을 따른다. 어떠한 연유인지는 저자도 모르겠다고 하며, 단지 대오행(大五行)에 따라 사용하면 길흉에 호험이 있다고 한다. 대오행의 소속에 대해 설명한 것이나, 원리적인 내용이 빠져있어 이해하기 어렵다.

「산론(山論)」편에서는 “구성을 팔괘에 배속시켜 사용하고, 구성을 활용하여 산과 물을 논하면 두루 통달하니 모든 산에 쓸 수 있으며, 그 길흉이 맞아 들어간다.”<sup>59)</sup>고 하였다. 『청오경(靑鳥經)』이 형세론 위주의 논리를 따라 서술된 내용이라면 『호순신(胡舜申)』 「산론」에서는 이기(理氣)적으로 변형하여 사용하고 있다.

「수론(水論)」편에서의 내용은 “산은 음에 속하고 물은 양에 속하며, 산은 체(體)가 되고 물은 용(用)이 되어 그 길흉화복(吉凶禍福)이 물에서 빠르게 나타난다.”<sup>60)</sup>고 하였다. 이는 양균송의 산음수양(山陰水陽)의 논리를 따른 것으로 음양의 분류 중 동정(動靜)에 의한 판단이다.

「형세론(形勢論)」과 「택지론(擇地論)」에서는 상권 13편 중 이 두 편만이 형세론에 대해 논하고 있다. 대체로 『금낭경(錦囊經)』의 내용을 인용하였다. 형세론에서는 “지리는 형세를 근본으로 한다고 하면서 형세가 있고 나서 이 법을 쓸 수 있다고 하였다. 형세가 없는데 이 법을 쓰면 호험이 없다고도 하였고, 그 이유를 오기가 땅속으로 흐르며, 인간이 세우는 모든 것은 생기를 타야 하므로 형세가 없으면 생기가 모이지 않기 때문이라고 하였다.”<sup>61)</sup> 이 내용으로 볼 때 『호순신(胡舜申)』에서 형세를 기본으로 두고 이기론을 사용하였음을 알 수 있으나, 형세에 관한 내용은 미약하게 나타나고 대부분이 방위를 따르는 이기론을 사용하였다. 형세가 이기보다는 중요하다고 말하고 있지만 『호순신(胡舜申)』의 전체 맥락은 이기론이 주된 내용이다.

59) 『胡舜申』 「山論」, “今此特用天上九星遊行之法. 其所論山水, 皆深妙而圓通. 故諸山無不可用, 而所定吉凶爲的也.”

60) 『胡舜申』 「水論」, “山靜物而屬陰, 水動物而屬陽. 陰道體當, 陽主變化. 故吉凶禍福見於水者, 尤急.”

61) 『胡舜申』 「形勢論」, “地以形勢爲本. 有形勢然後, 此法可施. 無形勢而用之, 往往其效不應, 夫何故, 五氣行於地中, 人所建立, 皆以乘生氣. 無形勢, 則生氣不聚故也.”

#### (4) 『명산론(明山論)』의 구성과 내용

『명산론(明山論)』은 송대(宋代)의 채성우(蔡成禹)가 지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명산론』의 「서문(序文)」에서 채성우는 “이 책은 『명산론』으로, 비록 오래된 책은 아니지만, 역시 선배들 중 땅의 이치(理致)에 밝은 사람이 지은 책이다. 그 중 훼손된 것을 보충하고, 오류(誤謬)가 있거나 틀린 것은 바로잡아 13편으로 다듬었으며 또한 여기에 후어를 썼다.”<sup>62)</sup>라고 밝히면서 본인은 서문과 후어만을 썼으며, 본문은 전대의 풍수서를 보완하고 다듬었다고 하였다. 『명산론』은 조선시대 4대 과시과목으로 조선조 내내 빠지지 않고 지리학 과시서로 자리매김함으로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구성은 서문과 후어를 두고 본문은 13편으로 구성되었다.

「서문」에서는 “땅의 이치에 관한 것에 이르러서는 그 오류와 난잡함이 더욱 심한데, 『궁택지형(宮宅地形)』과 같은 책은 땅의 형기(形氣)을 논하는데, 그 시종이 서로 정묘(淨妙)하다. 기타는 그와 같은 책이 없다.”<sup>63)</sup>고 하였으며, 그래서 이전의 책을 다듬어 지었다고 하였다.

「12명산(十二名山)」의 내용은 용을 12가지로 구분하여 길흉을 정하였다. 이 내용이 후대의 『인자수지』 길룡과 흉룡의 항목에 영향을 주었다고 보인다.

「절목(節目)」은 과협처를 말하는 것으로 보인다. 특이하게 『명산론』에서는 절목이라 하였다. 이 절목으로 혈의 대소를 구분하고 있다. 절목은 세가지로 구분하여 보고 있는데 그것은 기가 왕성한 곳을 가장 귀하게 보았고, 구족동맥(九族同脈)에서 가장 긴 것을 절목으로 보았으며, 회룡(回龍)이 되고 그 회룡을 조산(朝山)과 영산(迎山)이 따르면 절목이다.

「혈법(穴法)」에서는 용을 보는 것보다 혈을 택하는 것을 더욱 어렵게 보았고, 혈의 위치와 혈의 형태 그리고 하관(下棺)하는 방법에 대해 구체적으로 논하고 있다. 이는 조선시대 지리학 과시과목 중 가장 구체적으로

62) 『明山論』 「序文」, “此書爲明山論, 雖非古書, 亦前輩曉地理者之所作也. 因補緝其闕失, 刪改其謬妄, 定著爲十三篇, 又爲之後語.”

63) 『明山論』 「序文」, “至於地理則謬亂尤甚, 漢志有宮宅地形之書, 所論形氣, 相首尾妙矣. 其他無存焉.”

논술한 것이다. 내용은 용은 혈의 근본이 되고, 혈이 중심이 되며, 물이 감아 돌고, 청룡과 백호 그리고 조안산(朝案山)이 적절하게 조화되어야 함을 말한 것이다.

「명당(明堂)」의 내용은 명당에 대해서 “무릇 명당은 천자(天子)가 천하의 인사를 받는 곳이다. 혈을 취하면서 명당을 취하는 것은 산수(山水)의 조화를 받는 것이다. 그러므로 혈에 명당이 있는 것을 천심(天心)이라 하고, 정혈에 명당이 없는 것을 혼(魂)이 없는 용(龍)이라고 한다.”<sup>64)</sup>라고 하여 혈을 찾는데 명당 또한 중요한 요소로 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명당의 종류와 형태 그리고 명당에 따른 길흉을 설명하였다.

「길흉사형(吉凶砂形)」의 내용은 사(砂)에 대한 설명과 그에 따른 길흉 그리고 지역에 다름에 의해 사는 사람들의 성품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 있다. 또한 사에 대해서는 “길흉사형의 모양은 3000여 종류나 되므로, 역시 여러 요인에 따라서 적절하게 주변과의 관계를 생각하고 상세한 것까지 보아야 한다.”<sup>65)</sup>고 하였다.

「진룡(眞龍)」의 내용은 용의 길함과 흉함에 대해서 논하였다. 바른 용은 “용맥(龍脈)이 나아가면서 각기 가지를 내고 차례대로 군신과 빈주를 만든다. 대지를 이루는 곳에 이르러서는 산과 물이 감싸는데, 혹은 큰 강을 만나기도 하고 혹은 물을 만나 기맥(氣脈)이 각각 모인다. 이러하면 세력이 좌우로 달아나지 않고, 난잡함을 범하지 않는다. 이런 곳은 진룡(盡龍)이 된다.”<sup>66)</sup>고 하였다.

## (5) 『감룡경(撼龍經)』의 구성과 내용

『감룡경(撼龍經)』은 당대의 양균송(楊筠松)의 저작이다. 청오자가 풍수지리의 창시조(創始祖)에 해당한다면, 양균송은 중시조(中始祖)로 보고 있다. 그런 만큼 후대의 풍수지리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 오늘날의 풍수지리 관련 용어의 대부분이 이때 만들어진 것이다. 그리고 『감룡경』은 형기론에 해당하는 이론으로 산을 구성(九星)에 따라 분류하여 논하고 있다.

64) 『明山論』 「明堂」, “夫明堂者, 天子所以朝天下. 取穴而取明堂, 所以受山水之朝也. 故穴有明堂者, 謂之天心. 正穴無明堂者, 謂之無魂之龍.”

65) 『明山論』 「吉凶砂形」, “此吉凶砂形, 散而有三千餘種, 亦在隨機消息用意推詳.”

66) 『明山論』 「眞龍」, “龍脈行度, 各分枝派, 逆作君臣賓主, 至成大地之處, 包含結裹, 或屈大江, 或枕陂灘, 氣脈各團集. 勢力不趨往左右, 圈欄不犯天外, 皆爲盡龍.”

이는 천문을 풍수지리에 도입하여 사용하고 분류하여 이론체계를 세운 것이다. 그리고 『의룡경』과 함께 조선시대 지리학 과시서로도 활용되었다.

『감룡경』의 구성은 일반적으로 통론과 구성각론 그리고 부록편으로 보고 있다. 부록에 해당하는 변혈편(變穴篇)과 구성길흉(九星吉凶) 그리고 자웅시편(雌雄詩斷篇)과 정혈좌선칠성경(定穴左仙七星經)은 후대의 가탁으로 보는 견해가 많다.

「변혈편(變穴篇)」에서는 구성에 따른 혈형(穴形)을 밝히고 있다. 이는 풍수지리에서 매우 중요한 것으로 『감룡경』에서만 나타나는 내용이다. 그 내용은 “탐랑이 혈을 만들면 유두혈(乳頭穴)이 된다. 거문은 와혈(窩穴)을 만들고, 무곡은 채검(釵鉗)을 만든다. 녹존과 염정은 소치(梳齒)를 만들고, 문곡은 높은 평지 속에 만든다. 파군은 창(戈矛)과 유사하다. 보성은 연소혈(燕巢穴)로서 머리를 쳐들고 있다. 만약 고산(高山)에 있다면 괘등(掛燈)과 같고 낮은 곳에 낙맥했다면 작소혈(雞巢穴)이다.”<sup>67)</sup> 이는 혈의 모양을 구성(九星)에 따라서 구분한 것으로 정미(精微)로운 내용이다.

## (6) 『의룡경(疑龍經)』의 구성과 내용

『의룡경(疑龍經)』은 앞의 『감룡경』을 저술한 양균송의 저작이다.

『의룡경』의 구성은 상권, 중권, 하권의 3권에 부록으로 의룡십문(疑龍十問), 위룡편(衛龍篇), 변성편(變星篇), 단제수언(斷制粹言), 형혈속성상(形穴屬星象)의 5편으로 되어있다.

「상권(上卷)」의 내용은 간룡(幹龍)과 지룡(枝龍)에서 혈이 맺는 것과 맺지 못하는 것에 대한 설명과 호위룡(護衛龍)의 다소(多少)에 따른 진혈(眞穴)과 가혈(假穴)을 판단하는 방법을 논하고 있으며, 용과 물의 관계에 의한 혈의 성사여부(成事與否)를 논한다. 간룡과 지룡에서의 혈을 찾는 것에 대해 간룡은 너무 강한 기운이기에 흘러가는 것으로 혈을 만들지 못하고, 지룡에서 구성이 나타나고 혈을 맺는다고 하였다.<sup>68)</sup> 그리고 간룡에서 혈을 찾는 것은 호위하는 지룡에서 조건이 갖춰지면 혈이 있을 수 있다고

67) 『撼龍經』 「變穴篇」, “貪狼作穴是乳頭, 巨門作穴窩中求. 武曲作穴釵鉗覓, 祿廉梳齒犁辟頭. 文曲穴來坪裏作, 高處亦是掌心落. 破軍作穴似戈矛, 兩傍左右手皆收. 定有兩山皆護衛, 不然一水過橫流. 輔星正穴燕巢仰, 若在高山掛燈樣. 落在低平是雞巢.”

68) 『疑龍經』 「上卷」, “疑龍何處最難疑 尋得星峰却是枝.”

하였다. 이 지룡에서 혈이 맺으려면 혈과 수구를 감싸주는 산이 세겹에서 다섯겹은 되어야 혈이 된다<sup>69)</sup>고 설명한다.

「중권(中卷)」의 내용은 중국에서 도읍지를 만드는 용에 대한 설명과 면배(面背)와 전수전산(纏水纏山) 그리고 나성(羅星)에 대해서도 언급한다. 전산과 전수는 용을 호위하고 감싸주는 산과 물을 말한다. “대저 전산은 반드시 굽어 돌아야 하고, 명당 또한 전산 밖에서 찾으면 안된다. 굽고 돌아드는 모양이면 이것이 면이다. 단지 조산이 막혔는지를 염려하라.”<sup>70)</sup> 이 내용에서 전산과 면에 대해 설명하였다. 그리고 다음은 면배에 대한 내용이다. “물길이 언덕을 치고 들면 이런 곳은 배에 해당한다. 만약 산의 면이라면 넓고 평평하며 산의 배라면 험한 벼랑이다.”<sup>71)</sup> 이는 면배를 분별하여 면에서 혈처를 찾으라는 것이다.

「하권(下卷)」의 내용은 혈(穴)과 재혈(裁穴) 그리고 구성에 따른 혈형(穴形)과 도시의 형성에 대한 것이고, 이십팔수(二十八宿)에 의한 괴형(怪形)과 산의 모양에 따른 재혈에 대해서 논하고 있다. 혈의 종류에 대해서는 『감룡경』에서 구성에 의한 혈 외에도, 사신사가 없는 평지혈과 높은 봉우리에 있는 혈 그리고 산꼭대기에서 머리를 들고 있는 혈도 있으며, 물 주변에 감싸주는 것이 없는 혈은 괴혈로 보았고, 손바닥을 펴 세운 듯한 모습의 혈도 있다. 또한 창처럼 뺨은 혈도 있고, 바위 가운데 있는 혈도 있으며, 높은 산등성이에 팔방에서 바람이 치는 혈도 있고, 수구산이 없는 혈도 있다고 하여 혈의 종류가 다양함을 설명하고 있다.

## (7) 『동림조담(洞林照膽)』의 구성과 내용

『동림조담(洞林照膽)』은 오대(五代)의 범월봉(范越鳳)의 저작이다. 조선시대 과시과목이며, 『호순신』과 같이 이기론을 주된 논리로 삼았다. 조선의 지리학 과시서 중에서 『호순신』·『동림조담』 두 권만이 이기론을 따르고 있어 이기풍수를 연구하는데 중요한 자료로 볼 수 있다.

『동림조담』의 구성은 상·하의 2권에 24편으로 되어있다. 24편 중 15편

69) 『疑龍經』 「上卷」, “莫便將爲眞實看, 此是護龍兼交互, 三重五重抱回來, 此就枝龍腰上做.”

70) 『疑龍經』 「中卷」, “大抵纏山必曲轉, 莫把明堂向外截, 曲轉之形必是面, 只恐朝山塞不開.”

71) 『疑龍經』 「中卷」, “水割石崖龍背轉, 若是面時寬且平, 若是背時多陡岸.”

이 형세론 관련 부분이지만 대부분이 이기에 맞춰 형세를 판단하고 있다. 여기에서는 형세론 부분을 위주로 내용을 살펴본다.

「심세편(審勢篇)」의 내용은 산의 모양에 따른 길지와 흉지에 대해 설명하고, 사신사와 수구의 조화를 논하고 있다. 길지에 대한 내용은 “혈에 올라서 바라보면, 주객이 유정하고 용호가 보호하며, 굴곡하여 변화하고, 앞에서는 맞아주고 뒤에서는 안아주며, 수구에 산이 있고, 사방이 원으로 막아주고, 여러 아름다움이 모이면, 이것이 아름다운 성이 된다.”<sup>72)</sup>라고 해서 주산과 객산이 정이 있고, 용호와 수구가 조화로우면 길지가 된다는 설명이다. 「용호편(龍虎篇)」에서는 용호의 기능과 위치 그리고 길형(吉形)과 흉형(凶形)에 대한 내용이다.

「혈맥편(血脈篇)」에서는 산수를 인체에 비유하여 설명한다. 바위를 뼈로 보고, 흙은 살로 보며, 물을 피로 보았다. 특이점은 물에 대한 판단으로 구성수(九星水)를 기준하였다는 것이다. 「명당편(明堂篇)」의 내용은 명당의 모양에 따른 길흉과 주변 사격에 의한 길흉을 판단하였다. 명당은 넓고 평탄하면 길하다고 보았다. 「사신편(四神篇)」에서는 혈을 기준으로 전후좌우의 사격에 대한 설명이다. 사신은 청룡 · 백호 · 주작 · 현무이다. 이들의 형태에 사신사의 모양과 거기에 따른 자손의 길함을 설명하였다. 「주객편(主客篇)」에서는 형세를 근본으로 주인산과 손님산의 그리고 물에 대해 설명한다. 특히 물형에 따른 혈의 위치를 구체적으로 제시한다. 「근안편(近案篇)」은 안산에 대한 설명으로 주산과 안산과의 관계에 따른 길흉에 대해 논하였다. 안산의 거리가 너무 가깝거나 멀면 좋지 않으며, 주산의 높이가 높고 혈처에 대해 머리를 수그린 듯하며, 가로로 아름답고 귀하게 보이는 모양이라야 한다는 내용으로 구체적인 해석이다.

「수구편(水口篇)」의 내용은 물의 들어오고 나감에 대한 설명으로 물이 「재혈편(裁穴篇)」에서의 재혈은 혈을 잡는 방법으로 풍수지리에서 핵심에 해당한다. 혈을 잡는 위치와 그에 따른 길흉을 말하고, 물과의 관계도 중요함을 설명한다. 「절수편(折水篇)」은 물에 따른 길흉을 설명한다. 내룡과 물과의 방위에 따라서 길흉을 정하고, 발복의 형태도 물이 흘러내리는 거리에 의해 발복의 길고 짧음을 설명하였다. 「로편(路篇)」은 길과 묘지의 관계에 따른 흥함을 설명하였다.

72) 『洞林照膽』 「審勢篇」, “登穴而望 主客有情 左右有輔 蜿蜿蜒蜒 前迎後擁 水口有山 四圍有障 衆美俱集 此佳城也.”

## (8) 『착맥부(捉脈賦)』의 구성과 내용

『착맥부(捉脈賦)』는 동진(東晉)시기 도간(陶侃)이 저술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도간은 서문에서 저술 동기를 “신의 가족은 본래 가난하여 세대에 벼슬이 없다. 가계가 가난하였으나 우연히 진혈을 만나 얻어서 법에 따라 선친을 모시니 충분히 만족하다고 말할 수 있다. 이렇게 땅의 성정을 파악하여 비밀히 묘결(妙訣)을 전하고, 지리의 유래를 살펴 인생의 우열을 연구하였다. 상세히 적으면 천기가 누설될 것이고, 감추어 적지 않으면 영원히 물속에 가라앉은 것과 같을 것이다.”<sup>73)</sup>라고 밝히면서 자신의 집안이 가난하였으나 명당에 선친을 모신 후 발복 하였음을 알 수 있다. 『착맥부』는 조선시대 지리학 과시서로 중요한 위치를 갖고 있으며, 『조선왕조실록』에도 인용이 되었다. 또한 풍수지리의 2대 논리인 이기론과 형세론 중 형세론의 논리를 따라 저술되었다.

『착맥부』의 구성은 『청오경』과 같은 시기의 저작으로 단락의 구분이 없이 연결되어 저술하였다.

『착맥부』의 내용에서의 특징은 첫째, 음양의 논리 속에 처음과 끝에 이르기까지 기(氣)가 존재하고, 기의 성쇠(盛衰)에 의해 길흉이 나타난다고 보았다. 또한 기 중에서도 생기를 타야 함을 강조했다. 이러한 내용은 『청오경』의 내용과도 일맥상통한다. 또한 동기감응에 관한 내용이 있는데, “땅을 잃으면 한 세대가 사라지고, 좋은 자리를 얻으면 여러 신들이 함께 도운다. 재앙과 복이 서로 반복하기를 마치 복과 복채와 같다.”<sup>74)</sup>라고 하여 길지를 얻어야 발복을 하고, 자리의 길흉에 따라 화복이 그대로 감응된다고 보고 있다. 둘째, 사신사의 용어가 현무를 대신(大神)이라 하고, 주작을 소신(小神)으로 표현하였다.<sup>75)</sup> 『착맥부』의 저술시기에는 사신사의 용어가 통일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셋째, 물형론에 의한 혈을 잡는 방법을 활용한다. 그 내용은 손가락 모양의 산에서 혈을 잡는 법을 설명한다. 넷째, 구궁(九宮)을 활용한 택일(擇日)을 하는 것이 특징인데,

73) 『捉脈賦』 「序文」, “臣族本寒微 世無閥閱 頃丁家難 獲遇眞穴 有道掩親 良足爲說 因而性地了然 秘傳妙訣於是 攷地理之由來 究人生之優劣 因而性地了然 秘傳妙訣於是 攷地理之由來 究人生之優劣 將欲詳陳 天機或泄 秘而不言 等而沈沒.”

74) 『捉脈賦』, “失其地, 則一世湮沒. 得其所, 則百靈咸助. 災福相仍, 有如桴鼓.”

75) 『捉脈賦』, “大神若住小神回.”

풍수의 택일 관련해서는 가장 빠른 시기의 것이라 할 수 있다.

## 2. 科試科目과 『人子須知』의 龍·穴·砂·水 비교

### 1) 용(龍)에서의 비교

용법에서 『인자수지(人子須知)』는 『감룡경(撼龍經)』의 논법을 대체로 수용하였다. 『감룡경』에서는 용맥을 사람의 육체에 비유하여 설명하였다. 중국의 용맥에 대해 수미산을 천지의 골(骨)로 보고, 그것이 사지(四肢)룡을 만들었다고 보았다. 또한 각 성봉들은 북극성과 구성의 기운을 받아 형성되어 각 성에 맞는 형상을 이루고 길흉이 분별된다고 하였다. 그리고 현무와 조안산, 용호 등에 대한 설명이 있고, 박환, 나성, 혈성, 혈형에 대한 내용이 있으며 관귀(官鬼)에 대한 내용도 나온다.

『인자수지(人子須知)』에서 용법은 용의 대소와 길이에 의해 혈의 대소가 결정된다고 하였다. 이 내용이 나오는 조선시대 과시서는 『호순신』에서 “대개 땅의 내룡이 골이 심장하면 기가 심장하며, 반대이면 그기가 천단하다.”<sup>76)</sup>라고 하였으며, 『의룡경』에서는 “비록 그리하여 가지 중에 줄기를 이미 알았으니, 길면 경도를 일으키고 짧으면 현을 일으킨다. 가지 중에 줄기가 있고 줄기 중에 가지가 있다. 마음속으로 능히 밝으니 입으로 능히 구별한다.”<sup>77)</sup>라고 하였고, 용의 길이에 대해 “용에는 귀천이 없고 단지 용의 길이 만를 논한다. 얽힌 용이 원출하면 전면이 강하다. 길이를 논하고 귀함을 논하지 않는 것을 따르다면 얽힌 용에 혈이 있고 반대로 좋게 된다.”<sup>78)</sup>라고 하였다. 『명산론』에서는 “기가 모인 곳은 내려오는 세가 길고 일어서고 앞드리는 기복이 많으며, 기가 흩어지는 곳은 내려오는 세가 짧고 일어난 용은 앞드리지 못하고 앞드린 용은 일어나지를 알아 식별하기가 어렵지 않다.”<sup>79)</sup>라고 하였으며, 또한 “혹 산이 1리나 10리 또는 혹은 100리를 나아가기도 하는데, 큰 것은 수도와 천자의 궁성

76) 『胡舜申』, “蓋地之岡骨深長, 則其氣深長, 反是則淺短耳.”

77) 『疑龍經』, “雖然已識枝中幹 長作京都短作縣 枝中有幹幹有枝 心裏能明口能辨.”

78) 『疑龍經』, “龍無貴賤只論長 纏龍遠出前更强 若徒論長不論貴 纏龍有穴反爲良.”

79) 『明山論』, “氣聚者, 其降勢長而起伏多. 氣散者, 其降勢短, 起者不能伏, 伏者不能起, 不難見也.”

이 되며 작으면 여러 군이나 중소도시가 된다.”<sup>80)</sup>라고 하였다.

조선시대 과시서 중 『감룡경(撼龍經)』에서 『인자수지(人子須知)』 용법과 유사한 내용이 많고 『호순신(胡舜申)』·『의룡경(疑龍經)』·『명산론(明山論)』에서 용(龍)의 길이에 대해 논하였다. 이는 『인자수지(人子須知)』의 내용과 일치한다.

## 2) 혈(穴)에서의 비교

### (1) 혈(穴)의 사상

『인자수지(人子須知)』에서 혈의 구분은 사상(四象)의 형으로 분류하여 와(窩)·겸(鉗)·유(乳)·돌(突)로 하였다. 이의 논리로는 태극에서 음양을 생하고 음양이 사상으로 분화됨을 뜻한다. 와겸혈은 양중의 음을 취하므로 함(函)중에서 돌(突)한 곳에 하장하고, 유돌혈은 음중의 양을 취하여 돌(突)중의 와(窩)에 하장하는 것이다. 이는 음양의 변화 중에 음중에서는 양을 쓰고, 양중에는 음을 쓴다는 논리가 된다.

조선시대 지리학 과시과목 8개 중 혈형(穴形)에 대한 내용은 당대에 쓰여진 『감룡경(撼龍經)』·『의룡경(疑龍經)』이다. 『감룡경(撼龍經)』에서는 혈형의 구분을 주산(主山)의 구성(九星)에 따라 정하였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탐랑(貪狼)이 작혈하면 유두혈(乳頭穴)이 된다. 거문(巨門)이 와혈(窩穴)을 만드니 가운데를 구한다. 무곡(武曲)이 작혈하면 겸차(鉗鉗)이니, 겸차를 찾아라. 녹존과 염정은 소치(梳齒)에서 여벽두(犁辟頭)이다. 문곡(文曲)은 높은 평지 속에 만든다. 고처(高處)에서는 또한 장심(掌心)에 낙(落)한다. 파군(破軍)이 작혈하면 모과(矛戈)와 비슷하다. 양방에서 좌우로 손으로 거둔다. 양산이 호위가 있다. 그렇지 않으면 일수(一水)가 횡(橫)으로 흘러나간다. 보성(輔星)의 정혈(正穴)은 연소(燕巢)로서 앙(仰)한다. 만약 고산(高山)에 있다면 괘등(掛燈)과 같다. 낮은 곳에 떨어졌다면 작소(雞巢)이다.”<sup>81)</sup>

80) 『明山論』, “或一里, 或十里, 或百里, 大爲京都帝輦, 小爲列郡方鎮.”

81) 『撼龍經』, “貪狼作穴是乳頭, 巨門作穴窩中求. 武曲作穴鉗鉗覓, 祿廉梳齒犁辟頭. 文曲穴來坪裏作, 高處亦是掌心落. 破軍作穴似戈矛, 兩傍左右手皆收. 定有兩山皆護衛, 不然一水過橫流. 輔星正穴燕巢仰, 若在高山掛燈樣. 落在低平是雞巢.”

『감룡경(撼龍經)』에서의 혈형 구분은 천성인 복두칠성의 배치에 따른 구성에 의해 혈의 모양을 정하였다. 탐랑의 유두혈은 『인자수지(人子須知)』의 혈형인 유혈에 해당하고, 거문은 와혈과 같으며, 문곡의 장심혈과 보성의 연소혈은 와혈의 변형이고, 무곡의 검차혈은 검혈이고, 염정의 여벽두혈은 유혈의 변형이며, 녹존의 소치혈과 파군의 과모혈은 괴형에 속한다. 이를 비교하여 다음과 같이 도표로 정리하였다.

<표 1> 인자수지와 감룡경의 혈형 비교

구분	인자수지	감룡경
양혈	와혈	거문와혈 보성연소혈, 괴등혈, 작소혈
	검혈	무곡검차혈
음혈	유혈	탐랑유두혈, 염정여벽두혈
	돌혈	문곡장심혈
괴형	괴형이혈	녹존소치혈, 파군과모혈

이에 대한 『인자수지(人子須知)』의 주장은 양균송의 혈형사격인 와검 유들을 따른다고 하였다. 그러나 『감룡경(撼龍經)』이나 『의룡경(疑龍經)』에서 혈형의 기준점을 구성에 두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비판하는 입장이다. 비판의 논리는 혈의 형은 변태만상이나 음양으로 족하고, 음으로 오면 양으로 받고 양으로 오면 음으로 받아주는 것이며, 이것을 형에 비유하면 요철(凹凸)이다. 이 음양이 다시 사상으로 변화하여 태양소양과 태음소음으로 나누어지고, 그 형은 와검유들이 된다. 이 와검유들은 생기를 얻어 이루어진 형이라야 하며, 대개 생기는 태극이며, 요철은 양의가 되고, 와검유들은 사상이니, 이것이 바로 혈법의 정론이다. 또한 『금낭경』의 내용을 들어 하늘에서는 상을 이루고 땅에서는 형체가 된다는 것은 오성의 형만을 따르는 것이지 백물류의 여러 물형을 말한 것이 아니다.

『의룡경』에서의 혈형은 「변성편」에 자세하게 설명한다. 먼저 정형은 “탐랑이 바뀌지 않으면 유두혈, 거문은 와혈, 무곡은 검혈, 녹존은 여벽두혈, 문곡은 장심혈, 파군은 과모혈, 좌보와 우필은 연소혈을 만든다.”<sup>82)</sup> 고 하였다. 만약 정형에서 변화를 일으켜 변모하게 되면 다음과 같이 혈을 만든다. 탐랑이 녹존으로 바뀌면 학조형(鶴爪形)이 되고, 탐랑이 문

82) 『疑龍經』 「變星編」, “貪狼不變生乳突, 巨門不變窩中求, 武曲不變釵頭見, 祿存不變梨僻頭, 文曲不變掌心作, 破軍不變及與矛, 輔弼不變燕窠仰.”

곡으로 바뀌면 칠망형(撤網形)이 되며, 탐랑이 과군성으로 변하면 과모형(戈矛形)이 된다. 또한 과군이 탐랑으로 바뀌면 타창형(拖鎗形)이 되고, 탐랑이 염정으로 바뀌면 소치형(梳齒形)되며, 탐랑이 바뀌어 좌보성이 되면 연소형(燕窠形)이나 괘등형(掛燈形) 된다.<sup>83)</sup> 이는 모두 정형에서 박환을 통해 변형이 되면 이형의 혈을 만든다는 내용이다.

『감룡』과 『의룡』에서의 정형(正形)은 모두 같은 형의 혈을 만들고, 『의룡』에서는 변성(變星)에 의해 이형(異形)들이 만들어지는 내용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의룡』에서의 이형에 대해 도표로 정리한다.

<표 2> 의룡경의 변성

구분	변형	혈형
탐랑	탐랑변 녹존	학조형(鶴爪形)
	탐랑변 문곡	칠망형(撤網形)
	탐랑변 염정	소치형(梳齒形)
	탐랑변 과군	과모형(戈矛形)
	탐랑변 좌보	연소형(燕窠形), 괘등형(掛燈形)
과군	과군변 탐랑	타창형(拖鎗形)

## (2) 혈성(穴星)

혈성(穴星)에서는 입수한 산의 형체를 오성(五星)이나 구성(九星)에 따라 구분하는 방법이다. 이 혈성에 의해 진결이 가능하다고 『인자수지(人子須知)』에서 주장하였다. 혈성과 관련된 조선시대 풍수지리 과시서는 『감룡경(撼龍經)』이다. 『감룡경(撼龍經)』에서는 구성에 의한 혈성을 구분하였다. 그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탐랑목은 뾰족하고 강하며(尖強), 문필봉과 깃발과 같고, 천마(天馬)를 만들기도 한다. 거문토는 아미(蛾眉), 복월(覆月), 현종(懸鍾)과 같다. 무곡금은 탁규(卓圭), 입훈(立笏), 병장(屏障), 누대(樓臺), 방관(方冠)과 같다. 녹존토는 금기시하였고, 고봉이 외롭게 염권(拈拳)하거나 낮은 산이 소의 코처럼 비습하면 매우 흉하다고 보았다. 문곡수는 난화(亂花), 경사(驚蛇)등 정돈되지 않은 모양이다. 염정

83) 『疑龍經』 「變星編」, “有如貪狼變文曲, 網之形非碌碌, 有如貪變破軍相天梯隱隱, 如旗樣旗山若作蓋天旗旗, 有如破軍變貪狼貪狼入穴, 如拖鎗之穴人嫌醜, 貪變廉貞梳齒樣, 變作輔星燕窠仰, 變作破軍如戈矛.”

화는 고침(高尖), 추악(醜惡), 공결(空崔), 분열(分列)과 같다. 파군금은 음양차착(陰陽差錯), 난석(亂石), 파쇄(破碎), 마편(馬鞭)과 같은 모양과 형세이다.”<sup>84)</sup> 『인자수지』에서는 오성형에 따라 금성(金星)형은 원형(圓形), 목성(木星)형은 직형, 수성(水星)형은 곡형(曲形), 화성(火星)형은 침형(尖形), 토성(土星)형은 방형(方形)으로 구분하였다. 정리 하였다.

<표 3> 혈성(穴星) 비교

오성	인자수지	감룡경
목(木)	직(直)형	탐랑-침강(尖強)
화(火)	침(尖)형	염정-고침(高尖)
토(土)	방(方)형	거문-아미(蛾眉)
		녹존-염권(拈拳)
금(金)	원(圓)형	무곡-탁규(卓圭)
		파군-음양차착(陰陽差錯)
수(水)	곡(曲)형	문곡-난잡(亂雜)

### (3) 혈증(穴證)

『인자수지(人子須知)』의 혈증편에서는 조산증혈, 명당증혈, 수세증혈, 낙산증혈, 귀성증혈, 용호증혈, 전호증혈, 순전증혈, 천심십도증혈, 분합증혈의 10가지를 논하였다.

증혈과 관련된 조선시대 풍수 과시서 중 『청오경(靑鳥經)』에서는 “세가지의 기가 완전하면, 팔방의 세가 모여들고, 앞산은 막아주고 뒷산은 안아주며, 모든 상서로운 것들이 모여든다. 땅이 귀한 것은 평탄온화한 것이고, 흙이 귀한 것은 가지가 있는 것이니, 혈은 안정되게 멈춘 곳에서 취하고, 물은 멀리서 온 것을 취해야 한다.”<sup>85)</sup>라고 하였다. 『청오경(靑鳥經)』에서도 전후좌우와 수세의 조화를 중요시함을 알 수 있다. 『금낭경(錦囊經)』의 「인세편」에서는 전기의 땅에 대해 설명한다. 전기의 땅은 “마치 옹크리고 기다리는 것 같고, 마치 잡아당겨서 그곳에 있게 하는 것과 같다. 나가고 싶은 것을 물리쳐야 하고, 멈추면 깊어야 한다. 와서 쌓이고 멈추어 모이면, 음양의 조화가 된다. 흙은 기름지고 물은 깊고, 풀은 울창

84) 양관송 저, 김두규 역, 『감룡경·의룡경』, 비봉출판사, 2009, pp. 185-192, 요약.

85) 『靑鳥經』, “三岡全氣, 八方會勢, 前遮後擁, 諸祥畢至. 地貴平夷, 土貴有支, 穴取安止水取遞.”

하고 숲은 무성하며, 귀는 마치 천승에 오르고, 부는 만금과 같을 것이다.”<sup>86)</sup>라고 하였다. 『금낭경(錦囊經)』에서는 혈이 되는 조건으로 전기의 땅을 들었다. 전기지지는 용과 물 그리고 사세가 온전하며 땅은 기름지고 숲은 무성해야 된다고 설명하였다. 『호순신(胡舜申)』에서는 『금낭경(錦囊經)』의 내용을 계승하여 대동소이하며, 『명산론(明山論)』에서도 『금낭경(錦囊經)』이나 『호순신(胡舜申)』의 내용과 비슷하지만 좀 더 체계적으로 논하였다. “일은 산을 취하고, 둘은 물을 취하고, 셋은 전후좌우의 응하는 산들을 취하고, 넷은 혈을 대하는 것을 취해서 이를 점철하는 것이 근본이다.”<sup>87)</sup>라고 하여 먼저 용과 혈을 취함으로서 용혈을 가장 중요하게 보았다. 그 다음으로 물을 보고 사세와 조안산을 보고 이것들이 조화됨을 살펴 혈의 길흉을 정한다고 하였다. 『동림조담(洞林照膽)』의 내용도 비슷하다. “땅을 다스리는 법은 사방으로 산천을 보고 그중에 특별히 울창한 상이 있고, 기복하는 기세가 다른 언덕들과 다르고 전면에 아름다운 대가 있어야 한다. 연후에 만개의 뜻이 있다. 혈에 올라서 보면 주객이 유정하고 좌우가 돕고 꿈틀꿈틀 앞에서는 맞아 주고 뒤에서는 옹해 주며 수구에 산이 있어 사방이 호위하고 여러 좋은 것이 모여야 이곳이 좋은 터이다.”<sup>88)</sup>라고 하였다. 『동림조담(洞林照膽)』의 내용도 『금낭경(錦囊經)』의 내용과 비슷하다

### 3) 사(砂)에서의 비교

『인자수지(人子須知)』의 사법편에서는 혈을 기준하여 앞으로는 조안산을 보고, 혈후로는 낙산이나 현무산을 보며, 좌우의 청룡과 백호를 살피고, 나성과 수구를 보며, 시위와 관귀금요를 포함하여 논하고 있다.

『청오경(靑烏經)』의 사(砂)에서는 “공후지지는 용마가 날아 오르는 듯하고, 앞에는 옥규가 있으며 날카롭고 본 방위를 만나면 배움이 없어도 자리에 이른다. 재상지지는 수놓은 듯 가까이 있고 큰물이 밀려오는 바다

86) 『錦囊經』 「人勢篇」, “若踞而候也, 若攬而有也. 欲進而却, 欲止而深. 來積止聚, 沖陽和陰. 土膏水深, 鬱草茂林, 貴若千乘, 富如萬金.”

87) 『明山論』, “一取山, 二取水, 三取應, 四取對, 而粘綴之, 是爲根本.”

88) 『洞林照膽』 「深勢篇」, “營地之法 當四顧山川 中有特然窾鬱之象 一起一伏 與諸阜不侔 面有美麗之對然後 寓意. 登穴而望 主客有情 左右有輔 蜿蜒蜿蜒 前迎後擁 水口有山四圍有障 衆美俱集 此佳城也.”

와 호수 같고 가장 높은 귀가 있다. 외대지지는 한문이 높이 솟아 있고 군사들이 진을 친 것 같고 주위 수리안에 필봉들이 크게 횡으로 연결되어 있으면, 이를관사라 하고 높고 낮으니 알기가 어렵다. 관귀지지는 문필봉이 귀를 세우듯 높게 솟아있다. 어대사가 쌍으로 있고 경금의 위치이다. 남쪽과 동쪽에 있거나 북쪽에 있으면 비천한 재주의 기술자가 나온다.”<sup>89)</sup>라고 하여 사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과 사에 따른 귀에 관해 설명하였다. 그리고 부자가 나는 사에 대한 내용으로 “대부지지는 둥글게 생긴 봉우리 와 꺾은 사가 있어 패물과 보물이 들어오는 것이 마치 냇물이 들어오는 것과 같다. 빈천지지는 어지럽고 마치 개미가 흩어지는 것 같다.”<sup>90)</sup>라고 하여 부와 귀의 사격이 다를 것을 논하였다.

『금낭경(錦囊經)』에서는 사법의 기준인 용호와 현무 그리고 주작에 대한 정의를 내렸다. 이 내용은 후대의 사법에 대한 표준이 되었다. 『금낭경(錦囊經)』 「사세편」에서의 내용으로 “무릇 장하는 것은 좌측은 청룡이고, 우측은 백호이고 앞은 주작이고 뒤는 현무이다. 현무는 머리를 수 그리고 주작은 춤추듯 밝으며 청룡은 굽어 감싸 안아 완연하고 백호는 길 들어 머리를 숙여야 한다. 형세가 이와 반대면 당연히 망하고 죽음을 당하는 법이다. 그러므로 백호는 시신을 물어뜯고 청룡이 웅크리면 주인을 시기함이며 현무가 수그리지 않는 것은 시신을 거부하고 주작이 춤추듯 맑지 않으면 날아서 가버린다.”<sup>91)</sup>라고 해서 사세가 무엇인지를 밝히고 형세에 따른 길흉을 설명하였다.

『호순신(胡舜申)』에서는 사에 대해서 『금낭경』의 내용을 따르면서 방위의 길흉과 그에 따른 용호의 유무에 대해서 논하였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산을 말하면 방위의 길흉으로 서로 가감해야 한다. 길방의 산이 가장 높으면 흉방이 있어도 그 길함을 이길 수 없고, 흉방의 산이 가장 높으면 길방이 있더라도 그 흉을 이길 수 없다. 길방의 산과 흉방의 산이 고저에 차이가 없어 서로 비슷하면 길흉이 반드시 같이 나타나고,

89) 『青烏經』, “公侯之地, 龍馬騰起 面對玉圭 所而首銳, 更遇木方 不學而至. 宰相之地, 繡伊邇, 大水洋潮, 無上至貴. 外臺之地, 門高峙, 屯踏排迎. 周圍數里, 筆大橫椽, 是名判死, 此昂彼低, 誠難推擬. 官貴之地, 文筆插耳. 魚袋雙聯, 庚金之位, 南火東木, 北水鄙仗.”

90) 『青烏經』, “大富之地, 圓峯金櫃, 貝寶沓來, 如川之至. 貧賤之地, 亂如散蟻.”

91) 『錦囊經』 「四勢篇」, “夫葬 以左爲青龍, 右爲白虎, 前爲朱雀, 後爲玄武. 玄武垂頭, 朱雀翔舞, 青龍蜿蜒, 白虎馴頰. 形勢反此, 法當破死. 故虎繞 謂之啣尸, 龍踞 謂之嫉主, 玄武不垂者 拒尸, 朱雀不翔舞者 騰去.”

고저가 서로 약간의 차이가 있으면 길흉이 반드시 서로 뒤섞여서 나타난다.”<sup>92)</sup>라고 해서 길흉방위의 산의 고저에 따른 길흉을 밝히고 있다. 또한 “그렇다면 용호가 없는 평원이나 광야에서 용호에 관한 것은 어찌 해야할까? 무릇 땅이 일촌이나 한 자 이상 높으면 모두 산으로 보고, 일촌이나 한 자 이하로 낮으면 모두 물로 본다. 땅이 평지이면 그 잔가지의 작은 언덕이 돌아 감싸 안은 형세를 보아 그것으로 용호로 삼는다. 물이 감싸 들고 있으면 물이 바로 용호가 된다.”<sup>93)</sup> 이 내용은 평지에서의 용호에 대한 설명으로 현대에서도 정설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명산론(明山論)』에서는 사의 형태를 분별하고 그에 따른 길흉을 밝혔다. “뽕죽하면서 수려한 것이 필이며, 둥글고 수려한 것이 간이며, 네모지고 수려한 것이 홀이며, 달리는 발과 같은 것이 기가 되고, 머리를 높이 쳐들면 마라고 하며, 둥글고 두터운 것을 록이라 하고, 사가 연달아 있는 것이 나성이 되며, 여러 작은 것들이 중첩되어 있는 것을 둔군대장이라 한다. 산의 모양이 네모지고 작은 것이 금상, 둥글며 작은 산이 옥인, 뽕죽하고 예리한 것이 아도이다. 옆으로 곧은 것을 아장이라 한다.”<sup>94)</sup>라고 해서 사의 형상에 대한 정의를 내렸다.

#### 4) 수(水)에서의 비교

『인자수지(人子須知)』의 수법에서는 수의 발원, 도국, 출구, 조수, 거수, 취수, 제수론 22조, 천론, 명당길격 9식, 명당흉격 9식, 오성성수, 수성상의, 수의 형세에 대해서 논했다.

『청오경(靑烏經)』에서는 수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아홉개의 계곡에서 나온 물들이 뱀처럼 흐르고, 모래사장과 같고, 거둬 감싸 교쇄가 중첩되면, 극품의 관직이다.”<sup>95)</sup>라고 하여 구곡(九曲)이란 물이 오는 거리

92) 『胡舜申』, “至言山, 則以方之吉凶, 相折除. 吉方最高, 則凶方雖有, 不能勝其吉. 凶方最高, 則吉方雖有, 不能勝其凶. 高低有無遠相當, 則吉凶必俱. 有高低有無稍相勝, 則吉凶必相將.”

93) 『胡舜申』, “然則, 平原曠野龍虎之論, 又云何. 凡地高寸尺以上, 皆論以山. 低寸尺以下, 皆論以水. 地平, 亦視其支卓回旋’拱抱之勢, 以爲龍虎耳. 其有水環繞, 則水是爲龍虎. 吉凶, 則論如前法也.”

94) 『明山論』, “尖秀者, 爲筆, 圓秀者, 爲簡, 方秀者, 爲笏, 走足者, 爲旗, 頭高者, 爲馬, 圓厚者, 爲祿, 連接者, 爲羅城, 踏節重疊者, 爲屯軍隊仗. 方而小者, 爲金箱, 圓而小者, 爲玉印, 尖而利者, 爲衙刀, 橫而直者, 爲衙杖.”

가 길고 여러 물길이 합해져서 오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위사는 굴곡이 많은 물길이며, 평평하고 나가는 물을 잘 잡아주면 극품의 관직과 부를 얻는다고 보았다.

『금낭경(錦囊經)』 「기감」에서는 수에 대해 “풍수의 법은 득수를 먼저하고 장풍은 그 다음이다.”<sup>96)</sup>는 말은 물을 얻음이 장풍보다 우선이라는 뜻으로 득수(得水)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또한 「사세편」에서는 수에 대해 “연못의 물은 장차 쇠하니, 흐르는 물은 가둔 다음에 흘러야 한다. 돌아옴은 부절하니, 매번 한번 꺾이는 것이 법이므로 고였다가 후에 세어 나가야 한다. 양양유유하여 나를 돌아보고 머무르고자 한다. 그 오는 것도 근원이 없고, 그 흘러나가는 곳도 보이지 않는다. 경에 이르기를 산이 오고 물이 돌면, 귀하고 장수하며 재물이 있다. 산이 갇히고 물이 흐르면, 왕은 포로가 되고 제후는 멸망한다.”<sup>97)</sup>라고 하였다. 이는 물길이 바로 흘러가지 않고 고였다가 가득 차면 흘러나가야 하며, 굴곡하여 흐르고, 완만하고 굽어서 느리게 흘러나가야 하며, 들어오는 물길도 길고 나가는 물을 관쇄(關鎖)가 잘되어 어디로 나가는지 보이지 않을 정도여야 길하다는 내용이다.

『호순신(胡舜申)』에서는 수론에서 『금낭경(錦囊經)』의 내용을 인용하여 “수원은 생기가 있어야 하고, 이미 왕성한 곳은 지나가고, 크게 왕성하면 자리로 오며, 장차 쇠하는 곳에서 물이 모이고, 물이 계속 흘러나갈 때 나아가는 것이 보이지 않는다. 이러한 순환과정은 끊이지 않는다. 이 말이 곧 이 물에 관한 법을 세우는 근본이다.”<sup>98)</sup>라고 했다. 이 내용은 『금낭경(錦囊經)』의 내용과 유사하다. 또한 방수론에서는 “물을 보내는 법은 앞에서 물이 흘러나가는 것에 대해서 논한 것과 같다. 수구가 흥방이면 마땅히 물은 녹존, 문곡, 염정의 자리로 나가야 하고, 길기가 임하면 마땅히 물은 우필, 거문, 좌보의 방위로 나가야 한다. 이 여섯 개를 잘 살피면 물이 나가는 법은 능히 잘 마무리된다.”<sup>99)</sup>라고 하여 구성에 의해 들

95) 『靑鳥經』, “九曲委蛇, 準擬沙堤, 重重交鎖, 極品官資.”

96) 『錦囊經』 「氣感」, “風水之法 得水爲上 藏風次之.”

97) 『錦囊經』 「四勢篇」, “澤於將衰, 流於囚謝. 以返不絕, 法每一折, 滯而後泄. 洋洋悠悠, 顧我欲留. 其來無源, 其去無流. 經曰 山來水回, 貴壽而財. 山囚水流, 虜王滅侯.”

98) 『胡舜申』, “水源於生氣, 派於已盛, 而潮於大旺, 澤於將衰, 流於囚謝, 以返不絕. 此數語, 則立此法之張本也.”

99) 『胡舜申』, “放水之法, 與前去水所論同. 流破凶方, 則宜行於祿文廉之位, 臨於吉氣, 則宜行於弼居輔之方, 察茲六者, 而放水之能事畢矣.”

어오는 물과 나가는 물의 길흉에 대해 설명하였다.

『명산론(明山論)』에서는 “또한 한 산이 들어오면 한 물이 이르고, 열 개의 산이 오면 열 개의 물이 이른다. 산은 그 기복으로써 길흉을 판단한다. 그러므로 산의 고저, 후박, 대소로 산의 길흉화복을 정한다. 물은 물길로써 길흉을 판단한다. 그러므로 물길의 장단, 심천, 완급으로 길흉화복을 정한다.”<sup>100)</sup>라고 하여 물길의 거리와 심천(深淺) 그리고 완속(緩速)을 가지고 물의 길흉을 정한다고 하였다. 그리고 “산은 길방위에서 응하고, 물의 빠져 나가는 것은 흉방위로 흘러나가야 한다. 산이 길 방위에서 시작하면 복록이 날로 모여들고, 물이 흉 방위로 빠져나가면 복록이 날로 길어진다. 산 모양이 좋으면 흉재가 없고, 물길의 순하면 재앙이 없다. 이것이 자연의 이치이다.”<sup>101)</sup>라고 하여 산은 길방위에서 시작하고 물이 빠져나가는 방위에 대해 흉방위로 흘러가야 길하다는 내용이다.

### 3. 부합지표(符合指標) 도출

#### 1) 부합지표 표기방식과 부합률

『인자수지(人子須知)』의 용혈사수에서 각각의 중요 항목지표를 제시한다. 우선 『인자수지(人子須知)』에서 중요하게 논하는 항목을 위주로 하고, 보완할 항목은 조선시대 풍수 과시서에서 참고하였다. 차용된 항목은 문헌명을 기재하여 『인자수지』의 내용이 아님을 표시하였다.

각 항목별로 부합도를 측정하여 완벽하게 부합하였을 경우 ‘◎’ 쌍원기호로 표시하고, 부합하지만 결격사유가 있을 경우 ‘○’ 원기호로 표시하였다. 부합하지 않을 경우 ‘X’로 표기하고, 불확실하여 확인이 안될 경우와 인작 등으로 인해 변형되어 알아보기 어려울 경우 ‘△’ 삼각형 기호로 표시하였으며, 횡혈의 낙산이나 귀성 등에는 ‘☆’ 부합도 측정에서 제외하였다. 부합하지만 결격사유가 있을 경우 완벽부합을 1로 하여 결격사유 한 개당 0.1을 감하였다. 확인불가능한 경우도 부합도 항목에서는 제외하였다. 부합도는 ‘부합(◎,○)수/세부항목수=부합율’로 계산하였다. 세부항목

100) 『明山論』, “且一山來則一水至, 十山來則十水至. 山以起伏爲數, 故取其高卑厚薄少大定之. 水以曲折爲數, 故取其長短深淺緩急定之.”

101) 『明山論』, “山來欲應吉位, 水去欲歸凶方. 山起於吉位則福祿日臻, 水歸於凶方則福祿日久. 山形吉者, 無凶災, 水勢順者, 無逆禍, 理之自然也.”

수는 완벽부합, 부합(결격사유-0.1), 불부합을 합한 것이다.

<표 4> 부합도 표시 항목

구분	부합	부합(결격)	불부합	확인불가능	제외
표시	◎	○	X	△	☆
부합도포함	○	○	○	미포함	미포함

## 2) 부합지표 세부항목

용(龍)의 부합지표에서는 18가지의 세부항목을 분석하여 부합과 부합(결격사유) 그리고 불부합을 합해 기준수로 삼아 부합도를 측정하였다.

<표 5> 용의 부합지표

	항 목	내 용	부합도
1	용의구분	대간룡·소간룡·대지룡·소지룡·방지룡 중에서 결혈하였다.	
2	태조산	높고 크고 멀고 특이하며, 주변에서 으뜸가는 산이다.	
3	소조산	혈에서 가까우며 제반 귀격과 용격에 합당하다.	
4	태식잉육	모든 길격에 맞고, 속기가 잘되고 호위가 주밀하다.	
5	입수	혈후의 1-5절 이내가 길격에 해당한다.	
6	개장	태조산,소조산과 부모산이 개장천심하고 중출맥이다.	
7	박환	소조산에서 혈처까지 박환이 잘되었다.	
8	과협	소조산에서 혈처까지 과협이 길격이다.	
9	지각요도	지각과 요도가 적합하며 귀상이다.	
10	호송	호송산이 많고, 대소·원근·고저가 적당하다.	
11	방정	정룡에서 혈장을 만들었다.	
12	노눈	눈룡으로 혈처로 이어졌다.	
13	면배	용의 면에 혈처가 있다.	
14	분벽	소조산에서 혈처까지 분벽이 되지 않았다.	
15	빈주	빈주의 형세가 비슷하고 정의가 있다.	
16	여기	혈을 맺은 후 여기가 있다.	
17	용형세	용형세12격에서 생,강,순,진,복룡 중 하나에 해당한다.	
18	오성산	소조산과 부모산이 오성의 금, 목, 토성에 해당한다.	
	계		
	부합률(%)		

혈(穴)의 부합지표에서는 12개의 항목이 있으나 7번 항목의 횡혈의 낙산이나 귀성은 항목수에서 제외하였다. 총 11개의 항목으로 측정한다.

<표 6> 혈의 부합지표

	항 목	내 용	부합도
1	혈의사상	와검유돌 중 하나의 혈상을 이루었다.	
2	혈형	와검유돌 혈형의 조건에 부합한다.	
3	혈성	입수의 산이 성체를 이루고 정체이다.	
4	조산증혈	가까운 안산이 유정하고, 고저원근이 적합하다.	
5	명당증혈	명당이 바르고 평평하며, 소, 중, 대명당이 합법이다.	
6	수세증혈	혈이 수세의 모임에 적법. 혈처의 좌우고저가 바르다.	
7	낙산귀성	횡입수의 혈에 낙산이나 귀성이 있고, 위치가 적법.	
8	용호증혈	용호에 따라 혈의 위치가 적합하다.	
9	전호증혈	송산의 형태에 맞춰 혈처가 바르다.	
10	순전증혈	전순이 적합하게 있다.	
11	천심십도	혈을 중심으로 전후좌우에 십자봉이 정위치에 있다.	
12	분합증혈	삼분삼합이 잘 갖춰져 있다.	
	계		
	부합률(%)		

사(砂)의 부합지표에서는 9번과 11번 항목의 조산특조와 고봉독수는 모든 자리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기준 항목수에서는 제외되어 총 측정 항목은 13개이다.

<표 7> 사의 부합지표

	항 목	내 용	부합도
1	본신용호	본신에서 나온 용호이다.	
2	용호상칭	용호의 고저가 비슷하고 유정하다.	
3	용호장풍	용호가 장풍을 잘하고 생기보호에 투철하다.	
4	용호역관	용호중 하나가 수구의 물을 잘 막아주고 있다.	
5	완연순부	청룡이 완연하고, 백호는 순부한다. (금낭경에서 차용)	
6	근안유정	안산이 가깝고 수려하며 회포유정하다.	
7	본신안산	본신에서 안산을 이루고 유정하다.	
8	안산역수	안산이 역수의 형태를 갖추었다.	
9	조산특조	조산이 특조산이다.	
10	조산유정	조산이 첩원방평, 단정수려하고 혈에 유정하다.	
11	고봉독수	빠어난 봉우리 하나가 혈에 유정하다.	
12	나성원국	혈을 중심으로 전후좌우 사들이 유정하게 환포하였다.	
13	하수사	하수사가 좌우선에 따라 역관하였다.	
14	수구사	수구에 수구사가 주밀하게 교결관쇄하였다.	

15	관귀금요	혈의 주위에 관귀금요가 있다	
	계		
	부합률(%)		

수(水)의 부합지표는 6개 항목에 대해 측정한다. 5번 항목의 수성에서는 금이나 수가 아니고 토형이 되면 0.1을 감하였다.

<표 8> 수의 부합지표

	항 목	내 용	부합도
1	발원	발원수가 멀고 길다.	
2	도국	오는 물이 명당에 든다.	
3	출구	물이 나가는 곳이 굴곡하고 수구사가 있다.	
4	명당길격	명당수의 9길격 중 하나에 해당한다.	
5	수성	수성성이 금이나 수에 해당한다.	
6	좌향	팔팔향법의 길좌향에 해당한다.	
	계		
	부합률(%)		

### 3) 부합지표 배점방법

부합과 불부합의 구분은 용형세, 관귀금요, 천심십도, 분합증혈, 수구사, 하수사, 명당길격 등은 크기나 모양과 관계없이 나타나면 부합(符合)으로, 나타나지 않으면 불부합(不符合)으로 표시하였다. 판단 항목이 세 개라면 두 개 이상 적합하여야 부합으로, 하나만 적합하면 불부합으로 판단하였다. 판단요소가 여러 개라면 60% 이상 적합해야 부합으로 보았다. 부합이지만 결격사유가 있을 때 결격사유 하나당 0.1점의 감점이 있다. 항목당 1점을 배점하고 결격사유가 있을 시 -0.4까지만 부합이고, -0.5부터는 불부합으로 판단하였다.

#### (1) 용(龍)의 배점

항목 1의 용의 구분은 대간룡에서 뺀 자리를 1로 정하고 소간룡은 -0.1, 대지룡은 -0.2, 소지룡은 -0.3, 방지룡은 -0.4로 측정하였다. 대간룡

은 100Km 이상, 소간룡은 80~99Km, 대지룡은 60~79Km, 소지룡은 40~59Km, 방지룡은 40Km 미만이다. 용의 거리는 『인자수지(人子須知)』를 비롯 모든 문헌에서 대략으로 표현을 하고 있어 불확실하다. 예로들면 『인자수지(人子須知)』는 대간룡의 거리를 수천리에서 수백리로 표현한다.

항목 2, 3의 태조산은 개장, 천심, 과협의 세 가지를 보며, 소조산에서 배점은 개장, 천심, 과협, 박환의 네 가지 요소를 본다. 태조산은 2개 이상이 적합하여야 부합이 되고, 소조산은 3가지 이상이 적합하여야 부합이 된다. 이 중 결격 요소 하나당 0.1의 감점이 있다.

항목 4의 태식잉육에서는 부모산이 오성의 체에 합당하고, 태는 중출맥으로 나와야 한다. 편출맥이 되면 0.1의 감점이 있다. 식에서는 속기가 잘 되어야 한다. 잉은 바르고 원만하여야 한다.

항목 5의 용의 입수는 먼저 소조산에서 잉까지의 과정에서 개장, 천심, 과협주밀, 박환, 부모산의 성봉을 본다. 잉에서 혈까지는 잉 후에서 속기결인을 보고 잉의 성면이 바르고 입수가 잘 되었는지를 살핀다.

항목 6, 7, 8의 개장은 태조산, 소조산, 부모산을 본다. 좌우의 개장에서 한쪽이 부족하면 0.1의 감점이 있다. 정천심이 아니면 0.1의 감점이 있다. 박환에서는 소조산에서 잉까지의 과정에서 기복굴곡, 과협주밀, 속기결인을 살펴 결점 하나당 0.1의 감점이 있다. 과협은 영송사가 주밀하게 호위하여야 한다. 과협이 없으면 불부합으로 보고, 호위가 부족하면 0.1의 감점이 있다.

항목 9, 10의 지각요도는 지각이 균형있게 나오고 숫자가 작더라도 튼튼하면 부합이다. 불균형이면 0.1의 감점이 있다. 호송은 소조산에서 혈처까지 좌우에서 호위가 좋으면 부합이다. 호위가 부족한 부분 하나당 0.1의 감점이 있다.

항목 11, 12의 용의 방정과 노눈은 정룡에서 자리가 되면 부합이다. 방룡이지만 성봉을 일으키고 결지 조건을 갖추면 0.4의 감점이 있다. 노눈에서는 눈룡이 되면 부합이다.

항목 13, 14의 분벽은 혈처로 오기전의 용이 가지를 내보내면 분벽이 되어 불부합이고, 분벽된 용이 혈처의 용호나 안산 그리고 역관사가 되면 부합이다. 배면에서는 면이 되면 부합이다.

항목 15 용의 빈주에서는 주산과 객산의 관계가 바르면 부합이다. 객산

이 너무 크고 강하면 불부합이다.

항목 16의 여기는 혈을 맺고 난 후 기운이 남아 계속 진행되는 용이 있으면 부합이다. 여기가 있지만 너무 짧으면 0.1의 감점이 있다.

항목 17, 18의 용형세는 12격 중 하나에 해당하면 부합이다. 오성산은 소조산과 부모산이 금, 목, 토성에 해당하면 부합이다.

## (2) 혈(穴)의 배점

항목 1의 혈의 사상에서는 와검유돌 중 하나에 해당하면 부합이다.

항목 2의 혈형은 사상혈의 혈성조건이 맞으면 부합이다.

항목 3의 혈성은 부모산의 성체가 혈성 3격에 맞으면 부합이다.

항목 4의 조산증혈은 안산이 혈에서 가까우며, 높이가 적당하고, 기울어지지 않아야 하며, 혈에 유정하면 부합이다. 이 중 결점이 있으면 하나당 0.1의 감점이 있다.

항목 5의 명당증혈은 소명당이 바르고 평탄하면 부합이고, 경사가 있으면 0.1의 감점이 있다. 중명당은 너무 넓지 않고, 수구가 긴밀하면 부합이다. 대명당은 넓어야 하고 평탄하면 부합이다.

항목 6의 수세증혈은 수세에 따라 혈의 위치가 맞으면 부합이다.

항목 7의 낙산귀성은 횡혈에서만 쓰여 본 논문의 사례지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항목 8의 용호증혈은 용호의 거리와 높이에 맞춰 혈이 형성되면 부합이다.

항목 9의 전호증혈은 혈의 좌우에서 보호사와 혈의 위치가 맞으면 부합이다.

항목 10의 순전증혈은 전이나 순이 있고 단정하고 평탄하면 부합이다.

항목 11의 천심십도는 혈의 전후좌우에서 십자로 봉우리가 있으면 부합이다. 하나라도 없으면 불부합이다.

항목 12의 분합증혈은 소팔자나 대팔자 중 하나라도 있으면 부합이다.

## (3) 사(砂)의 배점

항목 1~5의 용호에서 본신용호는 본신에서 용호가 만들어지면 부합이다. 용호상칭은 용호의 높이가 비슷하면 부합이다. 용호장풍은 용호가 혈처를 잘 호위하면 부합이다. 용호역관은 용호 중 하나가 역수하면 부합이다. 완연순부는 청룡은 변화가 있고 백호는 고개를 쳐들지 않으면 부합이다.

항목 6~11의 조안에서 근안유정은 안산이 가까우며 기울지 않고 역수하며 혈처를 배반하지 않으면 부합이다. 이 중 결점 하나당 0.1의 감점이 있다. 본신안산은 본신룡에서 안산이 되면 부합이다. 안산역수는 안산이 물길을 막아주면 부합이다. 조산유정은 조산이 유정하면 부합이다. 조산특조와 고봉독수는 배점에서는 제외이다.

항목 12의 나성원국은 혈처의 사방의 산들이 환포를 잘해주면 부합이다. 빈 곳이 많으면 불부합이고, 결함이 있으면 0.1씩 감점한다.

항목 13의 하수사는 하나라도 있으면 부합이다. 하수사의 숫자나 크기는 상관없다.

항목 14의 수구사는 하나라도 있으면 부합이다. 형상이나 크기는 관계없다.

항목 15의 관귀금요는 하나라도 있으면 부합으로 본다.

#### (4) 수(水)의 배점

항목 1의 발원수는 소조산의 발원수는 거리가 2Km 이상이면 부합이다. 부모산의 발원수는 거리에 상관없이 갖춰지면 부합으로 본다.

항목 2의 도국은 명당에 물길이 이르면 부합이다.

항목 3의 출구는 물이 나가는 곳이 굴곡하고 수구사가 있으면 부합이다.

항목 4의 명당길격은 9길격 중 하나에 해당하면 부합이다.

항목 5의 수성은 혈 주변의 수세가 금성형이나 수성형이면 부합이다. 토성형이면 0.1의 감점이 있다.

항목 6의 좌향은 팔팔향법의 길좌향에 맞으면 부합이다.

## IV. 朝鮮朝 『人子須知』 刊行承認 이전 사례지 분석

### 1. 사례지 개요

IV장과 V장에서는 II장과 III장에서 도출된 부합지표의 항목에 따라 각 사례지를 분석한다. 본 장에서는 『인자수지(人子須知)』가 조선에서 간행 승인 되기 이전에 조성된 묘지 5개소를 분석하고, 다음 장에서는 『인자수지(人子須知)』가 간행승인 이후에 조성된 묘지 5개소를 선정하여 분석한다. 기준이 되는 시기는 조선에서 『인자수지(人子須知)』 발간 승인 시점인 1742년으로 삼았다.

『인자수지(人子須知)』가 간행되기 이전의 사례지 5개소는 고려중기에 조성된 신성용(申成用) 묘, 고려말기에 조성된 박천(朴天) 묘, 1642년 조성된 박인로(朴仁老) 묘, 1646년 조성된 서학(徐鶴) 묘, 1680년 조성된 신유(申瀏) 묘이다.

<표 9> 인자수지 도입 전 묘소 조성시기

묘소	신성용	박천	박인로	서학	신유
조성시기	고려중기	고려말기	1642	1646	1680

고려중기에 조성된 신성용 묘는 경북지역의 시조묘 중 연원이 확실하다. 유혈의 혈증이 명확하게 나타나고 안산(案山) 뒤로 관성(官星)이 존재한다. 이러한 특이점으로 인해 사례지로 선정하였다. 고려말에 조성된 박천의 묘는 연원이 확실하고 유혈 중에서도 자리를 만든 후 여기를 만들어 계속 끌고 나가 끝부분에서 고개를 쳐들고 마무리하였다. 이런 형태를 기룡혈(騎龍穴)이라 하며, 사례지 중 유일하여 선정하였다. 박인로 묘는 노계 박인로가 송강, 고산과 더불어 조선 3대 시인으로 추앙 받고 있는 점과 묘소 전면으로 저수지가 있고 풍광이 사례지 중 가장 아름다워 선정하였다. 서학의 묘는 서학은 중국 출신으로 귀화성씨이고 조성시기도 맞으며 사례지 중 국세가 가장 작아 선정하였다. 신유장군 묘는 사례지 중 유일하게 무관(武官)의 묘이다.

## 2. 신성용(申成用) 묘에 대한 분석

### 1) 신성용 묘의 개요



<그림 30> 신성용 묘 전경(논자촬영)

신성용의 묘는 고령군 쌍림면 산주동 산 38번지에 위치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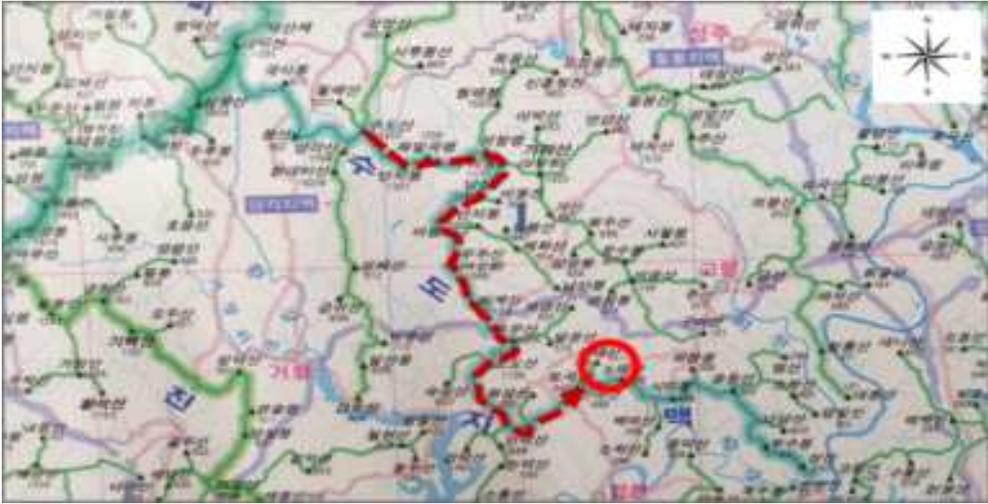
신성용(申成用)은 고려시대 호장(戶長)을 지냈고 검교군기감(檢校軍器監)을 역임하였다. 5세손 신덕린(申德隣)이 고려 충목왕 때 문과에 급제하여 예조와 공조의 판서를 역임하였다. 고려의 국운이 기울자 공조참의를 역임한 아들 신포시(申包翹)와 함께 전라도 광주(光州)의 서석산에 은거하며 불사이군의 충절을 지켰다. 신포시의 장남 신장(申檣)은 대제학, 차남 신평(申枰)은 사간원정언(司諫院正言), 삼남 신제(申梯)는 사헌부 감찰을 지냈다. 신장(申檣)의 아들 신맹주(申孟舟), 신중주(申仲舟), 신숙주(申叔舟), 신송주(申松舟), 신말주(申末舟) 5형제도 모두 과거에 급제하였고, 신숙주가 세조 때 영의정에 올랐다.<sup>102)</sup>

### 2) 용법(龍法)의 분석

#### (1) 내룡맥(來龍脈)

---

102) 고령신씨 대종회 참조.



<그림 31> 내룡맥(지도출처:新山徑表)

신성용 묘로 들어오는 내룡맥은 수도지맥의 수도산(1317)이 태조산이 된다. 수도산에서 남동진으로 진행하여 두리봉(1135)을 세우고, 다시 남진하여 두무산(1036)을 세우고 남서진으로 행룡하다 오도산(1120)을 일으킨다. 그 후 남동진하여 토곡산(646)을 만드는데 이 토곡산이 소조산이 된다. 토곡산에서 동진으로 2개의 과협을 지나 매장재에서 우측으로는 만대산(688)을 세우고 묘소를 환포하여 백호가 되었으며, 매장재에서 좌측으로 낙맥하여 부모산을 만든 후 환경사로 떨어져 묘소로 들어간다. 이 수도지맥은 대덕산 분기점에서 성주군을 지나 낙동강이 대진처가 되고, 총 길이는 약 105km에 이른다. 태조산에서 시조묘까지의 거리는 대략 70km 정도이다.

부합지표 항목으로 용의 구분에서 세 번째인 대지룡이므로 1점에서 0.2 점을 감하였다.

## (2) 태조산(太祖山)과 소조산(小祖山)

신선용 묘의 태조산은 수도산(1317)으로 수도지맥에서 가장 높은 산이며, 지맥의 명칭으로 쓰일 정도의 수려하고 웅장한 산이다. 산이 양 날개를 펼치는 것처럼 개장이 잘되어 있고, 또한 중출맥으로 천심하고 있다. 중요항목으로 태조산이 개장, 중출맥, 수려하고 웅장하므로 부합된다.



<그림 32> 태조산의 개장과 천심(지도출처:브이월드)



<그림 33> 소조산의 개장과 천심(지도출처:브이월드)

신성용 묘의 소조산은 토곡산(646)이다. 오도산에서 남맥으로 떨어진 후 매우 큰 과협을 하는데, 이 과협지가 주밀하게 환포하고 영송사가 유정하다. 소조산의 후룡에서 기복굴곡이 생기 있게 진행되고, 과협이 잘 이루어졌고, 박환이 양호하다. 그러므로 부합지표 항목에 부합된다.

### (3) 부모태식잉육(父母胎息孕育)

부모산의 오성체는 금성체로 완만한 술뚜껑 모양이다. 부모산에 중심맥으로 떨어져 태(胎)을 이루고, 넓게 낙맥(落脈)하다 좁게 식(息)의 결인(結咽)과정을 거친 후 작은 평지를 만드는데, 이 평지가 잉(孕)이 된다. 잉

이후로 다시 석맥(石脈)으로 선익(蟬翼)을 만들고 갈지(之)자로 입수하여 육(育)인 혈처를 만들었다. 그러므로 중요항목 도표의 태식잉육의 조건에 부합된다.

#### (4) 용의 입수(入首)

신성용 묘의 경우는 광의의 입수는 소조산이 개장을 넓게 벌려서 중출맥(中出脈)으로 낙맥하여 천심(穿心)하였고, 송사(送砂)와 영사(迎砂)가 과협지를 주밀하게 호위하였으며, 과협의 속기가 3번에 걸쳐 이루어졌다. 광의의 입수는 과협이 잘 이루어졌으며, 호위가 주밀하고, 박환을 마친 다음 혈처로 진입한다.

협지의 입수는 잉에서 육인 혈까지이다. 이곳의 입수는 잉 후절(後節)에서 낙맥으로 내려오며 긴밀하게 속기결인한 후 잉을 평평하고 조금 볼록한 형상으로 만들었으며, 잉에서 좌우로 갈라지는 선익은 양쪽 모두 바위로 이루어져서 매우 튼튼하고 힘 있는 모양이다. 이곳의 협지의 입수 또한 선익이 튼튼하고 입수 일절이 합법하게 들어오므로 귀한 혈을 만들 수 있다. 그러므로 부합도표의 입수는 부합된다고 보았다.

#### (5) 용의 개장(開障), 박환(剝換), 과협(過峽)

태조산인 수도산의 경우 <그림 32>에서 보듯이 크고 넓게 개장한 모습이고, 중출맥으로 정천심(正穿心)하였다. 그리고 소조산인 토곡산이 <그림 33>과 마찬가지로 개장을 하였지만 우측 날개가 조금 짧은 것이 흠이 된다. 부모산의 개장도 마찬가지로 우측 날개가 없지만, 그 전의 외백호가 대신하므로 부족함이 없다. 좌측의 외청룡으로 출맥한 개장은 든든하게 펼쳐지며 혈처를 잘 호위하고 있다. 부모산에서도 중출맥으로 천심하여 낙맥하고 호위가 주밀하다.

박환은 소조산에서 잉까지를 살피면 되는데, 소조산이 높고 거칠어 개장천심한 이후에 과협과 속기를 3-4회 하고, 기복과 굴곡을 거치면서 살기를 털어버리고 부모산에 이르러 양명한 토질과 토색을 구비하였으며, 부모산에서 잉까지도 굴곡과 넓어지고 좁아지며 박환의 과정을 충실히 이행하여 혈처에 이르러서는 모든 흉한 것들이 사라지고 입수하였다.

과협은 <그림 33>에서 3번의 과협을 거치며, 영송사가 주밀하게 호위하고 있어 길격의 요소를 갖추었다. 그러므로 부합지표에서 개장 부분에서 태조산, 소조산, 부모산이 모두 우측 개장이 약하므로 0.3점을 감하였고, 박환과 과협은 부합하였다.

## (6) 지각요도(枝脚橈棹) 및 호송(護送)



<그림 34> 지각요도 및 호송사(지도출처:브이월드)

지각요도는 <그림 34>의 검은 점선으로 균일하게 가지를 뺀 와중 장단(長短)의 불균형이 있는데 좌측의 지각보다 우측이 지각이 조금 길다. 그러나 좌측의 호송사(護送砂)가 밀접하여 호위하고 더하여 좌측 호송산 밖으로 본신룡이 다시 호송하는 형태가 되어 호송사로서의 역량은 뛰어나다. 또한 본신룡의 우측의 호송사도 주밀하게 포위하여 호송하므로 이 용의 행도는 대지를 뺏을 만하다고 판단한다. 그러므로 부합지표에서 지각요도는 장단의 불균형으로 인해 0.1을 감하였고, 호송사는 부합되었다.

## (7) 용의 방정(傍正) 및 노늬(老嫩)

오도산에서 소조산인 토곡산으로 진행되는 용이 5개로 뺏어 나가는데, 좌우로 4개의 용은 짧게 끝나고 중간에서 중심출맥한 용만 길게 진행한



<그림 35> 용의 방정 및 노눈(지도출처:브이월드)

다. 이것은 『인자수지』에서 논한 여러 개의 용 중 특이한 것이 중간룡이 되고, 또한 중출맥이 정룡이 된다고 하였으니 이에 부합한다.

다음으로 노눈에서는 이곳의 묘소는 <그림 35>의 부모산에서 가늘어지고 정교해지며 생기 있는 용이 중심출맥하여 눈룡으로 혈처로 진입하였다. 그러므로 부합지표의 방정과 노눈은 모두 부합하였다.

#### (8) 용의 분벽(分擘) 및 배면(背面)



<그림 36> 용의 분벽 및 면배(지도출처:브이월드)

<그림 36>의 분벽을 살펴보면, 부모산의 후릉에서 분벽되어 우측으로 진행하다가 다시 돌아와 외백호가 되어 혈처를 보호하고 있고, 부모산에서 좌측으로 분벽된 용은 다시 외청룡이 되었다. 이곳의 분벽지는 4개에 이르나 모두 다시 돌아와 혈처의 소용(所用)이 되었으므로 분벽이 아니라고 판단한다.

면배를 판단하면 혈처를 감싸는 안쪽은 깨끗하고 부드러우므로 면이 되고, 바깥쪽은 거칠고 경사가 커서 배가 되었다. 또한 부모산 후면은 급경사에 험악하므로 배가 된다. 이곳의 면배는 합법으로 구성되었음을 알 수 있다.

### (9) 용의 빈주(賓主)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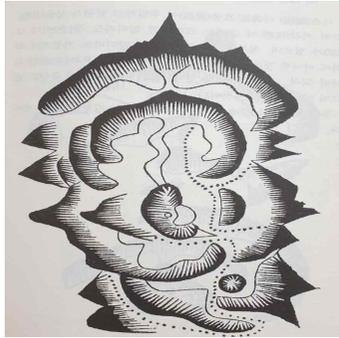
주인산인 토곡산은 646m이고 부모산은 550m으로 위엄있고 수려한 형상이다. 안대에서 좌측으로 약간 치우친 곳에 객산은 300m와 350m이다. 이곳은 외래산이 와서 만들어진 것으로 진정한 객산으로 볼 수 있으며, 주인산이 높고 객산이 너무 낮지 않으며 혈처를 바라보는 것이 공읍하고 유정하므로 빈주가 유정하다. 그러므로 지표의 빈주는 부합되었다.

### (10) 용의 여기(餘氣)

묘소의 외백호로 진행한 용이 합천군 청덕면의 청덕수변생태공원 근처에서 낙동강을 만나 용진처(龍盡處)가 되었다. 이 여기의 거리는 대략 30km로 묘의 혈자리를 만든 후에도 역량이 크게 남아서 먼 거리를 행룡하여 용진하였다. 그러므로 부합지표에서 용의 여기는 적법하다고 판단되었다.

### (11) 용형세(龍形勢) 및 오성산(五星山)

신성용 묘의 경우 용형세는 12격 중 생룡과 복룡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이 두가지 중 복룡쪽에 조금 더 가깝게 보이지만 두가지 성향이 모두 있으므로 생룡과 복룡의 길격으로 판단한다. 복룡은 조종이 좋고 호위가 주밀하며, 생룡은 성봉이 기복이 좋고 지각이 활발하다. 그러므로 신성



<그림 37> 복룡도(그림출처:김동규 역, 인자수지, 前, p. 569.)

용 묘는 부귀대지(富貴大地)로 볼 수 있다.

오성산은 소조산과 부모산의 오행의 형태로 판단한다. 이곳의 소조산과 부모산은 원형의 둥그런 모양으로 금성에 해당하며, 단정하고 수려하다. 주산의 오성이 목형과 금형 그리고 토성의 형태를 가장 길한 것으로 이곳은 부귀지지로 볼 수 있다. 그러므로 부합지표에서 용형세와 오성산은 부합으로 판단하였다.

### (12) 용(龍)의 부합도

신성용 묘의 용의 부합도에서 1번과 6번의 용의 구분에서 0.2, 개장에서 0.3을 감하였고, 9번의 지각요도에서 0.1을 감하였다. 나머지 모든 항목에서는 부합하였다. 부합률은 96.7%이다. 용에서는 매우 높은 부합도를 보여 길용(吉龍)이라고 볼 수 있다.

<표 10> 신성용 묘 용의 부합도

	항 목	내 용	부합도
1	용의구분	대간룡~방지룡에서 박환후에 결혈하였다.	○(-0.2)
2	태조산	높고 크고 멀고 특이하며, 주변에서 으뜸가는 산이다.	◎
3	소조산	혈에서 가까우며 제반 귀격과 용격에 합당하다.	◎
4	태식잉육	모든 길격에 맞고, 속기가 잘되고 호위가 주밀하다.	◎
5	입수	혈후의 1-5절 이내가 길격에 해당한다.	◎
6	개장	소조산과 부모산이 개장천심하고 중출맥이다.	○(-0.3)
7	박환	소조산에서 혈처까지 박환이 잘되었다.	◎
8	과협	소조산에서 혈처까지 과협이 길격이다.	◎
9	지각요도	지각과 요도가 적합하며 귀상이다.	○(-0.1)
10	호송	호송산이 많고, 대소·원근·고저가 적당하다.	◎
11	방정	정룡에서 혈장을 만들었다.	◎
12	노눈	눈룡으로 혈처로 이어졌다.	◎
13	면배	용의 면에 혈처가 있다.	◎
14	분벽	소조산에서 혈처까지 분벽이 되지 않았다.	◎
15	빈주	빈주의 형세가 비슷하고 정의가 있다.	◎
16	여기	혈을 맺은 후 여기가 있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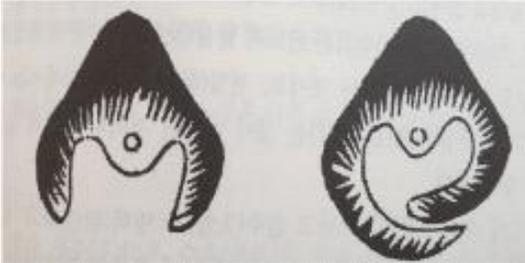
17	용형세	용형세12격에서 생,강,순,진,복룡 중 하나에 해당한다.	◎
18	오성산	소조산과 부모산이 오성의 금, 목, 토성에 해당한다.	◎
	계		(18-0.6)/18
	부합률(%)		96.7

### 3) 혈법(穴法)의 분석

#### (1) 혈(穴)의 사상(四象)

신성용 묘는 혈의 사상 중 어디에 속하는지 살펴본다. 이 자리는 현유혈(縣乳穴)로 유혈(乳穴)에 해당한다. 유혈은 양 어깨가 튼튼하게 잡아주어야 하고 공결되거나 요절된 것을 꺼린다. 입수처의 바위 선익(蟬翼)이 튼튼하게 좌우로 팔을 벌려 잡아주고, 둥그런 원형의 불룩한 끝에 꼭지에 자리가 걸려 있다. 명확한 유혈의 형태를 갖췄다. 그러므로 부합지표의 혈의 사상은 적합하다고 판단되었다.

#### (2) 혈형(穴形)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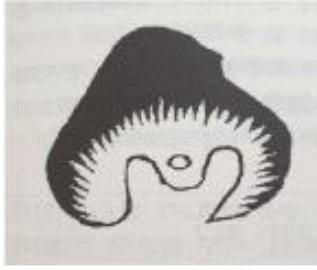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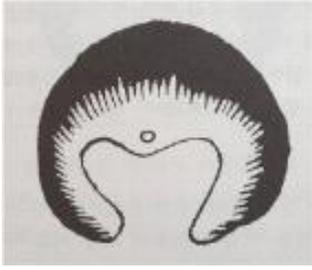


<그림 38> 불유회와 유회혈(그림출처:김동규역 인자수지 前, p. 737.)

신성용 묘는 유회혈(紐會穴)에 해당한다. 유회혈이 되었으므로 좌우 양 어깨가 혈을 감싸서 보호하고, 자체적으로 하수(下手)하는 형태가 되었다. 하수는 역관사(逆關砂)가 되므로 물길을 역수(逆水)하여 물을 머무르게 하고 생기를 보호하게 된다.

유혈의 6격에서 장유(長乳), 대유(大乳)에 해당한다. 장유는 양쪽 어깨의 사이로 유가 긴 것을 이르는데, 이곳의 묘는 유의 길이가 적당하여 활기찬 형태이다. 그리고 대유는 양쪽 어깨사이의 유가 큰 것을 이르는데, 이곳의 대유는 너무 크지도 작지도 않아 합격이다.

부모산으로 들어오기 전 금성봉을 일으키고, 거기에서 좌우로 외청룡과



<그림 39> 대유도(그림 <그림 40> 장유도(그림출  
출처:김동규역 인자수지 처:김동규역 인자수지 前,  
前, p. 741.) p. 741.)

짧고 약한 백호가 나가  
고, 외청룡은 길게 뻗  
어나가 관성봉(官星峰)  
을 만든 후 크게 감싸  
주고 있다. 부모산은  
복종형의 단정한 금성  
봉을 만들고 좌우로 내  
청룡과 내백호를 만들  
어 혈 앞으로 교쇄하여  
주밀하게 안아 주고 있

다. 그러므로 부합지표의 혈형의 조건에 부합됨을 알 수 있다.

### (3) 혈성(穴星)



<그림 41> 신성용 묘 혈형도(지도출처:브이  
월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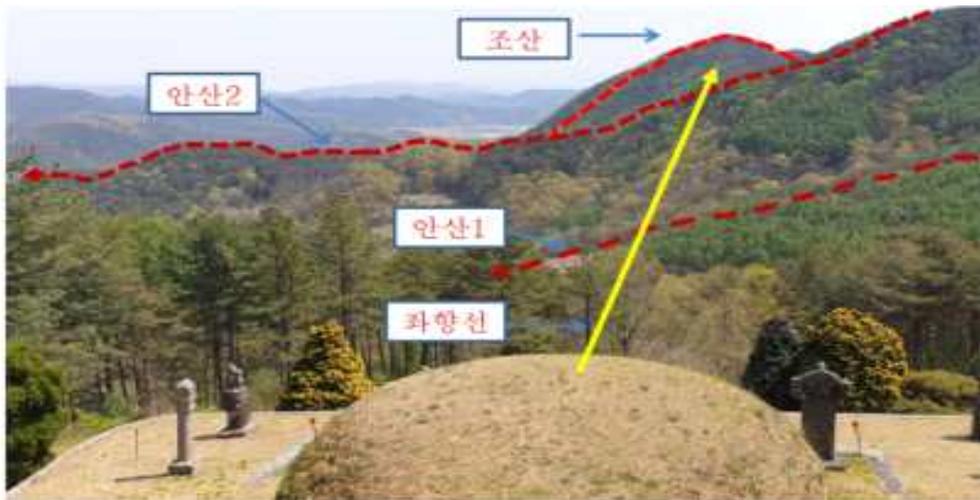
혈성은 입수한 산의 형체  
를 오성(五星)으로 구분한 것  
이다. 오성의 성체가 명백해  
야 혈을 결지한다고 하였다.  
신성용 묘의 오성은 <그림  
41>의 부모산과 같이 원형의  
둥그런 금성체가 확실하다.  
혈성의 3격 중 정체혈성으로  
두면이 단정하여 오행의 정  
기가 모일 수 있는 성체를  
갖추었다. 금성 정체의 혈성  
은 둥글고 단정하며, 혈은 치  
우침 없이 중간으로 결혈한

다. 그러므로 부합지표의 내용에 부합된다고 판단하였다.

### (4) 혈증(穴證)

#### ① 조산증혈(朝山證穴)

신성용 묘의 안대는 <그림 42>에서 안산 1의 안산이 혈에서 가장 가까이 있어 먼저 취하여 안산으로 삼아야 하지만 기울어진 형태이므로 바르지 않다. 다만 높낮이로 보았을 때 가슴높이로 적법하다. 안산 2를 보면 우측에서 경사로 낙맥하다가 일자문성(一字文星) 형태로 바르게 횡대(橫帶)를 이루고 있다. 여기에서 바른 안대의 위치는 이곳 평평한 곳이 되지만, 묘소의 안대는 조산과의 조응에 따라 우측으로 치우친 형태로 좌향선(坐向線)을 잡았다. 안대는 2중의 안산이 있으나 기울어진 형태가 되어 약간의 흠결이 있고, 조산 또한 기울어져 있어 평가에서 감점요소로 작용하였다. 조산인 관성은 약간의 배반형상이 보이므로 감점이 되었다. 그러므로 부합지표의 조산증혈에서는 0.3점을 감하였다.



<그림 42> 신성용 묘의 안대(논자 촬영)

## ② 명당증혈(明堂證穴)

신성용 묘의 소명당은 원혼 아래로 평탄하고 방정하게 이루어져 있다. 소명당으로서 기울어지지 않고 양명하게 되어있다. 그러나 경사진 것을 인작으로 흙을 돋아 평탄하게 하였으므로 감점요소이다. 여기의 증명당은 경사로 내려가다 용호수가 합수(合水)하기 전에 평탄한 공간으로 이루어져 있다. 경사진 곳이 있어 흠결이 된다. 또한 증명당의 양수(兩水)가 합수한 이후 수구사가 조밀하고 굴곡으로 내려가다 지당(池塘)을 이루어 물이 모인 다음 느리게 빠져나가는 것은 명당의 격이 올라간다. 대명당은 넓게 형성되어 있으며, 약간의 경사가 있다. 그러므로 부합지표상 명당증



<그림 43> 명당(지도출처:브이월드)

혈은 0.3점을 감하였다.

### ③ 수세증혈(水勢證穴)



<그림 44> 수세도(지도출처:브이월드)

신성용 묘의 수세는 좌우의 원신수(源辰水)가 중앙에서 모이므로 혈의 위치도 중앙 지점에 있게 된다. 명당의 여기(餘氣)가 길게 끌고 나가므로 전체 내명당이 넓게 형성되었으므로 혈은 조금 높은 위치에 자리하게 된다. 그러므로 부합지표의 수세증혈은 부합으로 판단하였다.

### ④ 용호증혈(龍虎證穴)

신성용 묘의 용호는 백호에 비해 청룡이 조금 높으나 백호 맥이 두 개가 되어서 낮은 부분을 보충하고 있다. 외백호가 혈에 비해 매우 높게 되어 있어 백호의 기운을 더해 주지만 너무 높아 능압이 된다. 혈자리의 고

저는 용호의 높이와 적당하게 조화되었다. 용호가 모두 혈자리에 면(面)이 되어 유정하므로 좌우의 위치로 보았을 때 중앙에 위치하는 것은 적법하다. 청룡쪽에서 역수를 하지만 백호와와의 차이가 거의 없어 좌우의 위치는 적법하다고 본다. 그러므로 부합지표의 용호증혈은 능압으로 인해 0.1을 감하였다.



<그림 45> 용호도(지도출처:브이월드)

### ⑤ 전호증혈(纏護證穴)

신성용 묘의 전호는 <그림 45> 용호도를 보면 본신의 청룡과 백호가 전호사에 해당한다. 좌우의 내청룡과 내백호는 길지만 백호쪽의 혈에 가까운 곳에 전호사가 하나 더 있다. 이 전호사의 길이가 짧아 그 안쪽에 혈을 맺으므로 전호사의 원근과 장단이 적법하다고 판단된다. 그러므로 항목지표의 전호증혈은 부합으로 보았다.



<그림 46> 신성용 묘 전순의 전(논자 촬영)

### ⑥ 순전증혈(脣氈證穴)

신성용 묘의 전순은 <그림 46>의 이불 모양의 전이다. 단정하고 평탄하며 기운이 많이 응결한

형태로 보이지만 경사지를 보토(補土)하였다. 그러므로 부합지표상 순진증혈은 0.1를 감하였다.

### ⑦ 천심십도증혈(天心十道證穴)

신성용 묘에서는 천심십도가 나타나지 않았다.

### ⑧ 분합증혈(分合證穴)

신성용 묘의 분합은 혈 우측으로 소팔자로 갈라지는 부분이 있으나 좌측에 갈라지는 물이 없으므로 소팔자분합은 해당되지 않으며, 용호 사이의 원신수가 갈라졌다가 다시 합쳐지는 1차합수 지점이 분합의 중점이 된다. 그 다음으로 아래쪽으로 2차합수는 외백호와 내백호 사이의 물길이 내려와 1차합수와 다시 합하게 되어 혈 전면으로 긴밀하게 관쇄하므로 물의 분합은 길격이 되었다. 그러므로 부합지표의 분합증혈은 부합으로 판단되었다.



<그림 47> 대팔자 분합(지도출처:브이월드)

### (5) 혈(穴)의 부합도

신성용 묘의 혈의 부합도에서는 7번 항목을 제외하고 조산증혈, 명당증혈은 0.3씩을 감하였고, 용호증혈과 순진증혈에서 0.1씩 감하였고, 천심십도는 부합하지 않았다. 부합도는 83.6%이다. 혈에서는 양호한 부합도를

보였다.

<표 11> 신성용 묘 혈의 부합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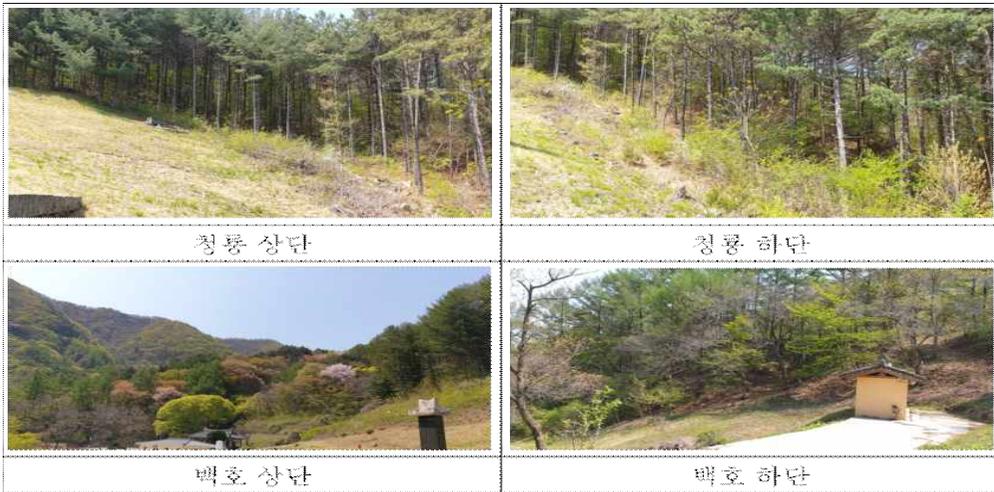
	항 목	내 용	부합도
1	사상	외검유돌중 하나의 혈상을 이루었다.	◎
2	혈형	외검유돌 혈형의 조건에 부합한다.	◎
3	혈성	입수의 산이 성체를 이루고 정체이다.	◎
4	조산증혈	가까운 안산이 유정하고, 고저원근이 적합하다.	○(-0.3)
5	명당증혈	명당이 바르고 평평하며, 소, 중, 대명당이 합법이다.	○(-0.3)
6	수세증혈	혈이 수세의 모임에 적법. 혈처의 좌우고저가 바르다.	◎
7	낙산귀성	횡입수의 혈에 낙산이나 귀성이 있고, 위치가 적법.	☆
8	용호증혈	용호에 따라 혈의 위치가 적합하다.	○(-0.1)
9	전호증혈	송산의 형태에 맞춰 혈처가 바르다.	◎
10	순전증혈	전순이 적합하게 있다.	○(-0.1)
11	천심십도	혈을 중심으로 전후좌우에 십자봉이 정위치에 있다.	X
12	분합증혈	삼분삼합이 잘 갖춰져 있다.	◎
	계		(10-0.8)/11
	부합률(%)		83.6

#### 4) 사법(砂法)의 분석

##### (1) 청룡(靑龍)과 백호(白虎)

신성용 묘의 용호를 살펴본다. 내청룡은 혈에 가까운 거리에서 생기있게 기복하며, 유정하게 감싸안고 있다. 외청룡은 힘차게 내청룡을 환포하여 수구처까지 뺏어내려갔다.

백호는 내백호가 두 개이며 외백호는 혈에 비해 높아서 능압이 있다. 혈 가까이 있는 내백호는 낮고 가늘며 건물을 지으면서 일부 훼손되어 역량이 낮다. 그 바깥쪽으로 내백호가 하나 더 있어 내백호의 부족함을 채워주고 있다. 두 겹의 내백호는 그 역량이 크다. 외백호는 부모산의 후절에서 오른쪽으로 높고 크게 진행하여 혈처를 전체적으로 감싸는 형태가 되었고, 수구사를 만들었으며, 그 밖으로 진행하여 조산인 관성을 만들었으며, 본신룡의 여기로서 길게 나아가서 낙동강과 만나 용진하였다. 그러므로 항목지표의 본신용호는 부합으로 판단하였고, 용호상칭은 부합되지



<그림 48> 청룡과 백호

않았으며, 용호장풍은 부합으로 보았다. 그리고 용호역관은 부합이고, 완연순부는 백호가 너무 높아 부합되지 않았다.

## (2) 조안산(朝案山)



<그림 49> 신성용 묘 조안산(논자 촬영)

신성용 묘의 안산은 본신릉에서 나온 외백호가 안산이 되었다. 안산의

구조는 이중으로 되었으며, 근안은 좌측으로 기울어져 불리한데, 역수는 잘해주고 있다. 그 다음의 안산은 역시 본신통에서 출맥한 외백호에서 나오는데, 우측에 경사가 좌측으로 갈수록 평탄해지는 구조로서 혈에는 유정한 형상이다. 또한 이 안산이 나아가 수구사인 화표산이 되었다. 조산은 외백호 뒤쪽으로 관성산이 되었는데, 침봉의 형태로서 문필에 해당한다. 그러나 우측으로 약간 기울어 감점요소가 있다. 그러므로 부합지표의 근안유정은 0.1을 감하였고, 본신안산과 안산역수는 부합되었으며, 조산유정은 0.2를 감하였다.

### (3) 나성원국(羅城垣局)

신성용 묘의 나성원국은 현무쪽의 소조산과 부모산이 든든하게 버티고 있고, 내외청룡과 그 밖으로 여러겹의 줄기들이 감싸고 있으며, 내백호가 두겹으로 튼튼하고 외백호는 크고 높게 형성되어 있고, 조안쪽으로는 외백호가 안산과 조산이 되어 크게 환포해주고 있어 나성원국의 국세가 크고 조밀하게 되어 있다. 그러므로 부합지표의 나성원국은 부합으로 보았다.

### (4) 하수사(下手砂)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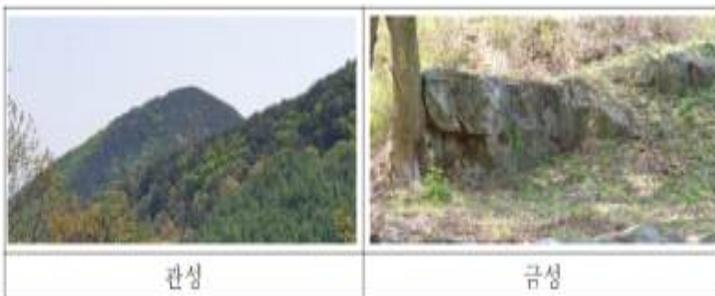
<그림 50> 하수사(지도출처:브이월드)

신성용 묘의 하수사는 5개가 존재한다. 내청룡과 외청룡 사이에서 내려오는 물길을 내청룡에서 나온 하수가 역관해주고 있으며, 그 아래로 내청룡 안쪽의 물길을 혈의 여기에서 나온 사가 역관한다. 내백호 안쪽의 물길을 혈의 여기에서 나온 사가 역관하고 있으며, 내백호에서 내려온 물과 외백호 안쪽에서 합수한 물을 외백호 말단에서 역관하고 있다. 그러므로 부합지표의 하수사는 부합으로 판단하였다.

### (5) 수구사(水口砂)

신성용 묘의 수구사는 화표가 있는데, 이 화표는 외청룡의 말단에서 바위가 특이하게 병풍처럼 펼쳐져 물길을 막고 있다. 내청룡과 내백호에서 내려오는 물이 합수되는 지점과 외청룡과 외백호가 하수되는 수구의 수구사는 작은 바위에서부터 큰 바위로 다수가 있으며, 물고기 모양의 특이한 사도 있다. 부합지표의 수구사는 부합으로 판단하였다.

### (6) 관귀금요(官鬼禽曜)



신성용묘에서는 관성과 금성이 있어 그 귀를 더해주고 있다. 그러므로 관귀금요는 부합으로 판단하였다.

<그림 51> 관성과 금성(논자촬영)

### (7) 사(砂)의 부합도

신성용 묘의 사의 부합도는 용호상칭과 완연순부는 부합되지 않았고, 근안유정에서 0.1과 조산유정에서 0.2의 감점이 있어 부합률이 82.3%이다.

<표 12> 신성용 묘 사의 부합도

항 목	내 용	부합도	
1	본신용호	본신에서 나온 용호이다.	◎
2	용호상칭	용호의 고저가 비슷하고 유정하다.	X
3	용호장풍	용호가 장풍을 잘하고 생기보호에 투철하다.	◎
4	용호역관	용호중 하나가 수구의 물을 잘 막아주고 있다.	◎
5	완연순부	청룡이 완연하고, 백호는 순부한다.	X
6	근안유정	안산이 근소하고 수려하며 회포유정하다.	○(-0.1)
7	본신안산	본신에서 안산을 이루고 유정하다.	◎
8	안산역수	안산이 역수의 형태를 갖추었다.	◎
9	조산특조	조산이 특조산이다.	☆
10	조산유정	조산이 첩원방평, 단정수려하고 유정하다.	○(-0.2)
11	고봉독수	빠어난 봉우리 하나가 혈에 유정하다.	☆
12	나성원국	혈을 중심으로 전후좌우 유정하게 환포하였다.	◎
13	하수사	하수사가 좌우선에 따라 역관하였다.	◎
14	수구사	수구에 수구사가 주밀하게 교결관쇄하였다.	◎
15	관귀금요	혈의 주위에 관귀금요가 있다	◎
계		(11-0.3)/13	
부합률(%)			82.3

## 5) 수법(水法)의 분석

### (1) 수(水)의 발원(發源)



<그림 52> 소조산의 발원수(지도출처:브이월드)

신성용 묘의 발원수 중에 소조산에서 발원한 물은 대략 6.5km이다. 소조산의 청룡줄기에서 갈라진 물은 굴곡하여 내려가다 외수와 만나는 곳의 전 지점에서 뒤로 크게 역수하여 지현자로 굴곡하여 명당수와 합수한 후 빠져나간다. 거리도 길고 수심이 깊으며 폭도 넓다. 소조산 발원수는 청룡수가 혈처를 감고 흘러가므로 청룡수를 계산하여 판단한다.

부모산의 백호 원신수의 길이는 대략 650m 정도이다. 청룡방의 발원수는 백호방보다 굴곡이 많고 환포도 더 크다. 청룡 원신수의 길이는 대략 680m 정도이다. 부모산에서의 발원수는 혈처에 대해 유정하게 환포하며, 발원수의 거리도 길어서 발원수의 길 조건에 합당하다. 그러므로 부합지표의 발원수는 부합으로 판단하였다.

## (2) 수의 도국(到局)과 출구(出口)



<그림 53> 수의 도국과 출구(지도출처:브이월드)

신성용 묘의 경우는 내명당 앞으로 외백호 바깥쪽의 물이 길게 와서 명당 앞으로 모여 지당에 모인 다음 굴곡과 수구사에 의해 느리게 빠져 나가고, 혈처에서 출구의 물이 보이지 않으므로 수의 도국과 출구의 형태가 합당하다. 명당으로 내려오는 물길의 중간중간에 역수사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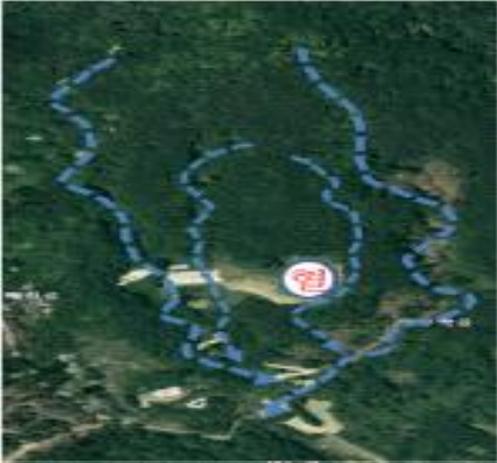
그러므로 지표의 도국과 출구는 부합으로 판단하였다.

## (3) 명당길격(明堂吉格)

신성용 묘의 명당은 명당 9길격 중 교쇄명당이다. 원신수의 합수처가 외청룡과 외백호가 교차하여 교쇄되었다. 이렇게 교쇄가 되면 안쪽의 명

당에 생기가 모여들고 빠져나가지 않으므로 길격의 명당이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지표의 명당길격에 부합되었다.

#### (4) 수성(水星)



신성용 묘의 경우 청룡방의 내청룡수와 외청룡수가 모두 금성형으로 혈을 감싸돌고 내청룡수는 외청룡과 합수하여 외용호수가 합수하는 지점까지 내려간다. 백호방의 물길은 내외백호수가 동일하게 수성형의 수성성을 가지고 합수하였다. 수성의 길격인 금성과 수성으로 조합되어 합격 되었다. 그러므로 부합지표의 수성은 부합으로 판단되었다.

<그림 54> 수성(지도출처:브이월드)

#### (5) 좌향(坐向)

신성용 묘의 좌향은 유좌묘향(酉坐卯向)이고 좌선룡에 우선수가 된다. 유좌묘향은 우수도좌국(右水到左局)으로 태향태류(胎向胎流)가 된다. 이국은 용진혈적(龍眞穴的)이면 대부대귀(大富大貴)와 인정흥왕(人丁興旺)한다. 파구가 갑파(甲破)가 되고 태향태류에 합국이 되어 부합되었다.

#### (6) 수(水)의 부합도

신성용 묘의 수의 부합도는 모든 항목이 부합되어 부합률 100%이다.

<표 13> 신성용 묘 수의 부합도

	항 목	내 용	부합도
1	발원	발원수가 멀고 길다.	◎
2	도국	오는 물이 명당에 든다.	◎

3	출구	물이 나가는 곳이 굴곡하고 수구사가 있다.	◎
4	명당길격	명당수의 9길격에 해당한다.	◎
5	수성	수성성이 금이나 수에 해당한다.	◎
6	좌향	88향법의 길향에 해당한다.	◎
계			6/6
부합률(%)			100

## 6) 종합 부합도

신성용 묘의 용혈사수 종합 부합도는 용이 96.7, 혈이 83.6, 사가 82.3, 수는 100이 되어 종합 부합도는 90.7%이다. 혈과 사에서 감점이 많아 부합도에 영향을 미쳤다.

<표 14> 신성용 묘의 종합 부합도

	항 목	세부지표계산	부합률(%)
1	용	(18-0.6)/18	96.7
2	혈	(10-0.8)/11	83.6
3	사	(11-0.3)/13	82.3
4	수	6/6	100
계		43.3/48	90.7

## 3. 박천(朴蕝) 묘에 대한 분석

### 1) 박천 묘의 개요

박천의 묘소 위치는 경상북도 군위군 의흥면 수북리 산 31번지이다.

구산 박씨(龜山朴氏)의 시조 박천(朴蕝)은 신라 54대 경명왕(景明王)의 장자인 밀성대군 박언침의 14대손이다. 자는 석보(碩輔)로써 고려 말에 정승을 지냈다. 조선 태조 5년(1396년)에는 대광보국승록대부 영의정으로 공신에 녹훈되었다. 대마도 대첩에 공을 세워 구산군(龜山君)에 봉해졌으며 본관을 구산으로 하였다. 박 천은 의흥현(義興縣)을 중심으로 한 동북 4개 면을 식읍으로 하사받아 다스렸다. 구산은 의흥의 옛 지명으로 의흥은 경



<그림 55> 박천 묘 전경(논자 촬영)

상북도 군위군 의흥면의 지명이다. 후손들은 밀양에서 구산으로 분관(分貫)하여 박천을 시조로 하여 세계를 이어오고 있다. 구산 박씨의 후손으로 박경장(朴景章)은 한성부 판관을 역임했으며 임진왜란 때 곽재우와 함께 화왕성 전투에서 공을 세웠다. 박천의 사망년대는 구산박씨 대종회에서 1336년으로 추정하고 있다.<sup>103)</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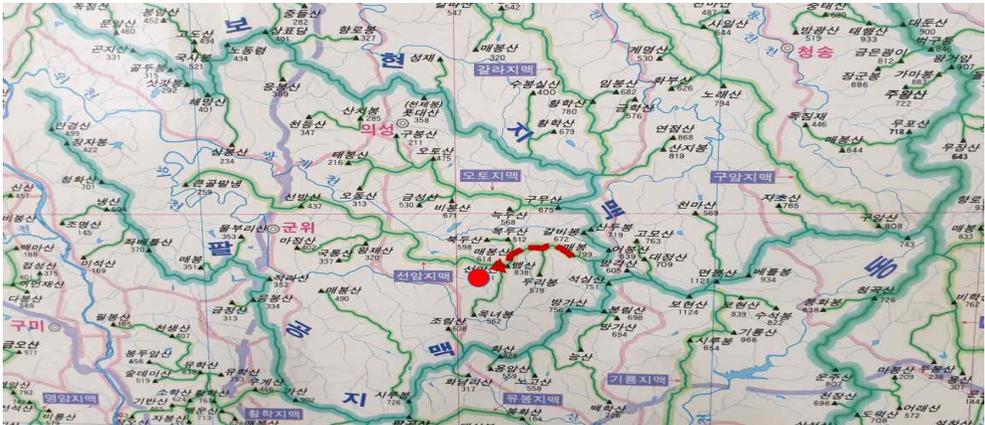
## 2) 용법(龍法)의 분석

### (1) 내룡맥(來龍脈)

박천 묘로 들어오는 내룡맥은 선암지맥이다. 선암산(881)을 태조로 한다. 선암산에서 서방으로 기복과 굴곡하여 250m 봉우리를 세운다. 이 봉우리가 박천 묘의 소조산이 된다. 선암산에서 본신룡은 계속 서진하여 의성에서 용진한다. 박천 묘로 들어오는 용은 본신룡에서 좌측으로 분맥한 방룡으로 호종사에 불과하지만 주변 국세가 좋아 혈을 결지할 정도는 된다. 태조산에서 혈까지의 거리는 대략 10Km 정도이다. 부합지표의 용의 구분에서는 방지룡에 해당하므로 0.4를 감하였다.

### (2) 태조산(太祖山)과 소조산(小祖山)

103) 구산박씨 대종회 문중역사 참조.



<그림 56> 내룡맥(지도출처:신산경표)



<그림 57> 태조산(지도출처:브이월드)

박천 묘의 태조산은 선암산(881)으로 보현지맥에서 선암지맥으로 분지한 용에서 가장 높으며 으뜸가는 산이다. 태조산으로서 충분한 역량을 가졌다. 태조산이 토체(土體)로 이루어졌고 개장을 넓게 하였다. 그러나 천심은 중출맥이 아니고 편출맥(偏出脈)인 우출맥이 되었다. 천심 이후 과협을 지나 소조산으로 연결된다. 과협지를 지나는 용은 호종사(護從砂)가 주밀하게 호위한다. 천심출맥 이후 과협과 기복굴곡하여 박환을 이루고 혈을 맺게 된다. 그러므로 부합지표의 태조산은 0.1을 감하였다.

박천 묘의 소조산은 250m 봉우리로 태조산인 선암산에서 기복과협하고 박환하여 소조산이 되었다. 분지룡에서 소조산이 되었으므로 그 역량이 매우 작다. 그러나 개장을 잘 되었다. 소조산에서 출맥은 중출맥으로 불

수 있으나 정중심은 아니어서 감점요소가 있다. 그러므로 부합지표에서 소조산은 0.2를 감하였다.



<그림 58> 소조산(지도출처:브이월드)

### (3) 부모태식잉육(父母胎息孕育)

박천 묘의 부모산은 220m 고지로 혈 후의 현무정이 되는 것이다. 부모산은 작은 금성체(金星體) 봉우리다. 봉우리 아래로 가느다란 눈맥으로 떨어져 속기한 이후 원형의 잉을 만들었다. 직룡입수에 해당하며, 입수가 경사지게 되므로 속기결인 후에 잉은 평평한 정도에 그치고 위로 솟아오르지 않았다. 그러나 속기결인처가 결인한 모습이 명확하게 나타난다. 이 묘의 부모태식잉육은 합법하게 만들어져서 혈을 결지할 수 있는 여건을 모두 갖추었다. 그러므로 부합지표 항목에서 부합으로 판단되었다.

### (4) 용의 입수(入首)

박천 묘의 경우는 소조산에서 잉까지의 입수는, 소조산이 개장을 넓게 벌려서 양호한 개장이다. 그러나 천심 출맥은 좌출맥이 되어 편출맥이다. 소조산의 후룡은 기복굴곡과 과협이 잘 되었으며 박환도 양호하다. 소조산에서 천심 이후 두 번의 큰 과협을 하였고 기복과 굴곡이 잘되었다. 두 번의 과협 이후 본신룡은 계속해서 진행하고, 오르막에서 작은 봉우리를 세운 다음 우측으로 횡낙(橫落)한다. 소조산에서 잉까지는 편출맥을 제외하고는 모든 것이 적법하다. 기룡혈이 되면서 혈의 여기가 좌측으로 방향



<그림 59> 소조산에서 잉까지의 입수(지도출처:브이월드)

을 들고 있다. 좌선룡(左旋龍)에 우선수(右旋水)의 모양이 확연하게 드러난다. 부모산에서 갈라진 연익(燕翼)이 좌우로 내청룡과 내백호가 되었다. 그러므로 부합지표에서 입수는 편출맥으로 인해 0.2점을 감하였다.

### (5) 용의 개장(開幟), 박환(剝換), 과협(過峽)

태조산인 선암산의 경우 <그림 57>에서 토성(土星)체의 평평한 형태의 지붕에서 좌우로 매우 넓게 개장하였다. 그러나 천심출맥이 정출맥이 되지 않고 우측의 편출맥이 되면서 용의 기가 약해졌다. 태조산은 웅장하고 날카로운 모습이 박환은 되지 않았다. 출맥이후 과협과 기복으로 박환하고 있다. 소조산은 250m 봉우리다. <그림 58>에서 금성(金星)봉의 작은 봉우리를 세우고 좌우의 개장은 거대하게 잘 되었다. 여기에서도 우측으로 편출맥이 되면서 태조산과 마찬가지로 용의 기운이 감소 된다.

박환은 소조산에서 잉까지를 본다. 소조산이 분지(分枝)룡이 되었다. 분지룡은 본신룡에서 갈라져 진룡의 호종사 역할을 주로 하지만 그 중에서도 소지(小地)의 결작은 가능하다. 기복과 굴곡은 수차례에 걸쳐 이루어지므로 이곳의 박환은 매우 양호하다고 본다.

과협은 <그림 58>에서 살펴보면 좌우로 호위가 주밀하고 과협처가 짧게 이루어져 길격의 요소를 갖추었다. 그러므로 부합지표에서 개장은 0.2의 감점이 있고 박환과 과협은 부합으로 판단하였다.

## (6) 지각요도(枝脚橈棹) 및 호송(護送)



<그림 60> 지각요도(지도출처:브이월드)

소조산에서 혈처로 들어오는 용의 좌우로 지각과 요도가 불균형하게 배치가 된 모습이다. 그러나 굴곡하는 요소마다 몸을 틀게 되는 반대방향에서 버팀목의 역할을 잘해주고 있다. 특히 소조산을 지나 과협처의 노란색 송사가 과협지를 주밀하게 호위하여 안전하게 보내주고 있다. 호종사 중에 송사가 잘 갖추어져서 걸지할 수 있는 형태가 되었다. 그러므로 부합지표 항목에서 지각요도는 불균형으로 인해 0.1점을 감하였으며, 호송은 방룡으로 0.1의 감점이 있다.

## (7) 용의 방정(傍正) 및 노늬(老嫩)

태조산인 선암산에서 출맥하여 정룡은 <그림 61>의 빨간색 용으로 의성까지 행룡하여 용진한다. 노란색 용은 묘로 가는 용으로 방룡이다. 그러나 스스로 개장과 과협을 하고, 기복굴곡하여 작은 혈자리는 맺을만 하다. 그러므로 부합지표에서 방정은 방룡에 해당되어 부합되지 않지만 스스로 개장과 박환을 함으로써 자리를 만들 수 있는 조건을 갖추어서 0.4점을 감하였다.

노늬에서는 혈처의 청룡과 백호는 노룡에 해당한다. 혈처로 진입하는 용은 노룡에서 갈라져 가늘고 깨끗하게 변해서 눈룡이 되어 혈처로 진입한다. 그러므로 부합지표상 노늬는 부합으로 판단되었다.



<그림 61> 정룡과 방룡(지도출처:브이월드)

## (8) 용의 분벽(分擘) 및 배면(背面)

<그림 60>의 분벽을 살펴보면, 소조산에서 혈처로 진입하는 용을 기준으로 하여 좌측으로 계속 진행하는 용이 분벽이라고 볼 수 있다. 이 용이 다시 돌아와 혈자리의 소용이 되면 길하게 된다. 그러나 이 용은 계속 나아가 돌아보지 않으므로 분벽으로 본다. 청룡과 백호는 분벽되어 혈자리의 용호가 되어 유정하므로 분벽으로 보지 않는다.

배면은 <그림 60>에서 혈자리로 들어오는 용은 개면하고 완경사다. 그러므로 면이 되었다. 또한 청룡과 백호의 혈과 마주하는 면이 깨끗하고 완만하여 유정하므로 면이 되었다. 용의 면배에서는 혈 주변이 모두 면으로 유정하므로 적법하다. 그러므로 부합지표에서 분벽은 분벽이 있지만 분벽 후 용호사가 되어 길한 조건이 있으므로 0.4점을 감하였고, 배면은 부합되었다.

## (9) 용의 빈주(賓主)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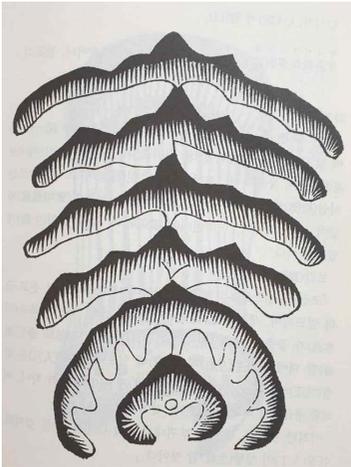
묘의 자리가 방룡에서 결지한 자리이므로 혈장이 작게 형성되어 있다. 주변의 산들이 모두 본신룡에서 나와서 청룡과 백호가 되었고, 안산은 본신룡에서 갈라져 높이도 적당하고 역관사(逆關砂)의 역할도 되어서 유정한 모습이다. 혈을 기준으로 전후좌우의 산들이 모두 본신룡으로 유정한

모습이 되므로 빈주는 균형을 이루었다고 본다. 그러므로 부합지표의 빈주는 부합으로 판단하였다.

### (10) 용의 여기(餘氣)

용의 여기는 혈을 결지한 후 용의 기운이 남아 행룡하여 혈처의 소용이 되거나 다른 혈을 만들기도 한다. 박천 묘의 경우는 방룡에서 결지 하였으나 그 여기가 길다. 이 여기는 분벽룡으로 오히려 용의 기를 설기하므로 혈에 대해서는 좋지 않은 영향을 주게 된다. 그러므로 부합지표상 여기는 0.4점을 감하였다.

### (11) 용형세(龍形勢) 및 오성산(五星山)



<그림 62> 생룡도(그림출처: 김동규역 인자수지 前, p. 553.)

박천 묘의 경우 용형세는 12격 중 생룡에 해당한다. 생룡은 성봉이 기복하고 지각이 활발하며 행도가 단정한 것을 말한다. 그러나 이곳은 방룡에서 결지 하였으므로 그 용기가 적고, 생룡이 되긴 하였으나 분벽이 있어 소지소혈로 먼 후대까지는 영향력이 작다. <그림 61>정룡방룡도의 모습이 <그림 62>생룡도의 모습과 유사하다.

오성산은 소조산과 부모산의 오행의 형태로 판단한다. 묘의 소조산은 복종형으로 금성체에 해당한다. 부모산은 원형의 작은 금성체를 이루었다. 이 묘의 오성산은 길격으로 볼 수 있다. 그러므로 부합지표의 용형세와 오성산은 부합으로 판단하였다.

### (12) 용(龍)의 부합도

박천 묘의 용의 부합도는 태식잉육, 박환, 과협, 노눈, 면배, 빈주, 용형

세, 오성산의 8개 항목이 부합하였고, 용의 구분 및 분벽과 여기는 0.4점씩이 감하였고, 나머지 항목은 부합은 하였으나 결격사유가 있어 감점되었다. 용의 부합도는 86.1%이다.

<표 15> 박천 묘 용의 부합도

	항 목	내 용	부합도
1	용의구분	대간룡~방지룡에서 박환후에 결혈하였다.	○(-0.4)
2	태조산	높고 크고 멀고 특이하며, 주변에서 으뜸가는 산이다.	○(-0.1)
3	소조산	혈에서 가까우며 제반 귀격과 용격에 합당하다.	○(-0.2)
4	태식잉육	모든 길격에 맞고, 속기가 잘되고 호위가 주밀하다.	◎
5	입수	혈후의 1-5절 이내가 길격에 해당한다.	○(-0.2)
6	개장	소조산과 부모산이 개장천심하고 중출맥이다.	○(-0.2)
7	박환	소조산에서 혈처까지 박환이 잘되었다.	◎
8	과협	소조산에서 혈처까지 과협이 길격이다.	◎
9	지각요도	지각과 요도가 적합하며 귀상이다.	○(-0.1)
10	호송	호송산이 많고, 대소·원근·고저가 적당하다.	○(-0.1)
11	방정	정룡에서 혈장을 만들었다.	○(-0.4)
12	노눈	눈룡으로 혈처로 이어졌다.	◎
13	면배	용의 면에 혈처가 있다.	◎
14	분벽	소조산에서 혈처까지 분벽이 되지 않았다.	○(-0.4)
15	빈주	빈주의 형세가 비슷하고 정의가 있다.	◎
16	여기	혈을 맺은 후 여기가 있다.	○(-0.4)
17	용형세	용형세12격에서 생,강,순,진,복룡 중 하나에 해당한다.	◎
18	오성산	소조산과 부모산이 오성의 금, 목, 토성에 해당한다.	◎
	계		(18-2.5)/18
	부합률(%)		86.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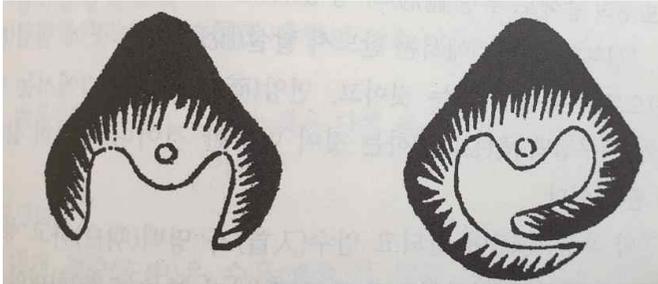
### 3) 혈법(穴法)의 분석

#### (1) 혈(穴)의 사상(四象)

박천 묘는 혈의 사상 중 어디에 속하는지 살펴본다. 이 자리는 현유혈로 유혈에 해당한다. 유혈은 양 어깨가 튼튼하게 잡아주어야 하고 공결되거나 요절된 것을 꺼린다. 이곳은 부모산에서 낙맥하여 속기결인하고 잉을 만들었다. 잉에서 혈까지의 거리는 적당하고 선익은 보이지 않으나 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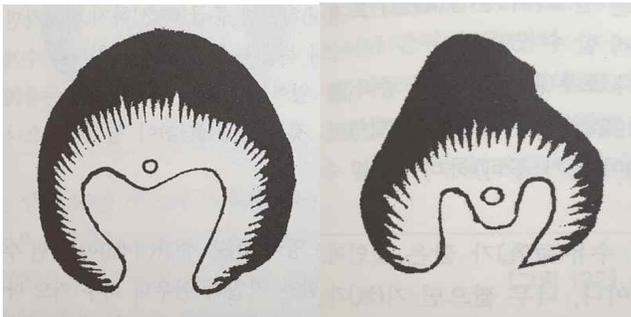
익이 나타나 선익의 역할을 하고 있다. 유두혈 중에서 기룡혈로 볼 수 있다. 혈 이후에 좌로 방향을 틀면 좌선룡에 우선수가 됨을 나타낸다. 그러므로 부합지표의 혈의 사상은 부합으로 판단하였다.

## (2) 혈형(穴形)



<그림 63> 불유회혈 및 유회혈(그림출처:김동규역 인자수지 前, p. 737.)

머무르게 하고 생기를 보호하게 된다. 불유회혈은 유회혈보다는 혈처를 보호하는 역량이 떨어지기 때문에 용호가 튼튼해야 하며, 안산이 역수하는 형태가 되어야 한다. 이곳은 용호가 주밀하게 혈처를 보호하고 본신



<그림 64> 대유(그림출처:김동규역 인자수지 前, p. 741.) <그림 65> 장유(그림출처:김동규역 인자수지 前, p. 741.)

박천 묘는 불유회혈에 해당한다. 불유회혈이 되었으므로 좌우 양 어깨가 혈을 감싸서 보호하고, 본신 부모산에서 청룡사를 만들어 하수한다. 하수는 역관사가 되므로 물길을 역수하여 물을 안산이 혈에 가까이 있어서 길격이다.

그리고 유형의 6격은 장유(長乳)와 대유(大乳)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부합지표의 혈형은 부합으로 보았다.

## (3) 혈성(穴星)

박천 묘의 오성은 부모산이 원형의 금성체로 완만하고 부드러운 모습으로 혈에 대해 유정한 모습으로 혈성을 잘 갖추었다. 잉 또한 원형의 금성체이다. 금성체 아래에서 목성인 유혈이 만들어지면 상극하므로 수나 화에 해당하는 사가 있어

야 한다. 이곳은 잉 아래로 입수가 수성체가 되어 금생수하고 수생목하여 상생의 혈자리가 되었다. 그러므로 부합지표의 혈성은 부합되었다.

#### (4) 혈증(穴證)

##### ① 조산증혈(朝山證穴)



<그림 66> 안산(논자 촬영)

박천 묘의 안산은 본신릉의 부모산에서 우측으로 갈라진 일맥이 안산이 되었다. 안산의 거리도 적당하고, 높이도 눈높이가 되어 합법이다. 안산의 형은 일자문성(一字文星)과 유사한 토성체가 되어 부귀가 따른다. 그리고 안산이 역수하므로 더욱 길하며, 이곳의 안산과 혈과의 관계는 유정하다. 그러므로 조산증혈은 부합지표 항목과 부합으로 판단되었다.

##### ② 명당증혈(明堂證穴)

박천 묘의 소명당은 원훈 아래로 평탄하고 방정하게 이루어져 있다. 소명당으로서 기울어지지 않고 양명하게 되어있다. 소명당 앞으로 전순이 만들어졌으며, 전순 부위에 묘가 하나 있다. 전순의 묘는 흉지가 된다. 증명당은 혈앞으로 여기가 길어서 혈처와는 거리가 있다. 평탄하고 적당한 크기를 갖고 있다. 그리고 백호방 원신수가 증명당의 우측에서 모여 지당을 이루었다. 대명당은 광활함을 요하는데 이곳은 좁게 형성되어 있어 역량이 작다. 소명당은 적당하지만 증명당은 거리가 멀고 대명당은 좁아서 감점요소가 있다. 부합지표의 명당은 2개의 결격사유가 있어 0.2점을 감하



<그림 67> 명당(지도출처:브이월드)

였다.

### ③ 수세증혈(水勢證穴)



<그림 68> 수세도(지도출처:브이월드)

이곳의 수세는 백호방의 원신수가 외수와 합수하여 지당에 모인 이후 청룡방의 원신수와 내명당의 좌측 끝부분에서 합수한다. 좌측에서 물이 모이므로 좌우의 원신수의 거리가 청룡방이 가깝다. 좌측 청룡방으로 혈이 위치한다. 혈이 약간 위쪽으로 자리한 이유는 수세에 의한 것이 아니고, 전순에서 나간 여기가 위로 고개를 쳐든 모습이 되어서 위쪽에 위치하게 된다. 이곳의 수세는 완전한 역수가 되었으므로 수세증혈에서는 적

법하다. 그러므로 부합지표의 수세증혈은 부합되었다.

#### ④ 용호증혈(龍虎證穴)



<그림 69> 용호도(지도출처:브이월드)

박천 묘의 백호는 본신룡에서 갈라진 것으로 부모산으로 오기전에 분지하였다. 청룡은 부모산에서 갈라져 역수하므로 백호보다 거리도 가까우며 더 유정하다. 그러므로 혈처는 청룡쪽으로 결혈하였다. 청룡과 백호는 서로 비슷한 높이이며, 혈처보다는 조금씩 높다. 용호가 혈처보다 높은 것은 장풍함에 있어 유리하다. 그러므로 부합지표는 부합으로 보았다.

#### ⑤ 전호증혈(纏護證穴)

박천 묘의 전호는 <그림 69>의 용호도를 보면 소조산에서 갈라진 본신룡이 안산이 되었다. 이 안산이 전호사에 해당한다. 안산이 내명당을 거쳐 외명당에서 끝나서 수구가 되었다. 이 전호사의 안쪽에 혈이 위치하므로 전호사와 혈의 위치가 적당하다. 그리고 용호가 혈에 비해 너무 길지만 부모산에서 갈라진 좌우의 연익사가 전호사가 되므로 이 연익사와 혈의 위치는 적당하게 되어있다. 그러므로 이곳의 전호증혈은 부합지표에 합당하다.

#### ⑥ 순전증혈(脣氈證穴)

박천 묘의 전순은 이불같은 모양의 전이 되었다. 전의 모양이 평탄하고 단정하며 넓다. 이것은 혈의 역량이 크다고 본다. 그러나 전 부위에 묘가



<그림 70> 순전의 전(논자 촬영)

소지소혈이 되어 천심십도는 나타나지 않았다.

하나 있어 전이 훼손되었다. 그러므로 부합지표는 전순 부위에 묘로 인해 0.1의 감점이 있다.

### ⑦ 천심십도증혈(天心十道證穴)

박천 묘는 방룡의

### ⑧ 분합증혈(分合證穴)

박천 묘의 분합은 혈의 뒤쪽 부모산으로 오기전 속기처에서 백호방의 원신수가 시작되는 지점과 부모산의 좌측에서 시작되는 천룡수가 분이 된다. 내명당의 끝에서 갈라진 원신수가 다시 만나는 곳이 합이 된다. 청룡사가 역관하였고 백호 원신수가 지당을 거쳐 합수하였으므로 득수 형태는 양호하다. 대팔자분합은 갈라진 곳이 거리 차이가 상당하며 합수지점은 같다. 소조산에서 갈라진 백호방의 물길이 외청룡에서 갈라진 물과 합수한다. 이 대팔자분합이 긴밀하지는 않지만 혈의 역량은 더 커진다. 그러므로 부합지표의 분합증혈은 부합되었다.

## (5) 혈(穴)의 부합도

박천 묘의 혈의 부합도는 천심십도는 부합하지 않았고, 명당과 순전증혈에서 감점요소가 있어 88.2%의 부합률을 보였다.

<표 16> 박천 묘 혈의 부합도

	항 목	내 용	부합도
1	사상	외검유돌중 하나의 혈상을 이루었다.	◎
2	혈형	외검유돌 혈형의 조건에 부합한다.	◎
3	혈성	입수의 산이 성체를 이루고 정체이다.	◎
4	조산증혈	가까운 안산이 유정하고, 고저원근이 적합하다.	◎

5	명당증혈	명당이 바르고 평평하며, 소, 중, 대명당이 합법이다.	○(-0.2)
6	수세증혈	혈이 수세의 모임에 적법. 혈처의 좌우고저가 바르다.	◎
7	낙산귀성	황입수의 혈에 낙산이나 귀성이 있고, 위치가 적법.	☆
8	용호증혈	용호에 따라 혈의 위치가 적합하다.	◎
9	전호증혈	송산의 형태에 맞춰 혈처가 바르다.	◎
10	순전증혈	전순이 적합하게 있다.	○(-0.1)
11	천심십도	혈을 중심으로 전후좌우에 십자봉이 정위치에 있다.	X
12	분합증혈	삼분삼합이 잘 갖춰져 있다.	◎
계			(10-0.3)/11
부합률(%)			88.2

#### 4) 사법(砂法)의 분석

##### (1) 청룡(靑龍)과 백호(白虎)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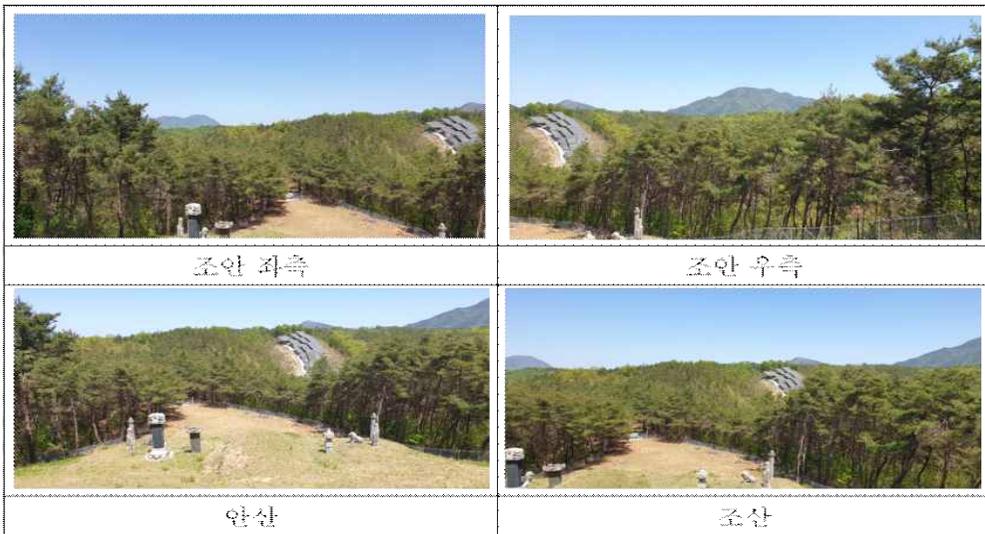
<그림 71> 청룡과 백호(논자 촬영)

내청룡은 연익사가 되어 전 부위에서 멈추었다. 내청룡이 부모산에서 갈라져 혈의 어깨 역할을 하고 있다. 혈 우측의 연익사가 내백호가 되어

혈처를 보호한다. 이곳의 내청룡은 혈에 유정하게 배치되었다.

내백호는 연익사가 되었다. 혈을 튼튼하게 지지하고 있으며 높이는 혈과 비슷하다. 묘의 용호는 혈처에 유정하고, 청룡은 생기있게 흘러내려 역관사가 되었으며, 백호는 본신룡에서 갈라져 혈처를 잘 보호하고 있어 이곳의 용호증혈은 합당하다. 그러므로 부합지표의 본신용호, 용호상칭, 용호장풍, 용호역관, 완연순부는 모두 부합으로 판단하였다.

## (2) 조안산(朝案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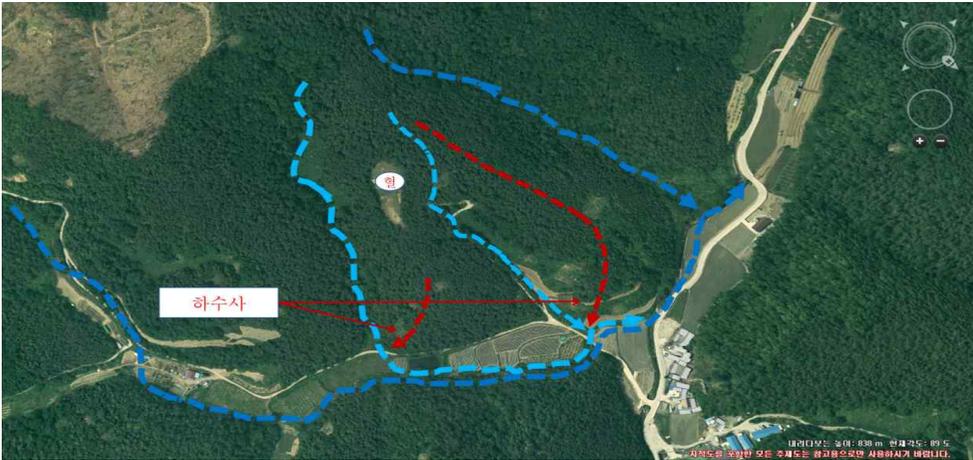
<그림 72> 조안산(논자 촬영)

박천 묘의 안산은 소조산에서 갈라진 본신룡이 혈 전면으로 길게 나와서 혈을 환포하고 수구사의 역할까지도 하고 있다. 이 안산은 혈처의 생기보호도 하지만 역수도 하고 있어 혈에 대해 매우 유정한 모습이다. 안산의 형태는 토성체의 평평한 일자(一字)모양이다. 조산은 목성체가 되어 귀사가 되었고 혈에 대해 공읍하고 있어, 이곳의 조안산은 증혈에서 진혈임을 증명하고 있다. 그러므로 부합지표의 근안유정, 본신안산, 안산역수, 조산유정은 모두 합법으로 판단되었다.

## (3) 나성원국(羅城垣局)

박천 묘의 나성원국은 소조산에서 개장하고 우측으로 갈라진 분지룡이 안산이 되고, 혈 주변의 모든 산들이 외명당에 모여들어 집산(集山)의 형태가 되므로 나성이 긴밀하다. 이곳은 소지소혈로 국세가 작지만 나성은 전후좌후에서 혈처를 긴밀하게 환포하여 부합하였다.

#### (4) 하수사(下手砂)



<그림 73> 하수사(지도출처:브이월드)

박천 묘의 하수사는 2개가 존재한다. 백호수가 혈을 지나가므로 청룡이 역관하여 하수가 되었으며 튼튼하고 긴밀하게 역수한다. 또한 혈의 여기가 길게 흘러내려 백호수를 거두어 주는 하수가 되어 역수가 되었다. 하수사가 2개 뿐이지만 모두 역수하는 역량이 크므로 진혈의 증거로 부족함이 없다. 그러므로 부합지표의 하수사는 부합으로 판단되었다.

#### (5) 수구사(水口砂)

박천 묘의 수구사는 청룡의 역관사와 안산이 만나서 물길을 긴밀하게 막아주고 있어 한문과 비슷한 역할을 한다. 역수가 잘 되었으며 수구가 매우 좁아 물길을 잘 막아주고 있다. 혈에서 수구는 전혀 보이지 않으며, 수구에서 합수한 이후에도 굴곡이 많고 좁아서 물길을 막아주는 역량이 크다. 이곳의 수구사는 특별한 형태를 취하지는 않지만, 수구사의 역할은 충

실히 수행하고 있어 역수가 잘되었다. 그러므로 부합지표의 수구사는 부합으로 보았다.

### (6) 관귀금요(官鬼禽曜)

박천 묘에서는 관귀금요는 나타나지 않았다.

### (7) 사(砂)의 부합도

박천 묘의 사의 부합도는 관귀금요는 부합하지 않았으며 나머지 항목은 모두 부합하여 92.3%이다.

<표 17> 박천 묘 사의 부합도

	항 목	내 용	부합도
1	본신용호	본신에서 나온 용호이다.	◎
2	용호상칭	용호의 고저가 비슷하고 유정하다.	◎
3	용호장풍	용호가 장풍을 잘하고 생기보호에 투철하다.	◎
4	용호역관	용호중 하나가 수구의 물을 잘 막아주고 있다.	◎
5	완연순부	청룡이 완연하고, 백호는 순부한다.	◎
6	근안유정	안산이 근소하고 수려하며 회포유정하다.	◎
7	본신안산	본신에서 안산을 이루고 유정하다.	◎
8	안산역수	안산이 역수의 형태를 갖추었다.	◎
9	조산특조	조산이 특조산이다.	☆
10	조산유정	조산이 침원방평, 단정수려하고 유정하다.	◎
11	고봉독수	빠어난 봉우리 하나가 혈에 유정하다.	☆
12	나성원국	혈을 중심으로 전후좌우 유정하게 환포하였다.	◎
13	하수사	하수사가 좌우선에 따라 역관하였다.	◎
14	수구사	수구에 수구사가 주밀하게 교결관쇄하였다.	◎
15	관귀금요	혈의 주위에 관귀금요가 있다	X
계			12/13
부합률(%)			92.3

## 5) 수법(水法)의 분석

### (1) 수(水)의 발원(發源)



<그림 74> 발원수(지도출처:브이월드)

묘의 발원수 중에 소조산에서 발원한 물은 대략 900m이다. 소조산에서 크게 두줄기의 발원수가 합수하여 혈 앞에 지당에 들어오며 혈처의 청룡수와 합수한 다음 빠져나간다. 부모산에서 발원한 물은 대략 330m로 청룡방의 원신수와 소조산의 발원수가 합수한다. 이 청룡 원신수는 하수가 있어 역관해 주어서 길격이 되었다.

부모산의 발원수는 백호쪽의 물길이 혈을 지나므로 백호원신수가 발원수가 된다. 백호변 발원수의 거리는 대략 700m이다. 그리고 청룡변의 원신수는 대략 330m 정도이다. 그러므로 부합지표의 발원수는 거리가 짧아 0.1점을 감하였다.



<그림 75> 수의 도곡과 출구(지도출처:브이월드)

## (2) 수의 도국(到局)과 출구(出口)

박천 묘의 경우는 소조산에서 갈라진 물줄기 들이 합수하여 내명당에 들어온다. 내명당의 지당으로 들어오는 물줄기는 총 12줄기이다. 이는 수의 도국이 잘된 형태로 혈의 역량이 커진다. 또한 들어오고 빠져나가는 물길이 굴곡하고, 여러 수구사가 역관해주고 있어 느리게 빠져나가는 것도 길격의 요소이다. 그러므로 이곳의 수의 도국과 출구는 부합지표에 합당하다고 본다.

## (3) 명당길격(明堂吉格)

박천 묘의 명당은 명당 9길격 중 주밀명당에 해당한다. <그림 74>의 원신수의 합수처가 청룡과 백호가 밀착하여 주밀하게 짜여졌다. 그러므로 부합지표에는 합법이다.

## (4) 수성(水星)

박천 묘의 경우 금성형과 수성형이 합쳐져 지현(之玄)자로 굴곡하므로 수성형의 길격이 된다. 그러므로 부합지표에 부합되었다.

## (5) 좌향(坐向)

박천 묘의 좌향은 곤좌간향(坤坐艮向)이다. 곤좌간향은 우수도좌국으로 자생향(自生向)이 된다. 이국은 용진혈적(龍眞穴的)이면 조빈석부(朝貧夕富)에 부귀왕정(富貴旺丁)으로 매우 길한 좌향이 된다. 내파(內破)의 파구(破口)가 계축방(癸丑方)이 되어 곤좌간향이 되었으므로 자생향에 합국한다. 그러므로 부합지표에 부합되었다.

## (6) 수(水)의 부합도

박천 묘의 수의 부합도는 발원수에서 감점이 있어 98.3%이다.

<표 18> 박천 묘 수의 부합도

항 목	내 용	부합도	
1	발원	발원수가 멀고 길다.	○(-0.1)
2	도국	오는 물이 명당에 든다.	◎
3	출구	물이 나가는 곳이 굴곡하고 수구사가 있다.	◎
4	명당길격	명당수의 9길격에 해당한다.	◎
5	수성	수성성이 금이나 수에 해당한다.	◎
6	좌향	88향법의 길향에 해당한다.	◎
계		(6-0.1)/6	
부합률(%)		98.3	

## 6) 종합 부합도

박천 묘의 용혈사수 종합부합도는 용이 86.1, 혈이 88.2, 사가 92.3, 수가 98.3으로 91.2%의 부합률을 보였다.

<표 19> 박천 묘의 종합 부합도

항 목	세부지표계산	부합률(%)	
1	용	(18-2.5)/18	86.1
2	혈	(10-0.3)/11	88.2
3	사	12/13	92.3
4	수	(6-0.1)/6	98.3
계		43.1/48	91.2

## 4. 박인로(朴仁老) 묘에 대한 분석

### 1) 박인로 묘의 개요

박인로 묘의 소재지는 경북 영천시 북안면 도천리 산 1-1번지이다.

박인로(朴仁老)는 1561(명종16년) 경북 영천시 북안면 도천리에서 출생하여 1642(인조20년)에 졸하였다. 밀양박씨이고 자는 덕옹(德翁), 호는 노계(蘆溪), 무하옹(無何翁)이다. 부친은 증의부위 박석(朴碩)이며 모친은 참봉 주순신(朱舜臣)의 딸이다. 노계 박인로 선생은 송강 정철, 고산 윤선도

와 함께 조선시대 3대 시인이다. 1573년 한시 대승음(戴勝吟)을 시작으로 태평사, 조흥시가, 선상탄, 사제곡, 입암이십구곡, 영남가, 권주가, 상사가 를 지었고, 1636년에 노계가를 썼다. 1592년에는 임진왜란시 의병으로 참 전하였고 1599년에 무과에 급제하였다. 수문장, 선전관, 만호, 용양위부호 군을 역임하였다.<sup>104)</sup>



<그림 76> 박인로 묘소 전경(논자 촬영)

## 2) 용법(龍法)의 분석

### (1) 내룡맥(來龍脈)

박인로 묘로 들어오는 내룡맥은 낙동정맥이 남진하여 보현지맥과 비학 지맥으로 갈라진 후 운주산(807m)을 지나 어림산(510m)을 세운 뒤 서진 하여 관산(394m)을 세운다. 이 관산이 태조산이다. 관산에서 남쪽으로 진 행하여 만불산(275m)을 일으킨다. 만불산이 소조산이 되며 오봉산(633m) 을 가기전 과협지에서 200m 봉우리를 만든 뒤 서쪽으로 진행하여 150m 봉우리를 세운뒤 묘로 들어온다. 150m 봉우리가 부모산이다.

태조산에서 자리까지 총 길이가 대략 8km이고 소조산에서 자리까지의 거리는 대략 4km정도이다. 부모산에서 자리까지의 거리는 대략 200m이

104) 출처: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영천시 노계문학관 참조.

다. 부합지표의 용의 구분에서는 방지룡에 해당하므로 0.4를 감하였다.



<그림 77> 내룡맥(지도출처:신산경표)

## (2) 태조산(太祖山)과 소조산(小祖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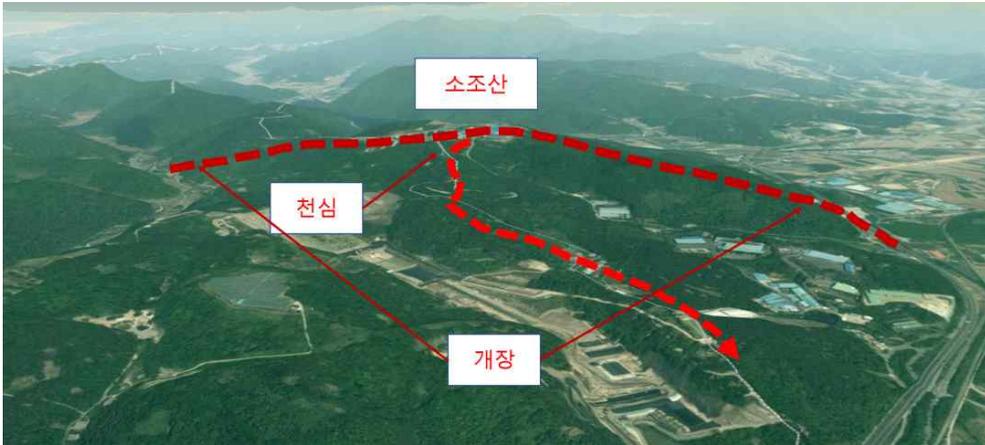
박인로 묘의 태조산은 관산(394m)으로 낙동정맥이 어림산을 세운 뒤 서쪽으로 방향을 직각으로 꺾은 후에 세운 산으로 태조산으로서 역량이 부족하다. 태조산이 목체(木體)로 이루어 졌고 개장은 하였으나 진행하기 위한 지각형태로 작게 형성되었다.



<그림 78> 태조산(지도출처:브이월드)

천심은 중출맥으로 수차례 기복과 과협을 하고 소조산인 만불산으로 연

결되었다. 과협지 또한 매우 약하게 형성되었고 호중사는 호위를 잘하고 있다. 그러므로 부합지표의 태조산은 낮고 개장이 약하며 과협도 작아 세가지가 부적합이라 0.3을 감하였다.



<그림 79> 소조산(지도출처:브이월드)

박인로 묘의 소조산은 만불산(275m)으로 분지릉에서 소조산이 되었으므로 그 역량이 매우 작다. 개장도 미약하다. 천심은 중출맥이다. 천심 이후 기복과 굴곡 그리고 과협이 매우 양호하다. 그러므로 부합지표에서 소조산은 두 개의 감점요소가 있어 0.2를 감하였다.

### (3) 부모태식잉육(父母胎息孕育)

부모산은 작은 금성체(金星體) 봉우리다. 봉우리 아래로 가느다란 눈맥으로 떨어져 속기한 이후 미세하게 잉을 만들었다. 부모산에서 자리로 들어가는 맥은 넓은 양맥(陽脈)으로 형성되어 속기도 미세하게 되어있다. 부모태식잉육은 합법하게 만들어져서 혈을 결지할 수 있는 여건을 모두 갖추었다. 그러므로 부합지표 항목에서 부합으로 판단되었다.

### (4) 용의 입수(入首)

박인로 묘의 소조산에서 잉까지의 입수는 소조산의 개장이 약하다. 천심은 중출맥이다. 천심이후 기복과 굴곡이 잘되어 있다. 박환도 양호하다.

그러나 소조산에서 부모산까지의 거리가 너무 먼 것은 감점요소이다.

잉에서 혈까지의 입수는 선익은 세겹으로 나타나 있고 굴곡해서 입수하는 모습은 미약하게 나타난다. 유형의 자리가 되므로 선익이 나타나는 것은 바른 것이다. 그러므로 부합지표에서 입수는 두가지의 감점요소가 있어 0.2점을 감하였다.

### (5) 용의 개장(開幃), 박환(剝換), 과협(過峽)

태조산은 개장이 약하고 천심은 중출맥이며 천심이후 과협도 약하다. 출맥이후 과협과 기복으로 박환은 잘 되어있다. 소조산도 개장이 약하지만 과협과 기복굴곡이 많아 박환은 잘되어 있다. 과협지의 송사가 많아 호위가 매우 양호하다.

박환은 소조산에서 잉까지를 본다. 소조산이 이미 박환이 되어 있고 잉까지 기복굴곡하고 과협하여 완벽하게 박환되었다.

과협은 <그림 78>에서 태조산의 과협이 약하지만 소조산 이후의 과협은 여러 개가 나타나며 좌우로 호위가 잘 갖춰져 있다. 그러므로 부합지표에서 개장은 부합되지 않았고, 박환은 부합하였으며, 과협은 태조산의 과협이 감점이 있어 0.1을 감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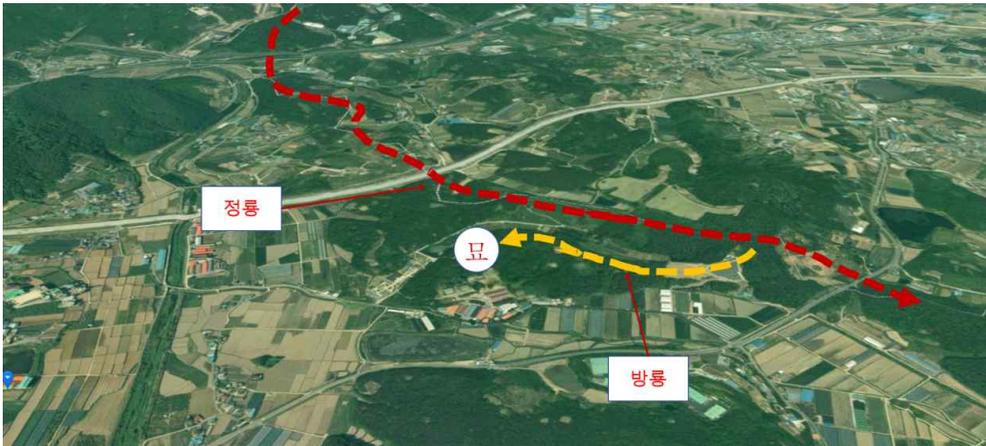
### (6) 지각요도(枝脚橈棹) 및 호송(護送)



<그림 80> 지각요도(지도출처:브이월드)

소조산에서 혈처로 들어오는 용이 낙동정맥이 과협하는 자리이므로 지각요도가 적고 불규칙하다. 호종사는 잘 갖춰져 있으며 낮게 형성되었다. 그러므로 부합지표 항목에서 지각요도는 불균형과 약함으로 인해 0.2점을 감하였다. 호송은 부합되었다.

### (7) 용의 방정(傍正) 및 노늬(老嫩)



<그림 81> 정룡과 방룡(지도출처:브이월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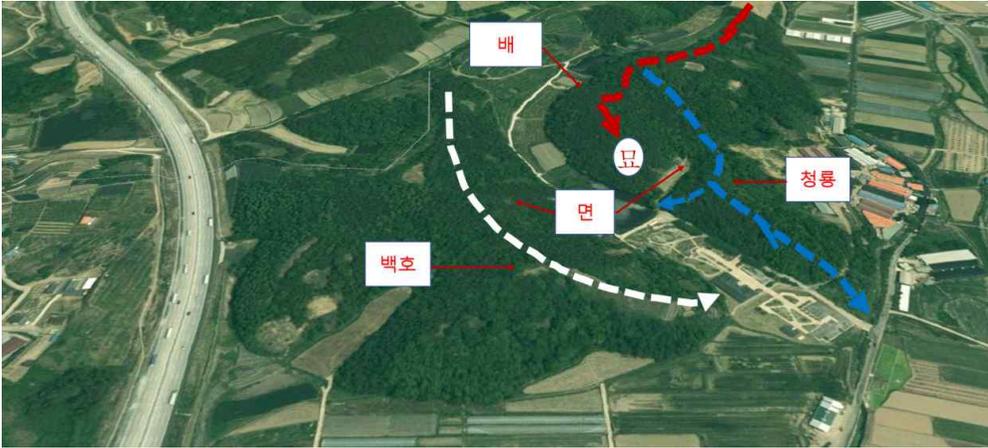
박인로 묘는 그림의 적색용은 낙동정맥의 과협지를 지나는 용으로 정룡이 된다. 황색용은 정룡의 지각에 해당하는 방룡이다. 부합지표는 방룡이므로 부합되지 않았다.

노늬에서는 <그림 81>에서 적색용은 계속 진행하는 용으로 노룡이다. 황색용은 가늘고 박환이 잘되어 있어 늬룡이 된다. 이 용은 노늬에서 갈라져 가늘고 깨끗하게 변해서 늬룡이 되어 혈처로 진입한다. 그러므로 부합지표 노늬는 부합으로 판단되었다.

### (8) 용의 분벽(分擘) 및 배면(背面)

<그림 82>의 분벽을 살펴보면 부모산으로 진입하기 전에 좌측으로 갈라지는 용은 자리에서 청룡이 되므로 분벽으로 보지 않는다.

배면은 <그림 82>에서 묘소로 들어오는 적색용은 개면하고 완경사다.



<그림 82> 배면(지도출처:브이월드)

좌우의 청룡과 백호는 깨끗하고 유정하여 면이 된다. 부모산의 후면은 급경사로 배가 된다. 그러므로 부합지표에서 분벽과 배면은 부합되었다.

### (9) 용의 빈주(賓主)

빈주는 주인과 객산과의 관계를 살펴 혈처와 주변의 산과의 조화를 보는 것이다. 주인과 객산과는 상칭되어 유정해야 길로 본다. 본신에서 나온 산이든 외산에서 오는 산이든 관계없이 빈은 주에 대해 공경하는 자세로 읍하는 모양이 되면 길로 본다. 이곳의 빈주는 본신룡의 용호와 안산이 묘소와 빈주관계가 되므로 높낮이가 비슷하고 유정하다. 그러므로 빈주는 부합지표에 부합되었다.

### (10) 용의 여기(餘氣)

용의 여기는 혈을 결지한 후 용의 기운이 남아 행룡하여 혈처의 소용이 되거나 다른 혈을 만들기도 한다. 산진처가 되므로 전순으로 짧게 마무리된다. 그러므로 부합지표는 부합되지 않았다.

### (11) 용형세(龍形勢) 및 오성산(五星山)

박인로 묘의 경우 용형세는 12격 중 해당되는 용이 없다. 이유는 과협지에 해당되어 불규칙하기 때문이다.

오성산은 소조산과 부모산의 오행의 형태로 판단한다. 박인로 묘의 소조산은 북종형으로 금성체에 해당한다. 부모산은 원형의 작은 금성체를 이루었다. 소조산과 부모산이 모두 금성체가 되었다. 이곳의 오성산은 길격으로 볼 수 있다. 그러므로 부합지표의 용형세는 부합되지 않았고, 오성산은 부합으로 판단하였다.

## (12) 용(龍)의 부합도

박인로 묘의 용의 부합도는 개장, 방정, 여기, 용형세가 부합되지 않았고, 나머지 항목은 부합은 하였으나 결격사유가 있어 감점되었다. 용의 부합도는 70.0%이다.

<표 20> 박인로 묘 용의 부합도

	항 목	내 용	부합도
1	용의구분	대간룡~방지룡에서 박환후에 결혈하였다.	○(-0.4)
2	태조산	높고 크고 멀고 특이하며, 주변에서 으뜸가는 산이다.	○(-0.3)
3	소조산	혈에서 가까우며 제반 귀격과 용격에 합당하다.	○(-0.2)
4	태식잉육	모든 길격에 맞고, 속기가 잘되고 호위가 주밀하다.	◎
5	입수	혈후의 1-5절 이내가 길격에 해당한다.	○(-0.2)
6	개장	소조산과 부모산이 개장천심하고 중출맥이다.	X
7	박환	소조산에서 혈처까지 박환이 잘되었다.	◎
8	과협	소조산에서 혈처까지 과협이 길격이다.	○(-0.1)
9	지각요도	지각과 요도가 적합하며 귀상이다.	○(-0.2)
10	호송	호송산이 많고, 대소·원근·고저가 적당하다.	◎
11	방정	정룡에서 혈장을 만들었다.	X
12	노눈	눈룡으로 혈처로 이어졌다.	◎
13	면배	용의 면에 혈처가 있다.	◎
14	분벽	소조산에서 혈처까지 분벽이 되지 않았다.	◎
15	빈주	빈주의 형세가 비슷하고 정의가 있다.	◎
16	여기	혈을 뺏은 후 여기가 있다.	X
17	용형세	용형세12격에서 생,강,순,진,복룡 중 하나에 해당한다.	X
18	오성산	소조산과 부모산이 오성의 금, 목, 토성에 해당한다.	◎
	계		(14-1.4)/18

### 3) 혈법(穴法)의 분석

#### (1) 혈(穴)의 사상(四象)

박인로 묘는 혈의 사상 중 어디에 속하는지 살펴본다. 이 자리는 현유혈로 유혈에 해당한다. 부모산에서 낙맥하여 속기결인하고 잉을 만들었다. 잉에서 묘까지의 거리는 조금 멀지만 잉 뒤에서 선익이 세겹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러므로 부합지표의 혈의 사상은 부합으로 판단하였다.

#### (2) 혈형(穴形)

박인로 묘는 유희혈에 해당한다. 유희혈 이지만 청룡이 짧고 백호가 묘소 전면을 지나 환포한다. 청룡이 역관사가 되어 수구의 물이 역수형이 되었다. 이곳은 특이하게 주룡에서 갈라져 나온 용이 회룡고조형이 되어 묘소보다 먼저 갈라져 나온 지각이 백호가 된다.

그리고 유형의 6격에서는 장유와 대유에 해당한다. 장유는 양쪽 어깨의 사이로 유가 긴 것을 이르는데, 너무 길면 맥이 활발하지 않으므로 좋지 않은데 박인로 묘는 유의 길이가 길다. 유의 끝 지점에 묘소를 만들고 전순이 짧게 떨어진다. 그리고 대유는 양쪽 어깨 사이의 유가 큰 것을 이르

는데, 너무 크면 거칠고 완고해지므로 꺼리게 되지만 이곳의 대유는 적당하다. 그러므로 부합지표의 혈형은 부합으로 보았다.



<그림 83> 부모산의 혈성(논자 촬영)

#### (3) 혈성(穴星)

혈성은 입수한 산의 형체를 오성으로 구분한 것이다. 오성의 성체가 명백해야 혈을 결지한다고 하였다. 박인로 묘의 오성은 <그림 83>의 부모산과 같이 원형의 금성체로 완만하고 부드러운 모습으로 혈에 대해 유정한 모습으로 혈성을 잘 갖추었다. 그러므로 부합지표의 혈성은 부합되었다.

#### (4) 혈증(穴證)

##### ① 조산증혈(朝山證穴)



<그림 84> 안산(논자 촬영)

박인로 묘의 안산은 <그림 84>의 본신통이 진행하다가 묘소로 갈라지기 전에 갈라진 맥에서 백호가 되면서 길게 뻗어내려 안산이 되었다. 백호가 안산이 되므로 백호작국이 되었다. 안산은 거리도 적당하고, 높이도 가슴 높이에 해당되어 합법이다. 안산의 형은 수성형이 되어 묘소와의 관계는 유정하다. 그러므로 조산증혈은 부합지표 항목과 부합으로 판단되었다.

##### ② 명당증혈(明堂證穴)

박인로 묘의 소명당은 원훈 아래로 평탄하고 방정하게 이루어져 있다.



<그림 85> 명당(지도출처:브이월드)

소명당으로서 기울어지지 않고 양명하게 되어있다. 소명당 앞으로 전순이 만들어졌으며, 중명당은 묘소의 전순이 짧아 거리가 가깝고 평탄하고 적당한 크기를 갖고 있다. 청룡과 백호의 원신수가 중명당에 모여 지당을 이루었다. 대명당은 광활함을 요하는데 이곳은 매우 넓게 형성되어 있어 역량이 크다. 그러므로 부합지표의 명당은 부합으로 판단 되었다.

### ③ 수세증혈(水勢證穴)



<그림 86> 수세도(지도출처:브이월드)

박인로 묘의 수세는 청룡수와 백호수가 합수하여 지당에 모인 이후 외

청룡방의 원신수와 증명당의 끝부분에서 합수한다. 좌우의 물이 거리가 비슷하고 묘소 전면의 중앙에 모이므로 묘소의 위치도 중간에 자리하고 있다. 좌선룡에 우선수가 되어 합법하고, 청룡사가 1차합수 지점에서 역관하여 물길을 막아주고 있으며, 2차합수 지점을 지나는 큰 외수가 대명당을 거쳐 역수형태로 빠져나간다. 3차합수 지점도 백호 끝 부분이 역수하는 형태가 되었다. 이곳의 수세는 완전한 역수가 되었으므로 수세증혈에서는 적법하다. 그러므로 부합지표의 수세증혈은 부합되었다.

#### ④ 용호증혈(龍虎證穴)



<그림 87> 용호도(지도출처:브이월드)

박인로 묘의 백호는 본신룡에서 갈라진 것으로 묘소로 분지하기 전에 갈라져 백호가 되었다. 청룡은 부모산으로 오기전에 갈라져 역수하므로 백호보다 거리가 가까우며 더 유정하다. 그러므로 혈처는 청룡쪽으로 결혈하였다. 청룡에 비해 백호가 높다. 청룡은 묘소 부위가 낮아 결점이 있다. 그러므로 부합지표는 청룡의 결점으로 인해 0.1의 감점이 되었다.

#### ⑤ 전호증혈(纏護證穴)

박인로 묘의 전호는 <그림 87>의 용호도를 보면 주룡에서 갈라진 본신룡이 백호가 되면서 안산이 되었다. 청룡과 백호가 전호사가 되고 조금 길지만 전호로서의 역할은 충분하다. 그러므로 이곳의 전호증혈은 부합지표에 합당하다.

### ⑥ 순전증혈(脣氈證穴)



<그림 88> 순전의 전(논자 촬영)

박인로 묘의 전순은 이 불같은 모양의 전이 되었다. 전의 모양이 평탄하고 단정하며 넓다. 순전의 증혈은 합당하다고 판단된다. 그러므로 부합지표는 부합으로 판단하였다.

### ⑦ 천심십도증혈(天心十道證穴)

박인로 묘의 경우는 천심십도는 나타나지 않았다.

### ⑧ 분합증혈(分合證穴)

박인로 묘의 분합은 <그림 86>에서 보듯 청룡방의 물길과 백호방의 물길이 합수하여 소팔자 분합이 있다. 대팔자 분합은 나타나지 않았다. 그러므로 부합지표의 분합증혈은 부합되었다.

## (5) 혈(穴)의 부합도

박인로 묘의 혈의 부합도는 천심십도는 부합하지 않았고, 용호증혈에서 감점요소가 있어 90%의 부합률을 보였다.

<표 21> 박인로 묘 혈의 부합도

	항 목	내 용	부합도
1	사상	외검유돌중 하나의 혈상을 이루었다.	◎
2	혈형	외검유돌 혈형의 조건에 부합한다.	◎
3	혈성	입수의 산이 성체를 이루고 정체이다.	◎
4	조산증혈	가까운 안산이 유정하고, 고저원근이 적합하다.	◎
5	명당증혈	명당이 바르고 평평하며, 소, 중, 대명당이 합법이다.	◎
6	수세증혈	혈이 수세의 모임에 적법. 혈처의 좌우고저가 바르다.	◎

7	낙산귀성	황입수의 혈에 낙산이나 귀성이 있고, 위치가 적법.	☆
8	용호증혈	용호에 따라 혈의 위치가 적합하다.	○(-0.1)
9	전호증혈	송산의 형태에 맞춰 혈처가 바르다.	◎
10	순전증혈	전순이 적합하게 있다.	◎
11	천심십도	혈을 중심으로 전후좌우에 십자봉이 정위치에 있다.	X
12	분합증혈	삼분삼합이 잘 갖춰져 있다.	◎
계			(10-0.1)/11
부합률(%)			90.0

#### 4) 사법(砂法)의 분석

##### (1) 청룡(靑龍)과 백호(白虎)



<그림 89>청룡과 백호(논자 촬영)

박인로 묘의 용호를 살펴본다. 청룡은 부모산으로 오기 전 갈라져 묘소를 감싸며 역관사가 되었다. 그러나 청룡 상단이 꺼져 있어 결점이 있다. 백호는 주룡에서 갈라져 묘소 전면을 지나 안산의 역할까지 하고 있다. 본신용호에서는 청룡과 백호 모두 본신에서 나온 것으로 합당하고, 용호상칭에서는 백호가 높아 부합되지 않았다. 용호장풍은 청룡상단이 꺼짐으

로 인해 0.1의 감점이 있고, 용호역관은 청룡이 역관하여 합당하며, 완연순부는 적합하였다.

## (2) 조안산(朝案山)



<그림 90> 조안(논자 촬영)

박인로 묘의 안산은 주룡에서 갈라진 백호 끝 부분이 안산이 되었다. 묘소와 거리가 가깝고 유정하여 근안유정에 부합한다. 본신룡에서 안산이 되어 본신안산 또한 부합한다. 안산이 용호수가 합수하여 외수와 만나기 전에 역수하여 안산역수도 부합이다. 조산은 거리가 멀고 달아나는 형상으로 배반하고 있어 조산유정은 부합하지 않았다. 그러므로 부합지표의 조산유정을 제외하고 근안유정, 본신안산, 안산역수는 모두 합법으로 판단되었다.

## (3) 나성원국(羅城垣局)

박인로 묘의 나성원국은 낙동정맥이 행룡하는 과정에 작은 가치를 뺏어 자리를 만들어서 전체적으로 긴밀하지 못하고 특히 내명당이 열려 있고

대명당이 감싸주지 못했다. 그러므로 나성원국은 부합하지 않았다.

#### (4) 하수사(下手砂)



<그림 91> 하수사(지도출처:브이월드)

박인로 묘의 하수사는 1개가 존재한다. 백호수가 혈을 지나가므로 청룡이 역관하여 하수가 되었으며 튼튼하고 긴밀하게 역수한다. 그러므로 부합지표의 하수사는 부합으로 판단되었다.

#### (5) 수구사(水口砂)

이곳의 수구사는 청룡의 끝 부분이 하수사가 되면서 수구사가 바위로 이루어져 있다. 그러나 백호와 청룡이 긴밀하게 수구를 막아주지는 않는다. 그러므로 부합지표의 수구사는 0.1점을 감하였다.

#### (6) 관귀금요(官鬼禽曜)

박인로 묘에서는 관귀금요는 없다.

#### (7) 사(砂)의 부합도

박인로 묘의 사의 부합도는 용호상칭, 조산유정, 나성원국, 관귀금요는

부합하지 않았으며 나머지 항목은 모두 부합하여 67.7%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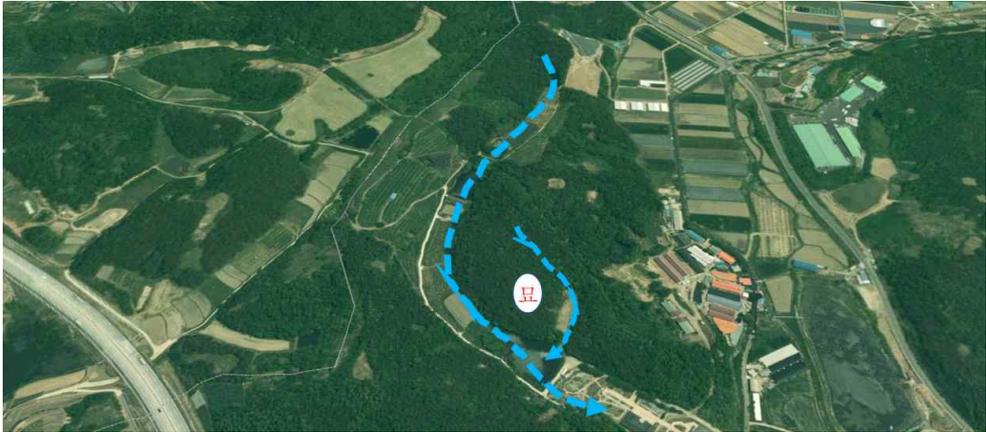
<표 22> 박인로 묘사의 부합도

항 목	내 용	부 합 도	
1	본신용호	본신에서 나온 용호이다.	◎
2	용호상칭	용호의 고저가 비슷하고 유정하다.	X
3	용호장풍	용호가 장풍을 잘하고 생기보호에 투철하다.	○(-0.1)
4	용호역관	용호중 하나가 수구의 물을 잘 막아주고 있다.	◎
5	완연순부	청룡이 완연하고, 백호는 순부한다.	◎
6	근안유정	안산이 근소하고 수려하며 회포유정하다.	◎
7	본신안산	본신에서 안산을 이루고 유정하다.	◎
8	안산역수	안산이 역수의 형태를 갖추었다.	◎
9	조산특조	조산이 특조산이다.	☆
10	조산유정	조산이 침원방평, 단정수려하고 유정하다.	X
11	고봉독수	빼어난 봉우리 하나가 혈에 유정하다.	☆
12	나성원국	혈을 중심으로 전후좌우 유정하게 환포하였다.	X
13	하수사	하수사가 좌우선에 따라 역관하였다.	◎
14	수구사	수구에 수구사가 주밀하게 교결관쇄하였다.	○(-0.1)
15	관귀금요	혈의 주위에 관귀금요가 있다	X
계		(9-0.2)/13	
부합률(%)		67.7	

## 5) 수법(水法)의 분석

### (1) 수(水)의 발원(發源)

박인로 묘의 발원수 중에 소조산에서 발원한 물은 묘소로는 오지 않는다. 이유는 낙동정맥의 진행과정에서 과협지를 지나면서 소조산과 묘소의 거리가 멀고 중간에 외수가 막고 있어 관련이 없다. 부모산의 발원수는 백호쪽의 물길이 혈을 지나므로 백호원신수가 발원수가 된다. 백호변 발원수의 거리는 대략 720m이다. 그리고 청룡변의 원신수는 대략 240m 정도이다. 청룡방의 원신수는 거리도 짧고 굴곡도 적지만 하수가 되어 역관해주는 역할이 되어 길격이 되었다. 그러므로 부합지표의 발원수는 소조



<그림 92> 부모산의 발원수(지도출처:브이월드)

산에서의 발원수가 관계가 없으므로 부합하지 않았다.

## (2) 수의 도국(到局)과 출구(出口)



<그림 93> 수의 도국과 출구(지도출처:브이월드)

박인로 묘의 경우는 백호수와 청룡수가 합수하여 내명당에 들어온다. 내명당의 지당이 크게 형성되었다. 물줄기가 작은 것은 길하지 않다. 들어오고 빠져나가는 물길이 굴곡하고, 하수사와 수구사가 역관해주고 있어 느리게 빠져 나가는 것도 길격의 요소이다. 그러므로 이곳의 수의 도국과

출구는 부합지표에 합당하다고 판단된다.

### (3) 명당길격(明堂吉格)

박인로 묘의 명당은 명당 9길격 중 해당되는 것이 없다. 그러므로 부합지표에는 부합되지 않았다.

### (4) 수성(水星)

박인로 묘의 경우 <그림 93>과 같이 일직선의 목성형이 되므로 흉격이 되었다. 그러므로 부합지표에 부합되지 않았다.

### (5) 좌향(坐向)

박인로 묘의 좌향은 을좌신향(乙坐辛向)이다. 유파(酉破)가 되면서 팔팔향법에 해당사항이 없다. 그러므로 부합지표에 부합되지 않았다.

### (6) 수(水)의 부합도

박인로 묘의 수의 부합도는 도국과 출구를 제외한 모든 항목이 부합되지 않아 33.3%이다.

<표 23> 박인로 묘 수의 부합도

	항 목	내 용	부합도
1	발원	발원수가 멀고 길다.	X
2	도국	오는 물이 명당에 든다.	◎
3	출구	물이 나가는 곳이 굴곡하고 수구사가 있다.	◎
4	명당길격	명당수의 9길격에 해당한다.	X
5	수성	수성성이 금이나 수에 해당한다.	X
6	좌향	88향법의 길향에 해당한다.	X
	계		2/6
	부합률(%)		33.3

## 6) 종합 부합도

박인로 묘의 용혈사수 종합부합도는 용이 70.0, 혈이 90.0, 사가 67.7, 수가 33.3으로 65.3%의 부합률을 보였다.

<표 24> 박인로 묘의 종합 부합도

	항 목	세부지표계산	부합률(%)
1	용	(14-1.4)/18	70.0
2	혈	(10-0.1)/11	90.0
3	사	(9-0.2)/13	67.7
4	수	2/6	33.3
	계	33.3/48	65.3

## 5. 서학(徐鶴) 묘에 대한 분석

### 1) 서학 묘의 개요



<그림 94> 서학 묘소 전경(논자 촬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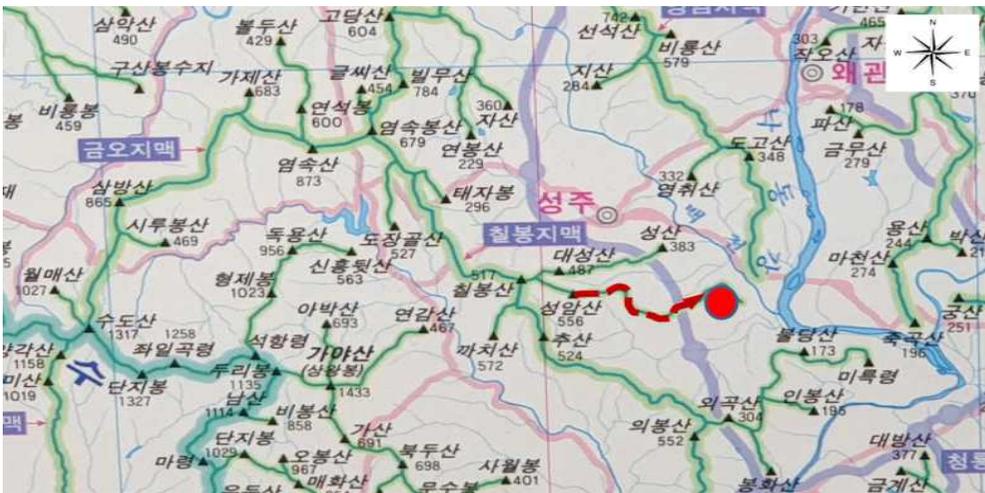
서학의 묘소 위치는 경북 성주군 용암면 문명리 산 81번지이다.

절강서씨(浙江徐氏)는 중국 절강성 출신인 서학(徐鶴)이 1597(선조 30

년) 정유재란시 도총관으로 전쟁에서 많은 공을 세우고 경북 성주군 대방동에 뿌리를 내리고 정착하였다. 명나라 명장(名將) 가문 출신으로 알려져 있다. 서학의 증조부는 절강서씨 시조 서해룡(徐海龍)이다. 그의 후손들이 시조의 출생지인 절강을 본관으로 하여 절강서씨가 되었다. 서학은 1566년 출생하였고 1646년 사망하였다. 서학의 묘소는 1646년에 조성되었을 것으로 추정한다. 순조 34년 조선 사림들이 서학과 시문용을 추모하고자 대명마을에 풍천재(風泉齋)를 지었고, 헌종 1년에 유허비(遺墟碑)를 세웠다. 서혈세(徐歇世)는 서학의 장남으로 조선 중8품 문관(文官) 승사랑(承仕郎) 역임하였고, 3세인 서종길(徐宗吉)은 조선 정3품 문관(文官) 통정대부(通政大夫) 역임하였다. 4세인 서의필(徐義必) 효행으로 명성을 떨쳤다.<sup>105)</sup> 족보나 가계도가 없어 그 후대는 불분명하다.

## 2) 용법(龍法)의 분석

### (1) 내룡맥(來龍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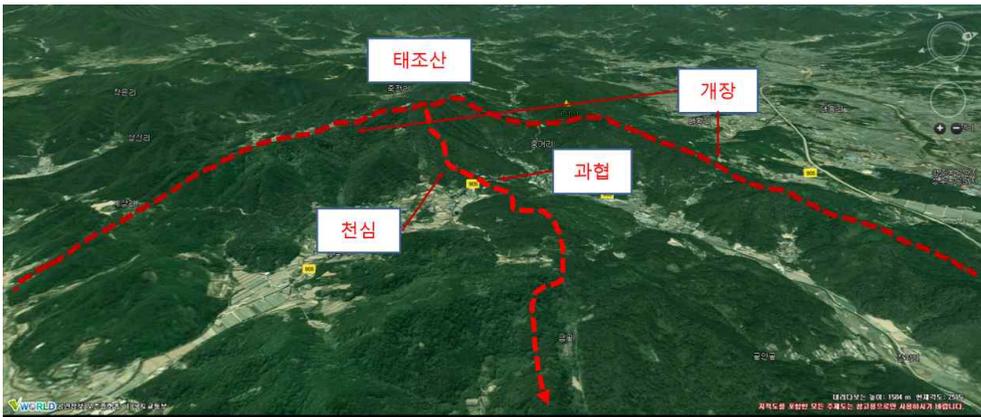
<그림 95> 내룡맥(지도출처:신산경표)

서학 묘로 들어오는 내룡맥은 칠봉지맥이다. 칠봉산에서 본신룡은 남동진하여 길게 뻗어가고, 일맥은 동진하여 성암산(556)을 만드는데 이 산이

105) 성씨닷컴, 서씨통사편찬회 참조.

태조산이 된다. 태조산인 성암산에서 개장하고 동진하다 크게 과협하고 위이굴곡을 수차례 한 후 중부내륙고속도로를 건너 북진하다 220m 봉우리를 세우고 크게 개장하였다. 다시 동진하여 과협한 후 남진하여 180m 봉우리를 세우는데, 이곳이 소조산이 된다. 소조산 이후 낙맥하여 완만한 둔덕(부모산140m)에서 횡낙하여 태식잉을 거쳐 묘소로 입수한다. 태조산인 성암산에서 혈처까지의 거리는 대략 12km이다. 부합지표의 용의 구분에서 방지룡에 해당되어 0.4의 감점이 되었다.

## (2) 태조산(太祖山)과 소조산(小祖山)



<그림 96> 태조산의 개장, 천심, 과협(지도출처:브이월드)



<그림 97> 소조산의 개장과 천심(지도출처:브이월드)

서학 묘의 태조산은 성암산(556)으로 백두대간에서 갈라진 수도지맥에

서 금오지맥을 거쳐 칠봉지맥으로 들어선다. 주변에서 가장 높은 산이며, 칠봉지맥의 중출맥은 아니지만 분지룡의 태조산이 될만한 역량을 갖추었다. 산이 양 날개를 펼치는 것처럼 개장이 잘되어 있고, 또한 중출맥으로 천심하고 있으며, 천심 이후 크게 과협을 한다. 과협지 좌우에서 주밀하게 호위하여 호종한다. .

서학 묘의 소조산은 180m 봉우리로 태조산인 성암산에서 기복과협하고 박환하여 소조산이 되었다. 분지룡에서 소조산이 되었으므로 그 역량이 매우 작다. 그러나 개장은 잘 되었다. 소조산에서 출맥은 우출맥으로 편출맥이다. 편출맥이 되어서 다시 그 역량이 감소한다. 그러므로 부합지표의 태조산은 0.1의 감점이 있고, 소조산은 편출맥이 되어 0.2의 감점이 있다.

### (3) 부모태식잉육(父母胎息孕育)

서학 묘의 부모산은 작은 속기 이후 토체의 완만한 봉우리를 만든 다음, 깨끗하게 박환된 모습으로 태를 내보내었다. 편출맥에서 나온 방류으로 소지를 결지하려는 모습으로는 양호하다. 속기처의 좌우에서 거팔래팔(去八來八)이 있으며, 이것은 속기처의 호종사로 영송사가 된다. 이 송사가 속기처의 좌우측에 각각 두겹으로 호위하여 빈틈없이 호위하고 있다. 그러므로 부합지표의 태식잉육은 부모산의 결함과 편출맥으로 인해 0.2의 감점이 있다.

### (4) 용의 입수(入首)

서학 묘의 경우는 소조산에서 잉까지의 입수는, 소조산이 개장을 넓게 벌려서 잘하였으나 우출맥의 편출맥이 되었다. 중출맥으로 입수하는 것보다는 입수룡의 역량이 작아진다. 부모산에서 다시 우측으로 횡낙하여 결인속기하고 잉으로 입수한다. 잉 후의 과협이 세 번에 걸쳐 이루어졌다. 과협지의 호종은 송사로 하여금 호위하게 하여 바람으로부터 보호하고 있다

잉에서 혈까지의 입수는 선익의 모습이 미약하여 보이지 않으며 혈 위쪽에 다른 묘를 쓰면서 훼손되어 입수가 명확하지 않다. 그러나 입수와 혈의 좌측에서 두겹으로 감아주는 날개가 있어 보호는 주밀하다. 그러므



<그림 98> 소조산에서 잉까지의 입수(지도출처:브이월드)

로 부합지표의 입수는 편출맥과 선익의 결점으로 0.2의 감점이 되었다.

### (5) 용의 개장(開幟), 박환(剝換), 과협(過峽)

서학 묘의 개장은 <그림 96>에서 보듯이 개장을 매우 넓게 하였으며, 여러 개의 귀사가 존재한다. 특히 개장천심처의 좌우로 천을태을(天乙太乙)이 있는 것이 특이하며 중출맥으로 정천심하였다. 그리고 소조산인 180m 봉우리는 <그림 97>로 크기는 작지만 개장을 하였고, 소조산에서 혈처로 가는 용맥이 중심출맥이 아닌 우출맥으로 된점은 감점요소이다.

박환은 소조산에서 잉까지를 본다. 소조산이 분지룡이 되어 용맥의 기운이 약하지만 기복과 굴곡이 잘되었으며, 거친 부분이 없어 박환은 매우 정갈하게 되었다. 소조산에서 잉까지의 용맥이 과협을 세 번 거치면서 남아있는 살기를 모두 털어버리고 입수하였다.

과협은 <그림 98>에서 우에서 좌로 다시 우로 직각으로 행룡하고, 3번의 과협을 거치며, 송사가 주밀하게 호위하고 있어 길격의 요소를 갖추었다. 그러므로 부합지표의 개장은 우출맥으로 인해 0.1의 감점이 있고 박환과 과협은 적합하였다.

### (6) 지각요도(枝脚橈棹) 및 호송(護送)

소조산으로 들어오는 후룡의 지각요도가 좌우가 균형이 맞고 단정하다.



<그림 99> 지각요도 및 호송(지도출처:브이월드)

그리고 기복과 굴곡을 반복하면서 생기있게 진행한다. 소조산 직전에 크게 과협하는 지점에 영사와 송사가 잘 갖추어져 있다. 또한 좌우의 호종사가 균형이 맞고 매우 유정한 모습이다. 이와 같이 지각요도는 안정적으로 균형있게 갖추졌으며, 호종사는 주밀하게 호위하여 부합지표에 모두 적법하게 구성되었다.

### (7) 용의 방정(傍正) 및 노늠(老嫩)



<그림 100> 정룡과 방룡(지도출처:브이월드)

서학 묘가 정룡에서 맺은 자리인지 방룡에서 나온 자리인지를 분별한다. 태조산인 성암산에서 출맥하여 소조산을 세우고, 큰 과협을 세 번을

하고 혈처까지 입맥하였다. 본신통을 좌우에서 호중사가 호위하여 혈처를 지나서까지 보호하고 있다. 이처럼 정룡을 중심에 놓고 방룡이 호위하므로 시조묘의 용맥은 정룡인 것이 확인된다. 이상의 내용으로 판단하면, 용의 방정에서는 정룡이라 판단되었고, 노눈에서는 눈룡으로 혈처로 진입하였음을 알 수 있었다. 그러므로 부합지표의 방정은 2개의 감점요소로 인해 0.2가 감점 되었고, 노눈은 부합되었다.

### (8) 용의 분벽(分擘) 및 배면(背面)

서학 묘로 들어오는 용의 분벽을 살펴본다. <그림 99>의 분벽을 살펴보면, 소조산의 좌측으로 분벽된 용이 나아가서 외청룡의 역할을 하므로 분벽으로 보지 않는다. 소조산의 우측으로 행룡한 용은 좌측으로는 혈처로 진행하고, 우측으로는 분벽 되었지만 본신의 안산과 외백호가 되므로 오히려 길한 작용이 된다.

면배를 판단하면, <그림 99>에서 소조산 후면의 산은 경사가 크고 거칠어 배가 되고 혈처는 완경사에 평탄하므로 면에 해당함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이곳의 분벽과 면배는 부합지표에 합법으로 구성되었다.

### (9) 용의 빈주(賓主)

묘소의 자리가 방룡에서 결지한 자리이므로 혈장이 작게 형성되어 있다. 주변의 산들이 모두 본신통에서 나와서 청룡과 백호가 되었고, 백호작국이 되면서 외백호가 안산이 되었다. 이 안산이 매우 유정하나 높이가 약간 높게 되어있다. 안산의 높이로 인해 감점요소가 있어 부합지표에서는 0.1의 감점이 있다.

### (10) 용의 여기(餘氣)

용의 여기는 혈을 결지한 후 용의 기운이 남아 행룡하여 혈처의 소용이 되거나 다른 혈을 만들기도 한다. 이곳의 경우는 방룡에서 결지 하였으므로 용의 여기는 해당사항이 없다. 그러나 여기는 있으므로 그 거리는 대

략 5Km를 더 끌고 나가서 선남농공단지 옆 낙동강을 만나 용진하였다.

### (11) 용형세(龍形勢) 및 오성산(五星山)

서학 묘의 경우 용형세는 12격 중 생룡에 해당한다. 생룡은 성봉이 기복하고 지각이 활발하며 행도가 단정한 것을 말한다. 그러나 이곳은 후룡은 생룡으로 들어오나 부모산의 후룡이 방룡이 되어 용기가 약하기 때문에 부귀대지가 되지 못하고 작은 자리가 되었으며, 후대의 영향력도 크지 않고 짧다.

오성산은 소조산과 부모산의 오행의 형태로 판단한다. 시조묘의 소조산은 복종형으로 금성체에 해당한다. 부모산은 평평한 토체가 되어 성체를 이루었으나 용세가 약하여 봉만을 일으키지는 못했으며, 토성체가 명확하게 드러나지는 않고 약하게 형성되었다. 그러므로 부합지표에서 용형세는 부합으로 보고, 오성산은 토체가 약하게 되었으므로 0.1의 감점이 있다.

### (12) 용(龍)의 부합도

서학 묘의 용의 부합도는 85.6%로 나타났다. 소조산, 태식잉육, 입수, 방정의 항목에서 감점이 많았고, 용의 구분에서는 방지룡이 되면서 가장 낮은 부합도를 보였으며, 여기는 부합하지 않았다.

<표 25> 서학 묘 용의 부합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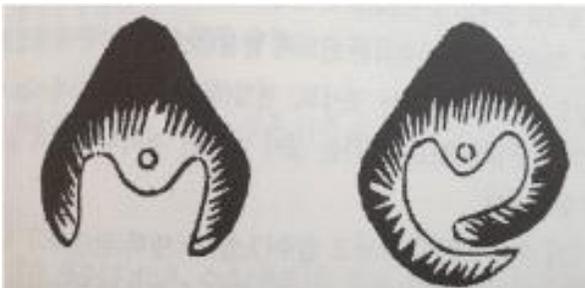
	항 목	내 용	부합도
1	용의구분	대간룡~방지룡에서 박환후에 결혈하였다.	○(-0.4)
2	태조산	높고 크고 멀고 특이하며, 주변에서 으뜸가는 산이다.	○(-0.1)
3	소조산	혈에서 가까우며 제반 귀격과 용격에 합당하다.	○(-0.2)
4	태식잉육	모든 길격에 맞고, 속기가 잘되고 호위가 주밀하다.	○(-0.2)
5	입수	혈후의 1-5절 이내가 길격에 해당한다.	○(-0.2)
6	개장	소조산과 부모산이 개장천심하고 중출맥이다.	○(-0.1)
7	박환	소조산에서 혈처까지 박환이 잘되었다.	◎
8	과협	소조산에서 혈처까지 과협이 길격이다.	◎
9	지각요도	지각과 요도가 적합하며 귀상이다.	◎
10	호송	호송산이 많고, 대소·원근·고저가 적당하다.	◎
11	방정	정룡에서 혈장을 만들었다.	○(-0.2)

12	노눈	눈룻으로 혈처로 이어졌다.	◎
13	면배	용의 면에 혈처가 있다.	◎
14	분벽	소조산에서 혈처까지 분벽이 되지 않았다.	◎
15	빈주	빈주의 형세가 비슷하고 정의가 있다.	○(-0.1)
16	여기	혈을 뺏은 후 여기가 있다.	X
17	용형세	용형세12격에서 생,강,순,진,복룡 중 하나에 해당한다.	◎
18	오성산	소조산과 부모산이 오성의 금, 목, 토성에 해당한다.	○(-0.1)
계			(17-1.6)/18
부합률(%)			85.6

### 3) 혈법(穴法)의 분석

#### (1) 혈(穴)의 사상(四象)

서학 묘는 혈의 사상 중 어디에 속하는지 살펴본다. 이 자리는 현유혈로 유혈에 해당한다. 유혈은 양 어깨가 튼튼하게 잡아주어야 하고 공결되거나 요절된 것을 꺼린다. 이곳은 잉에서 혈까지의 거리가 멀어 혈 후의 입수가 약하게 나타난다. 좋은 점은 혈 좌측의 선익이 두겹으로 되어 있어 혈을 보호하는 것과 지지하는 역량은 매우 크다. 혈 우측의 선익은 약하게 나타나지만 백호작국이 되면서 튼튼하여 지장이 없다. 이곳은 혈의 사상 중 유두혈의 형상이 명확하게 나타나서 부합지표의 혈의 사상에 부합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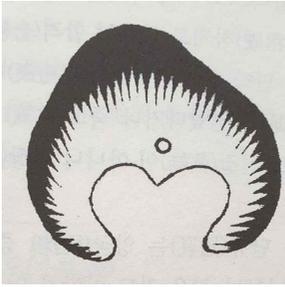


<그림 101> 불유회와 유회혈(그림출처:김동규 역 인자수지 前, p. 73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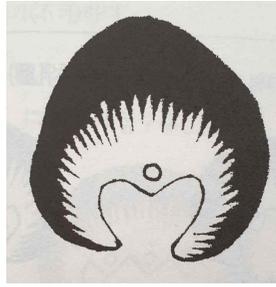
#### (2) 혈형(穴形)

서학 묘는 유회혈에 해당한다. 유회혈이 불유회혈보다는 더욱 안정적으로 혈처를 보호하고, 물을 거두어 주기 용이하므로 더욱 길로 본다.

그리고 유형의 6격은 단



<그림 102> 단유도(그림출처:김동규역 인자수지 前, p. 741.)



<그림 103> 소유도(그림출처:김동규역 인자수지 前, p. 743.)

유와 소유에 해당한다. 이곳은 유의 길이가 적당하여 역량이 있는 형태이다. 그리고 소유는 양쪽 어깨사이의 작은 유가 있는 것인데, 너무 작으면 불가한데 이곳은 너무 크지도 작지도 않아 합격이다.

부모산으로 들어오기 전 금성봉을 일으키고, 기복하여

작은 토성체로 부모산을 만들었다. 부모산에서 한줄기는 더 진행하여 청룡산을 만들어서 하수사로 역관하는 형태가 되었다. 그러므로 부합지표의 혈형조건에 부합하였다.

### (3) 혈성(穴星)



<그림 104> 부모와 태(논자촬영)

혈성은 입수한 산의 형체를 오성으로 구분한 것이다. 오성의 성체가 명백해야 혈을 결지한다고 하였다. 서학 묘의 오성은 <그림>의 부모산과 같이 방형의 토성체가 확실하다. 혈성의 3격 중 정체혈성으로 두면이 단정하여 오행의 정기가 모일 수 있는 성체를 갖추었다. 평면토성혈격으로

부모산이 평면토성이고, 잉 또한 평면토성의 형체가 되었다. 그러나 토성의 방체는 되었으나 후증하지 않아 약간의 흠결이 있어 부합지표에서 0.1의 감점이 있다.

#### (4) 혈증(穴證)

##### ① 조산증혈(朝山證穴)

서학 묘의 안산은 본신룡의 우측에서 갈라져 백호를 만들고 진행하여 안산이 되었다. 안산의 거리가 가까워 발복이 빠르고 안정적이며 유정한 모습이다. 그리고 안산의 모양이 금성봉이 연이어져 수성체의 안산이 되어서 총명한 후손을 두게 된다. 안산에 쌍봉이 있으므로 향은 그 두 봉우리 사이로 보게 되는 데 이곳은 적법하게 되었다. 안산의 높이가 약간 높은 모습이나, 눈높이에 걸려 있으므로 장애가 없다. 이곳의 조산증혈은 부합지표에 적합하다고 판단된다.



<그림 105> 안산(논자 촬영)

##### ② 명당증혈(明堂證穴)

서학 묘의 소명당은 원훈 아래로 평탄하고 방정하게 이루어져 있다. 소명당으로서 기울어지지 않고 양명하게 되어있다. 중명당의 양수가 합수한 이후 수구사가 조밀하고 굴곡으로 내려가다 지당(池塘)을 이루어 물이 모인 다음 느리게 빠져나가고 있다. 대명당은 넓게 형성되었으나 규모가 작



<그림 106> 명당(지도출처:브이월드)

아 대지의 형태는 아니다. 중명당에서 지당까지는 물길이 굴곡하여 역수가 잘 되었으나 대명당 이후는 역수가 긴밀하지 않아 후대로 갈수록 밭복은 줄어들 것으로 추정된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로 이곳의 명당을 판단해보면, 소명당과 중명당은 바르게 이루어졌지만, 대명당은 넓이가 작고, 수구가 긴밀하지 않아 부합지표에서 0.1의 감점이 있다.

### ③ 수세증혈(水勢證穴)



<그림 107> 수세도(지도출처:브이월드)

서학 묘의 수세는 좌우의 원신수가 중앙에서 모이므로 혈의 위치도 중앙 지점에 있게 된다. 청룡선익이 두겹으로 되어 있고 여기의 물이 내명

당을 지나 축사가 있는 곳에서 합수한다. 이것은 내명당의 받을 개간하면서 물길이 돌아나간 것으로 추정된다. 본래의 청룡 원신수는 <그림 107>의 노란색 선를 따라 추정합수 지점에서 1차합수를 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현장에 그 흔적이 있으나 확실치는 않다. 수세가 좌우의 균형점에 위치하고 역수가 되어있어 혈의 위치는 부합지표의 수세증혈에 적법하다.

#### ④ 용호증혈(龍虎證穴)



<그림 108> 용호도(지도출처:브이월드)

서학 묘의 용호는 백호작국이 되면서 청룡에 비해 백호가 기세가 크다. 그리고 외백호가 본신 안산이 되었다. 내백호는 매우 약하게 나타났으나, 외백호가 강대해서 그 약함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 내청룡은 내백호에 비해 상대적으로 강하게 되어있다. 두 겹으로 청룡을 만들어서 그 약함을 보충하였다. 백호작국이 되면서 청룡이 역관사가 되었으므로 혈은 청룡쪽에 의지해야 되지만 큰 차이는 없다. 내청룡과 내백호의 높이는 혈과 비슷하고, 외청룡도 혈과 높이가 비슷하지만 그 바깥쪽의 외백호가 높게 형성되어 보충해준다. 외백호는 약간 높지만 혈처의 장풍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는 수준이다. 이상으로 보아 용호증혈은 부합지표에 합당하다고 판단된다.

#### ⑤ 전호증혈(纏護證穴)

서학 묘의 전호는 <그림 108> 용호도를 보면 본신의 선익사에 해당하는 내백호의 바깥쪽으로 부모산으로 오기 전에 본신룡에서 갈라진 외백호

가 전호사에 해당하며, 그 전호사가 혈을 지나 명당까지 도달하였으므로 명당 안쪽으로 자리를 만들었다. 이는 전호사와 혈의 위치가 적당하다. 그리고 청룡쪽의 전호사는 부모산에서 갈라진 외청룡이 혈을 지나 감싸게 되므로 전호사에 따른 혈의 위치가 적법하다. 그러므로 서학 묘의 용호에 의한 전호사와 혈의 위치가 부합지표에 마땅하다고 본다.

### ⑥ 순전증혈(脣氈證穴)



<그림 109> 전순의 순(논자 촬영)

지표에서 2개의 감점요소가 있어 0.2가 감소되었다.

서학 묘의 전순은 새의 부리 같은 순에 해당한다. 순쪽이 약간의 경사가 있고, 순에 묘를 써서 응결된 기의 손상이 있다. 이런 형태는 후손의 발복이 짧게 만드는 원인 중의 하나이다. 그러므로 부합

### ⑦ 천심십도증혈(天心十道證穴)

서학 묘의 경우는 방룡에서 맺은 자리가 되어 천심십도는 나타나지 않았다.

### ⑧ 분합증혈(分合證穴)

서학 묘의 분합은 혈의 좌우측에서 갈라지는데 이곳이 분이 되고, 이 물이 내명당이 끝나는 지점에서 합수한다. 이 지점이 합이 되어 소팔자 분합이 된다. 그리고 외백호와 외청룡에서 갈라진 물이 지당에서 합수한다. 이것이 대팔자 분합이다. 이곳의 분합은 소팔자와 대팔자가 모두 갖추어 져서 분합증혈에 합당하다. 또한 소팔자가 합하는 지점의 수구가 긴밀하게 물길을 막아서 생기를 보호한다. 그러므로 부합지표의 내용에 부합되었다.

## (5) 혈(穴)의 부합도

서학 묘의 혈에서의 부합도는 87.3%이다. 천심십도는 부합되지 않았고, 혈성, 명당, 순전증혈에서 감점이 되었다.

<표 26> 서학 묘 혈의 부합도

	항 목	내 용	부합도
1	사상	와검유돌중 하나의 혈상을 이루었다.	◎
2	혈형	와검유돌 혈형의 조건에 부합한다.	◎
3	혈성	입수의 산이 성체를 이루고 정체이다.	○(-0.1)
4	조산증혈	가까운 안산이 유정하고, 고저원근이 적합하다.	◎
5	명당증혈	명당이 바르고 평평하며, 소, 중, 대명당이 합법이다.	○(-0.1)
6	수세증혈	혈이 수세의 모임에 적법. 혈처의 좌우고저가 바르다.	◎
7	낙산귀성	횡입수의 혈에 낙산이나 귀성이 있고, 위치가 적법.	☆
8	용호증혈	용호에 따라 혈의 위치가 적합하다.	◎
9	전호증혈	송산의 형태에 맞춰 혈처가 바르다.	◎
10	순전증혈	전순이 적합하게 있다.	○(-0.2)
11	천심십도	혈을 중심으로 전후좌우에 십자봉이 정위치에 있다.	X
12	분합증혈	삼분삼합이 잘 갖춰져 있다.	◎
	계		(10-0.4)/11
	부합률(%)		87.3

#### 4) 사법(砂法)의 분석

##### (1) 청룡(靑龍)과 백호(白虎)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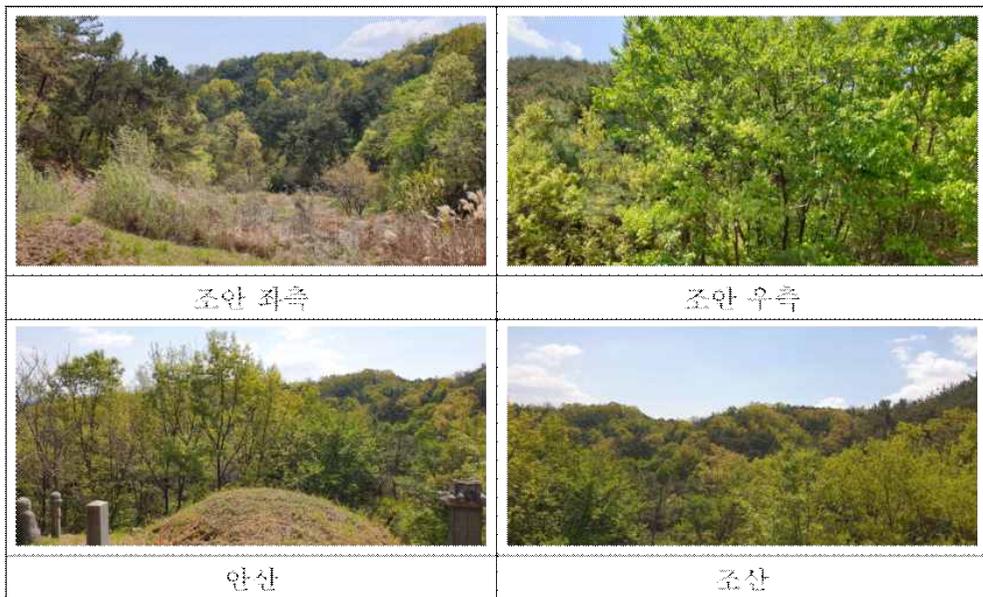
서학 묘의 용호를 살펴본다. 내청룡은 혈에서 가깝게 위치하여 두겹으로 감싸서 내명당의 위쪽에서 멈추었다. 이 내청룡은 혈에 매우 유정하게 배치되었다. 외청룡은 혈과의 높이가 비슷하며 완만하게 흘러내린다. 외청룡의 외면으로 혈보다 높은 위치에 두텁게 감싸안은 두 번째 외청룡은 외명당의 지당에서 역수하였다. 내외청룡의 역관이 긴밀하다.

백호는 내백호가 약하게 혈을 호위하며 짧게 감싸고, 본신룡의 외백호가 크게 환포하는 중에 두 개의 크고 높으며 후박한 외백호가 혈처를 완벽하게 보호한다. 내백호의 약함은 외백호의 두터움으로 상쇄되므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곳의 용호는 상칭되며 서로 유정한 모습이며, 혈에 대

해 공습하고 있으므로 용호증혈은 합당하다고 판단한다. 그러므로 부합지표의 본신용호, 용호상칭, 용호장풍, 용호역관, 완연순부의 모든 항목이 적합하다.



<그림 110> 청룡과 백호(논자 촬영)



<그림 111> 안산(논자 촬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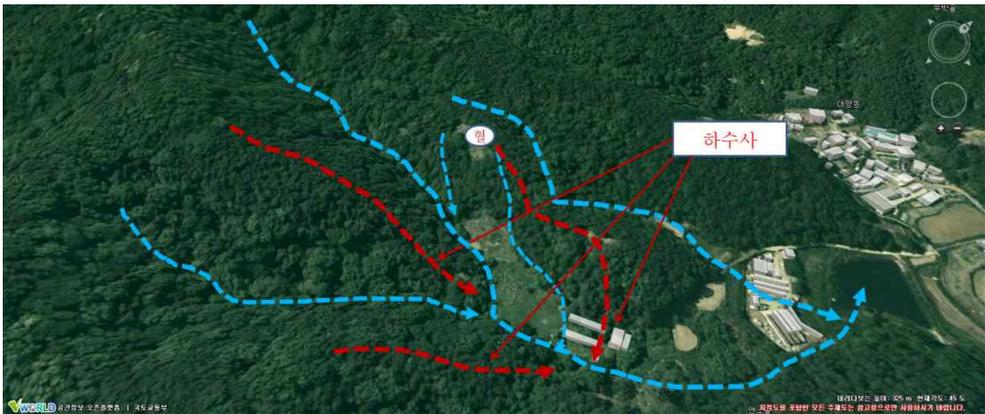
## (2) 조안산(朝案山)

서학 묘의 안산은 <그림 111>의 본신릉에서 나온 외백호가 안산이 되었다. 본신릉에서의 출맥은 부모산에서 우측으로 진행하여 부모산으로 가기전에 앞으로 진행하여 혈을 지나 크게 환포하였다. 안산의 형태는 금성봉이 연이어진 수성체의 산이 되면서 혈처와 거리가 가깝고 유정하여 길격에 해당한다. 그러나 혈에 비해 약간 높은 위치가 되어 감점 요소가 있다. 그러므로 부합지표의 근안유정, 본신안산, 안산역수는 모두 합법이고 조산유정에서 안산의 높이로 인해 0.1의 감점이 있다.

## (3) 나성원국(羅城垣局)

서학 묘의 나성원국은 소조산 후릉에서 좌우로 개장을 넓게 하여 용과 혈의 전호사가 되며, 길게 나아가서 혈처를 지나 양쪽에서 호위한다. 그리고 혈의 좌우에서 본신릉이 개장하여 전후좌우를 주밀하게 호위한다. 나성원국은 부합지표에 부합되었다.

## (4) 하수사(下手砂)



<그림 112> 하수사(지도출처:브이월드)

서학 묘의 하수사는 3개가 존재한다. 백호수가 혈을 지나가므로 청룡이 역관하여 하수가 되었으며 튼튼하고 긴밀하게 역수한다. 또한 두 개의 외

백호가 하수사의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러므로 부합지표에 적합하다.

### (5) 수구사(水口砂)

서학 묘의 수구사는 한문이 있다. 이 한문은 대문과 같은 역할을 하는 수구사로서 수구에서 양쪽의 산이 마주보며 서 있는 것이다. 이곳의 한문은 낮고 작지만 외수구를 양변에서 막아주고 있어 길격의 수구사가 되었다. 이곳의 수구사는 특이한 형상은 없지만 여러 개의 수구사가 존재하여 부합지표에 부합된다.

### (6) 관귀금요(官鬼禽曜)

서학 묘에서는 관귀금요가 없다.

### (7) 사(砂)의 부합도

서학 묘의 사의 부합도는 91.5%이다. 관귀금요가 없고, 조산유정에서 감점이 있다.

<표 27> 서학 묘 사의 부합도

	항 목	내 용	부합도
1	본신용호	본신에서 나온 용호이다.	◎
2	용호상칭	용호의 고저가 비슷하고 유정하다.	◎
3	용호장풍	용호가 장풍을 잘하고 생기보호에 투철하다.	◎
4	용호역관	용호중 하나가 수구의 물을 잘 막아주고 있다.	◎
5	완연순부	청룡이 완연하고, 백호는 순부한다.	◎
6	근안유정	안산이 근소하고 수려하며 회포유정하다.	◎
7	본신안산	본신에서 안산을 이루고 유정하다.	◎
8	안산역수	안산이 역수의 형태를 갖추었다.	◎
9	조산특조	조산이 특조산이다.	☆
10	조산유정	조산이 침원방평, 단정수려하고 유정하다.	○(-0.1)
11	고봉독수	빠어난 봉우리 하나가 혈에 유정하다.	☆
12	나성원국	혈을 중심으로 전후좌우 유정하게 환포하였다.	◎
13	하수사	하수사가 좌우선에 따라 역관하였다.	◎

14	수구사	수구에 수구사가 주밀하게 교결관쇄하였다.	◎
15	관귀금요	혈의 주위에 관귀금요가 있다	X
계			(12-0.1)/13
부합률(%)			91.5

## 5) 수법(水法)의 분석

### (1) 수(水)의 발원(發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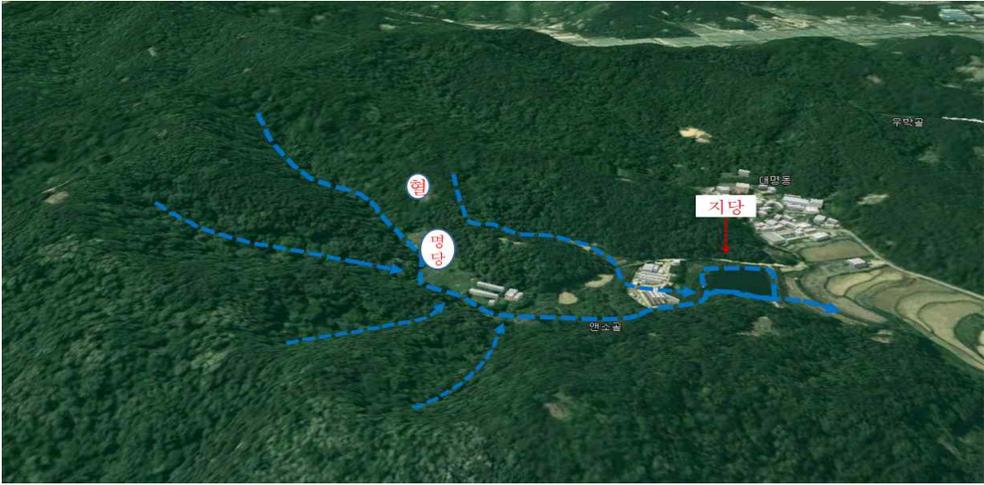
<그림 113> 소조산의 발원수(지도출처:브이월드)

서학 묘의 발원수 중에 소조산에서 발원한 물은 대략 2.1km이다. 부모산 뒤에서 발원 물길의 거리는 대략 1.7Km이다. 혈처를 지나서 물은 백호의 원신수가 되므로 발원수가 된다. 이곳의 전체 국세가 작으므로 발원수의 거리도 짧다.

부모산의 발원수는 백호쪽의 물길이 혈을 지나므로 백호원신수가 발원수가 된다. 백호변 발원수의 거리는 대략 270m이다. 그리고 청룡변의 원신수는 대략 210m 정도이다. 그러므로 부합지표의 발원수는 모두 거리가 짧아 3개의 결함으로 0.3의 감점이 있다.

### (2) 수의 도국(到局)과 출구(出)

서학 묘의 경우는 외수가 오지는 않지만 내수가 모여 외명당에 지당을



<그림 114> 수의 도국과 출구(지도출처:브이월드)

만들었다. 내명당을 향해 네 줄기의 물이 모여들어 혈을 지난 다음 지당에 모인다. 이 물길의 중간중간에 수구사가 있어 역수를 해주며, 굴곡하여 물이 느리게 흘러간다. 그리고 내과는 좁게 만들어져서 혈에서 보이지 않는다. 외명당의 지당에서 모인 물이 빠져나가는 것은 긴밀하지 않으며 역관사가 미약하여 순수형태로 흘러나간다. 그러므로 부합지표의 도국에서는 0.2의 감점이 있고, 출구에서는 0.3의 감점이 있다.

### (3) 명당길격(明堂吉格)

서학 묘의 명당은 명당 9길격 중 주밀명당에 해당한다. 원신수의 합수처가 청룡과 외백호가 밀착하여 주밀하게 짜여졌다. 이렇게 주밀명당이 되면 안쪽의 명당에 생기가 모여들고 빠져나가지 않으므로 부합지표에 부합되는 길격의 명당이 되었다.

### (4) 수성(水星)

서학 묘의 경우 백호수가 모두 금성형과 수성형으로 혈을 감싸 돌고 내청룡수는 굴곡이 적긴 하지만 금성형의 물길로 수구에서 합수하여 역수가 되므로 수성형은 부합지표에 부합되었다.

## (5) 좌향(坐向)

서학 묘의 좌향은 부합지표에는 부합되지 않았다.

## (6) 수(水)의 부합도

서학 묘의 수의 부합도는 70%이다. 명당길격과 수성을 제외하고 모든 항목에서 감점요소가 있었고, 좌향은 부합되지 않았다.

<표 28> 서학 묘 수의 부합도

	항 목	내 용	부합도
1	발원	발원수가 멀고 길다.	○(-0.3)
2	도국	오는 물이 명당에 든다.	○(-0.2)
3	출구	물이 나가는 곳이 굴곡하고 수구사가 있다.	○(-0.3)
4	명당길격	명당수의 9길격에 해당한다.	◎
5	수성	수성성이 금이나 수에 해당한다.	◎
6	좌향	88향법의 길향에 해당한다.	X
	계		(5-0.8)/6
	부합률(%)		70.0

## 6) 종합 부합도

서학 묘의 용혈사수를 종합한 부합도는 83.6%이다. 용에서는 85.6, 혈에서는 87.3, 사에서는 91.5, 수에서는 70.0으로 수에서의 점수가 상대적으로 낮았다.

<표 29> 서학 묘의 종합 부합도

	항 목	세부지표계산	부합률(%)
1	용	(17-1.6)/18	85.6
2	혈	(10-0.4)/11	87.3
3	사	(12-0.1)/13	91.5
4	수	(5-0.8)/6	70.0
	계	41.1/48	83.6

## 6. 신유(申瀏) 묘에 대한 분석

### 1) 신유 묘의 개요



<그림 115> 신유묘소 전경(논자 촬영)

신유(申瀏) 묘의 소재지는 경북 칠곡군 약목면 남계리 산21-1번지이다. 신유는 조선중기의 무신으로 1619(광해군11년) 출생하여 1680(숙종6년)에 약목에서 졸하였다. 본관은 평산(平山)이고 자는 경숙(景淑)이며 호는 봉하(鳳下)이다. 진정공(眞靜公) 신우덕(申祐德)의 넷째 아들이고 어머니는 벽진이씨이며 부인은 문화류씨이다. 1645(인조23년) 무과에 급제하여 함경북도 병마우후로 1658(효종9년)에 군대를 이끌고 흑룡강 부근에서 러시아 군대의 배 10척과 270여 명의 군사를 섬멸하였다. 이를 나선정벌이라 하며 신유는 이 내용을 『북정일기』라는 기록으로 남겼다. 관직으로는 가선대부와 통제사를 지냈다.<sup>106)</sup>

### 2) 용법(龍法)의 분석

106) 문화유적총람, 평산신씨 대종중 참조



천심은 중출맥으로 수차례 기복과 과협을 하고 소조산인 선석산으로 연결되었다. 과협은 잘하였으나 호중사가 없다. 그러므로 부합지표의 태조산은 개장이 좁고 과협지의 호위가 없어 두가지가 부적합이라 0.2를 감하였다.



<그림 117> 태조산(지도출처:브이월드)



<그림 118> 소조산(지도출처:브이월드)

신유 묘의 소조산은 선석산(742m)으로 태조산보다는 낮지만 주변에서 으뜸가는 산이다. 소조산으로의 역량은 충분하다. 개장은 하였으나 균일하지 않고 불규칙하고 천심도 편출맥이다. 천심 이후 기복과 굴곡 그리고 과협이 매우 양호하다. 그러므로 부합지표에서 소조산은 두 개의 감점요소가 있어 0.2를 감하였다.

### (3) 부모태식잉육(父母胎息孕育)

신유 묘의 부모산은 시묘산(371m)이다. 소조산에서 부모산으로 진행되는 용은 기복과 굴곡을 수차례 걸쳐 하고 있고 과협지도 여러곳 있어 박환이 잘되었다. 소조산과 마찬가지로 부모산도 역량이 크고 목체의 형상이다. 목체의 부모산에서 개장하고 중출맥으로 낙맥하여 속기 이후 잉을 만들고 묘소로 입수한다. 본신룡에서 나온 청룡과 백호가 양호하게 장풍하고 있다. 그러므로 부합지표 항목에서 부합으로 판단되었다.

### (4) 용의 입수(入首)

신유 묘의 소조산에서 잉까지의 입수는 소조산의 개장이 불규칙하고 편출맥이 되었으나 천심 이후 박환이 매우 잘되었다.

잉에서 혈까지의 입수는 속기 이후 잉을 만들고 잉에서 선익이 양쪽으로 갖추어졌다. 잉에서 묘소까지는 굴곡하고 바위로 된 입수석이 있다. 그러므로 부합지표에서 입수는 두가지의 감점요소가 있어 0.2점을 감하였다.

### (5) 용의 개장(開幃), 박환(剝換), 과협(過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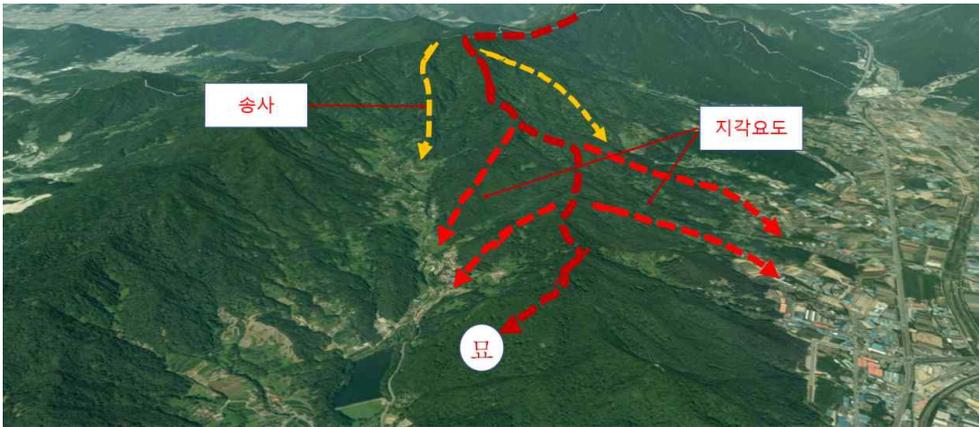
개장 범위는 태조산, 소조산, 부모산으로 3가지를 본다. 먼저 태조산은 개장이 좁고 천심은 중출맥이며 천심이후 과협지의 호위가 약하다. 출맥 이후 과협과 기복으로 박환은 잘 되어 있다. 소조산도 개장이 불규칙하나 과협과 기복굴곡이 많아 박환은 잘되어 있다.

박환은 소조산에서 잉까지를 본다. 소조산에서 잉까지 기복굴곡하고 과협하여 완벽하게 박환되었다.

과협은 <그림 117>에서 태조산의 과협이 호위가 약하고 소조산 이후의 과협은 여러개가 나타나며 좌우로 호위가 잘 갖춰져 있다. 그러므로 부합지표에서 개장은 부합되지 않았고 박환은 부합하였으며 과협은 태조산의 과협이 감점이 있어 0.1을 감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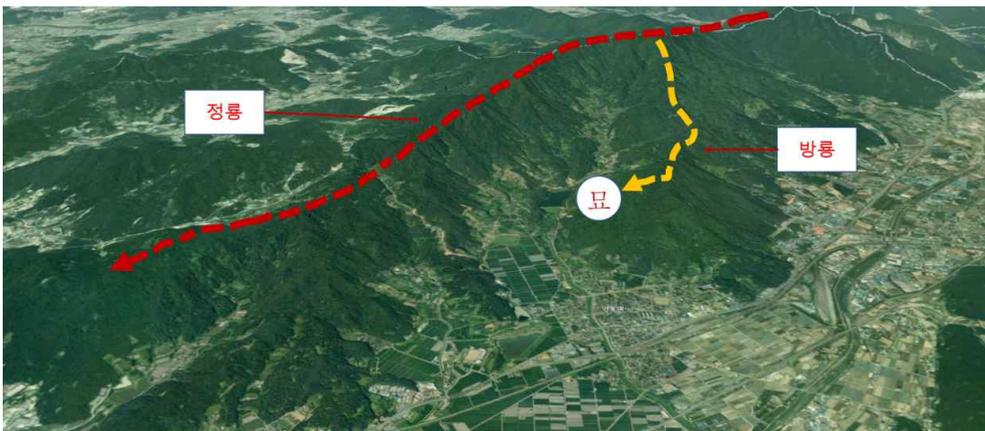
## (6) 지각요도(枝脚橈棹) 및 호송(護送)

소조산에서 묘소로 들어오는 용에 송사가 있어 튼튼하고 지각요도가 양호하게 형성되었다. 호중사는 잘 갖춰져 있어 호위하고 있다. 그러므로 부합지표 항목에서 지각요도와 호송은 부합으로 판단되었다.



<그림 119> 지각요도(지도출처:브이월드)

## (7) 용의 방정(傍正) 및 노늬(老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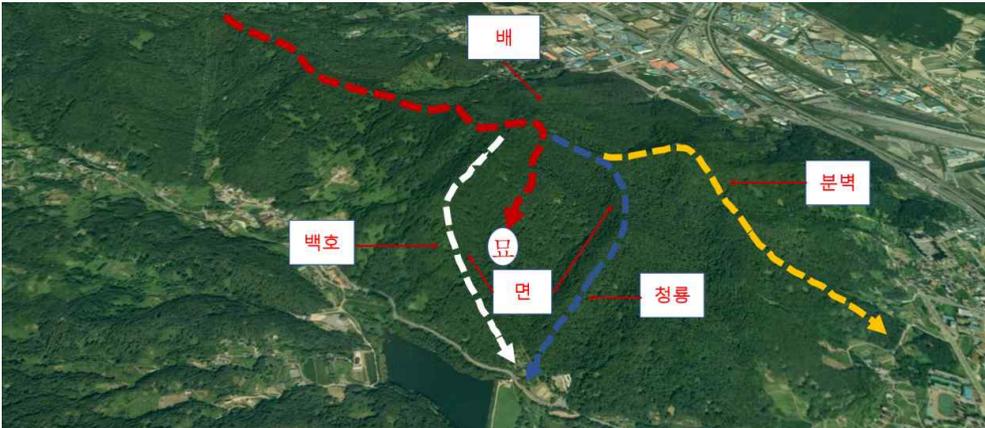
<그림 120> 정룡과 방룡(지도출처:브이월드)

신유 묘는 그림의 적색용은 정룡이 된다. 황색용은 방룡이다. 방룡이지만 천심이후 박환하고 부모산에서 기봉하여 자리를 만들 수 있게 변화하였

으므로 방룡이 변해 정룡이 되는 형태이다. 정룡과 방룡의 부합지표는 0.4 점을 감하였다.

노눈에서는 노룡은 박환이 되지 않았거나 박환이 진행중인 용으로 아직 거칠고, 눈룡은 나무의 새로운 가지처럼 가늘고 박환을 마친 용이다. <그림 120>에서 적색용은 계속 진행하는 용으로 노룡이다. 황색용은 가늘고 박환이 잘되어 있어 눈룡이 된다. 이 용은 노룡에서 갈라져 가늘고 깨끗하게 변해서 눈룡이 되어 묘소로 진입한다. 그러므로 부합지표상 노눈은 부합으로 판단되었다.

### (8) 용의 (分擘) 및 배면(背面)



<그림 121> 분벽 및 배면(지도출처:브이월드)

<그림 121>의 분벽을 살펴보면 부모산에서 좌측으로 갈라지는 용은 자리에서 청룡이 되므로 분벽으로 보지 않는다. 청룡에서 분지한 용은 묘소의 기를 빼앗아 가므로 분벽으로 본다.

배면은 <그림 121>에서 묘소로 들어오는 적색용은 개면하고 깨끗하다. 좌우의 청룡과 백호는 깨끗하고 유정하여 면이 된다. 부모산의 후면은 급경사로 배가 된다. 그러므로 부합지표에서 배면은 부합되었으나 분벽은 부합하지 않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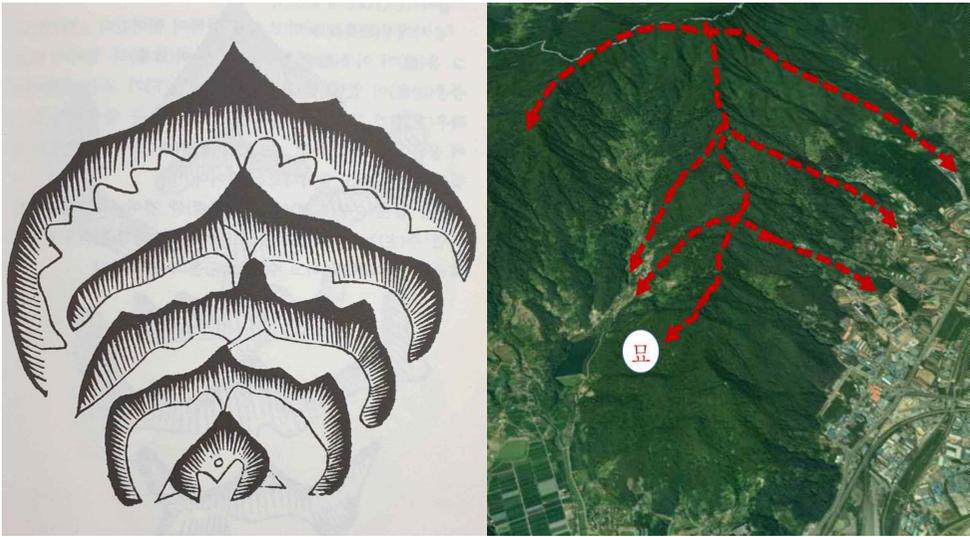
### (9) 용의 빈주(賓主)

이곳의 빈주는 <그림 120>에서 정룡이 너무 높아 손님이 주인 같은 형상이다. 그러므로 빈주는 부합지표에 부합되지 않았다.

### (10) 용의 여기(餘氣)

용의 여기는 혈을 결지한 후 용의 기운이 남아 행룡하여 혈처의 소용이 되거나 다른 혈을 만들기도 한다. 신유 묘소의 여기는 있지만 분벽이 되면서 오히려 기운이 빠지므로 여기로 보지 않는다. 그러므로 부합지표는 부합되지 않았다.

### (11) 용형세(龍形勢) 및 오성산(五星山)



<그림 122> 순룡(그림출처:김동규역 인<그림 123> 순룡(지도출처:브이월드) 자수지 前, p. 561.)

신유 묘의 경우 <그림 122>의 용형세는 12격 중 순룡에 해당한다. 순룡은 성봉이 순서대로 나오고 지각이 질서가 있으며 주변이 유정하다.

오성산은 소조산과 부모산의 오행의 형태로 판단한다. 신유 묘의 소조산과 부모산은 모두 목성형이다. 두 산 동일하게 뾰족하게 솟아 있는 형

상으로 길격요소가 되었다. 그러므로 부합지표의 용형세와 오성산은 부합으로 판단하였다.

## (12) 용(龍)의 부합도

신유 묘의 용의 부합도는 개장, 분벽, 빈주, 여기가 부합되지 않아 감점이 많아 52.8%이다.

<표 30> 신유 묘 용의 부합도

	항 목	내 용	부합도
1	용의구분	대간룡~방지룡에서 박환후에 결혈하였다.	○(-0.4)
2	태조산	높고 크고 멀고 특이하며, 주변에서 으뜸가는 산이다.	○(-0.2)
3	소조산	혈에서 가까우며 제반 귀격과 용격에 합당하다.	○(-0.2)
4	태식잉육	모든 길격에 맞고, 속기가 잘되고 호위가 주밀하다.	◎
5	입수	혈후의 1-5절 이내가 길격에 해당한다.	○(-0.2)
6	개장	소조산과 부모산이 개장친심하고 중출맥이다.	X
7	박환	소조산에서 혈처까지 박환이 잘되었다.	◎
8	과협	소조산에서 혈처까지 과협이 길격이다.	○(-0.1)
9	지각요도	지각과 요도가 적합하며 귀상이다.	◎
10	호송	호송산이 많고, 대소·원근·고저가 적당하다.	◎
11	방정	정룡에서 혈장을 만들었다.	○(-0.4)
12	노눈	눈룡으로 혈처로 이어졌다.	◎
13	면배	용의 면에 혈처가 있다.	◎
14	분벽	소조산에서 혈처까지 분벽이 되지 않았다.	X
15	빈주	빈주의 형세가 비슷하고 정의가 있다.	X
16	여기	혈을 맺은 후 여기가 있다.	X
17	용형세	용형세12격에서 생,강,순,진,복룡 중 하나에 해당한다.	◎
18	오성산	소조산과 부모산이 오성의 금, 목, 토성에 해당한다.	◎
	계		(14-15)/18
	부합률(%)		69.4

## 3) 혈법(穴法)의 분석

### (1) 혈(穴)의 사상(四象)

신유 묘는 혈의 사상 중 어디에 속하는지 살펴본다. 이 자리는 현유혈로 유혈에 해당한다. 유혈은 양 어깨가 튼튼하게 잡아주어야 하고 공결되거나 요절된 것을 꺼린다. 이곳은 부모산에서 낙맥하여 속기결인하고 잉을 만들었다. 유형의 선익이 확실하게 지지해주고 있다. 그러므로 부합지표의 혈의 사상은 부합으로 판단하였다.

## (2) 혈형(穴形)

신유 묘는 유회혈에 해당한다. 부모산에서 갈라진 좌우의 청룡과 백호가 교차하여 관쇄해주는 형태이다.

그리고 유형의 6격인 장유, 단유, 대유, 소유, 쌍수유, 삼수유 중 장유와 소유에 해당한다. 장유는 양쪽 어깨의 사이로 유가 긴 것을 이르는데, 너무 길면 맥이 활발하지 않으므로 좋지 않은데 신유 묘는 유의 길이가 적당하다. 소유는 양쪽 어깨 사이의 유가 작은 것을 이르는데 이곳의 소유는 적당하다. 그러므로 부합지표의 혈형은 부합으로 보았다.

## (3) 혈성(穴星)



<그림 124> 부모산의 혈성(논자 촬영)

혈성은 입수한 산의 형체를 오성으로 구분한 것이다. 오성의 성체가 명백해야 혈을 결지한다고 하였다. 신유 묘의 오성은 <그림 124>의 부모산과 같이 뾰족한 형의 목성체로 기세가 강하고 입수에 바위가 있어 위엄 있는 모습이다. 혈에 대해 유정한 모습으로 혈성을 잘 갖추었다. 그러므로 부합지표의 혈성은 부합되었다.

#### (4) 혈증(穴證)

##### ① 조산증혈(朝山證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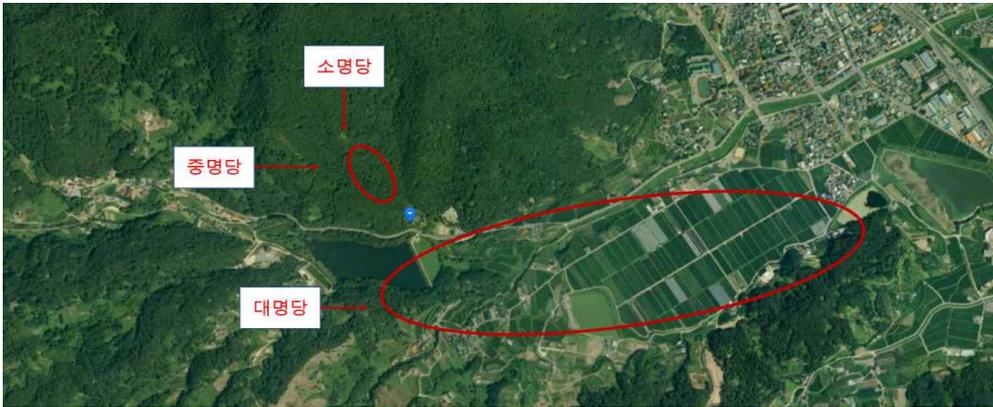
<그림 125> 안산(논자 촬영)

조산증혈은 혈 전면의 안대를 보고 판단하는 방법이다. 안대의 원근고저와 좌우의 조응에 따라 혈의 고저와 좌우가 결정된다.

신유 묘의 안산은 부모산에서 갈라진 백호가 묘소 중앙을 지나 안산이 된다. 백호가 안산이 되므로 백호작국이 되었다. 안산은 거리도 적당하고, 높이도 가슴 높이에 해당되어 합법이다. 안산이 묘소를 감싸므로 묘소와의 관계는 유정하다. 그러므로 조산증혈은 부합지표 항목과 부합으로 판단되었다.

##### ② 명당증혈(明堂證穴)

신유 묘의 소명당은 원훈 아래로 평탄하고 방정하게 이루어져 있다. 소명당으로서 기울어지지 않고 양명하게 되어있다. 소명당 앞으로 전순이 만들어졌는데 매우 짧다. 증명당은 묘소의 전면으로 급하게 경사를 이루고 있다. 증명당이 경사가 되면서 감점요소가 되었다. 대명당은 광활함을 요하는데 이곳은 증명당에 비해 넓게 형성되어 있다. 그러므로 부합지표



<그림 126> 명당(지도출처:브이월드)

의 명당은 중명당의 경사로 인해 0.1의 감점이 있다.

### ③ 수세증혈(水勢證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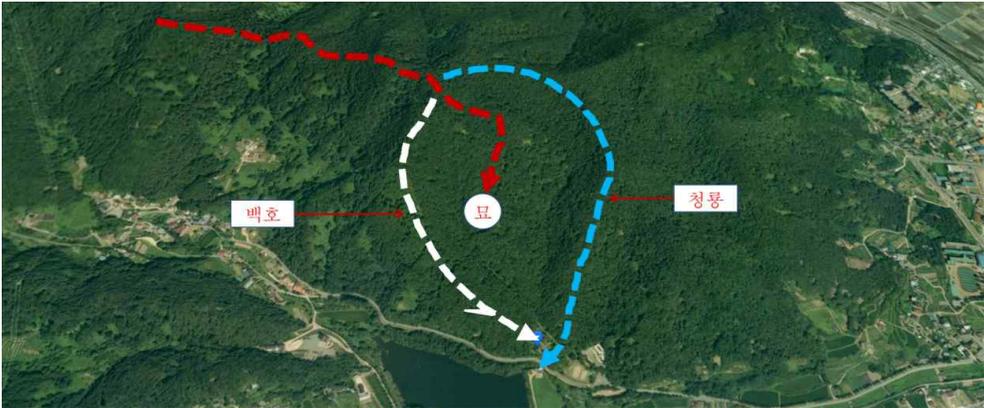


<그림 127> 수세도(지도출처:브이월드)

신유 묘의 수세는 청룡수와 백호수가 교쇄되어 중명당에서 합수하여 지당에 모인다. 이후 백호방에서 흘러 내려오는 물과 합수하여 청룡방으로 빠져 나간다. 백호작국이 되면서 우변에서 물이 감싸주므로 백호쪽에 치우쳐서 묘소를 만들었다. 1차합수 지점이 매우 좁아 물길을 잘 막아주고 있다. 좌선룡에 우선수가 되어 적법하다. 그러므로 부합지표의 수세증혈은 부합되었다.

#### ④ 용호증혈(龍虎證穴)

신유 묘의 백호는 부모산에서 갈라져 묘를 지나 역수하고 있어 묘소가 백호쪽에 자리한다. 청룡과 백호의 높이가 비슷하고 자리보다는 약간 높다. 그러므로 부합지표는 완벽하게 부합되었다.



<그림 128> 용호도(지도출처:브이월드)

#### ⑤ 전호증혈(纏護證穴)

신유 묘의 전호는 <그림 128>의 용호도를 보면 부모산에서 갈라진 청룡과 백호가 자리를 유정하게 감싸면서 수구까지 긴밀하게 막아주고 있어 양호한 구조가 되었고 묘소가 용호의 중간지점에 있어 길격이다. 그러므로 이곳의 전호증혈은 부합지표에 합당하다.

#### ⑥ 순전증혈(脣氈證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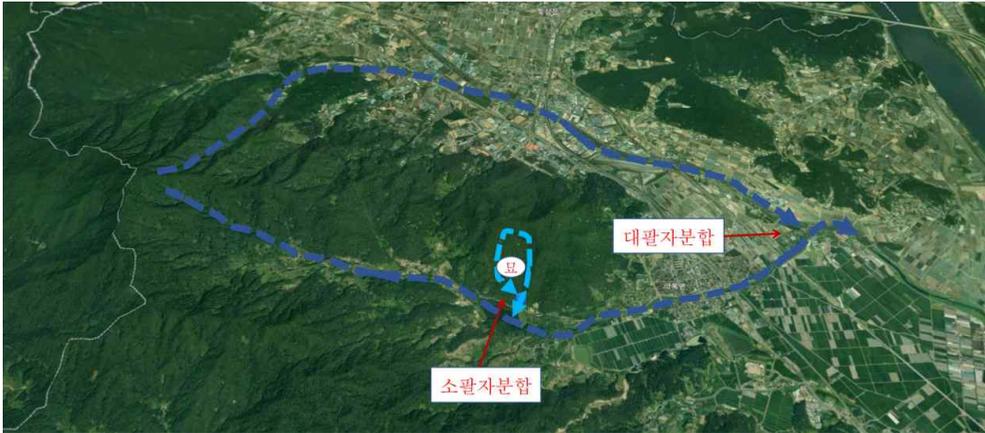
<그림 129> 순전의 순(논자 촬영)

신유 묘의 전순은 입술 모양의 순이 되었다. 순의 모양이 평탄하고 단정하며 크기는 작지만 마무리를 잘하였다. 순전의 증혈은 합당하다고 판단된다. 그러므로 부합지표는 부합으로 판단하였다.

⑦ 천심십도증혈(天心十道證穴)

신유 묘의 경우는 천심십도는 나타나지 않았다.

⑧ 분합증혈(分合證穴)



<그림 130> 분합도(지도출처:브이월드)

소팔자분합이나 대팔자분합 중 하나라도 있다면 적법하게 본다. 대소팔자분합이 동시에 있으면 더욱 길한 것으로 본다.

신유 묘의 분합은 <그림 130>에서 보듯 청룡방의 물길과 백호방의 물길이 합수하여 소팔자 분합이 있다. 대팔자 분합은 대명당을 지나 합수한다. 그러므로 부합지표의 분합증혈은 부합되었다.

(5) 혈(穴)의 부합도

신유 묘의 혈의 부합도는 천심십도는 부합하지 않았고, 명당증혈에서 감점요소가 있어 90%의 부합률을 보였다.

<표 31> 신유 묘 혈의 부합도

	항 목	내 용	부합도
1	사상	외검유돌중 하나의 혈상을 이루었다.	◎
2	혈형	외검유돌 혈형의 조건에 부합한다.	◎
3	혈성	입수의 산이 성체를 이루고 정체이다.	◎

4	조산증혈	가까운 안산이 유정하고, 고저원근이 적합하다.	◎
5	명당증혈	명당이 바르고 평평하며, 소, 중, 대명당이 합법이다.	○(-0.1)
6	수세증혈	혈이 수세의 모임에 적법. 혈처의 좌우고저가 바르다.	◎
7	낙산귀성	횡입수의 혈에 낙산이나 귀성이 있고, 위치가 적법.	☆
8	용호증혈	용호에 따라 혈의 위치가 적합하다.	◎
9	전호증혈	송산의 형태에 맞춰 혈처가 바르다.	◎
10	순전증혈	전순이 적합하게 있다.	◎
11	천심십도	혈을 중심으로 전후좌우에 십자봉이 정위치에 있다.	X
12	분합증혈	삼분삼합이 잘 갖춰져 있다.	◎
계			(10-0.1)/11
부합률(%)			90.0

#### 4) 사법(砂法)의 분석

##### (1) 청룡(靑龍)과 백호(白虎)



<그림 131> 청룡과 백호(논자 촬영)

신유 묘의 용호를 살펴본다. 청룡은 본신룡인 부모산에서 갈라져 끝 부

분이 역수하는 하수사가 되었다. 백호는 본신통에서 만들어져 혈 앞을 지나 안산이 되었다. 본신통호에서는 청룡과 백호 모두 본신에서 나온 것으로 합당하고, 용호상칭에서는 높이가 균일해 부합되었다. 용호장풍은 묘소를 잘 감싸서 부합이고, 용호역관은 백호가 역관하여 합당하며, 완연순부는 적합하였다.

## (2) 조안산(朝案山)



<그림 132> 조안(논자촬영)

신유 묘의 안산은 부모산에서 갈라진 백호 끝 부분이 안산이 되었다. 묘소와 거리가 가깝고 유정하여 근안유정에 부합한다. 본신통에서 안산이 되어 본신안산 또한 부합한다. 안산이 용호수가 합수하여 외수와 만나기 전에 역수하여 안산역수도 부합이다. 조산은 묘소에 공읍하듯 환포해주고 있어 조산유정은 부합되었다. 그러므로 부합지표의 모든 항목이 합법으로 판단되었다.

## (3) 나성원국(羅城垣局)

혈처를 중심으로 전주작, 후현무, 좌청룡, 우백호 등의 혈처를 겹겹이 감싸는 모든 사를 나성원국이라 한다. 이 나성원국으로 국세의 조밀함과 대소를 구분한다. 내용이 길고 기세가 크며, 나성원국이 크게 잘 짜여질수록 혈이 대지가 된다.

신유 묘의 나성원국은 묘소를 기준하여 우측과 전면은 잘 감싸고 있으나 후면과 좌측은 비어 있다. 그러므로 나성원국은 부합하지 않았다.

#### (4) 하수사(下手砂)



<그림 133> 하수사(지도출처:브이월드)

신유 묘의 하수사는 1개가 존재한다. 백호수가 묘소를 지나가므로 청룡이 역관하여 하수가 되었으며 튼튼하고 긴밀하게 역수한다. 그러므로 부합지표의 하수사는 부합으로 판단되었다.

#### (5) 수구사(水口砂)

이곳의 수구사는 청룡과 백호가 합수하는 지점에 여러개가 존재한다. 백호와 청룡이 긴밀하게 수구를 막아주고 있어 더욱 길하다. 그러므로 부합지표의 수구사는 부합되었다.

#### (6) 관귀금요(官鬼禽曜)

신유 묘에서는 관귀금요는 없다.

## (7) 사(砂)의 부합도

신유 묘의 사의 부합도는 나성원국, 관귀금요는 부합하지 않았으며 나머지 항목은 모두 부합하여 84.6%이다.

<표 32> 신유 묘 사의 부합도

	항 목	내 용	부합도
1	본신용호	본신에서 나온 용호이다.	◎
2	용호상칭	용호의 고저가 비슷하고 유정하다.	◎
3	용호장풍	용호가 장풍을 잘하고 생기보호에 투철하다.	◎
4	용호역관	용호중 하나가 수구의 물을 잘 막아주고 있다.	◎
5	완연순부	청룡이 완연하고, 백호는 순부한다.	◎
6	근안유정	안산이 근소하고 수려하며 회포유정하다.	◎
7	본신안산	본신에서 안산을 이루고 유정하다.	◎
8	안산역수	안산이 역수의 형태를 갖추었다.	◎
9	조산특조	조산이 특조산이다.	☆
10	조산유정	조산이 침원방평, 단정수려하고 유정하다.	◎
11	고봉독수	빠어난 봉우리 하나가 혈에 유정하다.	☆
12	나성원국	혈을 중심으로 진후좌우 유정하게 환포하였다.	X
13	하수사	하수사가 좌우선에 따라 역관하였다.	◎
14	수구사	수구에 수구사가 주밀하게 교결관쇄하였다.	◎
15	관귀금요	혈의 주위에 관귀금요가 있다	X
	계		11/13
	부합률(%)		84.6

## 5) 수법(水法)의 분석

### (1) 수(水)의 발원(發源)

신유 묘의 발원수 중에 소조산에서 발원한 물은 백호방에서 오는 물이 명당에 들어오므로 소조산의 발원수가 된다. 발원수의 거리는 대략4Km이다. 거리는 충분하지만 직선의 순수형태라서 발원수로 볼 수 없다.



<그림 134> 발원수(지도출처:브이월드)

부모산의 발원수는 백호쪽의 물길이 혈을 지나므로 백호원신수가 발원수가 된다. 백호변 발원수의 거리는 대략 600m이다. 그리고 청룡변의 원신수도 백호수와 비슷한 길이이다. 그러므로 부합지표의 발원수는 소조산에서의 발원수가 순수형태이므로 부합하지 않았다.

## (2) 수의 도국(到局)과 출구(出口)

신유 묘의 경우는 백호수와 청룡수가 합수하여 내명당에 들어온다. 합수한 이후 지당에서 소조산에서 들어오는 물과 합수한다. 내명당에서 빠져나가는 수구가 긴밀하게 막아주고 있어 길한 모양이 되었다. 소조산에서 흘러온 물은 내명당 앞에서 지당을 이룬 이후 직선형태로 빠져 나간다. 도국은 좋으나 출구가 긴밀하지 못함으로 흉격이 되었다. 그러므로 이곳의 수의 도국은 부합되었고 출구는 부합지표에 0.1점을 감하였다.

## (3) 명당길격(明堂吉格)

신유 묘의 명당은 명당 9길격 중 주밀명당에 해당한다. 주밀명당이 되면서 수구가 좁게 막아주고 있어 생기보호가 양호하다. 그러므로 부합지표에는 부합되었다.

#### (4) 수성(水星)

신유 묘의 경우 <그림 134>와 같이 일직선의 목성형이 되므로 흉격이 되었다. 그러므로 부합지표에 부합되지 않았다.

#### (5) 좌향(坐向)

신유 묘의 좌향은 해좌사향이다. 손파가 되면서 당문파(當門破)에 해당되어 절향절류(絶向絶流)가 되어 부귀지가 되었다. 그러므로 부합지표에 부합되었다.

#### (6) 수(水)의 부합도

신유 묘의 수의 부합도는 발원수와 수성이 부합되지 않아 65.0%이다.

<표 33> 신유 묘 수의 부합도

	항 목	내 용	부합도
1	발원	발원수가 멀고 길다.	X
2	도국	오는 물이 명당에 든다.	◎
3	출구	물이 나가는 곳이 굴곡하고 수구사가 있다.	○(-0.1)
4	명당길격	명당수의 9길격에 해당한다.	◎
5	수성	수성성이 금이나 수에 해당한다.	X
6	좌향	88향법의 길향에 해당한다.	◎
	계		(4-0.1)/6
	부합률(%)		65.0

#### 6) 종합 부합도

신유 묘의 용혈사수 종합 부합도는 용이 52.8, 혈이 90.0, 사가 84.6, 수가 65.0으로 77.3%의 부합률을 보였다.

<표 34> 신유 묘의 종합 부합도

	항 목	세부지표계산	부합률(%)
--	-----	--------	--------

1	용	(14-1.5)/18	69.4
2	혈	(10-0.1)/11	90.0
3	사	11/13	84.6
4	수	(4-0.1)/6	65.0
계		40.7/48	77.3

## 7. 소결

이상 『인자수지』가 간행승인 이전의 묘소 각 5개소의 사례지를 살펴본 결과 신성용 90.7%, 박천 91.2%, 박인로 65.3%, 서학 83.6%, 신유 77.3%의 부합율로 나타났다. 각 묘소의 용혈사수의 합산 부합률은 용 81.6%, 혈 87.8%, 사 83.7%, 수 73.3%이다. 5개소의 총합 부합률은 81.6%이다.

박천의 묘가 91.2%로 사례지 중 가장 높은 부합률을 보였고, 박인로 묘가 65.3%로 가장 낮은 부합률을 보였다. 용혈사수 합산은 혈이 87.8%로 가장 높았고, 수가 73.3%로 가장 낮았다.<sup>107)</sup>

신성용 묘와 박천의 묘는 고려시대에 조성된 묘이고, 박인로, 서학, 신유 묘는 조선시대 『인자수지』가 간행되기 전인 1600년대에 썬 묘이다. 특이점은 고려시대의 묘들이 부합률이 높게 나타났다. 이로 보아 고려시대에도 『인자수지』와 유사한 풍수이론이 존재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용혈사수 중에 특히 용과 수에서 부합률이 높게 나타났다.

<표 35> 인자수지 간행승인 이전 부합률(%)

	사과	신성용	박천	박인로	서학	신유	합계(%)
1	용	96.7	86.1	70.0	85.6	69.4	81.6
2	혈	83.6	88.2	90.0	87.3	90.0	87.8
3	사	82.3	92.3	67.7	91.5	84.6	83.7
4	수	100	98.3	33.3	70.0	65.0	73.3
계(%)		90.7	91.2	65.3	83.6	77.3	81.6

107) 사례지로 선정된 묘지들은 순수하게 학문적인 연구를 위해 지역적, 시대적으로 맞아서 일 뿐 다른 의도가 없음을 분명히 밝힙니다.

## V. 朝鮮朝 『人子須知』 刊行承認 이후 사례지 분석

### 1. 사례지 개요

본 장에서는 『인자수지』가 도입된 이후에 조성된 묘지 5개소를 분석한다. 『인자수지』의 도입시기는 앞장에서 정리된 1742년을 기준하여 이후에 조성된 사례지를 선정하였다.

『인자수지』가 조선시대 간행승인 이후에 조성된 사례지 5개소는 1835년에 조성된 서락순(徐洛淳) 묘, 1849년에 조성된 이희발(李羲發) 묘, 1872년에 조성된 유주목(柳疇睦) 묘, 1876년에 조성된 유후조(柳厚祚) 묘, 1966년에 조성된 노영수(盧永洙) 묘이다.

<표 36> 인자수지 도입 후 묘소 조성시기

묘소	서락순	이희발	유주목	유후조	노영수
조성시기	1835	1849	1872	1876	1966

각 묘소의 사례지 선정 이유는 사례지의 범위를 경북지역으로 한정하였으므로 경북지역에 위치한 묘지 중에서 1742년 이후에 조성된 묘지로 1800년대 4개소, 1900년대 1개소를 선정하였다.

서락순의 묘는 청룡과 백호가 교차된 형태의 용호교쇄(龍虎交鎖)의 국세이다. 더불어 백호 너머로 관성(官星)이 존재하여 사례지로 선정하였다. 사례지 중 유일한 형태이다. 이희발의 묘는 사례지 중 와혈에 해당하는 두 개소 중 하나로 와혈 중에서도 활와(闊窩)와 심와(深窩)의 형태이다. 유후조와 유주목은 부자관계이다. 유후조는 유성룡의 8대손이고 유주목은 9대손이다. 이들의 묘는 같은 태조산에서 출맥하여 소조산에서 갈라져 각각의 부모산을 세운 뒤 묘소로 들어간다. 아들인 유주목이 유후조 보다 4년 먼저 사망하였다. 동일 용맥에서 갈라진 용진처에 위치함으로 특이점이 있어 비교 분석이 필요하여 사례지로 선정하였다. 노영수 묘는 가장 최근에 조성된 묘소로 노태우 전대통령의 조부모 묘이다. 이 묘소는 와혈 중 활와((闊窩))와 천와(淺窩)에 해당하며 조산(朝山) 우측으로 두 개의 관성(官星)이 존재하여 사례지로 선정하였다.

## 2. 서락순(徐洛淳) 묘에 대한 분석

### 1) 서락순 묘의 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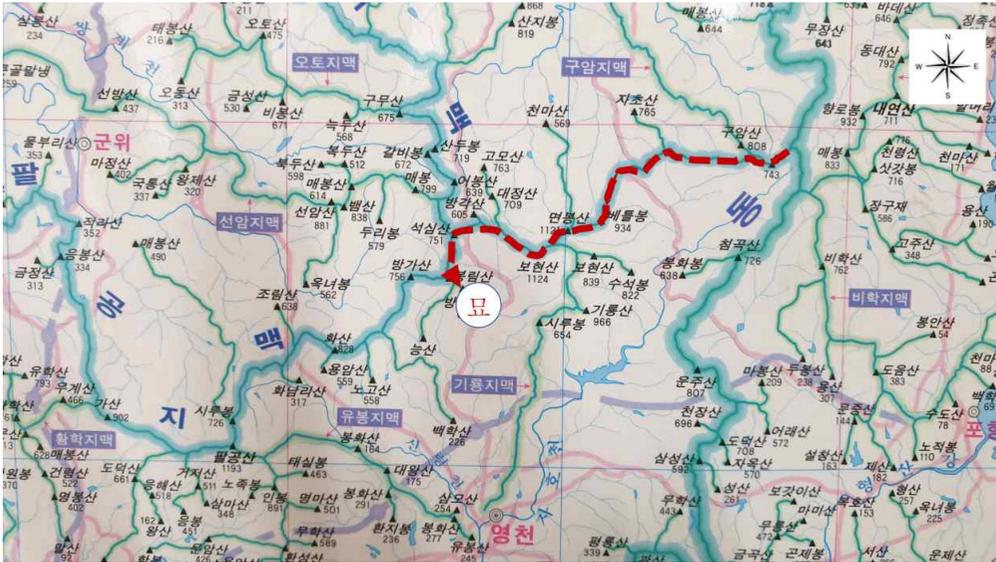
<그림 135> 묘소 전경(논자 촬영)

서락순(徐洛淳) 묘의 소재지는 경북 영천시 화북면 옥계리 산 85번지이다.

서락순(徐洛淳)은 조선후기의 문신으로 1761(영조37년) 영천에서 출생하여 1835(헌종원년)에 졸하였다. 본관은 대구 서씨(大丘徐氏)고 자는 인수(仁叟), 호는 와계(臥溪)이다. 아버지는 서성제(徐聖躋)이며, 어머니는 경주 최씨(慶州崔氏)로 최위문(崔違文)의 딸이다. 부인은 증숙부인(贈淑夫人) 진보 이씨(眞寶李氏)로 이륜(李綸)의 딸이다. 자녀는 2남 3녀를 두었다. 아들은 수직(壽職) 통정대부(通政大夫) 부호군(副護軍) 서상렴(徐相濂)과 서상관(徐相觀)이다. 1816(순조16년) 식년문과에 급제하여 통정대부(通政大夫) 사간원(司諫院) 사간(司諫)을 지냈다.

### 2) 용법(龍法)의 분석

## (1) 내룡맥(來龍脈)



<그림 136> 내룡맥(지도출처:신산경표)

서락순 묘로 들어오는 내룡맥은 낙동정맥에서 갈라진 보현지맥을 따라 서진하다 보현산(1124m)을 세우고 서북진하여 석심산(751m)에서 팔공지맥으로 갈라진다. 석심산에서 남진하여 봉림산(698m)방향으로 분지하여 남동진하여 방가산(694m)을 세운다. 방가산에서 북동진하여 540m 봉우리를 세운 후 동남진하여 550m 봉우리를 만든 후 남서방향으로 낙맥하여 묘소로 입수한다. 보현산이 태조산이 되고 방가산이 소조산이며 550 봉우리가 부모산이다.

태조산에서 묘소까지 총 길이가 대략 30km이고 소조산에서 자리까지의 거리는 대략 5km정도이다. 부모산에서 자리까지의 거리는 대략 550m이다. 부합지표의 용의 구분에서는 방지룡에 해당하므로 0.4를 감하였다.

## (2) 태조산(太祖山)과 소조산(小祖山)

서락순 묘의 태조산은 보현산(1124m)으로 팔공보현지맥에서 가장 높은 산이다. 태조산으로서 기세도 강하고 개장도 잘하였으며 주변에서 으뜸이



<그림 137> 태조산(지도출처:브이월드)

되는 산이다.



<그림 138> 소조산(지도출처:브이월드)

천심은 중출맥으로 수차례 기복과 과협을 하고 소조산인 방가산으로 연결되었다. 과협도 좁고 낮게 형성되었으며 양쪽의 호중사가 잘 갖추어져 있다. 그러므로 부합지표의 태조산은 길격이 되어 부합지표에 부합하였다.

서락순 묘의 소조산은 방가산(694m)으로 용진처로는 높은 산이 되고 태조산에서 소조산까지의 행룡이 적절하게 이루어졌다. 개장은 적절하게 이루어 졌고 중출맥으로 천심이 되었다. 천심 이후 기복과 굴곡 매우 양호하다. 그러므로 부합지표에서 소조산은 부합으로 판단되었다.

### (3) 부모태식잉육(父母胎息孕育)

서락순 묘의 부모산은 950m 봉우리다. 소조산에서 부모산으로 진행하는 용은 기복과 굴곡을 수차례 하고 있고 과협지도 여러 곳 있어 박환이 잘 되었다. 소조산과 마찬가지로 부모산도 역량이 큰 토체의 형상이다. 토체의 부모산에서 개장하고 중출맥으로 낙맥하여 속기 이후 잉을 만들고 묘소로 입수한다. 본신통에서 나온 청룡과 백호가 양호하게 장풍하고 있다. 그러므로 부합지표 항목에서 부합으로 판단되었다.

### (4) 용의 입수(入首)

서락순 묘의 소조산에서 잉까지의 입수는 소조산의 개장이 잘되었고 중출맥이 되었으며 천심 이후 박환이 매우 잘되었다.

잉에서 혈까지의 입수는 토체의 부모산에서 급경사로 떨어지다 잉에서 평지가 된 후 가늘게 선익이 여러 개 만들어졌다. 그러므로 부합지표에서 입수는 부합으로 판단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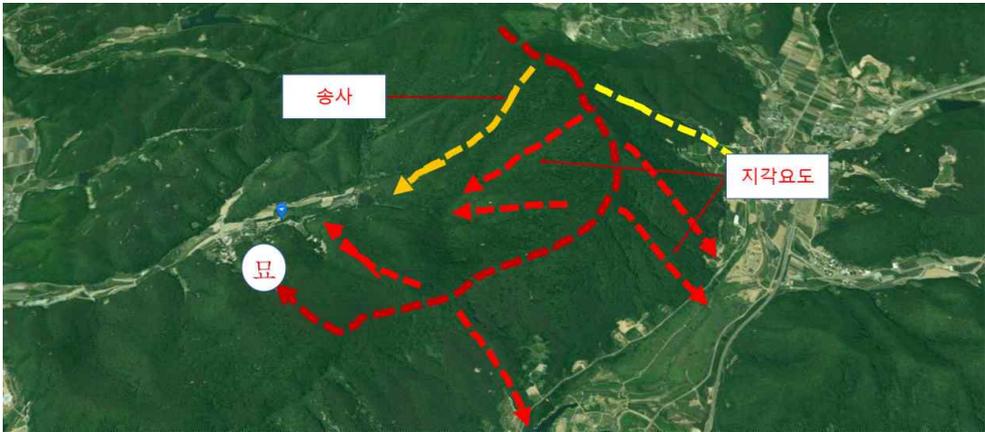
### (5) 용의 개장(開幃), 박환(剝換), 과협(過峽)

개장 범위는 태조산, 소조산, 부모산으로 3가지를 본다. 먼저 태조산은 개장이 잘되었고 천심은 중출맥이며 천심이후 과협지의 호위가 주밀하게 되었다. 출맥이후 과협과 기복으로 박환은 잘 되어 있다. 소조산도 개장이 잘되었고 과협과 기복굴곡이 많아 박환 또한 잘되어 있다.

박환은 소조산에서 잉까지를 본다. 소조산에서 잉까지 기복굴곡하고 과협하여 적법하다.

과협은 <그림 137>에서 태조산과 소조산 모두 과협은 여러 개가 나타나며 좌우로 호위가 잘 갖춰져 있다. 그러므로 부합지표에서 개장, 박환, 과협은 모두 부합으로 판단되었다.

### (6) 지각요도(枝脚橈棹) 및 호송(護送)



<그림 139> 지각요도(지도출처:브이월드)

소조산에서 묘소로 들어오는 용에 송사가 있어 튼튼하고 지각요도가 양호하게 형성되었다. 호종사는 좌우로 모두 잘 갖춰져 있어 호위가 잘되었다. 있다. 그러므로 부합지표 항목에서 지각요도와 호송은 부합으로 판단되었다.

### (7) 용의 방정(傍正) 및 노늬(老嫩)



<그림 140> 정룡과 방룡(지도출처:브이월드)

서락순 묘는 그림의 적색용은 정룡이 된다. 황색용은 방룡이다. 정룡으로 묘소로 입수하고 있다. 그러므로 정룡과 방룡의 부합지표는 부합하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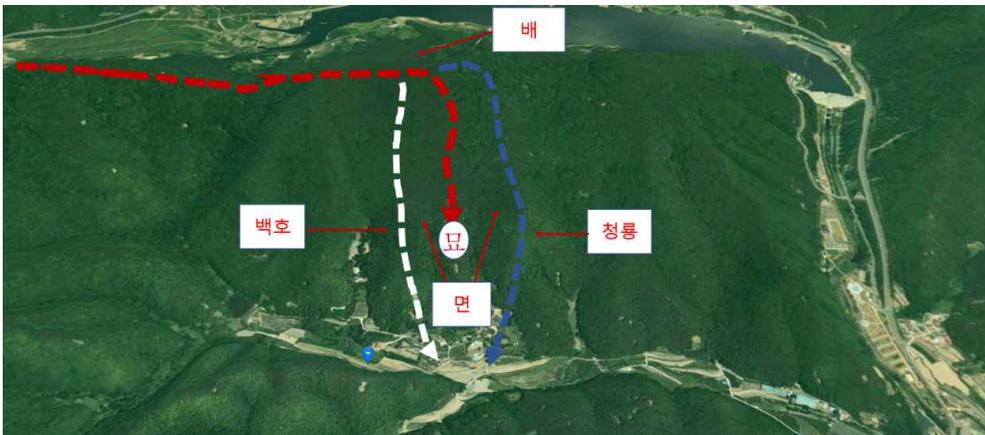
다.

노눈에서는 노룡은 박환이 되지 않았거나 박환이 진행중인 용으로 아직 거칠고, 눈룡은 나무의 새로운 가지처럼 가늘고 박환을 마친 용이다. <그림 140>에서 적색용은 소조산을 지나오면서 박환을 완벽하게 이루어 눈룡이 된다. 그러므로 부합지표상 노눈은 부합으로 판단되었다.

### (8) 용의 분벽(分擘) 및 배면(背面)

<그림 141>의 분벽을 살펴보면 부모산에서 좌측으로 갈라지는 용은 자리에서 청룡이 되므로 분벽으로 보지 않는다. 내청룡 좌측으로 두 개의 가지는 외청룡이 되므로 분벽으로 보지 않는다. 오히려 묘소를 보호하는 역할을 한다.

배면은 <그림 141>에서 묘소로 들어오는 적색용은 개면하고 깨끗하다. 좌우의 청룡과 백호는 깨끗하고 유정하여 면이 된다. 부모산의 후면은 급경사로 배가 된다. 그러므로 부합지표에서 분벽과 배면은 부합되었다.



<그림 141> 분벽 및 배면(지도출처:브이월드)

### (9) 용의 빈주(賓主)

서락순 묘의 빈주는 묘소 전면의 산과 좌측의 산들이 부모산보다는 낮 으면서 유정하게 만들어졌다. 그러므로 빈주는 부합지표에 부합되었다.

## (10) 용의 여기(餘氣)

용의 여기는 혈을 결지한 후 용의 기운이 남아 행룡하여 혈처의 소용이 되거나 다른 혈을 만들기도 한다. 서락순 묘소의 여기는 외청룡이 되었으며 용의 기운이 남아 여기의 역할을 한다. 부합지표는 부합되었다.

## (11) 용형세(龍形勢) 및 오성산(五星山)

서락순 묘의 경우 용형세는 12격에 해당 되지 않는다.

오성산은 소조산과 부모산의 오행의 형태로 판단한다. 서락순 묘의 소조산은 금성형이며 부모산은 토성형이다. 소조산은 둥글고 원만하며 부모산은 토체로 평평하게 형성되었다. 그러므로 부합지표의 용형세는 부합되지 않았고, 오성산은 부합으로 판단하였다.

## (12) 용(龍)의 부합도

서락순 묘의 용의 부합도는 용형세를 제외하고 모두 부합되어 92.2%이다.

<표 37> 서락순 묘 용의 부합도

	항 목	내 용	부합도
1	용의구분	대간룡~방지룡에서 박환후에 결혈하였다.	○(-0.4)
2	태조산	높고 크고 멀고 특이하며, 주변에서 으뜸가는 산이다.	◎
3	소조산	혈에서 가까우며 제반 귀격과 용격에 합당하다.	◎
4	태식잉육	모든 길격에 맞고, 속기가 잘되고 호위가 주밀하다.	◎
5	입수	혈후의 1-5절 이내가 길격에 해당한다.	◎
6	개장	소조산과 부모산이 개장친심하고 중출맥이다.	◎
7	박환	소조산에서 혈처까지 박환이 잘되었다.	◎
8	과협	소조산에서 혈처까지 과협이 길격이다.	◎
9	지각요도	지각과 요도가 적합하며 귀상이다.	◎
10	호송	호송산이 많고, 대소·원근·고저가 적당하다.	◎
11	방정	정룡에서 혈장을 만들었다.	◎
12	노눈	눈룡으로 혈처로 이어졌다.	◎

13	면배	용의 면에 혈처가 있다.	◎
14	분벽	소조산에서 혈처까지 분벽이 되지 않았다.	◎
15	빈주	빈주의 형세가 비슷하고 정의가 있다.	◎
16	여기	혈을 맺은 후 여기가 있다.	◎
17	용형세	용형세12격에서 생,강,순,진,복룡 중 하나에 해당한다.	X
18	오성산	소조산과 부모산이 오성의 금, 목, 토성에 해당한다.	◎
계			(17-0.4)/18
부합률(%)			92.2

### 3) 혈법(穴法)의 분석

#### (1) 혈(穴)의 사상(四象)

서락순 묘는 혈의 사상 중 어디에 속하는지 살펴본다. 이 자리는 현유혈로 유혈에 해당한다. 유혈은 양 어깨가 튼튼하게 잡아주어야 하고 공결되거나 요절된 것을 꺼린다. 이곳은 부모산에서 급경사로 낙맥하여 평평하게 잉을 만든후 양쪽으로 튼튼하게 선익이 만들어졌다. 그러므로 부합지표의 혈의 사상은 부합으로 판단하였다.

#### (2) 혈형(穴形)

서락순 묘는 불유회혈에 해당한다. 부모산에서 갈라진 좌우의 청룡과 백호가 교차하지 않고 묘소를 지나 거의 직선형태로 뻗어 있다.

그리고 유형의 6격 중 장유와 대유에 해당한다. 장유는 양쪽 어깨의 사이로 유가 긴 것을 이르는데, 너무 길면 맥이 활발하지 않으므로 좋지 않은데 서락순 묘는 유의 길이가 길지만 묘소를 만들고 우측으로 좁게 여기를 만들어서 장유의 단점이 없다. 대유는 양쪽 어깨 사이의 유가 큰 것을 이르는데 이곳의 대유는 청룡과 백호와 간격이 적절하다. 그러므로 부합지표의 혈형은 부합으로 보았다.

#### (3) 혈성(穴星)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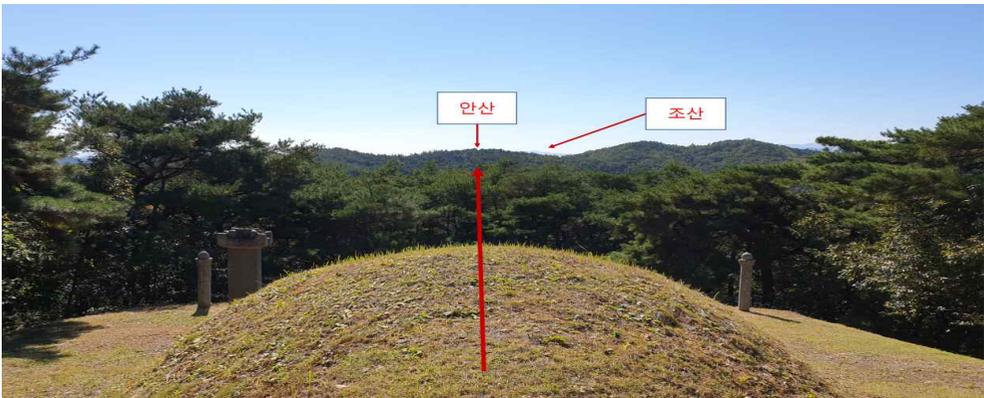


<그림 142> 부모산의 혈성(논자 촬영)

혈성은 입수한 산의 형체를 오성으로 구분한 것이다. 오성의 성체가 명백해야 혈을 결지한다고 하였다. 서락순 묘의 오성은 <그림 142>의 부모산과 같이 완만하고 둥그런 금성체로 혈에 대해 유정한 모습으로 혈성을 잘 갖추었다. 그러므로 부합지표의 혈성은 부합되었다.

#### (4) 혈증(穴證)

##### ① 조산증혈(朝山證穴)



<그림 143> 조안(논자 촬영)

서락순 묘의 안산은 소조산으로 오기전에 갈라진 본신통의 안산이 된

다. 안산은 둥근 원형의 봉우리 세 개가 나란히 있고 그 중심에 해당하는 산이 안산이 되었다. 거리도 적당하고, 높이도 가슴 높이에 해당되어 합법이다. 그러므로 조산증혈은 부합지표 항목과 부합으로 판단되었다.

## ② 명당증혈(明堂證穴)



<그림 144> 명당(지도출처:브이월드)

서락순 묘의 소명당은 묘소 아래로 평탄하고 방정하게 이루어져 있다. 소명당으로서 기울어지지 않고 양명하게 되어있다. 소명당 앞으로 전순이 나무리를 잘하고 있다. 중명당은 묘소의 전면으로 평탄하고 크기도 적당하다. 대명당은 광활함을 요하는데 이곳은 중명당에 비해 넓게 형성되어 있다. 그러므로 부합지표의 명당은 부합으로 판단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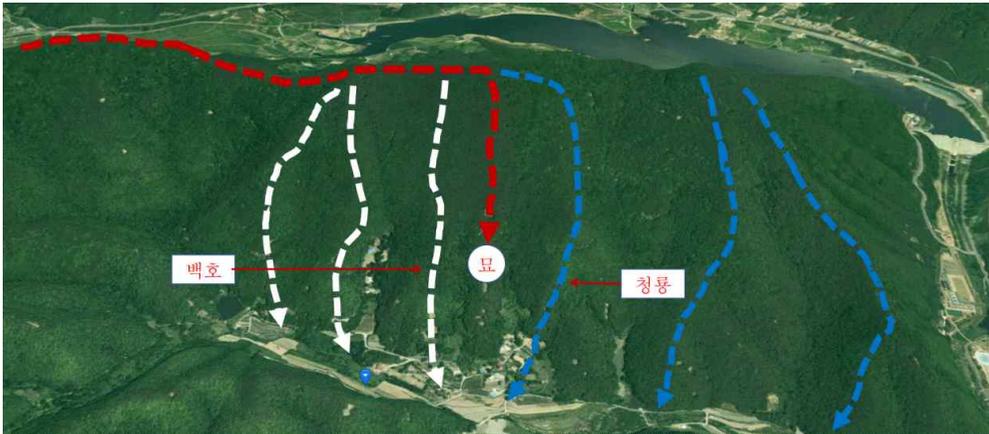
<그림 145> 수세도(지도출처:브이월드)

### ③ 수세증혈(水勢證穴)

서락순 묘의 수세는 <그림 145>의 청룡수와 백호수가 묘소를 지나 중명당에서 합수하여 길게 흘러 내린 이후 부모산 후면으로 소조산에서 발원한 물과 대명당에서 합수하여 빠져나간다. 청룡수와 백호수가 비슷한 거리에서 묘소를 지나 1차합수 지점에서 만나므로 묘소위치는 중앙 지점이다. 좌선룡에 우선수가 되어 적법하다. 그러므로 부합지표의 수세증혈은 부합되었다.

### ④ 용호증혈(龍虎證穴)

서락순 묘의 백호는 내백호를 비롯하여 외백호가 두 개 더있어 묘소를 보호하는 역량이 크다. 청룡도 마찬가지로 세 개가 되면서 더욱 길한 용호가 되었다. 내청룡과 내백호의 높이가 비슷하고 자리보다는 약간 높다. 그러므로 부합지표는 부합되었다.



<그림 146> 용호도(지도출처:브이월드)

### ⑤ 전호증혈(纏護證穴)

서락순 묘의 전호는 <그림 146>의 용호도를 보면 부모산에서 갈라진 청룡과 백호가 자리를 유정하게 감싸면서 묘소의 여기와 길이가 비슷하다. 안산과 비교하여 높이가 중간 지점이 합당하다. 그러므로 이곳의 전호증혈은 부합지표에 합당하다.

### ⑥ 순전증혈(脣氈證穴)



<그림 147> 순전의 순(논자 촬영)

서락순 묘의 전순은 새의 부리 모양의 순이 되었다. 순의 모양이 평탄하고 단정하며 좁아지면서 마무리가 잘되어 있어 순전의 증혈은 합당하다고 판단된다. 그러므로 부합지표는 부합으로 판단하였다.

### ⑦ 천심십도증혈(天心十道證穴)

서락순 묘의 경우는 천심십도는 나타나지 않았다.

### ⑧ 분합증혈(分合證穴)

서락순 묘의 분합은 <그림 145>에서 보듯 청룡방의 물길과 백호방의 물길이 합수하여 소팔자 분합이 있다. 대팔자 분합은 대명당에서 합수한다. 그러므로 부합지표의 분합증혈은 부합되었다.

## (5) 혈(穴)의 부합도

서락순 묘의 혈의 부합도는 천심십도는 부합하지 않았고 나머지는 모두 부합되어 90.9%의 부합률을 보였다.

<표 38> 서락순 묘 혈의 부합도

	항 목	내 용	부합도
1	사상	외검유돌중 하나의 혈상을 이루었다.	◎
2	혈형	외검유돌 혈형의 조건에 부합한다.	◎
3	혈성	입수의 산이 성체를 이루고 정체이다.	◎
4	조산증혈	가까운 안산이 유정하고, 고저원근이 적합하다.	◎
5	명당증혈	명당이 바르고 평평하며, 소, 중, 대명당이 합법이다.	◎
6	수세증혈	혈이 수세의 모임에 적법. 혈처의 좌우고저가 바르다.	◎

7	낙산귀성	황입수의 혈에 낙산이나 귀성이 있고, 위치가 적법.	☆
8	용호증혈	용호에 따라 혈의 위치가 적합하다.	◎
9	전호증혈	송산의 형태에 맞춰 혈처가 바르다.	◎
10	순전증혈	전순이 적합하게 있다.	◎
11	천심십도	혈을 중심으로 전후좌우에 십자봉이 정위치에 있다.	X
12	분합증혈	삼분삼합이 잘 갖춰져 있다.	◎
계			10/11
부합률(%)			90.9

#### 4) 사법(砂法)의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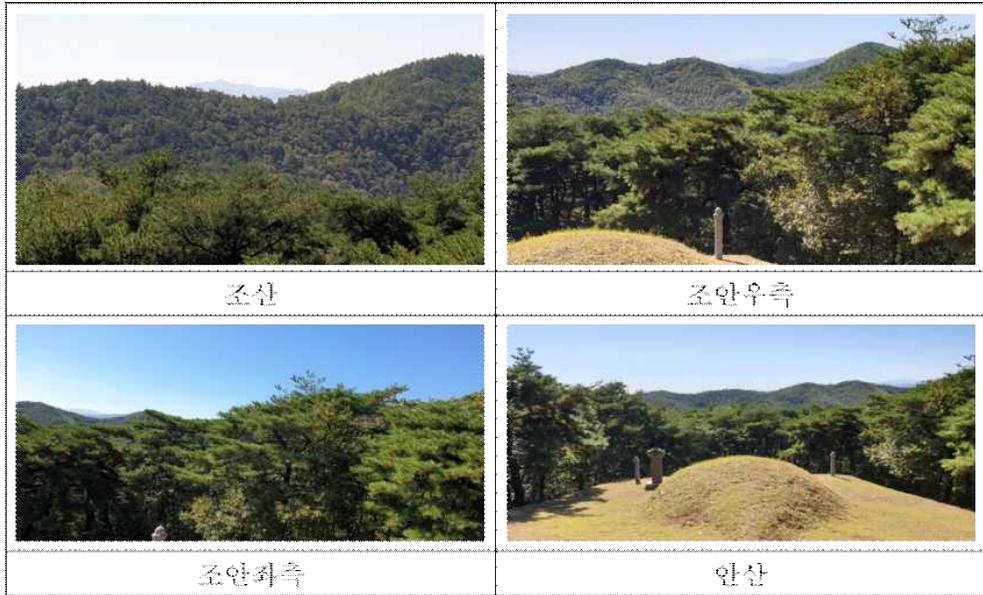
##### (1) 청룡(靑龍)과 백호(白虎)



<그림 148> 청룡과 백호(논자 촬영)

서락순 묘의 용호를 살펴본다. 청룡과 백호 모두 본신릉에서 갈라져 본신용호이다. 본신용호에서는 청룡과 백호 모두 본신에서 나온 것으로 합당하고, 용호상청에서는 높이가 균일해 부합되었다. 용호장풍은 묘소를 잘 감싸서 부합이고, 용호역관은 청룡이 역관하여 합당하며, 완연순부는 적합하였다.

## (2) 조안산(朝案山)



<그림 149> 조안산(논자 촬영)

서락순 묘의 안산은 소조산 이전에서 갈라져 안산이 되었다. 묘소와 거리가 적당하고 유정하여 근안유정에 부합한다. 분신릉에서 안산이 되어 분신안산 또한 부합한다. 안산이 용호수가 합수하여 순수가 되지 않도록 막아주고 있어 안산역수도 부합이다. 조산은 거리는 멀지만 묘소에 공음하듯 유정하여 조산유정은 부합되었다. 그러므로 부합지표에 모두 합법으로 판단되었다.

## (3) 나성원국(羅城垣局)

혈처를 중심으로 전주작, 후현무, 좌청룡, 우백호 등의 혈처를 겹겹이 감싸는 모든 사를 나성원국이라 한다. 이 나성원국으로 국세의 조밀함과 대소를 구분한다. 내룡이 길고 기세가 크며, 나성원국이 크게 잘 짜여질수록 혈이 대지가 된다.

서락순 묘의 나성원국은 묘소를 기준하여 전후좌우에서 환포하여 보호

가 매우 잘되었다. 그러므로 나성원국은 부합되었다.

#### (4) 하수사(下手砂)

서락순 묘의 하수사는 <그림 146>의 용호도 상 청룡 끝 부분이 하수사로 세 개가 존재한다. 백호수가 묘소를 지나가므로 청룡이 역관하여 하수가 되었으며 역수한다. 그러므로 부합지표의 하수사는 부합으로 판단되었다.

#### (5) 수구사(水口砂)

이곳의 수구사는 청룡과 백호가 합수하는 지점에 여러 개가 존재한다. 그러므로 부합지표의 수구사는 부합되었다.

#### (6) 관귀금요(官鬼禽曜)



<그림 150> 관성(논자 촬영)

하고, 요성은 용호의 팔꿈치 뒤편으로 날카로운 바위가 있는 것을 말한다.

서락순 묘의 백호 방에 관성이 존재한다. 이 관성으로 인해 후손의 관귀가 매우 길하게 된다. 그러므로 부합지표의 관귀금요는 부합되었다.

관귀금요는 혈을 만들고 남은 여기가 혈의 전후좌우에서 나타나는 사를 말한다. 관성은 혈 전면에서 용호의 뒤쪽으로 일으키는 봉우리이고, 귀성은 횡결시에 혈 후에서 만들어지는 사이다. 금성은 수구내의 동물 모양의 수구사를 말

#### (7) 사(砂)의 부합도

서락순 묘의 사의 부합도는 모든 항목이 부합하여 100%이다.

<표 39> 서락순 묘 사의 부합도

	항 목	내 용	부합도
1	본신용호	본신에서 나온 용호이다.	◎
2	용호상징	용호의 고저가 비슷하고 유정하다.	◎
3	용호장풍	용호가 장풍을 잘하고 생기보호에 투철하다.	◎
4	용호역관	용호중 하나가 수구의 물을 잘 막아주고 있다.	◎
5	완연순부	청룡이 완연하고, 백호는 순부한다.	◎
6	근안유정	안산이 근소하고 수려하며 회포유정하다.	◎
7	본신안산	본신에서 안산을 이루고 유정하다.	◎
8	안산역수	안산이 역수의 형태를 갖추었다.	◎
9	조산특조	조산이 특조산이다.	☆
10	조산유정	조산이 첨원방평, 단정수려하고 유정하다.	◎
11	고봉독수	빠어난 봉우리 하나가 혈에 유정하다.	☆
12	나성원국	혈을 중심으로 전후좌우 유정하게 환포하였다.	◎
13	하수사	하수사가 좌우선에 따라 역관하였다.	◎
14	수구사	수구에 수구사가 주밀하게 교결관쇄하였다.	◎
15	관귀금요	혈의 주위에 관귀금요가 있다	◎
	계		13/13
	부합율%		100

## 5) 수법(水法)의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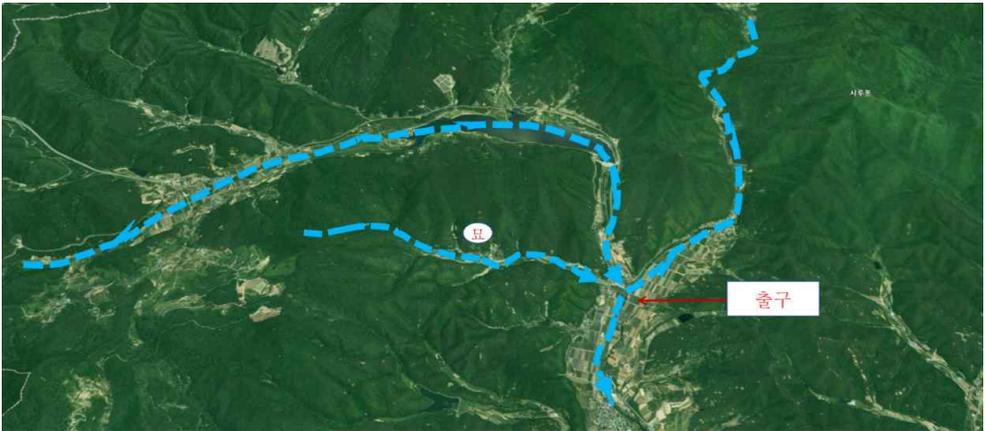
### (1) 수(水)의 발원(發源)

서락순 묘의 발원수 중에 소조산에서 발원한 물은 백호방에서 오는 물이 명당에 들어오므로 소조산의 발원수가 된다. 발원수의 거리는 대략 2Km이다. 거리는 길지는 않지만 굴곡하여 느리게 빠져나가므로 양호하다. 부모산의 발원수는 백호쪽의 물길이 혈을 지나므로 백호원신수가 발원수가 된다. 백호변 발원수의 거리는 대략 900m이다. 그리고 청룡변의 원신수도 백호수와 비슷한 길이이다. 그러므로 부합지표의 발원수는 부합으로 판단되었다.



<그림 151> 발원수(지도출처:브이월드)

## (2) 수의 도국(到局)과 출구(出口)



<그림 152> 수의 도국과 출구(지도출처:브이월드)

서락순 묘의 경우는 소조산에서 들어오는 물은 내명당을 지나 외명당에서 합수한다. 이 물줄기는 굴곡하여 느리게 빠져나가며 출구가 보이지 않는다. 소조산의 후면에서 들어오는 물은 다수의 물줄기가 모여 저수지에서 모인 다음 대명당에서 합수한다. 외수가 다시 대명당에서 합수하여 빠져나간다. 그러므로 도국과 출구 모두 부합지표에 부합으로 판단하였다.

## (3) 명당길격(明堂吉格)

서락순 묘의 명당은 명당 9길격 중 교쇄명당이다. 그러므로 부합지표에는 부합되었다.

#### (4) 수성(水星)

서락순 묘의 경우 <그림 152>와 같이 완만한 굴곡이 금성형으로 이루어 졌다. 그러므로 부합지표에 부합되었다.

#### (5) 좌향(坐向)

서락순 묘의 좌향은 축좌미향이다. 정과가 되면서 팔괘향법에 해당되지 않았다. 그러므로 부합지표에 부합되지 않았다.

#### (6) 수(水)의 부합도

서락순 묘의 수의 부합도는 좌향이 부합되지 않아 83.3%이다.

<표 40> 서락순 묘 수의 부합도

	항 목	내 용	부합도
1	발원	발원수가 멀고 길다.	◎
2	도국	오는 물이 명당에 든다.	◎
3	출구	물이 나가는 곳이 굴곡하고 수구사가 있다.	◎
4	명당길격	명당수의 9길격에 해당한다.	◎
5	수성	수성성이 금이나 수에 해당한다.	◎
6	좌향	88향법의 길향에 해당한다.	X
계			5/6
부합률(%)			83.3

### 6) 종합 부합도

서락순 묘의 용혈사수 종합 부합도는 용이 92.2, 혈이 90.9, 사가 100, 수가 83.3으로 91.6%의 부합률을 보였다.

<표 41> 서락순 묘의 종합 부합도

	항 목	세부지표계산	부합율(%)
1	용	(17-0.4)/18	92.2
2	혈	10/11	90.9
3	사	13/13	100
4	수	5/6	83.3
	계	(45-0.4)/48	91.6

### 3. 이희발(李羲發) 묘에 대한 분석

#### 1) 이희발 묘의 개요



<그림 153> 묘소전경(논자 촬영)

이희발(李羲發) 묘의 소재지는 경북 의성군 금성면 수정리 산 26번지이다. 이희발(李羲發)은 조선후기의 문신으로 본관은 영천(永川)이며 자는 우문(又文) 호는 운곡(雲谷)이다. 경북 의성군 금성면(金城面)에서 태어났다. 정동필(鄭東弼)에게 학문을 배웠다. 1768(영조 44년) 출생하여 1849(헌종 15년)에 사망하였다. 1795(정조 19년) 식년문과에 병과로 급제하여 규

장각의 초계문신(抄啓文臣)이 되었고 순조 때 대사간을 지낸 후 헌종 즉위 후에는 승지를 지냈다. 1847(헌종 13년)에는 병조참판으로 국방 태세를 확립하여 군사력 강화에 힘썼고 하의상달(下意上達)을 위한 언로(言路) 개방을 주장하였다. 그 후 지중추부사를 지냈고 기로소(耆老所)에 들어 『홍재전서(弘齋全書)』 편찬에 기여하였으며 1849년에는 형조판서가 되었다.<sup>108)</sup>

## 2) 용법(龍法)의 분석

### (1) 내룡맥(來龍脈)



<그림 154> 내룡맥(지도출처 : 신산경표)

이희발 묘로 들어오는 내룡맥은 낙동정맥에서 갈라진 보현지맥을 따라 서진하다 보현산(1124m)을 세우고 서북진하여 석심산(751m)에서 북서진하여 구무산(675m)에서 오토지맥으로 분지한다. 구무산에서 서진하다 오토산(475m)을 가기 전 금성산(530m)으로 갈라진다. 금성산에서 낙맥하여 150m 봉우리를 세우고 묘소로 입수한다. 구무산이 태조산이 되고 금성산이 소조산이며 150m 봉우리가 부모산이다.

태조산에서 묘소까지 총 길이가 대략 25km이고 소조산에서 자리까지의 거리는 대략 1.5km정도이다. 부모산에서 자리까지의 거리는 대략 320m이

108) 한국민족문화대백과, 디지털의성문화대전 참조

다. 부합지표의 용의 구분에서는 방지룡에 해당하므로 0.4를 감하였다.

## (2) 태조산(太祖山)과 소조산(小祖山)



<그림 155> 태조산(지도출처:브이월드)

이희발 묘의 태조산은 구무산(675m)으로 오토지맥에서 가장 높은 산이다. 태조산으로서 기세도 강하고 개장도 잘하였으며 주변에서 으뜸이 되는 산이다.

전심은 중출맥으로 수차례 기복과 과협을 하고 소조산인 금성산으로 연결되었다. 과협지가 낮게 떨어져 호위가 주밀하여 매우 길한 형태이다. 그



<그림 156> 소조산(지도출처:브이월드)

러므로 부합지표의 태조산은 길격이 되어 부합지표에 부합하였다.

소조산은 금성산(530m)으로 용진처로는 매우 높고 기세가 왕성하다. 태조산에서 소조산까지의 행룡은 기복굴곡과 과협이 잘 갖추어 졌고 호종사가 좋아 호위가 잘되었다. 중출맥으로 천심이 되었다. 천심 이후 기복과 굴곡 매우 양호하다. 그러므로 부합지표에서 소조산은 부합으로 판단되었다.

### (3) 부모태식잉육(父母胎息孕育)

이희발 묘의 부모산은 150m 봉우리다. 소조산에서 부모산으로 진행하는 용은 소조산에서 급경사로 떨어지다 기복을 하고 과협이후 평평해지며 부모산을 만들고 부모산에서 태식잉육이 매우 잘 만들어 졌다. 원만한 금성체의 부모산에서 개장하고 중출맥으로 낙맥하여 속기 이후 잉을 만들고 묘소로 입수한다. 잉에서 나온 청룡과 백호가 양호하게 장풍하고 있다. 그러므로 부합지표 항목에서 부합으로 판단되었다.

### (4) 용의 입수(入首)

이희발 묘의 소조산에서 잉까지의 입수는 소조산의 개장이 잘되었고 중출맥이 되었으며 천심 이후 박환이 매우 잘되었다.

잉에서 혈까지의 입수는 원만한 금성체의 부모산에서 태식잉육의 과정이 완벽하다. 그러므로 부합지표에서 입수는 부합으로 판단하였다.

### (5) 용의 개장(開幃), 박환(剝換), 과협(過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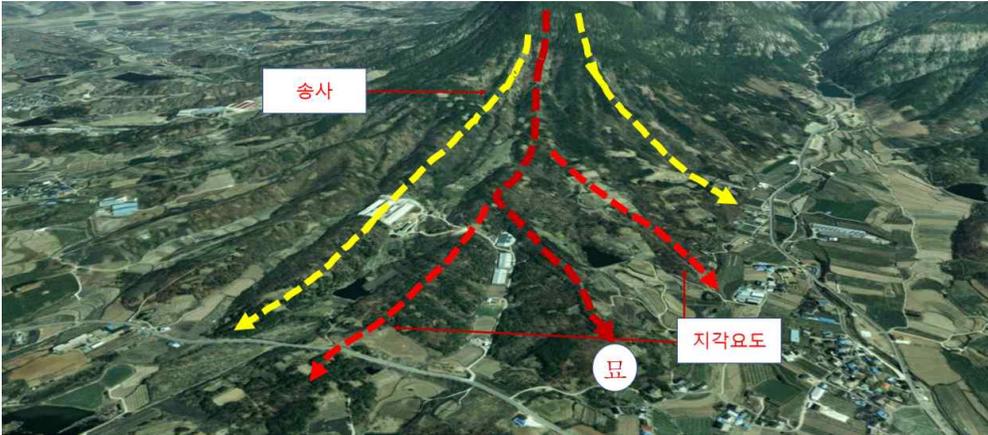
개장 범위는 태조산, 소조산, 부모산으로 3가지를 본다. 먼저 태조산은 개장이 잘되었고 천심은 중출맥이며 천심이후 과협지의 호위가 주밀하게 되었다. 출맥이후 과협과 기복으로 박환은 잘 되어있다. 소조산도 개장이 잘되었고 중출맥이며 급경사로 낙맥하여 평지에서 부모산을 만들어 개장하고 입수한다.

박환은 소조산에서 잉까지를 본다. 소조산에서 잉까지 기복하고 과협하

여 적법하다.

과협은 <그림 155>에서 태조산과 소조산 모두 과협은 여러 개가 나타나며 좌우로 호위가 잘 갖춰져 있다. 그러므로 부합지표에서 개장, 박환, 과협은 모두 부합으로 판단되었다.

### (6) 지각요도(枝脚橈棹) 및 호송(護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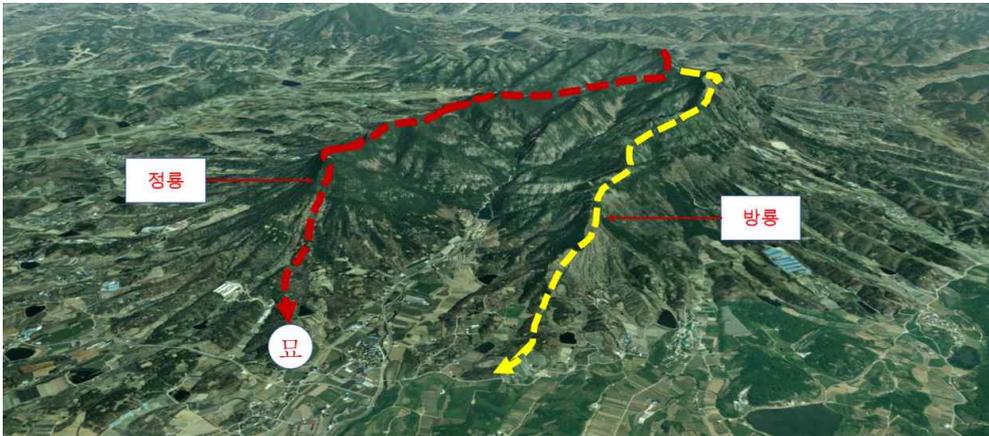
<그림 157> 지각요도 및 송사(지도출처:브이월드)

소조산에서 묘소로 들어오는 용에 송사가 있어 튼튼하고 지각요도는 숫자는 작지만 튼튼하게 형성되었다. 호송사는 좌우로 모두 잘 갖춰져 있어 호위가 잘되었다. 그러므로 부합지표 항목에서 지각요도와 호송은 부합으로 판단되었다.

### (7) 용의 방정(傍正) 및 노늬(老嫩)

이희발 묘는 그림의 적색용은 정룡이 된다. 황색용은 방룡이다. 정룡으로 묘소로 입수하고 있다. 황색룡은 적색룡의 호송사이다. 그러므로 정룡과 방룡의 부합지표는 부합하였다.

노늬에서는 노룡은 박환이 되지 않았거나 박환이 진행중인 용으로 아직 거칠고, 늬룡은 나무의 새로운 가지처럼 가늘고 박환을 마친 용이다. <그림 158>에서 적색용은 소조산을 지나오면서 박환을 완벽하게 이루어 늬



<그림 158> 정룡과 방룡(지도출처:브이월드)

룡이 된다. 그러므로 부합지표상 노늬는 부합으로 판단되었다.

#### (8) 용의 분벽(分擘) 및 배면(背面)



<그림 159> 분벽 및 배면(지도출처:브이월드)

용의 분벽은 방룡과 정룡과는 달리, 정룡이 혈처에 이르기 전에 너무 많은 용으로 분지한 경우 용의 기운이 약해지므로 꺼리게 된다. 그러나 분벽된 분지가 다시 돌아와 청룡이나 백호가 된다면 역관사가 되는 경우는 다시 길하게 본다. <그림 159>의 분벽을 살펴보면 소조산에서 좌우로 여러 개로 분지하지만 청룡과 백호 역할을 하고 호종사가 되므로 분벽이 아니다.

배면은 <그림 159>에서 묘소로 들어오는 적색용은 개면하고 깨끗하다. 좌우의 청룡과 백호는 깨끗하고 유정하여 면이 된다. 부모산의 후면은 금경사로 배가 된다. 그러므로 부합지표에서 분벽과 배면은 부합되었다.

### (9) 용의 빈주(賓主)

이곳의 빈주는 소조산이 가장 높고 주변의 산들은 낮으면서 유정하게 만들어졌다. 그러므로 빈주는 부합지표에 부합되었다.

### (10) 용의 여기(餘氣)

용의 여기는 혈을 결지한 후 용의 기운이 남아 행룡하여 혈처의 소용이 되거나 다른 혈을 만들기도 한다. 이희발 묘소의 여기는 잉에서 우측으로 뻗어나가 하수사 역할을 한다. 그러므로 부합지표는 부합되었다.

### (11) 용형세(龍形勢) 및 오성산(五星山)

이희발 묘의 경우 용형세는 12격에 해당되지 않는다.

오성산은 소조산과 부모산의 오행의 형태로 판단한다. 이희발 묘의 소조산은 목성형이며 부모산은 금성형이다. 소조산은 뾰족하게 솟아 있고 부모산은 완만하게 형성되었다. 그러므로 부합지표의 용형세는 부합되지 않았고 오성산은 부합으로 판단하였다.

### (12) 용(龍)의 부합도

이희발 묘의 용의 부합도는 용형세를 제외하고 모두 부합되어 92.2%이다.

<표 42> 이희발 묘 용의 부합도

	항 목	내 용	부합도
1	용의구분	대간룡~방지룡에서 박환후에 결혈하였다.	○(-0.4)
2	태조산	높고 크고 멀고 특이하며, 주변에서 으뜸가는 산이다.	◎

3	소조산	혈에서 가까우며 제반 귀격과 용격에 합당하다.	◎
4	태식잉육	모든 길격에 맞고, 속기가 잘되고 호위가 주밀하다.	◎
5	입수	혈후의 1-5절 이내가 길격에 해당한다.	◎
6	개장	소조산과 부모산이 개장천심하고 중출맥이다.	◎
7	박환	소조산에서 혈처까지 박환이 잘되었다.	◎
8	과협	소조산에서 혈처까지 과협이 길격이다.	◎
9	지각요도	지각과 요도가 적합하며 귀상이다.	◎
10	호송	호송산이 많고, 대소·원근·고저가 적당하다.	◎
11	방정	정룡에서 혈장을 만들었다.	◎
12	노눈	눈룡으로 혈처로 이어졌다.	◎
13	면배	용의 면에 혈처가 있다.	◎
14	분벽	소조산에서 혈처까지 분벽이 되지 않았다.	◎
15	빈주	빈주의 형세가 비슷하고 정의가 있다.	◎
16	여기	혈을 맺은 후 여기가 있다.	◎
17	용형세	용형세12격에서 생,강,순,진,복룡 중 하나에 해당한다.	X
18	오성산	소조산과 부모산이 오성의 금, 목, 토성에 해당한다.	◎
계			(17-0.4)/18
부합률(%)			92.2

### 3) 혈법(穴法)의 분석

#### (1) 혈(穴)의 사상(四象)

이희발 묘는 혈의 사상 중 어디에 속하는지 살펴본다. 이 자리는 와형(窩形)으로 현능(弦稜)사가 와를 둘러싸 보호가 잘 되어 있으며 와내는 평탄하다. 그러므로 부합지표의 혈의 사상은 부합으로 판단하였다.

#### (2) 혈형(穴形)

와형(窩形)의 장구(張口)와혈로 용호가 교회하지 않고 있다. 심와(深窩)와 활와(闊窩)에 해당하여 와가 깊게 파여있고 개구부위가 넓다. 와를 감싸는 현능(弦稜)이 명확하게 나타나 있다. 그러므로 부합지표의 혈형은 부합으로 보았다.

### (3) 혈성(穴星)



<그림 160> 부모산의 혈성(논자 촬영)

었다. 그러므로 부합지표의 혈성은 부합되었다.

혈성은 입수한 산의 형태를 오성으로 구분한 것이다. 오성의 성체가 명백해야 혈을 결지한다고 하였다. 이희발 묘의 오성은 <그림 160>의 부모산과 같이 완만하고 둥그런 금성체로 혈에 대해 유정한 모습으로 혈성을 잘 갖추

### (4) 혈증(穴證)

#### ① 조산증혈(朝山證穴)



<그림 161> 안산(논자 촬영)

이희발 묘의 안산은 잉에서 백호쪽으로 갈라진 본신룡의 안산이 된다. 안산은 인가가 들어서서 형태는 알아볼 수 없지만 적당한 거리에 있다. 거리도 적당하고 높이도 가슴 높이에 해당되어 합법이다. 조산은 외래산

으로 외수를 환포하고 묘소에 공읍하듯 유정하다. 그러므로 조산증혈은 부합지표 항목과 부합으로 판단되었다.

## ② 명당증혈(明堂證穴)



<그림 162> 명당(지도출처:브이월드)

이희발 묘의 소명당은 묘소 아래로 평탄하고 방정하게 이루어져 있다. 소명당으로서 기울어지지 않고 양명하게 되어있다. 소명당 앞으로 전순이 마무리를 잘하고 있다.

중명당은 묘소의 전면으로 평탄하고 백호 안산이 되면서 역수로 막아주고 있다. 대명당은 광활함을 요하는데 중명당에 비해 매우 넓게 형성되어 있고 평탄하다. 그러므로 부합지표의 명당은 부합으로 판단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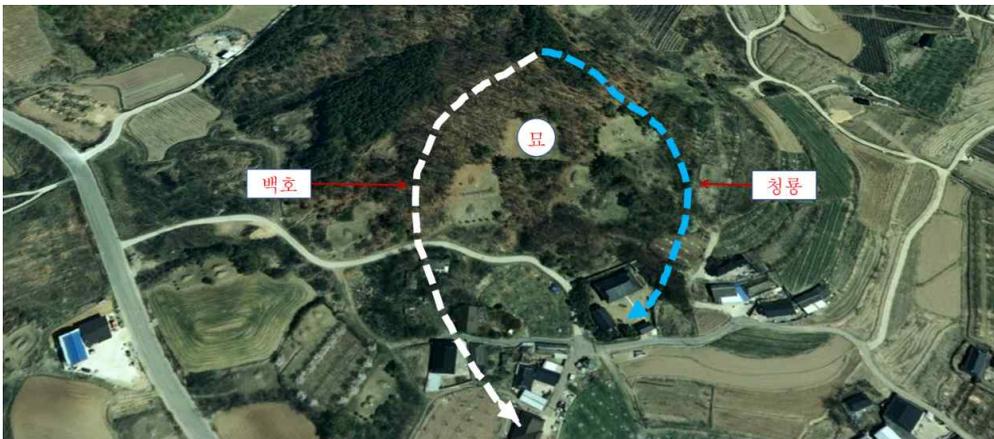
<그림 163> 수세도(지도출처:브이월드)

### ③ 수세증혈(水勢證穴)

이희발 묘의 수세는 청룡수와 백호수가 묘소를 지나 중명당에서 합수하여 길게 흘러 내린 이후 부모산 후면으로 소조산에서 발원한 물과 대명당에서 합수하여 빠져나간다. 청룡수와 백호수가 비슷한 거리에서 묘소를 지나 1차합수 지점에서 만나므로 묘소 위치는 중앙 지점이다. 좌선룡에 우선수가 되어 적법하다. 그러므로 부합지표의 수세증혈은 부합되었다.

### ④ 용호증혈(龍虎證穴)

이희발 묘의 백호변이 청룡에 비해 길다. 청룡이 역수가 된다. 용호의 높낮이가 비슷하고 둘 다 유정하므로 묘소의 위치가 중앙에 있다. 그러므로 부합지표는 부합되었다.



<그림 164> 용호도(지도출처:브이월드)

### ⑤ 전호증혈(纏護證穴)

이희발 묘의 전호는 <그림 164>의 용호도를 보면 잉에서 갈라진 청룡과 백호가 자리를 유정하게 감싸면서 묘소보다는 길게 뻗어 있다. 이곳은 평지에 해당하므로 자리의 위치가 위로 올라가야 물의 피해를 입지 않는다. 그러므로 이곳의 전호증혈은 부합지표에 해당하다.

### ⑥ 순전증혈(脣氈證穴)

이희발 묘의 전순은 이불 모양의 전이 되었다. 전의 모양이 평탄하고



단정하며 횡대로 마무리가 잘되어 있어 순전의 증혈은 합당하다고 판단된다. 그러므로 부합지표는 부합으로 판단하였다.

<그림 165> 순전의 전(논자 촬영)

⑦ 천심십도증혈(天心十道證穴)

이희발 묘의 경우는 천심십도는 나타나지 않았다.

⑧ 분합증혈(分合證穴)

소팔자분합이나 대팔자분합 중 하나라도 있다면 적법하게 본다. 대소팔자분합이 동시에 있으면 더욱 길한 것으로 본다.

이희발 묘의 분합은 <그림 163>에서 보듯 청룡방의 물길과 백호방의 물길이 합수하여 소팔자 분합이 있다. 그러므로 부합지표의 분합증혈은 부합되었다.

(5) 혈(穴)의 부합도

이희발 묘의 혈의 부합도는 천심십도는 부합하지 않았고 나머지는 모두 부합되어 90.9%의 부합률을 보였다.

<표 43> 이희발 묘 혈의 부합도

	항 목	내 용	부합도
1	사상	외검유돌중 하나의 혈상을 이루었다.	◎
2	혈형	외검유돌 혈형의 조건에 부합한다.	◎
3	혈성	입수의 산이 성체를 이루고 정체이다.	◎
4	조산증혈	가까운 안산이 유정하고, 고저원근이 적합하다.	◎
5	명당증혈	명당이 바르고 평평하며, 소, 중, 대명당이 합법이다.	◎
6	수세증혈	혈이 수세의 모임에 적법. 혈처의 좌우고저가 바르다.	◎
7	낙산귀성	횡입수의 혈에 낙산이나 귀성이 있고, 위치가 적법.	☆
8	용호증혈	용호에 따라 혈의 위치가 적합하다.	◎

9	전호증혈	송산의 형태에 맞춰 혈처가 바르다.	◎
10	순전증혈	전순이 적합하게 있다.	◎
11	천심십도	혈을 중심으로 전후좌우에 십자봉이 정위치에 있다.	X
12	분합증혈	삼분삼합이 잘 갖춰져 있다.	◎
계			10/11
부합률(%)			90.9

#### 4) 사법(砂法)의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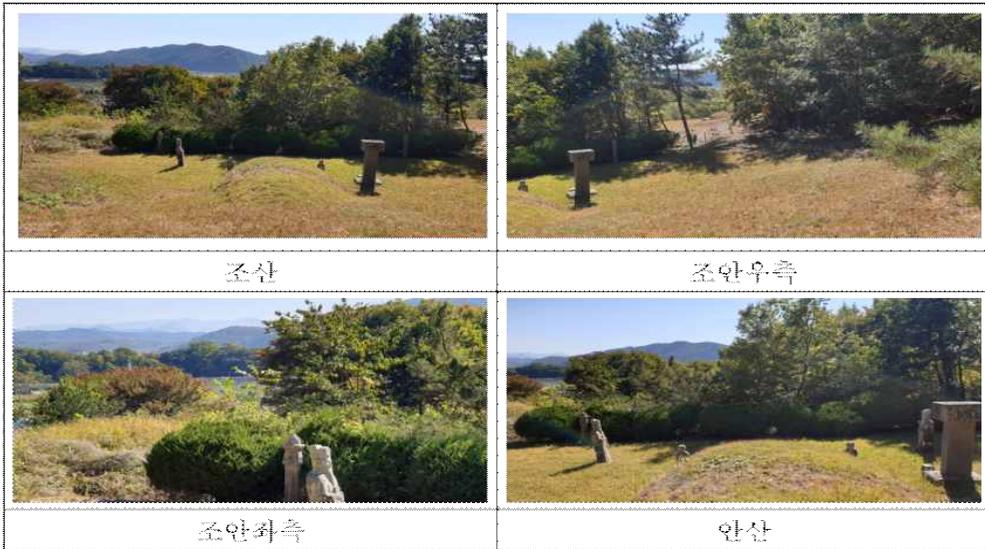
##### (1) 청룡(靑龍)과 백호(白虎)

이희발 묘의 용호를 살펴본다. 청룡과 백호 모두 본신릉에서 갈라져 본신용호이다. 본신용호에서는 청룡과 백호 모두 본신에서 나온 것으로 합당하고, 용호상청에서는 높이가 균일해 부합되었다. 용호장풍은 묘소를 잘 감싸서 부합이고, 용호역관은 청룡이 역관하여 합당하며, 완연순부는 적합하였다.



<그림 166> 청룡과 백호(논자 촬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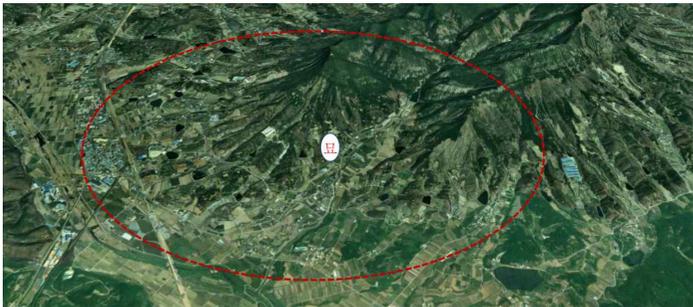
##### (2) 조안산(朝案山)



<그림 167> 조안산(논자 촬영)

이희발 묘의 안산은 잉에서 갈라진 백호가 안산이 되었다. 거리도 적당하고 높이도 적당하다. 근안유정에 부합한다. 본신릉에서 안산이 되어 본신안산 또한 부합한다. 안산이 용호수가 합수하여 순수가 되 않도록 막아주고 있어 안산역수도 부합이다. 조산은 외수를 잘 막아주고 역수하며 유정하여 조산유정은 부합되었다. 그러므로 부합지표에 모두 함범으로 판단되었다.

### (3) 나성원국(羅城垣局)



<그림 168> 나성원국(지도출처:브이월드)

이희발 묘의 나성원국은 묘소를 기준으로 전후좌우에서 환포하여 보호가 매우 잘되었다. 그러므로 나성원국은 부합되었다.

#### (4) 하수사(下手砂)

이희발 묘의 하수사는 백호수가 묘소를 지나가므로 청룡이 역관하여 하수가 되었으며 역수한다. 그러므로 부합지표의 하수사는 부합으로 판단되었다.

#### (5) 수구사(水口砂)

수구사는 혈처에서 물이 빠져나가는 곳의 양쪽산과 수구내외의 물길을 잡아주는 역할을 하는 모든 사를 지칭한다. 이 수구의 양변의 산이 교쇄되어 긴밀히 막아주어 물이 직출하지 않도록 막는 역할로 수구사의 종류는 다양하다. 화표, 한문, 나성, 유어 등이 있으면 더욱 길하다.

이곳의 수구사는 외수구에 있다. 그러므로 부합지표의 수구사는 부합되었다.

#### (6) 관귀금요(官鬼禽曜)



<그림 169> 관성(논자 촬영)

이희발 묘의 조산 좌측으로 목체의 관성이 존재한다. 이 관성으로 인해

후손의 관귀가 매우 길하게 된다. 그러므로 부합지표의 관귀금요는 부합되었다.

## (7) 사(砂)의 부합도

이희발 묘의 사의 부합도는 모든 항목이 부합하여 100%이다.

<표 44> 이희발 묘 사의 부합도

	항 목	내 용	부합도
1	본신용호	본신에서 나온 용호이다.	◎
2	용호상칭	용호의 고저가 비슷하고 유정하다.	◎
3	용호장풍	용호가 장풍을 잘하고 생기보호에 투철하다.	◎
4	용호역관	용호중 하나가 수구의 물을 잘 막아주고 있다.	◎
5	완연순부	청룡이 완연하고, 백호는 순부한다.	◎
6	근안유정	안산이 근소하고 수려하며 회포유정하다.	◎
7	본신안산	본신에서 안산을 이루고 유정하다.	◎
8	안산역수	안산이 역수의 형태를 갖추었다.	◎
9	조산특조	조산이 특조산이다.	☆
10	조산유정	조산이 침원방평, 단정수려하고 유정하다.	◎
11	고봉독수	빠어난 봉우리 하나가 혈에 유정하다.	☆
12	나성원국	혈을 중심으로 좌우좌우 유정하게 환포하였다.	◎
13	하수사	하수사가 좌우선에 따라 역관하였다.	◎
14	수구사	수구에 수구사가 주밀하게 교결관쇄하였다.	◎
15	관귀금요	혈의 주위에 관귀금요가 있다	◎
계		13/13	
부합률(%)		100	

## 5) 수법(水法)의 분석

### (1) 수(水)의 발원(發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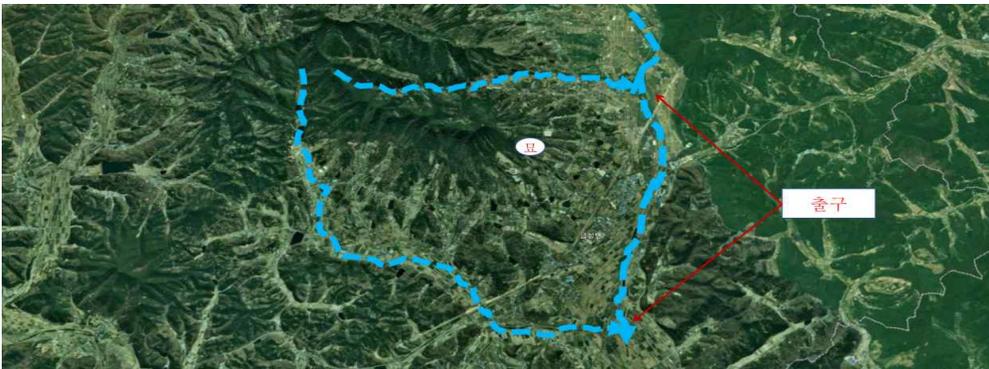
이희발 묘의 발원수 중에 소조산에서 발원한 물은 청룡방에서 오는 물이 증명당에 들어오므로 소조산의 발원수가 된다. 발원수의 거리는 대략 4.4Km이다. 거리는 길고 굴곡하여 느리게 빠져나가므로 양호하다. 부모산의 발원수는 백호쪽의 물길이 혈을 지나므로 백호원신수가 발원수가 된



<그림 170> 발원수(지도출처:브이월드)

다. 백호변 발원수의 거리는 대략 150m이다. 그리고 청룡변의 원신수도 백호수와 비슷한 길이이다. 그러므로 부합지표의 발원수는 부합으로 판단되었다.

## (2) 수의 도국(到局)과 출구(出口)



<그림 171> 도국과 출구(지도출처:브이월드)

이희발 묘의 경우는 소조산에서 들어오는 물은 내명당을 지나 외명당에서 합수한다. 이 물줄기는 여러차례 굴곡하여 느리게 빠져나가며 출구가 보이지 않는다. 소조산의 후면 우측에서 들어오는 물은 다수의 물줄기가 모여 굴곡을 여러번 한 다음 대명당에서 내려오는 물과 합수한다. 그러므로 도국과 출구 모두 부합지표에 부합으로 판단하였다.

### (3) 명당길격(明堂吉格)

이희발 묘의 명당은 명당 9길격에 해당되지 않는다.

### (4) 수성(水星)

이희발 묘의 경우 <그림 171>과 같이 완만한 굴곡이 금성형과 수성형으로 이루어졌다. 그러므로 부합지표에 부합되었다.

### (5) 좌향(坐向)

이희발 묘의 좌향은 축좌미향(丑坐未向)이다. 병파(丙破)가 되면서 팔팔향법에 쇠헌태류(衰向胎流)에 해당한다. 쇠헌태류는 발부발귀(發富發貴)한다. 그러므로 부합지표에 부합되었다.

### (6) 수(水)의 부합도

이희발 묘의 수의 부합도는 명당길격을 제외한 모든 항목이 부합되어 83.3%이다.

<표 45> 이희발 묘 수의 부합도

	항 목	내 용	부합도
1	발원	발원수가 멀고 길다.	◎
2	도국	오는 물이 명당에 든다.	◎
3	출구	물이 나가는 곳이 굴곡하고 수구사가 있다.	◎
4	명당길격	명당수의 9길격에 해당한다.	X
5	수성	수성성이 금이나 수에 해당한다.	◎
6	좌향	88향법의 길향에 해당한다.	◎
	계		5/6
	부합률(%)		83.3

## 6) 종합 부합도

이희발 묘의 용혈사수 종합 부합도는 용이 92.2, 혈이 90.9, 사가 100, 수가 83.3으로 91.6%의 부합률을 보였다.

<표 46> 이희발 묘의 종합 부합도

	항 목	세부지표계산	부합률(%)
1	용	(17-0.4)/18	92.2
2	혈	10/11	90.9
3	사	13/13	100
4	수	5/6	83.3
	계	44.6/48	91.6

## 4. 유후조(柳厚祚) 묘에 대한 분석

### 1) 유후조 묘의 개요



<그림 172> 유후조 묘소 전경(논자 촬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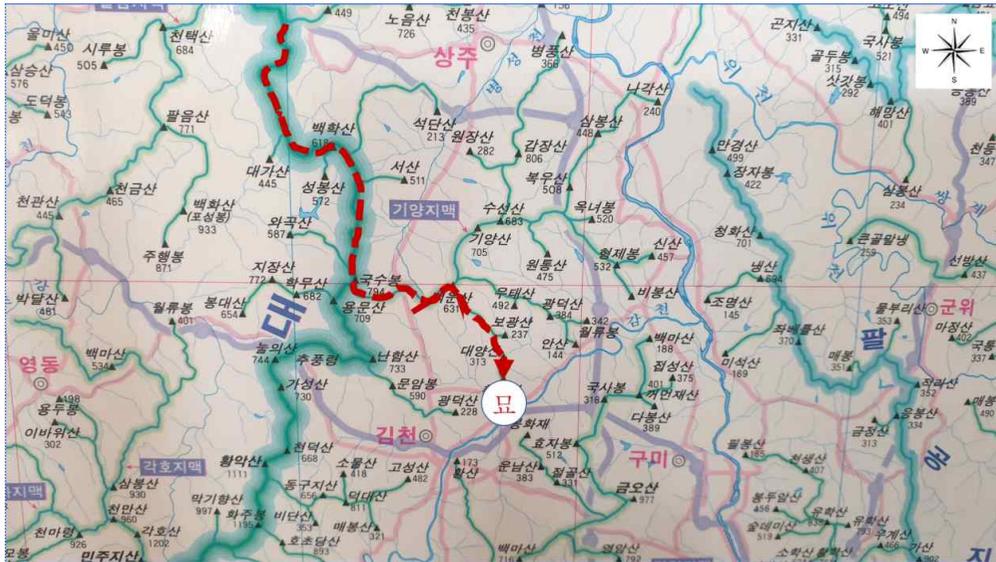
유후조(柳厚祚) 묘의 소재지는 경북 김천시 개령면 동부리 70번지이다.

유후조는 조선후기의 문신으로 본관은 풍산(豊山) 자는 재가(載可) 호는 매산(梅山)·낙파(洛坡)·영매(嶺梅)이다. 도정(都正) 심춘(尋春)의 아들

이다. 1798(정조 22년)에 출생하여 1876(고종 13년) 사망하였다. 1858(철종 9년) 정시문과에 급제한 뒤 부사와 부호군을 지내고 1864년(고종 1년)에 이조참판 이듬해 공조판서를 지냈으며, 흥선대원군(興宣大院君)의 남인계 중용책에 따라 1866년 우의정에 이르렀다. 병인양요 시기에는 아들 주목(疇睦)에게 의병을 일으키게 하였다. 1867년 좌의정에 오르고 1872년에는 판중추부사로 퇴직하였다.<sup>109)</sup>

## 2) 용법(龍法)의 분석

### (1) 내룡맥(來龍脈)



<그림 173> 내룡맥(지도출처:신산경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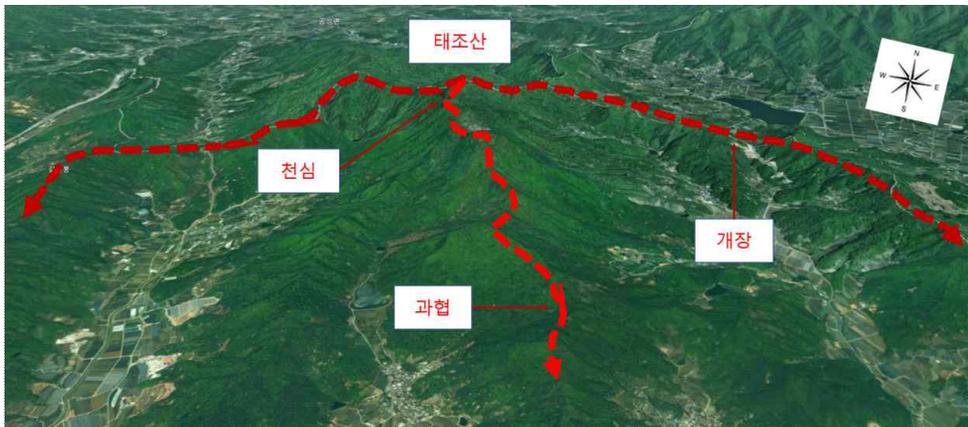
유후조 묘로 들어오는 내룡맥은 백두대간이 상주를 지나 추푸령을 가기 전에 국수봉에서 기양지맥으로 갈라진다. 국수봉에서 동진하여 백운산(631m)을 세운 후 남동진하여 대양산(313m)을 일으키고 다시 남진하여 취적봉(321m)을 세운다. 취적봉에서 좌우로 분지한다. 좌측으로 갈라진 맥은 동남진하여 강하게 속기한 후 100m 봉우리를 만들고 묘소로 입수한다. 취적봉에서 우측으로 분지한 맥은 과협 후 다시 동남진하여 200m 봉

109) 한국민족문화대백과, 풍산류씨 대중회 참조.

우리를 세운 뒤 유후조의 아들 유주목의 묘소를 입수한다. 유주목은 다음 절의 사례지이다.

태조산에서 묘소까지 총 길이가 대략 20km이고 소조산에서 자리까지의 거리는 대략 1.5km정도이다. 부모산에서 자리까지의 거리는 대략 100m이다. 부합지표의 용의 구분에서는 방지룡에 해당하므로 0.4를 감하였다.

## (2) 태조산(太祖山)과 소조산(小祖山)



<그림 174> 태조산(지도출처:브이월드)



<그림 175> 소조산(지도출처:브이월드)

유후조 묘의 태조산은 백운산(631m)으로 태조산으로서 기세도 강하고

개장도 넓고 크게 매우 잘하였으며 주변에서 으뜸이 되는 산이다.

천심은 중출맥으로 수차례 기복과 과협을 하고 소조산인 취적봉으로 연결되었다. 과협지의 호위가 주밀하여 길한 형태이다. 그러므로 부합지표의 태조산은 길격이 되어 부합지표에 부합하였다.

소조산은 취적봉(321m)으로 태조산에서 소조산까지의 행룡은 기복굴곡과 과협이 잘 갖추어 졌고 호종사가 좋아 호위가 잘되었다. 중출맥은 유주목의 묘소로 향하고 유후조 묘는 편출맥이 되었다. 천심 이후 기복과 굴곡을 하고 속기를 크고 강하게 하여 부모산으로 들어간다. 그러므로 부합지표에서 소조산은 0.1의 감점요소가 있다.

### (3) 부모태식잉육(父母胎息孕育)

유후조 묘의 부모산은 100m 봉우리다. 소조산에서 부모산으로 진행되는 용은 소조산에서 기복과 굴곡을 하고 속기를 강하게 한 후 부모산을 만들고 부모산에서 태식잉육이 매우 잘 만들어 졌다. 원만한 금성체의 부모산에서 개장하고 중출맥으로 낙맥하여 잉을 만들고 묘소로 입수한다. 부모산에서 나온 청룡과 백호가 양호하게 장풍하고 있다. 그러므로 부합지표 항목에서 부합으로 판단되었다.

### (4) 용의 입수(入首)

유후조 묘의 소조산에서 잉까지의 입수는 소조산의 개장이 잘되었고 편출맥이 되었으며 천심 이후 박환이 매우 잘되었다.

잉에서 혈까지의 입수는 완만한 금성체의 부모산에서 태식잉육의 과정이 완벽하다. 그러므로 부합지표에서 입수는 편출맥으로 인하여 0.1을 감하였다.

### (5) 용의 개장(開幃), 박환(剝換), 과협(過峽)

개장 범위는 태조산, 소조산, 부모산으로 3가지를 본다. 먼저 태조산은 개장이 잘되었고 천심은 중출맥이며 천심이후 과협지의 호위가 주밀하게

되었다. 출맥이후 과협과 기복으로 박환은 잘 되어있다. 소조산도 개장이 잘되었고 편출맥이며 낙맥하여 평지에서 부모산을 만들어 개장하고 입수한다.

박환은 소조산에서 잉까지를 본다. 소조산에서 잉까지 기복하고 과협하여 적법하다.

과협은 <그림 174>에서 태조산과 소조산 모두 과협이 나타나며 좌우로 호위가 잘 갖추어져 있다. 그러므로 부합지표에서 개장은 편출맥으로 인하여 0.1의 감점이 있고 박환, 과협은 모두 부합으로 판단되었다.

### (6) 지각요도(枝脚橈棹) 및 호송(護送)



<그림 176> 지각요도 및 호송(지도출처:브이월드)

소조산에서 묘소로 들어오는 용에 송사가 있어 튼튼하고 지각요도는 숫자는 작지만 튼튼하게 형성되었다. 호중사는 좌측은 잘 갖추어져 우측은 약하다. 그러므로 부합지표 항목에서 지각요도는 부합이고, 호송은 0.1의 감점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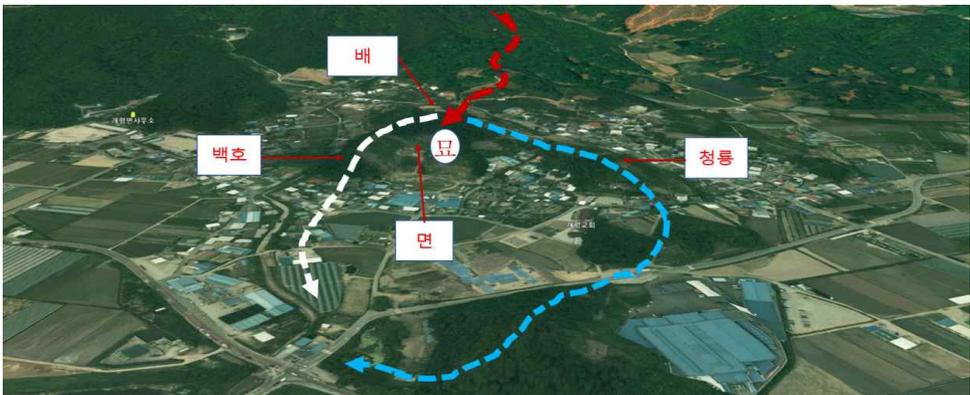
### (7) 용의 방정(傍正) 및 노늬(老嫩)

유후조 묘는 <그림 175>에서 유주목의 묘로 가는 용이 정룡이 된다. 유후조 묘로 가는 용은 편출맥으로 방룡이다. 방룡이지만 소조산 이후 박

환을 완료하고 속기가 강하게 형성되어 자리를 맺을 만하다. 그러므로 정룡과 방룡의 부합지표는 0.4의 감점이 있다.

노눈에서는 노룡은 박환이 되지 않았거나 박환이 진행중인 용으로 아직 거칠고, 눈룡은 나무의 새로운 가지처럼 가늘고 박환을 마친 용이다. <그림 176>에서 소조산을 지나오면서 박환을 완벽하게 이루어 눈룡이 된다. 그러므로 부합지표상 노눈은 부합으로 판단되었다.

### (8) 용의 분벽(分擘) 및 배면(背面)



<그림 177> 분벽 및 면배(지도출처:브이월드)

<그림 177>의 분벽을 살펴보면 소조산에서 우측으로 분지한 용이 외백호 역할을 하므로 분벽이 아니다.

배면은 <그림 177>에서 묘소로 들어오는 적색용은 개면하고 깨끗하다. 좌우의 청룡과 백호는 깨끗하고 유정하여 면이 된다. 부모산의 후면은 급경사로 배가 된다. 그러므로 부합지표에서 분벽과 배면은 부합되었다.

### (9) 용의 빈주(賓主)

유후조 묘의 빈주는 소조산이 가장 높고 주변의 산들은 낮으면서 유정하게 만들어졌다. 그러므로 빈주는 부합지표에 부합되었다.

### (10) 용의 여기(餘氣)

용의 여기는 혈을 결지한 후 용의 기운이 남아 행룡하여 혈처의 소용이 되거나 다른 혈을 만들기도 한다. 유후조 묘소의 여기는 부모산에서 좌측으로 뻗어 나가 하수사와 안산 역할을 한다. 그러므로 부합지표는 부합되었다.

### (11) 용형세(龍形勢) 및 오성산(五星山)



<그림 178> 순룡(지도출처:브이월드, 그림출처:김동규역, 인자수지 前, p. 561.)

유후조 묘의 경우 용형세는 12격 중 순룡에 해당한다.

오성산은 소조산과 부모산의 오행의 형태로 판단한다. 유후조 묘의 소조산은 목성형이며 부모산은 금성형이다. 소조산은 뽀족하게 솟아 있고 부모산은 완만하게 형성되었다. 그러므로 부합지표의 용형세와 오성산은 부합으로 판단하였다.

### (12) 용(龍)의 부합도

유후조 묘의 용의 부합도는 모든 항목에서 부합하였으나 감점이 있어 93.3%이다.

<표 47> 유후조 묘 용의 부합도

	항 목	내 용	부합도
1	용의구분	대간룡~방지룡에서 박환후에 결혈하였다.	○(-0.4)
2	태조산	높고 크고 멀고 특이하며, 주변에서 으뜸가는 산이다.	◎
3	소조산	혈에서 가까우며 제반 귀격과 용격에 합당하다.	○(-0.1)
4	태식잉육	모든 길격에 맞고, 속기가 잘되고 호위가 주밀하다.	◎
5	입수	혈후의 1-5절 이내가 길격에 해당한다.	○(-0.1)
6	개장	소조산과 부모산이 개장천심하고 중출맥이다.	○(-0.1)
7	박환	소조산에서 혈처까지 박환이 잘되었다.	◎
8	과협	소조산에서 혈처까지 과협이 길격이다.	◎
9	지각요도	지각과 요도가 적합하며 귀상이다.	◎
10	호송	호송산이 많고, 대소·원근·고저가 적당하다.	○(-0.1)
11	방정	정룡에서 혈장을 만들었다.	○(-0.4)
12	노눈	눈룡으로 혈처로 이어졌다.	◎
13	면배	용의 면에 혈처가 있다.	◎
14	분벽	소조산에서 혈처까지 분벽이 되지 않았다.	◎
15	빈주	빈주의 형세가 비슷하고 정의가 있다.	◎
16	여기	혈을 뺏은 후 여기가 있다.	◎
17	용형세	용형세12격에서 생,강,순,진,복룡 중 하나에 해당한다.	◎
18	오성산	소조산과 부모산이 오성의 금, 목, 토성에 해당한다.	◎
	계		(18-1.2)/18
	부합률(%)		93.3

### 3) 혈법(穴法)의 분석

#### (1) 혈(穴)의 사상(四象)

유후조 묘는 혈의 사상 중 어디에 속하는지 살펴본다. 이 자리는 현유 혈로 유혈에 해당한다. 유혈은 양 어깨가 튼튼하게 잡아주어야 하고 공결 되거나 요절된 것을 꺼린다. 이곳은 부모산에서 낙맥하여 잉을 만들었다. 유형의 선익이 확실하게 지지해주고 있다. 그러므로 부합지표의 혈의 사상은 부합으로 판단하였다.

#### (2) 혈형(穴形)

유후조 묘는 불유회혈에 해당한다. 부모산에서 갈라진 좌우의 청룡과 백호가 교쇄하지 않는 형태이다.

그리고 유형의 6격 중 단유와 소유에 해당한다. 단유는 유의 길이가 짧은 것으로 좌우의 용호가 감싸주고 적당한 위치에 묘소가 자리한다. 소유는 양쪽 어깨 사이의 유가 작은 것을 이르는데 이곳의 소유는 적당하다. 그러므로 부합지표의 혈형은 부합으로 보았다.

### (3) 혈성(穴星)



<그림 179> 부모산(논자 촬영)

혈성은 입수한 산의 형체를 오성으로 구분한 것이다. 오성의 성체가 명백해야 혈을 결지한다고 하였다. 유후조 묘의 오성은 <그림 179>의 부모산과 같이 완만하고 둥그런 금성체로 혈에 대해 유정한

모습으로 혈성을 잘 갖추었다. 그러므로 부합지표의 혈성은 부합되었다.

### (4) 혈증(穴證)

#### ① 조산증혈(朝山證穴)

조산증혈은 혈 전면의 안대를 보고 판단하는 방법이다. 안대의 원근고저와 좌우의 조응에 따라 혈의 고저와 좌우가 결정된다.

유후조의 묘의 안산은 부모산에서 청룡쪽으로 갈라진 본신룡의 안산이 된다. 청룡이 뺏어나가 안산이 되었다. 이 안산은 하수사의 역할도 한다. 거리도 적당하고 높이도 눈썹 높이에 해당되어 합법이다. 조산은 외래산으로 묘소에 공읍하듯 유정하다. 그러므로 조산증혈은 부합지표 항목과 부합으로 판단되었다.



<그림 180> 조안산(논자 촬영)

## ② 명당증혈(明堂證穴)



<그림 181> 명당(지도출처:브이월드)

유후조 묘의 소명당은 묘소 아래로 평탄하고 방정하게 이루어져 있다. 소명당으로서 기울어지지 않고 양명하게 되어있다. 소명당 앞으로 전순이 마무리를 잘하고 있다.

중명당은 묘소의 전면으로 평탄하고 청룡 안산이 되면서 역수로 막아주고 있다. 특히 청룡과 안산이 하수사가 되면서 외수를 막아주는 역할이 대단히 크다. 대명당은 광활함을 요하는데 이곳은 중명당에 비해 매우 넓게 형성되어 있고 평탄하다. 그러므로 부합지표의 명당은 부합으로 판단

되었다.

### ③ 수세증혈(水勢證穴)

유후조 묘의 수세는 청룡수와 백호수가 묘소를 지나 중명당에서 합수하여 안산의 안쪽에서 합수한 이후 외수와 합수한다. 청룡수와 백호수가 비슷한 거리에서 묘소를 지나 1차합수 지점에서 만나므로 묘소 위치는 중앙지점이다. 우선룡에 좌선수가 되어 적법하다. 그러므로 부합지표의 수세증혈은 부합되었다.



<그림 182> 수세도(지도출처:브이월드)

### ④ 용호증혈(龍虎證穴)



<그림 183> 용호도(지도출처:브이월드)

유후조 묘의 청룡변이 백호에 비해 길다. 백호가 역수가 된다. 용호의 높낮이가 비슷하고 둘 다 유정하므로 묘소의 위치가 중앙에 있다. 그러므로 부합지표는 부합되었다.

### ⑤ 전호증혈(纏護證穴)

유후조 묘의 전호는 <그림 183>의 용호도를 보면 부모산에서 갈라진 청룡과 백호가 자리를 유정하게 감싸면서 묘소보다는 길게 뻗어 있다. 이곳은 평지에 해당하므로 자리의 위치가 위로 올라가야 물의 피해를 입지 않는다. 그러므로 이곳의 전호증혈은 부합지표에 합당하다.

### ⑥ 순전증혈(脣氈證穴)



유후조 묘의 전순은 새의 부리 모양의 순이 되었다. 순의 모양이 평탄하고 단정하며 좁아지면서 마무리를 하고 있다. 순전의 증혈은 합당하다고 판단된다. 그러므로 부합지표는 부합으로 판단하였다.

<그림 184> 순전의 순(논자 촬영)

### ⑦ 천심십도증혈(天心十道證穴)

유후조 묘의 경우는 천심십도는 나타나지 않았다.

### ⑧ 분합증혈(分合證穴)

유후조 묘의 분합은 <그림 182>에서 보듯 청룡방의 물길과 백호방의 물길이 합수하여 소팔자 분합이 있다. 그러므로 부합지표의 분합증혈은 부합되었다.

## (5) 혈(穴)의 부합도

유후조 묘의 혈의 부합도는 천심십도는 부합하지 않았고 나머지는 모두 부합되어 90.9%의 부합률을 보였다.

<표 48> 유후조 묘 혈의 부합도

항 목	내 용	부합도	
1	사상	외검유돌중 하나의 혈상을 이루었다.	◎
2	혈형	외검유돌 혈형의 조건에 부합한다.	◎
3	혈성	입수의 산이 성체를 이루고 정체이다.	◎
4	조산증혈	가까운 안산이 유정하고, 고저원근이 적합하다.	◎
5	명당증혈	명당이 바르고 평평하며, 소, 중, 대명당이 합법이다.	◎
6	수세증혈	혈이 수세의 모임에 적법. 혈처의 좌우고저가 바르다.	◎
7	낙산귀성	횡입수의 혈에 낙산이나 귀성이 있고, 위치가 적법.	☆
8	용호증혈	용호에 따라 혈의 위치가 적합하다.	◎
9	전호증혈	송산의 형태에 맞춰 혈처가 바르다.	◎
10	순전증혈	전순이 적합하게 있다.	◎
11	천심십도	혈을 중심으로 전후좌우에 십자봉이 정위치에 있다.	X
12	분합증혈	삼분삼합이 잘 갖춰져 있다.	◎
계			10/11
부합률%			90.9

#### 4) 사법(砂法)의 분석

##### (1) 청룡(靑龍)과 백호(白虎)

유후조 묘의 용호를 살펴본다. <그림 185>의 청룡과 백호 모두 본신룡에서 갈라져 본신용호이다. 본신용호에서는 청룡과 백호 모두 본신에서 나온 것으로 합당하고, 용호상칭에서는 높이가 균일해 부합되었다. 용호장풍은 묘소를 잘 감싸서 부합이고, 용호역관은 청룡이 역관하여 합당하며, 완연순부는 적합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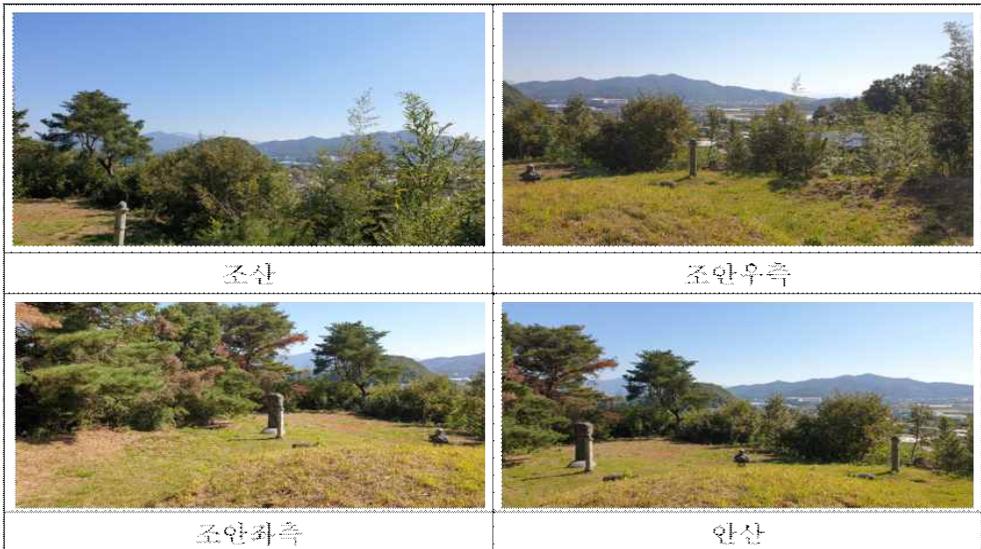
##### (2) 조안산(朝案山)

유후조 묘의 안산은 <그림 186>의 부모산에서 갈라진 청룡이 묘소 전



<그림 185> 청룡과 백호(논자 촬영)

면을 지나 안산이 되었다. 거리도 적당하고 높이도 적당하다. 근안유정에 부합한다. 본신룡에서 안산이 되어 본신안산 또한 부합한다. 안산이 용호수가 합수하여 순수가 되지 않도록 막아주고 있어 안산역수도 부합이다.



<그림 186> 조안산(논자 촬영)

조산은 외수를 잘 막아주고 역수하며 유정하여 조산유정은 부합되었다. 그러므로 부합지표에 모두 합법으로 판단되었다.

### (3) 나성원국(羅城垣局)

유후조 묘의 나성원국은 묘소를 기준하여 좌측의 대명당이 넓어 환포가 약하게 보이지만 청룡과 안산이 환포하여 막아주므로 전후좌우에서 환포하여 보호가 잘되었다. 그러므로 나성원국은 부합되었다.

### (4) 하수사(下手砂)

유후조 묘의 하수사는 <그림 183>의 용호도 상 청룡과 안산이 하수사가 된다. 백호수가 묘소를 지나가므로 청룡과 안산이 역관하여 하수가 되었으며 역수한다. 그러므로 부합지표의 하수사는 부합으로 판단되었다.

### (5) 수구사(水口砂)

이곳의 수구사는 전순 여기의 좌측에 있다. 그러므로 부합지표의 수구사는 부합되었다.



<그림 187> 관성(논자 촬영)

### (6) 관귀금요(官鬼禽曜)

유후조 묘의 조산 좌측으로 목체의 관성이 존재한다. 이 관성으로 인해 후손의 관귀가 매우 길하게 된다. 그러므로 부합지표의 관귀금요는 부합되었다.

## (7) 사(砂)의 부합도

유후조 묘의 사의 부합도는 모든 항목이 부합하여 100%이다.

<표 49> 유후조 묘 사의 부합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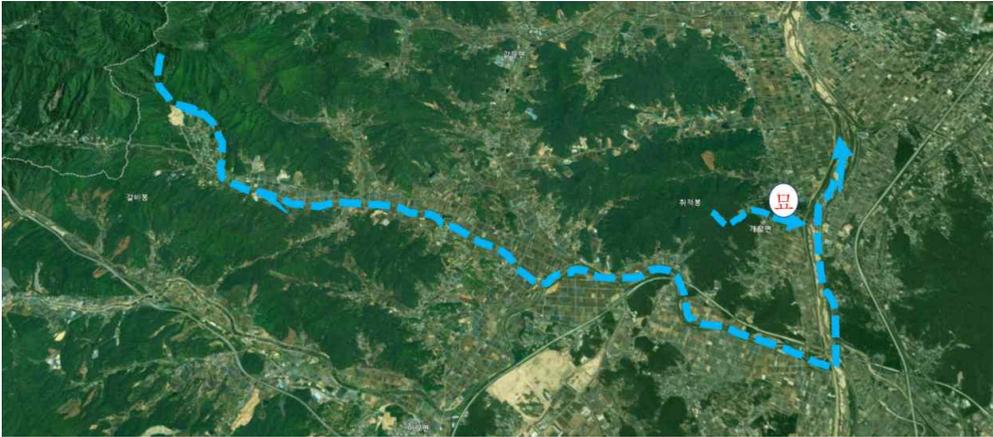
	항 목	내 용	부합도
1	본신용호	본신에서 나온 용호이다.	◎
2	용호상칭	용호의 고저가 비슷하고 유정하다.	◎
3	용호장풍	용호가 장풍을 잘하고 생기보호에 투철하다.	◎
4	용호역관	용호중 하나가 수구의 물을 잘 막아주고 있다.	◎
5	완연순부	청룡이 완연하고, 백호는 순부한다.	◎
6	근안유정	안산이 근소하고 수려하며 회포유정하다.	◎
7	본신안산	본신에서 안산을 이루고 유정하다.	◎
8	안산역수	안산이 역수의 형태를 갖추었다.	◎
9	조산특조	조산이 특조산이다.	☆
10	조산유정	조산이 첨원방평, 단정수려하고 유정하다.	◎
11	고봉독수	빠어난 봉우리 하나가 혈에 유정하다.	☆
12	나성원국	혈을 중심으로 진후좌우 유정하게 환포하였다.	◎
13	하수사	하수사가 좌우선에 따라 역관하였다.	◎
14	수구사	수구에 수구사가 주밀하게 교결관쇄하였다.	◎
15	관귀금요	혈의 주위에 관귀금요가 있다	◎
계			13/13
부합률%			100

## 5) 수법(水法)의 분석

### (1) 수(水)의 발원(發源)

유후조 묘의 발원수 중에 태조산에서 발원한 물은 묘소의 백호방을 크

게 돌아 환포하여 대명당에 이른다. 거리가 대략 18Km이다. 소조산에서 발원한 물은 백호방에서 오는 물이 중명당에 들어오므로 소조산의 발원수가 된다. 발원수의 거리는 대략 2Km이다. 거리는 길고 굴곡하여 느리게 빠져나가므로 양호하다. 부모산의 발원수는 백호쪽의 물길이 혈을 지나므로 백호원신수가 발원수가 된다. 백호변 발원수의 거리는 대략 290m이다. 그리고 청룡변의 원신수는 대략 300m이다. 그러므로 부합지표의 발원수는 부합으로 판단되었다.



<그림 188> 발원수(지도출처:브이월드)

## (2) 수의 도국(到局)과 출구(出口)

유후조 묘의 경우는 <그림 188>의 태조산에서 들어오는 물은 중명당을 지나 대명당에서 합수한다. 이 물줄기는 굴곡하여 느리게 빠져나가며 출구가 보이지 않는다. 소조산에서 들어오는 물은 수차례 굴곡하여 내명당을 지나 태조산에서 도국한 물과 대명당에서 합수하여 빠져 나간다. 내명당 전면의 안산이 역수하여 출구가 매우 긴밀하다. 그러므로 도국과 출구 모두 부합지표에 부합으로 판단하였다.

## (3) 명당길격(明堂吉格)

유후조 묘의 명당은 명당 9길격 중 평탄명당에 해당한다. 묘소 앞으로 단정하고 평탄하게 이루어졌다. 또한 청룡과 안산이 긴밀하게 역수해준다.



<그림 189> 평탄명당(지도출처:브이월드)

그러므로 부합지표에는 부합되었다.

#### (4) 수성(水星)

유후조 묘의 경우 <그림 188>과 같이 완만한 굴곡이 금성형과 수성형으로 이루어졌다. 그러므로 부합지표에 부합되었다.

#### (5) 좌향(坐向)

유후조 묘의 좌향은 해좌사향(亥坐巳向)이다. 오패(午破)가 되면서 팔팔향법에 문고소수(文庫消水)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부합지표에 부합되었다.

#### (6) 수(水)의 부합도

유후조 묘의 수의 부합도는 모든 항목이 부합되어 100%이다.

<표 50> 유후조 묘 수의 부합도

	항 목	내 용	부합도
1	발원	발원수가 멀고 길다.	◎
2	도국	오는 물이 명당에 든다.	◎
3	출구	물이 나가는 곳이 굴곡하고 수구사가 있다.	◎
4	명당길격	명당수의 9길격에 해당한다.	◎

5	수성	수성성이 금이나 수에 해당한다.	◎
6	좌향	88향법의 길향에 해당한다.	◎
계			6/6
부합률(%)			100

## 6) 종합 부합도

유후조 묘의 용혈사수 종합 부합도는 용이 93.3, 혈이 90.9, 사가 100, 수가 100으로 96.1%의 부합률을 보였다.

<표 51> 유후조 묘의 종합 부합도

	항 목	세부지표계산	부합률(%)
1	용	(18-1.2)/18	93.3
2	혈	10/11	90.9
3	사	13/13	100
4	수	6/6	100
계		44.6/48	96.1

## 5. 유주목(柳疇睦) 묘에 대한 분석

### 1) 유주목 묘의 개요

유주목(柳疇睦) 묘의 소재지는 경북 김천시 개령면 서부리 산4 번지이다.

유주목은 조선후기의 학자로 본관은 풍산(豊山) 자는 숙빈(叔斌) 호는 계당(溪堂)이며 유성룡의 9세손이다. 아버지는 좌의정 유후조(柳厚祚)이며 어머니는 연안이씨이다. 1813(순조 13년)에 출생하여 1872(고종 9년) 아버지 유후조보다 4년 일찍 사망하였다.

유주목은 여러 학문에 두루 통달했으며, 문장과 서법에도 상당한 조예가 있었다. 『전례유집(全禮類輯)』은 예학의 집대성이다. 『사칠논변(四七論辨)』은 성리학에 대한 선유들의 견해를 취합하여 편찬한 것이다. 『조야약전(朝野約全)』은 당쟁에 대한 글들을 시대순으로 정리한 것이다.



<그림 190> 유주목 묘소 전경(논자 촬영)

『해동보(海東譜)』는 씨족의 계보를 밝힌 40책 분량의 역작이다. 문집으로는 『계당집(溪堂集)』이 있다. 유주목은 벼슬은 하지 않았다.<sup>110)</sup>

## 2) 용법(龍法)의 분석

### (1) 내룡맥(來龍脈)

앞 절의 유후조와 내룡맥이 같다.

태조산에서 묘소까지 총 길이가 대략 20km이고 소조산에서 자리까지의 거리는 대략 1.5km정도이다. 부모산에서 자리까지의 거리는 대략 350m이다. 부합지표의 용의 구분에서는 방지룡에 해당하므로 0.4를 감하였다.

### (2) 태조산(太祖山)과 소조산(小祖山)

앞 절의 유후조 묘와 태조산이 같다. 그러므로 부합지표의 태조산은 길격이 되어 부합지표에 부합하였다.

<sup>110)</sup>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풍산유씨 대종회 참조.



<그림 191> 태조산(지도출처:브이월드)



<그림 192> 소조산(지도출처:브이월드)

소조산 또한 유후조 묘와 같지만 다른 점은 소조산에서 개장 이후 중출맥으로 천심하였다. 그러므로 부합지표는 부합하였다.

### (3) 부모태식잉육(父母胎息孕育)

유주목 묘의 부모산은 200m 봉우리다. 소조산에서 부모산으로 진행하는 용은 소조산에서 기복과 굴곡을 하고 속기를 강하게 한 후 부모산을 만들고 부모산에서 태식잉육이 매우 잘 만들어 졌다. 토성체의 부모산에서 개장하고 중출맥으로 낙맥하여 잉을 만들고 묘소로 입수한다. 부모산

줄기에서 나온 청룡과 백호가 양호하게 장풍하고 있다. 그러므로 부합지표 항목에서 부합으로 판단되었다.

#### (4) 용의 입수(入首)

유주목 묘의 소조산에서 잉까지의 입수는 소조산의 개장이 잘되었고 중출맥이 되었으며 천심 이후 박환이 잘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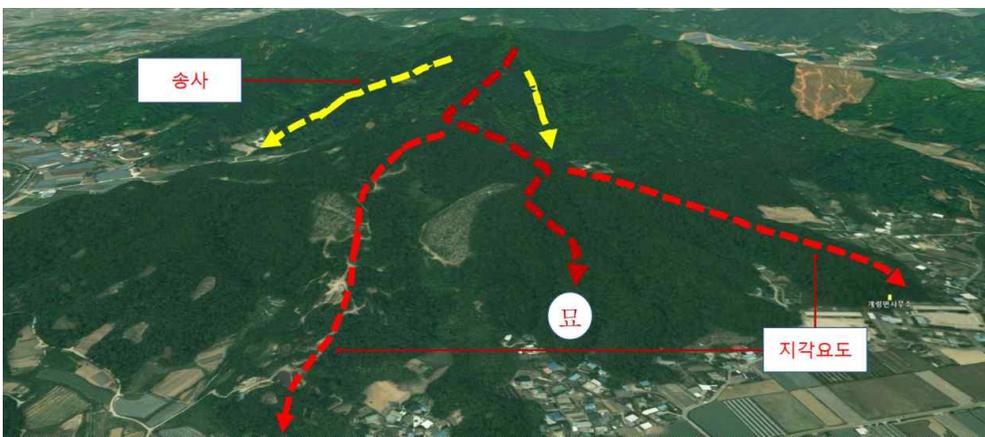
잉에서 혈까지의 입수는 토성체의 부모산에서 태식잉육의 과정이 완벽하다. 그러므로 부합지표에서 입수는 부합으로 판단되었다.

#### (5) 용의 개장(開幃), 박환(剝換), 과협(過峽)

태조산은 개장이 잘되었고 천심은 중출맥이며 천심이후 과협지의 호위가 주밀하게 되었다. 출맥이후 과협과 기복으로 박환은 잘 되어있다. 소조산도 개장이 잘되었고 중출맥이며 부모산을 만들어 개장하고 입수한다.

박환은 소조산에서 잉까지를 본다. 소조산에서 잉까지 기복하고 과협하여 적법하다.

과협은 <그림 191>에서 태조산과 소조산 모두 과협이 나타나며 좌우로 호위가 잘 갖춰져 있다. 그러므로 부합지표에서 개장, 박환, 과협은 모두 부합으로 판단되었다.



<그림 193> 지각요도 및 호송(지도출처:브이월드)

## (6) 지각요도(枝脚橈棹) 및 호송(護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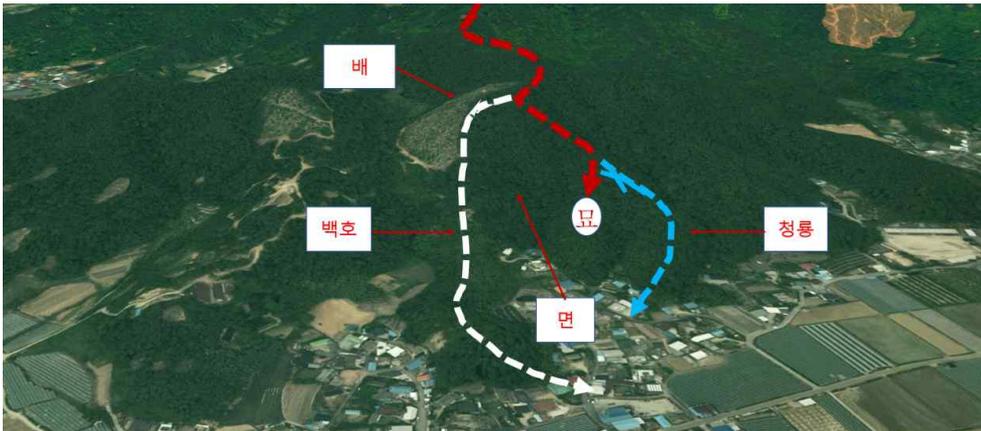
소조산에서 묘소로 들어오는 용에 송사가 있어 튼튼하고 <그림 193>의 지각요도는 숫자는 작지만 튼튼하게 형성되었다. 호종사는 좌우로 잘 갖춰져 있다. 그러므로 부합지표 항목에서 지각요도와 호송은 부합되었다.

## (7) 용의 방정(傍正) 및 노늬(老嫩)

유주목 묘는 <그림 192>의 유후조의 묘로 가는 용이 방룡이 된다. 유주목 묘로 가는 용은 정룡이다. 그러므로 정룡과 방룡의 부합지표는 부합되었다.

노늬에서는 노룡은 박환이 되지 않았거나 박환이 진행중인 용으로 아직 거칠고, 늬룡은 나무의 새로운 가지처럼 가늘고 박환을 마친 용이다. <그림 192>에서 소조산을 지나오면서 박환을 완벽하게 이루어 늬룡이 된다. 그러므로 부합지표 상 노늬는 부합으로 판단되었다.

## (8) 용의 분벽(分擘) 및 배면(背面)



<그림 194> 분벽 및 배면(지도출처:브이월드)

<그림 194>의 분벽을 살펴보면 부모산으로 오기 전 우측으로 분지한 용이 외백호 역할을 하므로 분벽이 아니다.

배면은 <그림 194>에서 묘소로 들어오는 적색용은 개면하고 깨끗하다. 좌우의 청룡과 백호는 깨끗하고 유정하여 면이 된다. 부모산의 후면과 백호 우측면 급경사로 배가 된다. 그러므로 부합지표에서 분벽과 배면은 부합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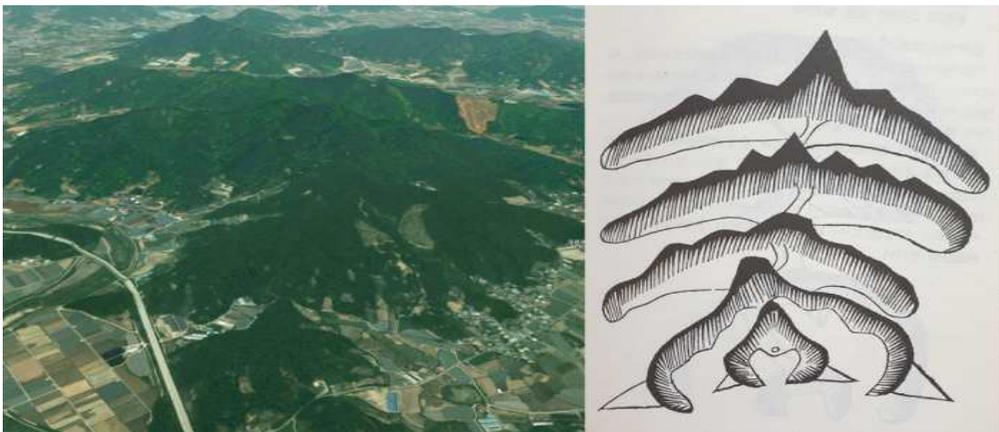
### (9) 용의 빈주(賓主)

이곳의 빈주는 <그림 193>에서 보듯 소조산이 가장 높고 주변의 산들은 낮으면서 유정하게 만들어졌다. 그러므로 빈주는 부합지표에 부합되었다.

### (10) 용의 여기(餘氣)

용의 여기는 혈을 결지한 후 용의 기운이 남아 행룡하여 혈처의 소용이 되거나 다른 혈을 만들기도 한다. 유주목 묘소의 여기는 부모산의 우측으로 뻗어 나간 산이 외백호가 된다. 그러므로 부합지표는 부합되었다.

### (11) 용형세(龍形勢) 및 오성산(五星山)



<그림 195> 강룡(지도출처:브이월드, 그림출처:김동규역 인자수지, 前, p. 557.)

유주목 묘의 경우 용형세는 12격 중 강룡에 해당한다.

오성산은 소조산과 부모산의 오행의 형태로 판단한다. 유주목 묘의 소조산은 목성형이며 부모산은 토성형이다. 소조산은 뾰족하게 솟아있고 부모산은 평평하게 형성되었다. 그러므로 부합지표의 용형세와 오성산은 부합으로 판단하였다.

## (12) 용(龍)의 부합도

유주목 묘의 용의 부합도는 용의 구분에서 감점이 있고 모든 항목에서 부합되어 97.8%이다.

<표 52> 유주목 묘 용의 부합도

	항 목	내 용	부합도
1	용의구분	대간룡~방지룡에서 박환후에 결혈하였다.	○(-0.4)
2	태조산	높고 크고 멀고 특이하며, 주변에서 으뜸가는 산이다.	◎
3	소조산	혈에서 가까우며 제반 귀격과 용격에 합당하다.	◎
4	태식잉육	모든 길격에 맞고, 속기가 잘되고 호위가 주밀하다.	◎
5	입수	혈후의 1-5절 이내가 길격에 해당한다.	◎
6	개장	소조산과 부모산이 개장천심하고 중출맥이다.	◎
7	박환	소조산에서 혈처까지 박환이 잘되었다.	◎
8	과협	소조산에서 혈처까지 과협이 길격이다.	◎
9	지각요도	지각과 요도가 적합하며 귀상이다.	◎
10	호송	호송산이 많고, 대소·원근·고저가 적당하다.	◎
11	방정	정룡에서 혈장을 만들었다.	◎
12	노눈	눈룡으로 혈처로 이어졌다.	◎
13	면배	용의 면에 혈처가 있다.	◎
14	분벽	소조산에서 혈처까지 분벽이 되지 않았다.	◎
15	빈주	빈주의 형세가 비슷하고 정의가 있다.	◎
16	여기	혈을 뺏은 후 여기가 있다.	◎
17	용형세	용형세12격에서 생,강,순,진,복룡 중 하나에 해당한다.	◎
18	오성산	소조산과 부모산이 오성의 금, 목, 토성에 해당한다.	◎
	계		(18-0.4)/18
	부합률(%)		97.8

## 3) 혈법(穴法)의 분석

### (1) 혈(穴)의 사상(四象)

유주목 묘는 혈의 사상 중 어디에 속하는지 살펴본다. 이 자리는 현유혈로 유혈에 해당한다. 유혈은 양 어깨가 튼튼하게 잡아주어야 하고 공결되거나 요절된 것을 꺼린다. 이곳은 부모산에서 낙맥하여 잉을 만들었다. 유형의 선익이 확실하게 지지해주고 있다. 그러므로 부합지표의 혈의 사상은 부합으로 판단하였다.

### (2) 혈형(穴形)

이곳의 묘는 불유회혈에 해당한다. 잉 위에서 갈라진 좌우의 청룡과 백호가 교쇄하지 않는 형태이다.

그리고 유형의 6격 중 장유와 소유에 해당한다. 장유는 유의 길이가 긴 것으로 좌우의 용호가 감싸주고 적당한 위치에 묘소가 자리한다. 소유는 양쪽 어깨 사이의 유가 작은 것을 이르는데 이곳의 소유는 적당하다. 그러므로 부합지표의 혈형은 부합으로 보았다.

### (3) 혈성(穴星)



<그림 196> 부모산의 혈성(논자 촬영)

하였다. 그러므로 부합지표의 혈성은 부합되었다.

혈성은 입수한 산의 형체를 오성으로 구분한 것이다. 오성의 성체가 명백해야 혈을 결지한다고 하였다. 유주목 묘의 오성은 <그림 196>의 부모산과 같이 완만하고 평탄한 토성체로 혈에 대해 유정한 모습으로 혈성을 잘 갖추

### (4) 혈증(穴證)

### ① 조산증혈(朝山證穴)



<그림 197> 조안산(지도출처:브이월드)

유주목 묘의 안산은 부모산에서 백호쪽으로 갈라진 본신룡의 안산이 된다. 백호가 뺏어나가 안산이 되었다. 거리도 적당하고 높이도 가슴 높이에 해당되어 합법이다. 조산은 본신룡으로 백호방으로 길게 뺏어나가 묘소에 공읍하듯 유정하다. 그러므로 조산증혈은 부합지표 항목과 부합으로 판단되었다.

### ② 명당증혈(明堂證穴)



<그림 198> 명당(지도출처:브이월드)

유주목 묘의 소명당은 묘소 아래로 평탄하고 방정하게 이루어져 있다. 소명당으로서 기울어지지 않고 양명하게 되어있다. 소명당 앞으로 전순이 마무리를 잘하고 있다.

중명당은 묘소의 전면으로 평탄하고 백호 안산이 되면서 역수로 막아주고 있다. 크기도 적당하다. 대명당은 광활함을 요하는데 이곳은 중명당에 비해 매우 넓게 형성되어 있고 평탄하다. 그러므로 부합지표의 명당은 부합으로 판단되었다.

### ③ 수세증혈(水勢證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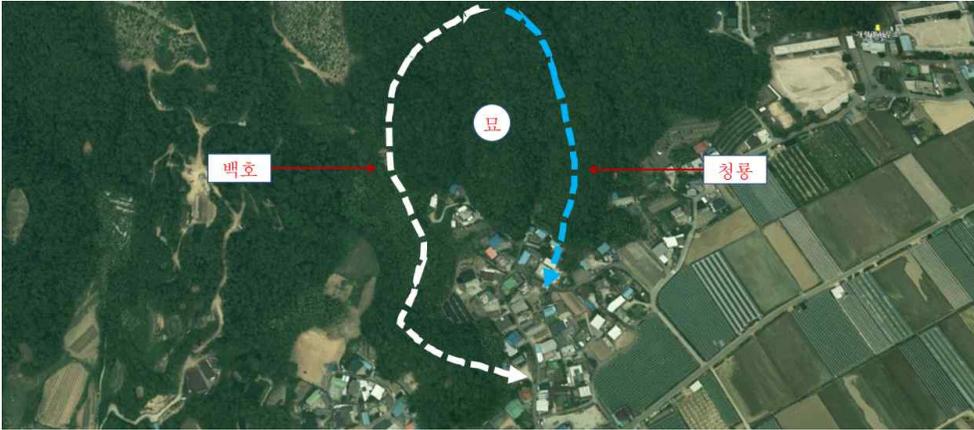


<그림 199> 수세도(지도출처:브이월드)

유주목 묘의 수세는 청룡수와 백호수가 묘소를 지나 중명당에서 합수하여 안산의 안쪽에서 합수한 이후 외백호에서 흘러온 물과 합수한다. 청룡수와 백호수가 비슷한 거리에서 묘소를 지나 <그림 199>의 1차합수 지점에서 만나므로 묘소 위치는 중앙 지점이다. 그러므로 부합지표의 수세증혈은 부합되었다.

### ④ 용호증혈(龍虎證穴)

유주목 묘의 백호변이 청룡에 비해 길다. 청룡이 역수가 된다. 용호의 높낮이가 비슷하고 둘 다 유정하므로 묘소의 위치가 중앙에 있다. 그러므로 부합지표는 부합되었다.



<그림 200> 용호도(지도출처:브이월드)

### ⑤ 전호증혈(纏護證穴)

유주목 묘의 전호는 <그림 200>의 용호도를 보면 부모산에서 갈라진 청룡과 백호가 자리를 유정하게 감싸면서 묘소보다는 길게 뻗어 있다. 이곳은 용호의 중간에 위치하고 높이도 적당하다. 그러므로 이곳의 전호증혈은 부합지표에 합당하다.

### ⑥ 순전증혈(脣氈證穴)



<그림 201> 순전의 순(눈자 촬영)

유주목 묘의 전순은 새의 부리 모양의 순이 되었다. 순의 모양이 평탄하고 단정하며 좁아지면서 마무리를 하고 있다. 순전의 증혈은 합당하다고 판단된다. 그러므로 부합지표는 부합으로 판단하였다.

### ⑦ 천심십도증혈(天心十道證穴)

유주목 묘의 경우는 천심십도는 나타나지 않았다.

### ⑧ 분합증혈(分合證穴)

유주목 묘의 분합은 <그림 199>에서 보듯 청룡방의 물길과 백호방의 물길이 합수하여 소팔자 분합이 있다. 그러므로 부합지표의 분합증혈은 부합되었다.

## (5) 혈(穴)의 부합도

유주목 묘의 혈의 부합도는 천심십도는 부합하지 않았고 나머지는 모두 부합되어 90.9%의 부합률을 보였다.

<표 53> 유주목 묘 혈의 부합도

	항 목	내 용	부합도
1	사상	와검유돌중 하나의 혈상을 이루었다.	◎
2	혈형	와검유돌 혈형의 조건에 부합한다.	◎
3	혈성	입수의 산이 성체를 이루고 정체이다.	◎
4	조산증혈	가까운 안산이 유정하고, 고저원근이 적합하다.	◎
5	명당증혈	명당이 바르고 평평하며, 소, 중, 대명당이 합법이다.	◎
6	수세증혈	혈이 수세의 모임에 적법. 혈처의 좌우고저가 바르다.	◎
7	낙산귀성	횡입수의 혈에 낙산이나 귀성이 있고, 위치가 적법.	☆
8	용호증혈	용호에 따라 혈의 위치가 적합하다.	◎
9	전호증혈	송산의 형태에 맞춰 혈처가 바르다.	◎
10	순전증혈	전순이 적합하게 있다.	◎
11	천심십도	혈을 중심으로 전후좌우에 십자봉이 정위치에 있다.	X
12	분합증혈	삼분삼합이 잘 갖춰져 있다.	◎
	계		10/11
	부합률%		90.9

## 4) 사법(砂法)의 분석

### (1) 청룡(靑龍)과 백호(白虎)

유주목 묘의 용호를 살펴본다. 청룡과 백호 모두 본신룡에서 갈라져 본신용호이다. 본신용호에서는 청룡과 백호 모두 본신에서 나온 것으로 합당하고, 용호상칭에서는 높이가 균일해 부합되었다. 용호장풍은 묘소를 잘



<그림 202> 청룡과 백호(논자 촬영)

감싸서 부합이고, 용호역관은 청룡이 역관하여 합당하며, 완연순부는 적합하였다.

## (2) 조안산(朝案山)



<그림 203> 조안산(지도출처:브이월드)

유주목 묘의 안산은 부모산에서 갈라진 백호가 안산이 되었다. 거리도

적당하고 높기도 적당하다. 근안유정에 부합한다. 본신룡에서 안산이 되어 본신안산 또한 부합한다. 안산이 용호수가 합수하여 순수가 되지 않도록 막아주고 있어 안산역수도 부합이다. 조산은 외백호가 되어 유정하여 조산유정은 부합되었다. 그러므로 부합지표에 모두 합법으로 판단되었다.

### (3) 나성원국(羅城垣局)

유주목 묘의 나성원국은 묘소를 기준하여 전후좌우에서 환포하여 보호가 잘 되었으나 청룡방의 대명당이 약하다 내청룡이 막아주고는 있으나 길이가 조금 짧아 감점요소가 있다. 그러므로 나성원국은 0.1의 감점이 있다.

### (4) 하수사(下手砂)

유주목 묘의 하수사는 <그림 200>의 용호도 상 청룡 끝부분과 백호끝부분이 하수사로 두 개가 존재한다. 백호수가 묘소를 지나가므로 청룡이 역관하여 하수가 되었으며 역수한다. 그러므로 부합지표의 하수사는 부합으로 판단되었다.

### (5) 수구사(水口砂)

이곳의 수구사는 전순의 여기에 여러 개가 존재한다. 그러므로 부합지표의 수구사는 부합되었다.

### (6) 관귀금요(官鬼禽曜)

관귀금요는 혈을 만들고 남은 여기가 혈의 전후좌우에서 나타나는 사를 말한다. 관성은 혈 전면에서 용호의 뒤쪽으로 일으키는 봉우리이고, 귀성은 횡결시에 혈 후에서 만들어지는 사이다. 금성은 수구내의 동물 모양의 수구사를 말하고, 요성은 용호의 팔꿈치 뒤편으로 날카로운 바위가 있는 것을 말한다.



유주목 묘의 수구 내에 금성이 존재한다. 이 금성은 매우 귀한 수구사이다. 그러므로 부합지표의 관귀 금요는 부합되었다.

### (7) 사(砂)의 부합도

<그림 204> 금성(논자 촬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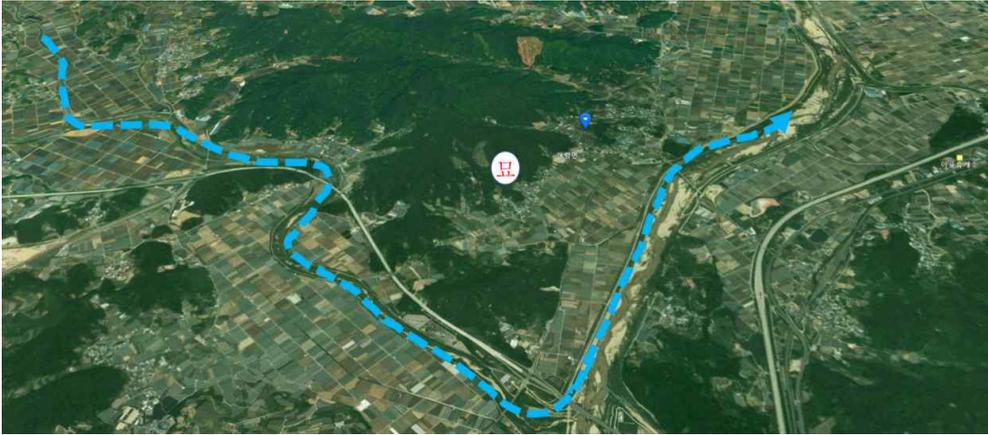
유주목 묘의 사의 부합도는 나성원국에 감점이 있고 나머지 항목이 부합하여 99.2%이다.

<표 54> 유주목 묘 사의 부합도

	항 목	내 용	부합도
1	본신용호	본신에서 나온 용호이다.	◎
2	용호상칭	용호의 고저가 비슷하고 유정하다.	◎
3	용호장풍	용호가 장풍을 잘하고 생기보호에 투철하다.	◎
4	용호역관	용호중 하나가 수구의 물을 잘 막아주고 있다.	◎
5	완연순부	청룡이 완연하고, 백호는 순부한다.	◎
6	근안유정	안산이 근소하고 수려하며 회포유정하다.	◎
7	본신안산	본신에서 안산을 이루고 유정하다.	◎
8	안산역수	안산이 역수의 형태를 갖추었다.	◎
9	조산특조	조산이 특조산이다.	☆
10	조산유정	조산이 첩원방평, 단정수려하고 유정하다.	◎
11	고봉독수	빼어난 봉우리 하나가 혈에 유정하다.	☆
12	나성원국	혈을 중심으로 전후좌우 유정하게 환포하였다.	○(-0.1)
13	하수사	하수사가 좌우선에 따라 역관하였다.	◎
14	수구사	수구에 수구사가 주밀하게 교결관쇄하였다.	◎
15	관귀금요	혈의 주위에 관귀금요가 있다	◎
계			(13-0.1)/13
부합률(%)			99.2

## 5) 수법(水法)의 분석

### (1) 수(水)의 발원(發源)



<그림 205> 발원수(지도출처:브이월드)

유주목 묘의 발원수 중에 태조산에서 발원한 물은 묘소의 백호방을 크게 돌아 환포하여 대명당에 이른다. 거리가 대략 17Km이다. 소조산에서 발원한 물은 백호방에서 오는 물이 대명당에 들어오므로 소조산의 발원수가 된다. 발원수의 거리는 대략 5Km이다. 거리는 길고 굴곡하여 느리게 빠져나가므로 양호하다. 부모산의 발원수는 백호쪽의 물길이 혈을 지나므로 백호원신수가 발원수가 된다. 백호변 발원수의 거리는 대략 450m이다. 그리고 청룡변의 원신수는 대략 320m이다. 그러므로 부합지표의 발원수는 부합으로 판단되었다.

### (2) 수의 도국(到局)과 출구(出口)

유주목 묘의 경우는 <그림 205>의 태조산에서 들어오는 물은 대명당에서 합수한다. 이 물줄기는 여러 차례 굴곡하여 느리게 빠져나가며 출구가 보이지 않는다. 소조산에서 들어오는 물은 수차례 굴곡하여 외백호 후면에서 태조산에서 도국한 물과 합수하여 빠져 나간다. 그러므로 도국과 출구 모두 부합지표에 부합으로 판단하였다.

### (3) 명당길격(明堂吉格)



<그림 206> 평탄명당(지도출처:브이월드)

유주목 묘의 명당은 명당 9길격 중 평탄명당에 해당한다. 중명당과 대명당 모두 단정하고 평탄하게 이루어졌다. 또한 청룡과 안산이 긴밀하게 역수해준다. 그러므로 부합지표에는 부합되었다.

#### (4) 수성(水星)

유주목 묘의 경우 <그림 205>와 같이 완만한 굴곡이 금성형과 수성형으로 이루어 졌다. 그러므로 부합지표에 부합되었다.

#### (5) 좌향(坐向)

유주목 묘의 좌향은 계좌정향(癸坐丁向)이다. 손파(巽破)가 되면서 팔팔향법에 정양향(正養向)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부합지표에 부합되었다.

#### (6) 수(水)의 부합도

유주목 묘의 수의 부합도는 모든 항목이 부합되어 100%이다.

<표 55> 유주목 묘 수의 부합도

	항 목	내 용	부합도
1	발원	발원수가 멀고 길다.	◎

2	도국	오는 물이 명당에 든다.	◎
3	출구	물이 나가는 곳이 굴곡하고 수구사가 있다.	◎
4	명당길격	명당수의 9길격에 해당한다.	◎
5	수성	수성성이 금이나 수에 해당한다.	◎
6	좌향	88향법의 길향에 해당한다.	◎
계			6/6
부합률%			100

## 6) 종합 부합도

유주목 묘의 용혈사수 종합 부합도는 용이 97.8, 혈이 90.9, 사가 99.2, 수가 100으로 97.0%의 부합률을 보였다.

<표 56> 유주목 묘의 종합 부합도

	항 목	세부지표계산	부합률(%)
1	용	(18-0.4)/18	97.8
2	혈	10/11	90.9
3	사	(13-0.1)/13	99.2
4	수	6/6	100
계		46.5/48	97.0

## 6. 노영수(盧永洙) 묘에 대한 분석

### 1) 노영수 묘의 개요

노영수(盧永洙) 묘의 소재지는 대구광역시 동구 신용동 605번지이다.

노영수의 부인 소산옥과 쌍분으로 조성되어 있다. 노영수의 본관은 교하(交河)이고 교하노씨의 시조는 노강필(盧康弼)이다. 노강필은 고려 개국 공신으로 금자광록대부 태자태사(金紫光祿大夫太子太師)를 지냈다. 노영수는 창성군과 공숙공계의 15대손이다. 그의 손자인 노태우가 대한민국 제 13대 대통령이 되었다. 노영수는 1883년 출생하여 1966년 졸하였고 그의 부인 소산옥은 1975년에 졸하였다. 노태우의 부모와 조부모에 대한 기록

이 없다. 이로 보아 평범한 인물이었을 것으로 추정된다.<sup>111)</sup>



<그림 207> 노영수·소산옥 묘 전경(논자 촬영)

## 2) 용법(龍法)의 분석

### (1) 내룡맥(來龍脈)

노영수 묘로 들어오는 내룡맥은 <그림 208>의 낙동정맥에서 갈라진 팔공보현지맥을 따라 서남진하여 팔공산(1193m)을 세운 뒤 동진하여 파계봉(994m)을 세운다. 파계봉에서 남진하여 크게 과협하고 거저산(511m)일으키고 개장 후 남동진하여 낙맥 후 300m 봉우리를 세운 후 묘소로 입수한다. 팔공산이 태조산이 되고 거저산이 소조산이며 300m 봉우리가 부모산이다.

태조산에서 묘소까지 총 길이가 대략 15km이고 소조산에서 자리까지의 거리는 대략 1.5km정도이다. 부모산에서 자리까지의 거리는 대략 100m이다. 부합지표의 용의 구분에서는 방지룡에 해당하므로 0.4를 감하였다.

### (2) 태조산(太祖山)과 소조산(小祖山)

---

111) 성씨닷컴 참조.



<그림 208> 내룡맥(지도출처:신산경표)



<그림 209> 태조산(지도출처:브이월드)

노영수 묘의 태조산은 팔공산(1193m)으로 주변 지역에서 가장 높은 산이며 으뜸이 되는 산이다. 태조산으로서 기세도 강하고 개장도 잘하였다.

천심은 중출맥으로 수차례 기복과 과협을 하고 소조산인 거저산으로 연결되었다. 과협지가 다수가 있으며 호위가 주밀하여 매우 길한 형태이다. 그러므로 부합지표의 태조산은 길격이 되어 부합지표에 부합하였다.

소조산은 거저산(511m)으로 크지는 않지만 기세가 왕성하다. 태조산에서 소조산까지의 행룡은 기복굴곡과 과협이 잘 갖추어 졌고 호종사가 좋



<그림 210> 소조산(지도출처:브이월드)

아 호위가 잘되었다. 중출맥으로 천심이 되었다. 천심 이후 기복과 굴곡 매우 양호하다. 그러므로 부합지표에서 소조산은 부합으로 판단되었다.

### (3) 부모태식잉육(父母胎息孕育)

노영수 묘의 부모산은 300m 봉우리다. 소조산에서 부모산으로 진행되는 용은 소조산에서 중출맥으로 낙맥하여 기복굴곡과 과협하여 부모산을 만들고 부모산에서 태식잉육이 매우 잘 만들어 졌다. 원만한 금성체의 부모산에서 개면하고 낙맥하여 속기 이후 잉을 만들고 묘소로 입수한다. 이곳의 청룡과 백호가 매우 양호하게 장풍하고 있다. 그러므로 부합지표 항목에서 부합으로 판단되었다.

### (4) 용의 입수(入首)

노영수 묘의 소조산에서 잉까지의 입수는 소조산의 개장이 잘되었고 중출맥이 되었으며 천심 이후 박환이 매우 잘되었다.

잉에서 혈까지의 입수는 완만한 금성체의 부모산에서 태식잉육의 과정이 완벽하다. 그러므로 부합지표에서 입수는 부합으로 판단하였다.

### (5) 용의 개장(開障), 박환(剝換), 과협(過峽)

개장 범위는 태조산, 소조산, 부모산으로 3가지를 본다. 먼저 태조산은 개장이 잘되었고 천심은 중출맥이며 천심이후 과협지의 호위가 주밀하게 되었다. 출맥이후 과협과 기복으로 박환은 잘 되어있다. 소조산도 개장이 잘되었고 중출맥이며 기복굴곡과 과협한 후 부모산을 만들어 개면하고 입수한다.

박환은 소조산에서 잉까지를 본다. 소조산에서 잉까지 기복하고 과협하여 적법하다.

과협은 <그림 209>에서 태조산과 소조산 모두 과협은 여러 개가 나타나며 좌우로 호위가 잘 갖춰져 있다. 그러므로 부합지표에서 개장, 박환, 과협은 모두 부합으로 판단되었다.

#### (6) 지각요도(枝脚橈棹) 및 호송(護送)



<그림 211> 지각요도 및 송사(지도출처:브이월드)

소조산에서 묘소로 들어오는 용에 송사가 있어 튼튼하고 지각요도는 숫자는 작지만 튼튼하게 형성되었다. 호송사는 좌우로 모두 잘 갖춰져 있어 호위가 잘되었다. 그러므로 부합지표 항목에서 지각요도와 호송은 부합으로 판단되었다.

#### (7) 용의 방정(傍正) 및 노늬(老嫩)



<그림 212> 정룡과 방룡(지도출처:브이월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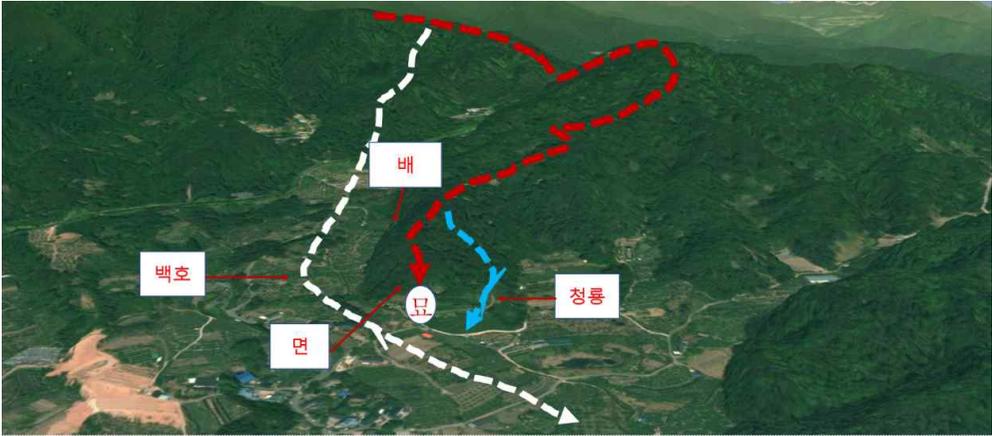
노영수 묘는 그림의 적색용은 정룡이 된다. 황색용은 방룡이다. 정룡으로 묘소로 입수하고 있다. 황색룡은 적색룡의 호종사이다. 그러므로 정룡과 방룡의 부합지표는 부합하였다.

노눈에서는 노룡은 박환이 되지 않았거나 박환이 진행중인 용으로 아직 거칠고, 눈룡은 나무의 새로운 가지처럼 가늘고 박환을 마친 용이다. <그림 212>에서 적색용은 소조산을 지나오면서 박환을 완벽하게 이루어 눈룡이 된다. 백색용은 진행하는 용으로 노룡이다. 그러므로 부합지표 상 노눈은 부합으로 판단되었다.

### (8) 용의 분벽(分擘) 및 배면(背面)

용의 분벽은 방룡과 정룡과는 달리, 정룡이 혈처에 이르기 전에 너무 많은 용으로 분지한 경우 용의 기운이 약해지므로 꺼리게 된다. 그러나 분벽된 분지가 다시 돌아와 청룡이나 백호가 된다든지 역관사가 되는 경우는 다시 길하게 본다. <그림 213>의 분벽을 살펴보면 소조산에서 좌우로 여러 개로 분지하지만 청룡과 백호 역할을 하고 호종사가 되므로 분벽이 아니다.

배면은 <그림 213>에서 묘소로 들어오는 적색용은 개면하고 깨끗하다. 좌우의 청룡과 백호는 묘소보다는 조금 높게 감싸며 깨끗하고 유정하여 면이 된다. 부모산의 후면은 급경사로 배가 된다. 그러므로 부합지표에서



<그림 213> 분벽 및 배면(지도출처:브이월드)

분벽과 배면은 부합되었다.

### (9) 용의 빈주(賓主)

이곳의 빈주는 소조산을 중심으로 안산과 조산이 균형을 잘 이루고 있다. 그러므로 빈주는 부합지표에 부합되었다.

### (10) 용의 여기(餘氣)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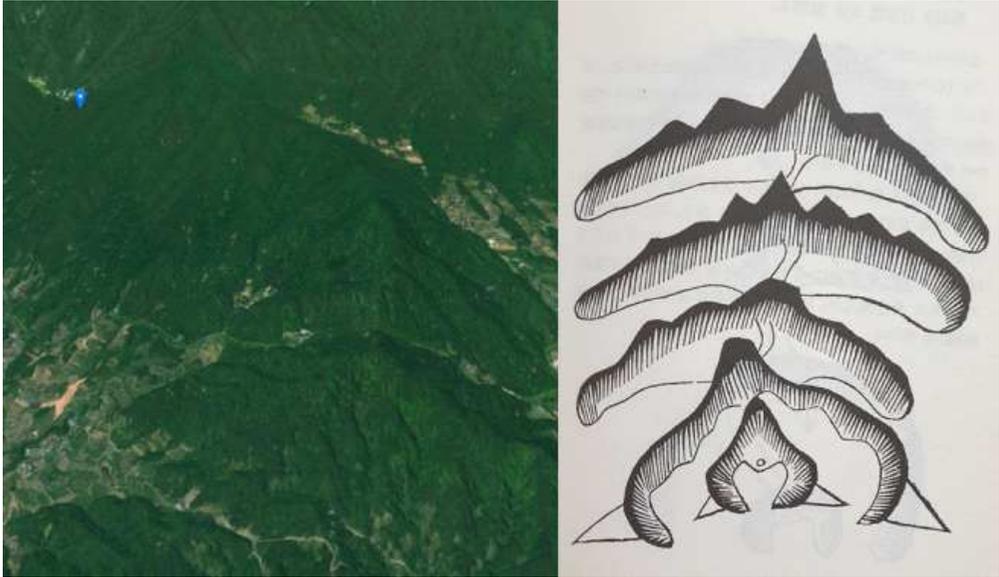
용의 여기는 혈을 결지한 후 용의 기운이 남아 행룡하여 혈처의 소용이 되거나 다른 혈을 만들기도 한다. 노영수 묘소의 여기는 소조산에서 좌측으로 뻗어 나가 한문 수구사 역할을 한다. 그러므로 부합지표는 부합되었다.

### (11) 용형세(龍形勢) 및 오성산(五星山)

노영수 묘의 경우 용형세는 12격 중 강룡에 해당한다.

오성산은 소조산과 부모산의 오행의 형태로 판단한다. 노영수 묘의 소조산은 금성형이며 부모산도 금성형이다. 소조산은 완만하게 둥글고 부모

산 또한 완만하게 형성되었다. 그러므로 부합지표의 용형세와 오성산은 부합으로 판단하였다.



<그림 214> 강룡(지도출처:브이월드, 그림출처:김동규역 인자수지, 前, p. 557.)

## (12) 용(龍)의 부합도

노영수 묘의 용의 부합도는 용의 구분에서 감점을 제외하고 모두 부합되어 97.8%이다.

<표 57> 노영수 묘 용의 부합도

	항 목	내 용	부합도
1	용의구분	대간룡~방지룡에서 박환후에 결혈하였다.	○(-0.4)
2	태조산	높고 크고 멀고 특이하며, 주변에서 으뜸가는 산이다.	◎
3	소조산	혈에서 가까우며 제반 귀격과 용격에 합당하다.	◎
4	태식잉육	모든 길격에 맞고, 속기가 잘되고 호위가 주밀하다.	◎
5	입수	혈후의 1-5절 이내가 길격에 해당한다.	◎
6	개장	소조산과 부모산이 개장친심하고 중출맥이다.	◎
7	박환	소조산에서 혈처까지 박환이 잘되었다.	◎
8	과협	소조산에서 혈처까지 과협이 길격이다.	◎
9	지각요도	지각과 요도가 적합하며 귀상이다.	◎

10	호송	호송산이 많고, 대소·원근·고저가 적당하다.	◎
11	방정	정룡에서 혈장을 만들었다.	◎
12	노눈	눈룡으로 혈처로 이어졌다.	◎
13	면배	용의 면에 혈처가 있다.	◎
14	분벽	소조산에서 혈처까지 분벽이 되지 않았다.	◎
15	빈주	빈주의 형세가 비슷하고 정의가 있다.	◎
16	여기	혈을 맺은 후 여기가 있다.	◎
17	용형세	용형세12격에서 생,강,순,진,복룡 중 하나에 해당한다.	◎
18	오성산	소조산과 부모산이 오성의 금, 목, 토성에 해당한다.	◎
계			(18-0.4)/18
부합률(%)			97.8

### 3) 혈법(穴法)의 분석

#### (1) 혈(穴)의 사상(四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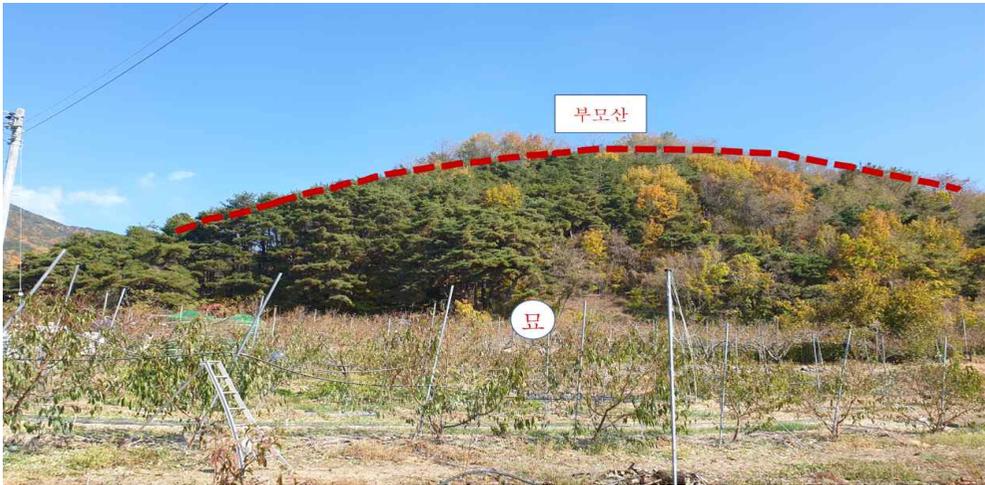
노영수 묘는 혈의 사상 중 어디에 속하는지 살펴본다. 이 자리는 와형(窩形)으로 현릉(弦稜)사가 와를 둘러 싸서 보호가 잘 되어있으며 와내는 평탄하다. 그러므로 부합지표의 혈의 사상은 부합으로 판단하였다.

#### (2) 혈형(穴形)

와형(窩形)의 장구(藏口)와혈은 용호가 교회(交會)하여 감싸고 있다. 심천와(淺窩)와 활와(闊窩)에 해당하여 와가 깊지 않고 개구부위가 넓다. 와를 감싸는 현릉(弦稜)이 명확하게 나타나 있다. 그러므로 부합지표의 혈형은 부합으로 보았다.

#### (3) 혈성(穴星)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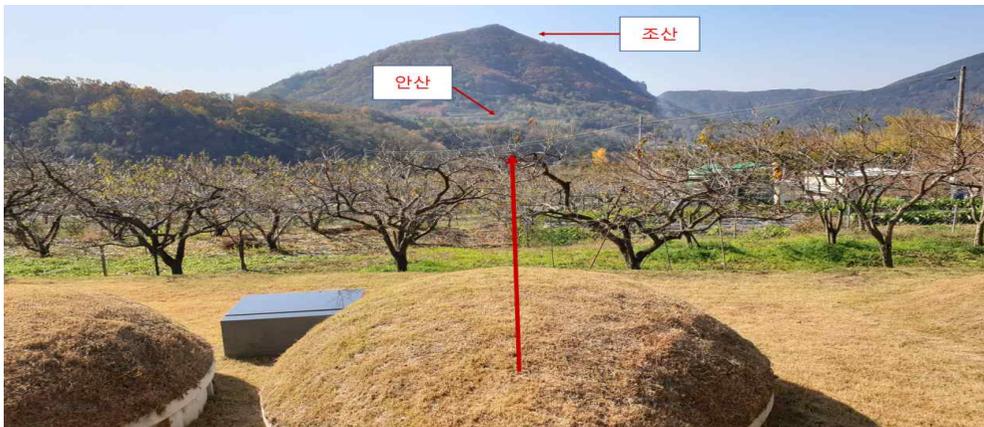
혈성은 입수한 산의 형체를 오성으로 구분한 것이다. 오성의 성체가 명백해야 혈을 결지한다고 하였다. 노영수 묘의 오성은 <그림 215>의 부모산과 같이 완만하고 둥그런 금성체로 혈에 대해 유정한 모습으로 혈성을 잘 갖추었다. 그러므로 부합지표의 혈성은 부합되었다.



<그림 215> 부모산의 혈성(논자 촬영)

#### (4) 혈증(穴證)

##### ① 조산증혈(朝山證穴)



<그림 216> 조안산(논자 촬영)

노영수 묘의 안산은 소조산에서 갈라진 본신룡으로 외청룡이 뺏어나가 안산이 된다. 안산이 단정하고 적당한 거리에 있다. 높이도 가슴 높이에 해당되어 합법이다. 조산은 본신룡이 소조산을 지나 외수구에서 한문 역할도 하면서 목체로 묘소에 공읍하듯 유정하다. 그러므로 조산증혈은 부

합지표 항목과 부합으로 판단되었다.

## ② 명당증혈(明堂證穴)



<그림 217> 명당(지도출처:브이월드)

노영수 묘의 소명당은 묘소 아래로 평탄하고 방정하게 이루어져 있다. 소명당으로서 기울어지지 않고 양명하게 되어있다.

중명당은 묘소의 전면으로 평탄하고 청룡과 백호가 교차 되면서 역수로 막아주고 있다. 대명당은 광활함을 요하는데 이곳은 적당하지만 약간의 경사가 있어 감점요소가 있다. 그러므로 부합지표의 명당은 0.1의 감점이 있다.



<그림 218> 수세도(지도출처:브이월드)

### ③ 수세증혈(水勢證穴)

노영수 묘의 수세는 <그림 218>의 청룡수와 백호수가 묘소를 지나 중명당에서 합수하여 길게 흘러내린 이후 부모산 우측 후면으로 소조산에서 발원한 물과 대명당에서 합수하여 빠져나간다. 청룡에 비해 백호가 묘소를 지나 1차합수 지점에서 만나므로 묘소 위치는 백호쪽으로 약간 치우쳐 있다. 좌선룡에 우선수가 되어 적법하다. 그러므로 부합지표의 수세증혈은 부합되었다.

### ④ 용호증혈(龍虎證穴)



<그림 219> 용호도(지도출처:브이월드)

노영수 묘의 백호변이 청룡에 비해 길다. 용호가 교쇄되어 있다. 백호가 청룡에 비해 가깝고 유정하여 백호변에 가까이 자리가 되었고 용호가 낮으므로 묘소도 낮다. 그러므로 부합지표는 부합되었다.

### ⑤ 전호증혈(纏護證穴)

노영수 묘의 전호는 <그림 219>의 용호도를 보면 부모산에서 갈라진 청룡과 소조산 전에서 갈라진 백호가 자리를 유정하게 감싸면서 묘소보다는 길게 뻗어 있다. 이곳은 외청룡과 외백호가 여러겹 있어 전호사가 되었다. 그러므로 이곳의 전호증혈은 부합지표에 합당하다.

### ⑥ 순전증혈(脣氈證穴)

순전증혈은 용이 혈을 맺고 난 뒤 여기가 남아 혈 아래로 평평하게 붙



<그림 220> 순전의 전(논자 촬영)

은 것으로 이불이나 방석 같은 모양은 전이라 하고, 새의 부리나 사람의 입술 같은 모양은 순이라 한다. 전순이 있고 그 전순이 단정하고 평탄하면 진혈이라 판단한다. 혈 아래로 기가 크면 전이 되고, 작으면 순이 된다.

노영수 묘의 전순은 이불 모양의 전이 되었다. 전의 모양이 평탄하고 단정하며 횡대로 마무리가 잘되어 있어 순전의 증혈은 합당하다고 판단된다. 그러므로 부합지표는 부합으로 판단하였다.

⑦ 천심십도증혈(天心十道證穴)

노영수 묘의 경우는 천심십도는 나타나지 않았다.

⑧ 분합증혈(分合證穴)

노영수 묘의 분합은 <그림 218>에서 보듯 청룡방의 물길과 백호방의 물길이 합수하여 소팔자 분합이 있다. 그러므로 부합지표의 분합증혈은 부합되었다.

(5) 혈(穴)의 부합도

노영수 묘의 혈의 부합도는 천심십도는 부합하지 않았고 나머지는 모두 부합되었으나 명당에서 감점이 있어 90.0%의 부합률을 보였다.

<표 58> 노영수 묘 혈의 부합도

	항 목	내 용	부합도
1	사상	외검유돌중 하나의 혈상을 이루었다.	◎
2	혈형	외검유돌 혈형의 조건에 부합한다.	◎
3	혈성	입수의 산이 성체를 이루고 정체이다.	◎

4	조산증혈	가까운 안산이 유정하고, 고저원근이 적합하다.	◎
5	명당증혈	명당이 바르고 평평하며, 소, 중, 대명당이 합법이다.	○(-0.1)
6	수세증혈	혈이 수세의 모임에 적법. 혈치의 좌우고저가 바르다.	◎
7	낙산귀성	횡입수의 혈에 낙산이나 귀성이 있고, 위치가 적법.	☆
8	용호증혈	용호에 따라 혈의 위치가 적합하다.	◎
9	전호증혈	송산의 형태에 맞춰 혈치가 바르다.	◎
10	순진증혈	진순이 적합하게 있다.	◎
11	천심십도	혈을 중심으로 전후좌우에 십자봉이 정위치에 있다.	X
12	분합증혈	삼분삼합이 잘 갖춰져 있다.	◎
계			(10-0.1)/11
부합률(%)			90.0

#### 4) 사법(砂法)의 분석

##### (1) 청룡(靑龍)과 백호(白虎)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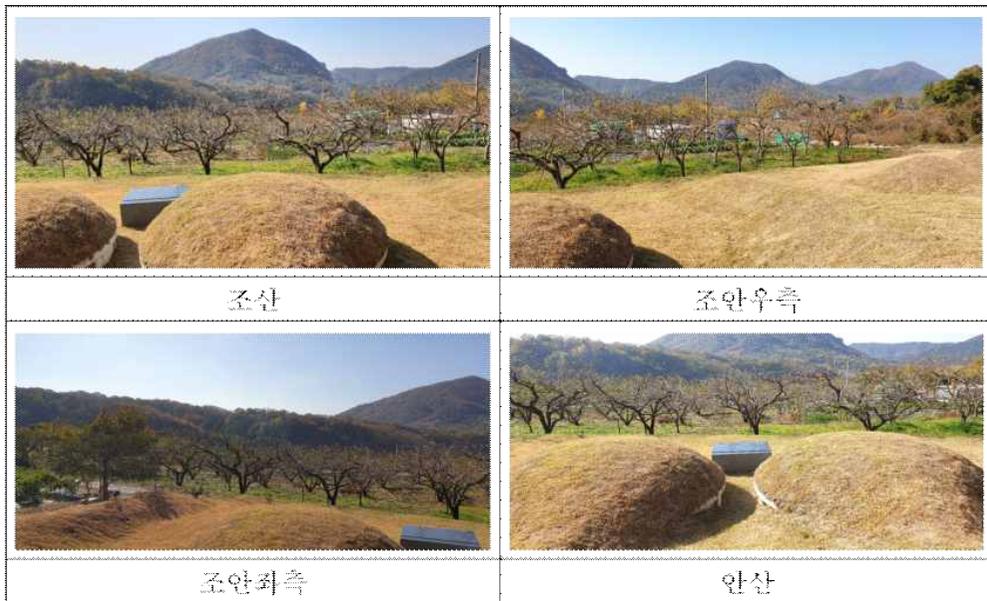


<그림 221> 청룡과 백호(논자 촬영)

노영수 묘의 청룡과 백호 모두 본신룡에서 갈라져 본신용호이다. 본신

용호에서는 청룡과 백호 모두 본신에서 나온 것으로 합당하고, 용호상칭에서는 내청룡과 내백호 그리고 외청룡과 외백호가 여러겹으로 높이가 균일해 부합되었다. 용호장풍은 묘소를 잘 감싸서 부합이고, 용호역관은 청룡이 역관하여 합당하며, 완연순부는 적합하였다.

## (2) 조안산(朝案山)



<그림 222> 조안(논자 촬영)

노영수 묘의 안산은 소조산에서 갈라진 청룡이 안산이 되었다. 거리도 적당하고 높이도 적당하다. 근안유정에 부합한다. 본신룡에서 안산이 되어 본신안산 또한 부합한다. 안산이 용호수가 합수하여 순수가 되지 않도록 막아주고 있어 안산역수도 부합이다. 조산은 본신룡이 진행하여 외수를 잘 막아주고 역수하며 한문이 되어 유정하다. 조산유정은 부합되었다. 그러므로 부합지표에 모두 합법으로 판단되었다.

## (3) 나성원국(羅城垣局)

노영수 묘의 나성원국은 묘소를 기준하여 전후좌우에서 환포하여 보호

가 매우 잘되었다. 그러므로 나성원국은 부합되었다.

#### (4) 하수사(下手砂)

노영수 묘의 하수사는 <그림 219>의 용호도 상 청룡 끝부분이 하수사로 백호수가 묘소를 지나가므로 청룡이 역관하여 하수가 되었으며 역수한다. 그러므로 부합지표의 하수사는 부합으로 판단되었다.

#### (5) 수구사(水口砂)

이곳의 수구사는 그림 외에도 다수가 있다. 그러므로 부합지표의 수구사는 부합되었다.

#### (6) 관귀금요(官鬼禽曜)



<그림 223> 관성(논자촬영)

노영수 묘의 백호 너머로 조산 우측으로 목체의 관성이 두 개 존재한다. 이 관성으로 인해 후손의 관귀가 매우 길하게 된다. 그러므로 부합지표의 관귀금요는 부합되었다.

#### (7) 사(砂)의 부합도

노영수 묘의 사의 부합도는 모든 항목이 부합하여 100%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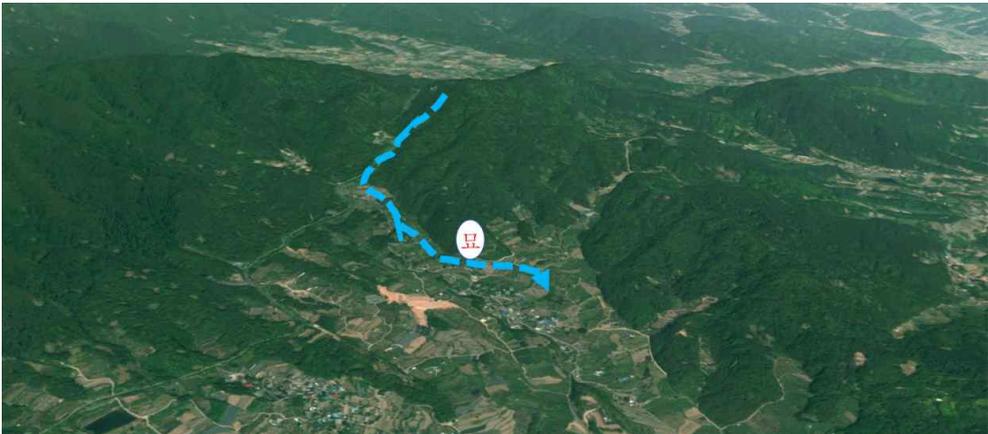
<표 59> 노영수 묘 사의 부합도

	항 목	내 용	부합도
1	본신용호	본신에서 나온 용호이다.	◎
2	용호상칭	용호의 고저가 비슷하고 유정하다.	◎
3	용호장풍	용호가 장풍을 잘하고 생기보호에 투철하다.	◎

4	용호역관	용호중 하나가 수구의 물을 잘 막아주고 있다.	◎
5	완연순부	청룡이 완연하고, 백호는 순부한다.	◎
6	근안유정	안산이 근소하고 수려하며 회포유정하다.	◎
7	본신안산	본신에서 안산을 이루고 유정하다.	◎
8	안산역수	안산이 역수의 형태를 갖추었다.	◎
9	조산특조	조산이 특조산이다.	☆
10	조산유정	조산이 침원방평, 단정수려하고 유정하다.	◎
11	고봉독수	빠어난 봉우리 하나가 혈에 유정하다.	☆
12	나성원국	혈을 중심으로 전후좌우 유정하게 환포하였다.	◎
13	하수사	하수사가 좌우선에 따라 역관하였다.	◎
14	수구사	수구에 수구사가 주밀하게 교결관쇄하였다.	◎
15	관귀금요	혈의 주위에 관귀금요가 있다	◎
계			13/13
부합률(%)			100

## 5) 수법(水法)의 분석

### (1) 수(水)의 발원(發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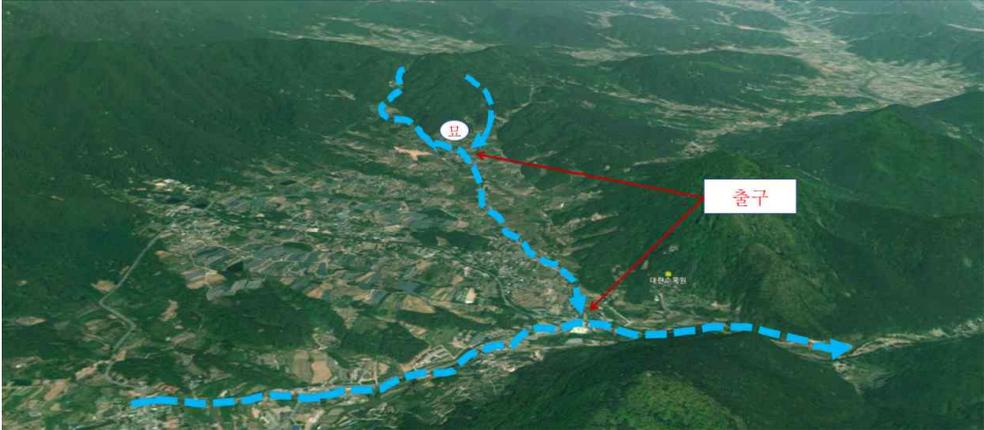


<그림 224> 발원수(지도출처:브이월드)

노영수 묘의 발원수 중에 소조산에서 발원한 물은 백호방에서 오는 물이 증명당에 들어오므로 소조산의 발원수가 된다. 발원수의 거리는 대략 1.5Km이다. 거리는 길지 않으나 굴곡하여 느리게 빠져나가므로 양호하다.

부모산의 발원수는 백호쪽의 물길인 혈을 지나므로 청룡원신수가 발원수가 된다. 청룡의 발원수의 거리는 대략 250m이다. 그러므로 부합지표의 발원수는 부합으로 판단되었다.

## (2) 수의 도국(到局)과 출구(出口)



<그림 225> 도국과 출구(지도출처:브이월드)

노영수 묘의 경우는 소조산에서 들어오는 물은 내명당에서 합수하여 외명당에서 다시 합수한다. 이 물줄기는 여러차례 굴곡하여 느리게 빠져나가며 출구가 긴밀하게 교쇄되었다. 외수와 합수하고 빠져 나가는 곳에 한문이 있어 수구가 최길격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도국과 출구 모두 부합지표에 부합으로 판단하였다.

## (3) 명당길격(明堂吉格)

노영수 묘의 명당은 <그림 226>의 명당 9길격 중 주밀명당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부합지표에는 부합되었다.

## (4) 수성(水星)

노영수 묘의 경우 <그림 225>와 같이 완만한 굴곡이 금성형과 수성형으로 이루어 졌다. 그러므로 부합지표에 부합되었다.



<그림 226> 주밀명당(지도출처:브이월드, 그림출처:김동규역 인자수지, 後, p. 588.)

### (5) 좌향(坐向)

노영수 묘의 좌향은 간좌곤향(艮坐坤向)이다. 정파(丁破)가 되면서 팔팔향법에 자생향(自生向)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부합지표에 부합되었다.

### (6) 수(水)의 부합도

노영수 묘의 수의 부합도는 모든 항목이 부합되어 100%이다.

<표 60> 노영수 묘 수의 부합도

	항 목	내 용	부합도
1	발원	발원수가 멀고 길다.	◎
2	도국	오는 물이 명당에 든다.	◎
3	출구	물이 나가는 곳이 굴곡하고 수구사가 있다.	◎
4	명당길격	명당수의 9길격에 해당한다.	◎
5	수성	수성성이 금이나 수에 해당한다.	◎
6	좌향	88향법의 길향에 해당한다.	◎

계	6/6
부합률%	100

## 6) 종합 부합도

노영수 묘의 용혈사수 종합 부합도는 용이 97.8, 혈이 90.0, 사가 100, 수가 100으로 96.9%의 부합률을 보였다.

<표 61> 노영수 묘의 종합 부합도

	항 목	세부지표계산	부합률(%)
1	용	(18-0.4)/18	97.8
2	혈	(10-0.1)/11	90.0
3	사	13/13	100
4	수	6/6	100
	계	46.5/48	97.0

## 7. 소결

이상 『인자수지』가 간행승인된 이후에 조성된 묘소 각 5개소의 사례지<sup>112)</sup>를 살펴본 결과 부합률이 유주목과 노영수의 묘가 각각 97.0%, 유후조 96.1%, 이희발 91.6%, 서락순 91.6%로 나타났다. 용혈사수의 합계 부합률은 용 94.7%, 혈 90.7%, 사 99.8%, 수 93.3%로 모두 90% 이상의 부합률을 보였다. 특이점은 『인자수지』가 간행 승인된 이후에 조성된 묘소가 이전에 조성된 묘소 보다 전체적으로 높은 부합률로 나타났고 특히 사의 부합률이 99.8%로 거의 완벽에 가까웠다.

<표 62> 인자수지 간행승인 이후 부합률(%)

	사과	서락순	이희발	유주목	유후조	노영수	합계(%)
1	용	92.2	92.2	97.8	93.3	97.8	94.7
2	혈	90.9	90.9	90.9	90.9	90.0	90.7

112) 사례지 5개소는 순수한 학문 연구를 위해 지리적, 시대적 시기가 맞아 선정하였으며, 다른 의도가 전혀 없음을 밝힙니다.

3	사	100	100	99.2	100	100	99.8
4	수	83.3	83.3	100	100	100	93.3
계(%)		91.6	91.6	97.0	96.1	97.0	94.6

## VI. 결 론

『人子須知』 서문에서 서선계(徐善繼)는, 아우인 선술(善述)과 날로 연구를 더해 가면서 여러 설을 모아 절충(折衷)하고 때로는 번잡스러운 이론들을 배어내고 그 요점에 귀의시켰고, 형세방위(形勢方位)를 일가(一家)에 합하여 용혈사수(龍穴砂水)로서 사례(四例)를 삼아 집성일서(輯成一書)하였다. 간단하고 쉽게 파악할 수 있게 하여 학습자에게 편리하도록 하였으니, 책 이름이 『人子須知』이다. 『人子須知』라 한 것은 천하의 자식들로 하여금 각자의 부모를 모시는데 있어 나의 아는 바를 나 혼자만이 아는 것으로 그치지 말 것을 부탁함이다.<sup>113)</sup> 라고 하였다. 서선술(徐善述)의 서문에서는 형세(形勢)와 방위(方位)가 각각 마땅한 바가 있고 천인체용(天人體用)이 서로 어긋나지 않아 효자 자손으로 하여금 선령(先靈)을 안장코자 하는 자는 편견으로 그릇됨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니 일러 『人子須知』이다.<sup>114)</sup> 이 내용에서 방위는 이기(理氣)론을 말한다. 형세(形勢)론과 더불어 이기론도 마땅한 사용처가 있으므로 버려서는 안된다는 의미이다. 또한 풍수지리 학습자나 연구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다수의 이론들을 용혈사수로 분류하여 체계적으로 정리하였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된다. 이 서문에서 저자들의 의도는 부모의 유해를 안장하는데 『人子須知』의 내용을 익혀서 널리 사용하라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서씨 형제가 30년이 넘도록 각고의 노력을 경주하여 완성한 『人子須知』는 이전의 풍수 문헌을 망라하여 수용하고, 오류는 바로잡아 검증을 거쳐 용혈사수로 체계적으로 정리한 것이다. 이 한 권의 풍수 이론으로 풍수지리 현장에 적용이 가능한지 본 논문에서 살펴보았다. 사례지가 10개소로 한정적이라 한계가 있지만, 사례지만 놓고 판단해 보면 충분한 역량이 있다고 사료되었다. 부합지표의 항목을 좀 더 가다듬어 전국의 묘소를 대상으로 분석하여 다수의 결과를 도출한다면 평가지표로서 자리매김할 수 있으리라 기대된다. 이와 관련된 연구는 후일을 기약한다.

113) 서선계, 서선술 저, 김동규 역, 인자수지, 명문당, 2008, P.61~62.

114) 위의 책, P.64.

다음은 연구 요약이다.

Ⅱ장에서 『人子須知』의 내용을 네 과목으로 정리하고, 부합지표 항목을 추출하였다. 저작 시기는 1564년 초간되고 1583년에 중간되어 조선에는 중간된지 100여 년 후 전파되었다. 『人子須知』의 내용을 살펴보면 기존의 풍수서의 내용을 근간으로 하여 용·혈·사·수의 4개 항목으로 분류하여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였으며, 항목별로 그림을 삽입하여 이해를 돕고 있다. 용법(龍法)에서는 18항목을 정리하여 부합지표 중요항목을 추출하였다. 혈법(穴法)에서는 11항목에 대해 이론정리를 하고 지표 항목을 추출하였다. 사법(砂法)에서는 13항목에 대해 정리하여 부합지표 항목을 선별하였다. 수법(水法)에서는 6항목을 정리하여 지표 항목을 추출하였다. 총 48항목으로 부합도 측정을 위한 지표 내용을 도출하였다.

Ⅲ장에서는 조선 시대 음양과 지리학 과시서에 나타난 용혈사수에 대해 알아보았다. 과시서 8권 중 6권이 『人子須知』에 직접적으로 인용되었고, 나머지 두 권의 내용도 일부 포함되었다. 조선 시대 과시서와 『人子須知』의 비교에서는 혈법에서 분류하는 형이 다르게 나타났으나 용, 사, 수의 내용은 비슷한 경우가 많았고 대체로 대동소이(大同小異) 하였다. 더불어 앞장에서 정리된 내용을 바탕으로 부합지표를 도출하였다. 지표의 표기방식과 배점방법에 대해 정리하여 설명하였다.

Ⅳ장에서는 『人子須知』가 조선에서 간행승인 이전에 조성된 묘소 5개소를 선정하여 부합도를 측정하였다. 사례지를 살펴본 결과 신성용 90.7%, 박천 91.2%, 박인로 65.3%, 서학 83.6%, 신유 77.3%의 부합률로 나타났다. 각 묘소의 합산 부합률은 용 81.6%, 혈 87.8%, 사 83.7%, 수 73.3%이다. 5개소의 총합 부합률은 81.6%이다. 박천의 묘가 91.2%로 사례지 중 가장 높은 부합률을 보였고, 박인로 묘가 65.3%로 가장 낮은 부합률을 보였다. 용혈사수 합산은 혈이 87.8%로 가장 높았고, 수가 73.3%로 가장 낮았다. 박천 묘가 높은 부합률을 보인 것은 모든 항목에서 고르게 높은 부합률을 보였기 때문이다. 박인로 묘는 수법에서 33.3%로 낮은 부합률을 보였다. 고려 시대에 조성된 신성용 묘와 박천의 묘가 조선 시대에 조성된 묘소 보다 높은 부합도를 보인 이유는 고려 시대에도 『인자수지』와 비슷한 풍수이론이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조선 시대에는 고려에서 쓰이던 풍수 문헌이나 이론들이 점차 사장되고 지리학 과시서에 쓰이던 문헌들이 유행하면서 조선 중기까지는 불안정한 형태의 이론들이 난

립하였다고 생각된다.

V장에서는 『人子須知』가 간행승인 이후에 조성된 묘소 5개소를 부합 지표에 따라 분석하였다. 사례지를 살펴본 결과 부합률이 유주목과 노영수의 묘가 각각 97.0%, 유후조 96.1%, 이희발 91.6%, 서락순 91.6%로 나타났다. 용혈사수의 합계 부합률은 용 94.7%, 혈 90.7%, 사 99.8%, 수 93.3%로 모두 90% 이상의 부합률을 보였다. 특이점은 『人子須知』가 간행승인 이후에 조성된 묘소가 이전에 조성된 묘소 보다 전체적으로 높은 부합률을 보였다. 특히 사(砂)의 부합률이 99.8%로 거의 완벽에 가까웠다. 사의 부합률이 높게 나타난 이유는 『人子須知』 사법편에서 사에 대해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어 접근하기가 용이하고, 조선 후기로 가면서 일반 평민층에까지 전파되면서 사(砂)에 대한 이론이 일반화되어서라고 볼 수 있다.

『人子須知』의 간행승인 전후의 묘소 5개소를 모두 합한 부합률은 간행승인 되기 전에 조성된 묘소가 81.6%이고, 간행승인 이후에 조성된 묘소 합계 부합률이 94.6%로 13.0%의 차이가 났다. 또한 조선 후기로 갈수록 점차 부합률이 높아지는 추세를 보였다. 『人子須知』의 우월성이 어느 정도 입증되었다고 볼 수 있다. 『人子須知』의 간행승인 전후에 따른 사례지 별 부합도가 13%의 차이를 보인 것은 조선 전기에 유교가 바탕이 되면서 이기론(理氣論)적인 요소가 유행하고, 고려시대 사용하던 풍수이론들을 폐기하면서 풍수지리 이론이 불안정함에 원인이 있다고 추정된다.

본 연구에서 부족한 점은 부합도에 따른 후손의 발복에 대한 부분이다. 이 부분에 대한 연구가 아직 미비하여 묘가 조성된 이후 몇 대까지 영향을 미치는지 알 수 없고, 조상들의 묘 중 고조부모나 증조부모, 조부모, 부모의 묘가 어느 정도로 발복에 관여 하는지도 밝혀지지 않았다. 또한 10개소의 한정된 사례지를 대상으로 전체적인 부합도를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없으므로, 향후 묘가 조성된 이후 후손 발복에 대한 연구와 다수의 사례지에 대한 평가 자료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그러므로 이에 대한 연구가 진척되기를 기대한다.

## 참고문헌

### 1. 단행본

- 곽박 저, 허찬구 역주, 『장서역주』, 비봉출판사, 2005.
- 곽박 저, 오상익 역, 『장경』, 동학사, 1993.
- 김기, 『음양오행설의 이해』, 문사철, 2016.
- 김두규 역, 『착맥부·동림조담』, 비봉출판사, 2015.
- 김두규 역, 『명산론』, 비봉출판사, 2002.
- 김두규, 『우리 풍수 이야기』, 북하우스, 2003.
- 김두규, 『풍수학사전』, 비봉출판사, 2005.
- 김명제, 『무기해』, 명문당, 1994.
- 김재두, 『음양오행의 우주세계』, 대보학당, 2006.
- 노병한, 『고전풍수학원론』, 안암문화사, 2006.
- 박성태 저, 『신 산경표』, 조선일보사, 2006.
- 박시익, 『한국의 풍수지리와 건축』, 일빛, 2014.
- 복응천 저, 신평 역, 『풍수학설심부』, 관음출판사, 1997.
- 서선술, 서선계 저, 김동규 역, 『인자수지』, 명문당, 2008.
- 서선술, 서선계 저, 한송계 역, 『명당전서』, 명문당, 1975.
- 심경호, 『주역철학사』, 예문서원, 1994.
- 심호 저, 허찬구 역, 『지학』, 육일문화사, 2001.
- 양균송 저, 김두규 역, 『감룡경·의룡경』, 비봉출판사, 2010.
- 양계초, 풍우란저, 김홍경 역, 『음양오행설의 연구』, 신지서원, 1993.
- 양형석, 홍성서 역, 『착맥부, 동림조담』, 한국학술정보, 2013.
- 육창수외, 『음양오행설』, 신일북스, 2004.
- 이공원, 『동양학총론』, 에듀존, 2012.
- 이기동, 『하늘의 뜻을 묻다』, 열림원, 2005.
- 장동순, 『역의 과학』, 충남대학출판부, 2006.
- 장백기, 황정원, 『풍수지리요강』, 자유문고, 2014.
- 장용득, 『명당론전집』, 신교출판사, 1976.

- 조인철, 『우리시대의 풍수』, 민속원, 2008.
- 장정환, 『청오경』, 미래, 2007.
- 조정동 저, 신평 역, 『지리오결』, 동학사, 1993.
- 채성우 저, 김두규 역, 『명산론』, 비봉출판사, 2002.
- 최창조 역, 『청오경·금낭경』, 민음사, 1993.
- 최창조, 『한국 자생풍수의 기원, 도선』, 민음사, 2016.
- 최창조, 『한국의 풍수사상』, 민음사, 1984.
- 한중수, 『청오경』, 명문당, 1996.
- 한동석, 『우주변화의 원리』, 행림출판, 1966.
- 호순신 저, 김두규 역, 『지리신법』, 비봉출판사, 2005.
- 村山智順, 『조선의 풍수』, 민음사, 1990.
- 故宮博物院編, 『重刊人子須知資孝地理心學統宗』, 南海, 2000.

## 2. 연구 논문

- 권창근, 「풍수지리에 기반한 영남 명문 생가입지의 분석 및 평가에 관한 연구」, 영남대학교 대학원, 박사논문, 2015.
- 김석희, 「풍수문헌에 나타난 음양에 대한 고찰」, 영남대학교 석사논문, 2019.
- 김혜정, 「인자수지의 문헌적 연구」, 동방문화와 사상, 2019.
- 박광서, 「류성룡의 선대 음·양택에 관한 풍수지리적 연구」, 영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7.
- 박상구, 「조선시대 서원건축 터잡기 및 건물배치의 풍수지리적 해석」, 영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7.
- 박재락, 「중택마을의 풍수적 입지유형과 구조의 계량적 연구」, 영남대학교박사학위논문, 2013
- 송대선, 「풍수비보이론을 적용한 현대주거환경 계획지표 개발에 관한 연구」, 영남대학교 대학원, 박사논문, 2014.
- 양봉환, 「한국 8대 명당에 대한 풍수지리적 분석」, 영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1.
- 윤태중, 「풍수지리의 정혈법에 관한 지리학적 연구」, 대구가톨릭대학교

- 박사학위논문, 2008
- 이훈석, 「음택풍수의 이론과 실제에 관한 연구」, 대구한의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8.
- 이형윤, 성동환, 「풍수서 지리인자수지 산도의 지형표현 연구」, 한국지역지리학회, 2010.
- 장성규, 「조선왕조실록의 풍수지리문헌 연구」, 공주대학교 박사논문, 2009.
- 정재우, 「풍수지리에서 혈의 유형과 특성에 관한 고찰」, 영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3
- 최기훈, 「풍수지리에서 혈의 결지에 관한 연구」(영남지역의 고려시대 시조묘를 중심으로), 영남대학교 석사논문, 2019.
- 한태락, 「지세에서 용의 면배에 관한 연구」, 영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0.
- 홍성서, 「조선시대 음양과 지리학 과시과목의 문헌연구」, 영남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3.
- 홍성서, 「풍수지리에서의 동기감응에 대한 연구」, 영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9.
- 박재락, 「풍수지표를 적용한 정량화 도출에 관한 연구」, 동북아문화연구 제42집, 2015.

### 3. 기타

국토지리정보원 (국토정보맵)  
 문화원형백과  
 브이월드(<https://map.vworld.kr/map>.)  
 성씨닷컴(<http://www.sungssi.com>)  
 카카오맵(<https://map.kakao.com>.)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한국향토문화전자대전

# 『人子須知』 龍·穴·砂·水의 適用에 관한 研究

김 석 희

慶州大學校 大學院

문화재학과

지도교수 도진영, 박상구

## (초록)

본 연구는 중국 명나라 1583년에 발간된 풍수 서적인 『인자수지(人子須知)』의 용(龍)·혈(穴)·사(砂)·수(水)를 풍수 현장에서 적용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인자수지(人子須知)』의 용(龍)·혈(穴)·사(砂)·수(水)를 중심으로 하여 부합지표를 만들었다. 이 부합지표를 이용하여 조선시대 『인자수지(人子須知)』의 간행 승인 시기를 기준하여 이전에 조성된 묘소 5개소를 선정하고, 이후에 조성된 묘소 5개소를 선정하여 부합도를 측정하였다.

『인자수지(人子須知)』는 이전의 풍수 문헌을 집대성하여 용(龍)·혈(穴)·사(砂)·수(水)의 네 과목으로 정리하였다. 다수의 유명인 묘를 검증하고, 그림을 첨부하여 풍수지리의 입문에서 전문서까지의 내용도 아우르고 있다. 풍수 관련 문헌들의 중요한 이론들이 망라되어 있으므로 이론적인 토대를 세우는데 충분한 역량을 갖췄다고 판단되었다.

연구의 목적은 첫째, 『인자수지(人子須知)』의 용혈사수(龍穴砂水)를 고찰하여 이론을 정립하는 것이다. 둘째, 정립된 이론을 바탕으로 부합지표(符合指標)를 개발하는 것이다. 셋째, 부합지표를 적용하여 사례지의 부합도(符合度)를 판단하는 것이다. 넷째, 최종적으로 택지(宅地)의 선정(選定)과 감정(鑑定)에 기여하는 것이다.

연구의 범위는 첫째, 연구대상의 범위는 집과 묘 중 묘로 한정하였다. 묘로

한정한 이유는 『인자수지(人子須知)』가 묘를 위주로 저술된 문헌이기 때문이다. 둘째, 이론적인 범위는 『인자수지(人子須知)』에 기재된 용·혈·사·수(龍·穴·砂·水)의 내용을 바탕으로 이론 정립을 하였다. 조선시대 풍수지리 과시서에 나타난 용혈사수(龍穴砂水)는 참고하였다. 셋째, 공간적인 범위는 경북지역에 소재하는 묘로 한정하였다. 경북지역을 선택한 이유는 다수의 지맥이 존재하여 타 지역보다는 다양한 지맥들이 있어 연구에 다양성을 주기 때문이다. 넷째, 시간적인 범위는 『인자수지(人子須知)』의 조선시대 간행 승인 시기인 1742년을 기점으로 하여 승인 이전에 조성된 묘소 5개소와 승인 이후에 조성된 묘소 5개소를 선정하였다. 고려중기와 말기에 조성된 묘소 2개소와 조선시대에 조성된 묘소 7개소 그리고 근대에 조성된 묘소 1개소를 선정하였다.

연구 결과 『人子須知』의 간행승인 전후의 묘소 5개소를 모두 합한 부합률은 간행 승인되기 이전에 조성된 묘소가 81.6%이다. 간행 승인 이후에 조성된 묘소 합계 부합률이 94.6%이다. 13.0%의 차이가 났다. 또한 조선후기로 갈수록 점차 부합률이 높아지는 추세를 보였다.

『인자수지(人子須知)』 도입 이후에 조성된 묘지는 이전에 조성된 묘지보다 전체적으로 높은 부합률을 보였다. 특히 사(砂)의 부합률은 99.8%로 완벽에 가까웠다.

이상의 연구 결과 『인자수지(人子須知)』가 풍수지리 평가지표로 활용될 수 있으며, 이론적 우수성이 어느 정도는 입증되었다고 판단된다.

본 연구에서 부족한 점은 부합도에 따른 후손의 발복에 대한 부분이다. 이 부분에 대한 연구가 아직 미비하여 묘가 조성된 이후 몇 대까지 영향을 미치는지 알 수 없다. 조상들의 묘 중 고조부모나 증조부모, 조부모, 부모의 묘가 어느 정도로 발복에 관여 하는지도 밝혀지지 않았다. 또한 10개소의 한정된 사례지를 대상으로 전체적인 부합도를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없었다. 향후 묘가 조성된 이후 후손 발복에 대한 연구와 다수의 사례지에 대한 평가 자료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그러므로 이에 대한 연구가 진척되기를 기대한다.

주제어: 풍수, 풍수지리, 인자수지, 용혈사수, 부합지표.

# A Study on the Application of Yong·Hyeol·Sa·Su(龍·穴·砂·水) in 『Injasuji(人子須知)』

Kim Seok-Hui

Department of Culture Assets  
The Graduate School  
Gyongju University

Supervised by Professor Do Jin-Young, Park Sang-Gu

## (Abstract)

This study is to apply the *Yong·Hyeol·Sa·Su*(龍·穴·砂·水) of 『*Injasuji*(人子須知)』, a feng shui book published in 1583 in the Ming Dynasty of China, to the field of feng shui. To this end, a matching index was created focusing on *Yong·Hyeol·Sa·Su*(龍·穴·砂·水) in 『*Injasuji*(人子須知)』. Using this conformity index, 5 tombs built before were selected based on the publication approval period of 『*Injasuji*(人子須知)』 in the Joseon Dynasty, and 5 tombs built later were selected to measure the degree of conformity. .

『*Injasuji*(人子須知)』 is a collection of previous feng shui literature and organized into four subjects: *Yong·Hyeol·Sa·Su*(龍·穴·砂·水). A large number of celebrity graves are verified, and pictures are attached to cover the contents from introductory to feng shui to specialized books. Since important theories of feng shui-related literature were covered, it was judged that it had sufficient capacity to establish a theoretical foundation.

The purpose of the study is, first, to establish a theory by examining the *Yong·Hyeol·Sa·Su*(龍·穴·砂·水) in 『*Injasuji*(人子須知)』. Second, it is to develop a matching index based on the established theory. Third, it is to determine the degree of conformity of the case site by applying the

conformance index. Fourth, it contributes to the final selection and appraisal of the housing site.

The scope of the study First, the scope of the research subject was limited to the graveyard among houses and graveyards. The reason for limiting it to the graveyard is that 『*Injasuji*(人子須知)』 is a literature written mainly on graveyards. Second, the theoretical scope was established based on the contents of *Yong·Hyeol·Sa·Su*(龍·穴·砂·水) described in 『*Injasuji*(人子須知)』, Referenced *Yong·Hyeol·Sa·Su*(龍·穴·砂·水). Third, the spatial scope was limited to cemeteries located in the Gyeongbuk area. The reason why the Gyeongbuk region was selected is that there are many leylines and there are more diverse leylines than other regions, giving diversity to the study. Fourth, as for the temporal scope, starting from 1742, when 『*Injasuji*』 was approved for publication in the Joseon Dynasty, 5 tombs built before approval and 5 tombs built after approval were selected. Two tombs built in the middle and late Goryeo, 7 tombs built in the Joseon Dynasty, and 1 tomb built in modern times were selected.

As a result of the study, the matching rate of all five tombs before and after approval for publication of 『*Injasuji*人子須知』 was 81.6% for the tombs built before approval for publication. The total compliance rate of the tombs created after publication approval is 94.6%. There was a difference of 13.0%. In addition, the matching rate gradually increased toward the late Joseon Dynasty.

Graveyards built after the introduction of 『*Injasuji*(人子須知)』 showed a higher matching rate overall than graveyards built before. In particular, the matching rate of *Sa*(砂) was 99.8%, which was close to perfect.

The results of the study above indicate that 『*Injasuji*人子須知』 can be used as a feng shui evaluation index, and its theoretical excellence has been proven.

What is lacking in this study is the part about the generation of descendants according to the degree of matching. Since research on this part is still insufficient, it is unknown how many generations it will affect after the tomb is created. It is not known to what extent the graves of great-great-grandparents, great-grandparents, grandparents, and parents among the tombs of ancestors are involved in the birth. In addition, it was not possible to objectively judge the overall degree of conformity targeting

the limited case sites of 10 sites. It is thought that there is a need for a study on the birth of descendants after the tomb was built and evaluation data on a number of case sites. Therefore, it is hoped that research on this will progress.

Keywords: Feng shui, Pungsujiri, 『Injasuji(人子須知)』, Yong·Hyeol·Sa·Su (龍·穴·砂·水), matching index(符合指標).